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이삼식 외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실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발간위원회위원장 : 김기수(국립중앙도서관)
위원장 : 김기수(국립중앙도서관)
위원 : 김기수(국립중앙도서관)
위원 : 김기수(국립중앙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6-07-01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06-07-02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3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06-07-04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06-07-05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6-07-06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 관 연 구 기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안나 연구위원	도세록 부연구위원
			윤홍식 교수	이윤석 교수
			신인철 선임연구위원	김필숙 연구위원
			김정연 연구위원	임주연 연구위원
협 력 연 구 기 관	한국교원대학교	김태현 교수	손준종 교수	김지경 교수
			박강용 연구사	김혜환 연구위원
	한국여성개발원	박수미 연구위원	오은진 연구위원	박기남 교수
			문현아 연구위원	
협 력 연 구 기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조남훈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교수
			김경래 선임연구위원	유혜영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연구위원	정미경 부연구위원	박종효 부연구위원
			김태은 부연구위원	한세리 연구조원

발 간 사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 최저인 1.1명 수준의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저출산현상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시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과 세대간 인구규모의 격차로 인하여 향후 노인인구는 필연적으로 급증하는 반면, 이들 노인을 부양할 노동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급증하는 중·후기 고령층인구의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등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그 중에서도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에는 성(性)에 대한 의식과 이해가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가치관들은 “옳고 그름”이나, “정상적 또는 비정상적” 여부를 떠나 적어도 결혼과 자녀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결혼·가족·자녀·성평등·성 등 제 가치관의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협동연구」의 세부연구과제들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즉, 본 자료를 활용하여 친 결혼관, 친 자녀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규명하고, 출산력 수준의 회복과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모형을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가치관을 겸비토록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성교육 방안을 마련하며, 이들에 대한 학교교육을 통한 전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의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관련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및 교육기관의 담당관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우선 본 협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진에 감사드린다.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위해 협조해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정책본부), 교육인적자원부, 각급 교육청 및 132개 표본학교의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정경희 박사와 김미숙 박사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23
국문초록	2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31
제3절 연구방법	33
제2장 이론적 고찰	35
제1절 가치와 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35
제2절 가족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37
제3절 결혼가치관에 관한 고찰	40
제4절 자녀가치관에 관한 고찰	45
제5절 성평등 및 성역할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48
제6절 성가치관 및 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51
제3장 조사 설계 및 조사대상 특성	54
제1절 조사설계	54
제4장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	71
제1절 문제제기	71
제2절 가족가치관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73
제3절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	91
제4절 청소년의 가족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	96
제5절 청소년 가족관의 시사점	101

제5장 청소년의 결혼 가치관	104
제1절 문제제기	104
제2절 결혼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05
제3절 이상적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09
제4절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16
제5절 자신의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50
제6절 청소년 결혼관의 시사점	160
제6장 청소년의 자녀 가치관	164
제1절 문제제기	164
제2절 자녀필요성과 자녀수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65
제3절 자녀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70
제4절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204
제5절 육아관련 학교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21
제6절 청소년의 자녀관의 시사점	223
제7장 청소년의 성역할과 성평등 가치관	226
제1절 문제제기	226
제2절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28
제3절 부부역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36
제4절 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45
제5절 부모의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63
제6절 청소년의 성역할관·성평등관의 시사점	267
제8장 성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73
제1절 문제제기	273
제2절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	274
제3절 성관련 청소년의 가치관	275
제4절 성교육 및 성상담 실태	279

제5절 청소년의 성관련 지식수준	286
제6절 출산관련 학교교육 실태	295
제7절 시사점	298
제9장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302
제1절 문제제기	302
제2절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303
제3절 저출산·고령화 현상관련 학교교육 실태	307
제4절 노인 부양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308
제5절 청소년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태도의 시사점	310
제10장 학교교육의 효과성 분석	312
제1절 개요	312
제2절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314
제3절 학교 성교육이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315
제11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317
참고문헌	329
부 록	337

표 목 차

〈표 2- 1〉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39
〈표 3- 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56
〈표 3- 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57
〈표 3- 3〉	지역별 표본 학교수	57
〈표 3- 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58
〈표 3- 5〉	조사항목 분류 체계	61
〈표 3- 6〉	지역별 조사결과	62
〈표 3- 7〉	성별 조사결과	62
〈표 3- 8〉	조사대상 학생의 학교 특성	63
〈표 3- 9〉	조사대상 학생의 개인적 특성	64
〈표 3-10〉	조사대상 학생의 가족적 특성	66
〈표 3-11〉	조사대상 학생의 부모 특성	68
〈표 3-12〉	조사대상 학생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상태	70
〈표 4-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	74
〈표 4- 2〉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	75
〈표 4- 3〉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 (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77
〈표 4- 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 (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78
〈표 4- 5〉	“압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압양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79

〈표 4- 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입양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80
〈표 4- 7〉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재혼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81
〈표 4- 8〉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재혼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82
〈표 4- 9〉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동거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83
〈표 4-10〉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동거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84
〈표 4-11〉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라는 국제결혼에 관한 초(5·6학년)· 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86
〈표 4-12〉	가족가치관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종합비교	87
〈표 4-13〉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의식: 개인적 특성별	91
〈표 4-14〉	다양한 가족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93
〈표 4-15〉	초(5·6학년)·중·고 학생이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 발생 이유	95
〈표 4-16〉	초(5·6학년)·중·고 학생의 가족 내용을 배운 학교 교과목(복수응답)	96
〈표 4-17〉	초(5·6학년)·중·고 학생들이 가족에 관한 배운 내용(복수응답)	98
〈표 4-18〉	초(5·6학년)·중·고 학생의 가족관련 수업 후 생각	100
〈표 5- 1〉	결혼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06
〈표 5- 2〉	결혼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08
〈표 5- 3〉	이상적 남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11
〈표 5- 4〉	이상적 남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12
〈표 5- 5〉	이상적 여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14
〈표 5- 6〉	이상적 여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15
〈표 5- 7〉	이상적 남녀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비교: 학교급·학년별 평균연령	116

〈표 5- 8〉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18
〈표 5- 9〉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19
〈표 5-10〉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20
〈표 5-11〉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21
〈표 5-12〉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22
〈표 5-13〉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24
〈표 5-1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25
〈표 5-15〉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26
〈표 5-16〉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27
〈표 5-17〉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28
〈표 5-18〉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30
〈표 5-19〉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31
〈표 5-20〉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32

〈표 5-21〉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33
〈표 5-22〉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35
〈표 5-23〉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36
〈표 5-24〉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37
〈표 5-25〉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38
〈표 5-26〉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40
〈표 5-27〉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41
〈표 5-28〉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42
〈표 5-29〉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44
〈표 5-3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45
〈표 5-31〉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46
〈표 5-32〉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종합: 긍정적 태도(매우찬성+찬성비율) ...	148
〈표 5-33〉	청소년의 향후 결혼 의향: 개인적 특성별	151
〈표 5-34〉	청소년의 향후 결혼 의향: 가족적 특성별	153
〈표 5-35〉	학생의 배우자 조건(1순위): 개인적 특성별	155
〈표 5-36〉	학생의 배우자 조건(1순위): 가족적 특성별	159
〈표 6-1〉	자녀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66

〈표 6-2〉 자녀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67
〈표 6-3〉 본인의 형제자매수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학교급별	169
〈표 6-4〉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71
〈표 6-5〉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72
〈표 6-6〉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74
〈표 6-7〉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75
〈표 6-8〉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77
〈표 6-9〉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78
〈표 6-1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79
〈표 6-11〉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80
〈표 6-1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82
〈표 6-1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83
〈표 6-14〉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85
〈표 6-15〉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86
〈표 6-1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87

〈표 6-1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89
〈표 6-1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90
〈표 6-19〉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91
〈표 6-20〉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93
〈표 6-21〉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94
〈표 6-22〉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196
〈표 6-23〉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197
〈표 6-24〉 자녀관련 가치관 비교: 긍정적인 태도(찬성+매우 찬성) 비율 ..	198
〈표 6-25〉 자녀가치에 관한 남녀간 태도 비교(종합)	202
〈표 6-26〉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개인적 특성별	205
〈표 6-27〉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가족적 특성별	206
〈표 6-28〉 청소년의 희망자녀수: 개인적 특성별	208
〈표 6-29〉 청소년의 희망자녀수: 형제자매 특성별	210
〈표 6-30〉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희망자녀 수(출산의향 자녀 수)	211
〈표 6-31〉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개인적 특성별	214
〈표 6-32〉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가족적 특성별	216
〈표 6-33〉 청소년의 자녀출산 불원 이유: 개인적 특성별	217
〈표 6-34〉 청소년의 자녀출산 불원 이유: 가족적 특성별	219
〈표 6-35〉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희망시 성 선호 여부	220
〈표 6-36〉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던 경험	221
〈표 6-37〉 남자도 육아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	222

〈표 7- 1〉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229
〈표 7- 2〉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230
〈표 7- 3〉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	232
〈표 7- 4〉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233
〈표 7- 5〉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235
〈표 7- 6〉	부 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236
〈표 7- 7〉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237
〈표 7- 8〉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238
〈표 7- 9〉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239	
〈표 7-10〉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	241
〈표 7-11〉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242
〈표 7-12〉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243
〈표 7-13〉	일반적인 부부 역할에 대한 학생의 태도	245
〈표 7-14〉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	247
〈표 7-15〉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	250
〈표 7-16〉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252
〈표 7-17〉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255

〈표 7-18〉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257
〈표 7-19〉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259
〈표 7-20〉 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종합 비교	261
〈표 7-21〉 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비교(성평등점수): 학교급·성별	262
〈표 7-22〉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264
〈표 7-23〉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266
〈표 8- 1〉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	275
〈표 8- 2〉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276
〈표 8- 3〉 여성의 혼전 순결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77
〈표 8- 4〉 혼전임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278
〈표 8- 5〉 학생이 경험한 성교육 내용(복수응답)	280
〈표 8- 6〉 학생의 성교육 도움 정도	281
〈표 8- 7〉 학생의 성교육 이외 성에 대한 정보	283
〈표 8- 8〉 학생의 성문제 상담 대상자	285
〈표 8- 9〉 피임방법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286
〈표 8-10〉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288
〈표 8-11〉 성병, 에이즈 예방 방법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289
〈표 8-12〉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290
〈표 8-13〉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291
〈표 8-14〉 청소년의 성관련 지식수준 종합비교	293
〈표 8-15〉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 담당 과목(복수응답)	296
〈표 8-16〉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생각 변화	298
〈표 9- 1〉 청소년인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 원인	304
〈표 9- 2〉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유	305
〈표 9- 3〉 청소년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정책 인지도	306
〈표 9- 4〉 청소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관련 교육 경험 유무	307

〈표 9- 5〉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조부모 동거 의향	308
〈표 9- 6〉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부양 의식	309
〈표 10-1〉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특성과 척도: 학교교육이 학생의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	313
〈표 10-2〉 회귀분석 결과: 학교교육이 학생의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β)	314
〈표 10-3〉 회귀분석 결과: 학교교육이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β) ...	316

그림목차

[그림 4-1] 학교급별 가족가치관에 관한 초(5·6학년)·중·고 남녀학생간 성차 ...	89
[그림 4-2] 학교급·학년별 가족가치관에 관한 학생의 태도 차이: 찬성비율	90
[그림 5-1] 생애경로 이행과정별 결혼관련 청소년의 태도 비교	148
[그림 5-2] 학교급 및 성별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종합비교	149
[그림 5-3]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초(5·6학년)·중·고 학생 전체 ...	156
[그림 5-4]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초등학교생(5·6학년)	156
[그림 5-5]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중학생	157
[그림 5-6]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고등학생	157
[그림 6-1] 생애경로별 자녀가치관 변화: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비율 ...	199
[그림 6-2] 자녀가치에 관한 남녀비교: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203
[그림 6-3] 생애경로 단계별 희망자녀수 분포	212
[그림 6-4] 생애경로 단계별 평균 희망자녀수	212
[그림 8-1] 학교급별 성관련 지식수준의 남녀 차이	294

부표목차

〈부표 1-1〉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	339
〈부표 2-1〉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문제 심각성	340
〈부표 2-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용 개선 필요성	341
〈부표 2-3〉	출산 및 가족 가치관 교육 강화 필요성	341
〈부표 2-4〉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국가의 필요성	342
〈부표 3-1〉	출산(인구포함) 관련 내용 가르침 경험 여부	342
〈부표 3-2〉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	343
〈부표 3-3〉	출산(인구포함)관련 내용의 학생 수준 및 흥미 유발의 적합성 ...	343
〈부표 3-4〉	출산(인구포함) 관련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 정도 ...	344
〈부표 3-5〉	출산(인구포함) 관련 교과 내용 분량의 교육목표 달성에 적절성 ...	344
〈부표 3-6〉	출산(인구포함)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사진·도표의 적절성 ...	345
〈부표 3-7〉	출산(인구포함)에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	345
〈부표 4-1〉	가족 관련 가르침 경험 여부	346
〈부표 4-2〉	가족 관련 교과서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	346
〈부표 4-3〉	가족 관련 교과서 내용의 학생 수준과 흥미유발의 적합성 ...	347
〈부표 4-4〉	가족 관련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 정도	347
〈부표 4-5〉	가족 관련 교과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 달성하기에 적절성	348
〈부표 4-6〉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사진·도표의 적절성	348
〈부표 4-7〉	가족에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	349
〈부표 4-8〉	가족 형태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349
〈부표 5-1〉	출산(인구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이 적절한 교과목 (복수응답) ...	350
〈부표 5-2〉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 시기 적절성(복수응답)	350
〈부표 5-3〉	학교에서 출산 친화적 교육이 적절한 시기	351

〈부표 5-4〉	학교에서 가족 친화적 교육이 적절한 시기	351
〈부표 5-5〉	출산(인구포함) 관련 교육내용 개선방향	352
〈부표 5-6〉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 시 고려 사항	352
〈부표 5-7〉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	353
〈부표 6-1〉	성교육 관련 내용 가르침 유무	353
〈부표 6-2〉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이수 경험	354
〈부표 6-3〉	성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길러주는데 적절성 여부	354
〈부표 6-4〉	성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수준 적합성 여부 ..	355
〈부표 6-5〉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 정도에 대한 교사의 태도	355
〈부표 6-6〉	성교육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	356
〈부표 7-1〉	일반적 가치에 대한 교사의 태도	356
〈부표 8-1〉	교사의 성평등의식	357
〈부표 9-1〉	결혼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태도	358
〈부표 9-2〉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견해	359
〈부표 9-3〉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360
〈부표 9-4〉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360
〈부표 9-5〉	남자가 35세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흠이 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361
〈부표 9-6〉	여자가 35세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흠이 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361
〈부표 10-1〉	결혼 및 직장생활에서 겪은 애로사항	362
〈부표 10-2〉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과 자녀양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	363
〈부표 10-3〉	교직이 자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363

〈부표 11-1〉	사람들이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사의 견해	364
〈부표 11-2〉	사람들이 결혼 후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교사의 견해	365
〈부표 11-3〉	사람들이 자녀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견해	366

Abstract

2006 National Survey on Values of Marriage,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for the Youth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n Korea has been a result of interaction betwee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change on Koreans' value system. The value system can be affected not only by socio-economic environments but also by family life and school life. Thus, identifying the value systems of children at schools is of great importance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at conducting 'National Survey on Values of Marriage,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for the Youth', analyzing their value in depth, and accommoda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The survey covered approximately 13,000 students at 132 schools, including primary school(5~6 grades), middle school(1~3 grades), high schools(1~3 grades).

The current value system of the youth at schoo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ir value on diversified family types seems to be negative but the school education appears to be inappropriate and insufficient. Secondly, their value on marriage seems to change negative, specifically the female students will tend to choose late marriage, no marriage, and/or divorce according to change in social conditions. Thirdly, their value on child seems to change negative, and they tend to put more importance o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rather than on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which will increase the tendency of childlessness and smaller size of children. Fourthly, they show high value on gender equality but still put less importance to gender equality in area of job. Fifthly, the male students show a dual value on the pureness of the woman, and the female students show a careful

consideration on child-delivering of the unwed pregnant women. Sixthly, the sex education at schools seems to be sufficient for the basic knowledge but inappropriate for the sex contents needed for real life. Lastly, their perception on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appears not enough.

According to the '2006 National Survey on Values of Marriage,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for the Youth', Behaviors of marriage, fertility, and gender role of the children at schools will not differ from their seniors, currently at ages of 20~30s. Then, the fertility rate in the future, after the children at schools become old to the childbearing ages, will continue to maintain at the very low level. When the children at schools become old, their behaviors of marriage, fertility, and gender role cannot be determined not only by the improvement in social conditions. The children's values need to be changed in favor of marriage, fertility and gender equality. In doing so, the lifetime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ppropriate to the stages of growth development.

국문초록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가치관과 사회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가치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를 규명하고, 교육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일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수요자적 위치에 있는 청소년의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132개 표본학교의 미래세대 즉,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로 나타난 학생의 가치관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련한 학생의 가치관은 부분적으로 부정적이나,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은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 둘째, 학생의 결혼관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이 생활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녀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은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자녀의 수단적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증가하는 등 무자녀관 또는 소자녀관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은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성평등 의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섯째, 청소년기에 이미 순결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른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며, 혼전임신에 대해 상황론적 입장이 강하다. 여섯째, 기초적인 지식보다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학교 성교육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 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야말로 극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은 자녀수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이 이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2.1명)에 도달하였으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낮아져 2000년대 초에는 1.0명 수준에 근접한 실정이다.

저출산 지속은 인구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반면, 증가하는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결국,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보장 지출(연금, 건강보험 등)의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가족간 상호부양체제에서 공적연금 등을 통한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재정의 한계와 공공인프라 확충의 제한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역할을 전적으로 사회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혈연기반이 없는 사회적 부양체제 아래서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수가 노부모를 장기간에 걸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구조를 야기하여, 자녀는 물론 부모에게도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은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 인구를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동시에 야기할 것이다.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경우 노동이동성이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직업간, 산업간,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현상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삼식 외, 2005b). 인구학적 원인으로 만혼 현상과 유배우부인의 자녀출산 축소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크게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 출산관련 건강수준 악화(불임, 자연유산 및 사산) 등을 들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2005)에 의하면 출산을 감소나 이혼을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적 징후의 발생은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른 가족 내부양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가족문제는 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내 젠더 관계의 변화라는 성인지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한다(송다영, 2005).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가치관 변화를 매개로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는 가족관, 결혼관, 성평등관 혹은 성역할관이 있다. 또한, 출산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性)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하나의 가치관 변수로 포함시킬 수 있다.

실제 과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제적, 문화적, 가치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1960년대 이후 산업화·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문화적으로는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개인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확산되면서 개인의

의식구조도 변화하여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점진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생활, 사회관계 및 정신적인 면에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가정의 생활양식과 가족이 갖는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제도와 가족생활의 규범, 가족성원의 인간관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이현옥·김양희·이경희, 1993). 한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다른 어떤 사회제도보다도 가족이라는 제도는 안정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결혼에 관한 가치, 의식, 태도도 한 개인에게 일단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치나 태도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이 가족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제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은기수, 2001).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옳고”, “정상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성별분업, 성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었던 경제위기 등 단기적인 주변여건의 변화도 결혼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가족가치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은기수, 2001).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데, 이러한 가치관의 개인간, 세대간의 차이는 가족 내에서도 사회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 한다면, 건강한 가족 형성의 입문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양명숙, 1996).

가족, 결혼, 성역할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 현상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과 같은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은기수, 2001).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들은 성별 등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들 가치관이 어린 시절부터 각자가 자라온 가족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오랜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관의 변화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대응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혼 및 출산의 행위를 기피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행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은기수, 2001).¹⁾ 따라서 결혼에 관한 행위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를 둘러싸고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저출산현상은 가족관, 결혼·이혼·재혼관, 자녀관, 성평등관·성역할관 등의 가치관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b). 또한 이러한 결혼,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성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치의식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신구전환의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및

1) William Axinn, Arland Thornton, "The transformation in the meaning of marriage" Linda Waite(ed.), The ties that bind(New York : Aldine de Gruyter, 2000) ; Peter Uhlenberg, "Review of dynamics of values in fertility change by Richard Lee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0, No.2(2000).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산모의 모성·건강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제고, 성평등의식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가치관 함양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고정불변할 것만 같았던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시각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치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 세대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다른 세부연구과제들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²⁾

제 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11개의 장(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구 및 이론서를 토대로 가치와 가치관의 개념과 범주를 고찰한다.

2)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1.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총괄보고서), 2.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정립방안 연구(한국고원대학교), 4. 미래세대의 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5.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내용 개선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들로서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성교육 및 성관련 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 가치관과 인구현상 변화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한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조망한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가설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론적 고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가치관 조사의 기본틀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제3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설계에 할애된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범위)을 설정하는 한편,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방법을 결정한다.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특수성, 조사내용의 적절성, 항목수 등을 고려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설계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로서 응답자(각급학교 학생)의 기본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학생의 기본특성은 개인특성과 가족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학생의 개인특성으로는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학교급, 남녀공학 여부, 인문고와 실업고 등), 학년, 성별, 주 양육자, 종교, 희망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가족특성으로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제자매수,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특성(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형태 등), 부모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구의 경제수준 등이 포함된다.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가치관 영역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한다. 각 장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심층 분석하고, 동시에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가치관 실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건의를 한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가족가치관, 제5장에서는 결혼관, 제6장에서는 자녀관, 제7장에서는 성평등 및 성역할관, 제8장에서는 성교육 및 성관련 의식 및 태도, 그리고 제9장에서는 저출산·인구고령화 관련 청소년의 의식 등을 분석한다.

제10장에서는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 및 성관련 지식수준 제고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중

요성을 진단한다. 끝으로 제11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건의를 한다. 이어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본 연구를 결론짓는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실태조사, 기존 조사결과 심층분석, 전문가회의 개최 등이 포함된다.

우선 문헌 조사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조사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한 가치 영역별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관련 가치, 결혼관 가치, 자녀 가치, 성평등, 성에 관한 의식 및 태도 등의 변화와 함의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조사표 설계(조사항목 선정 및 구성 등)에 적극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장 주된 연구방법으로 미래의 가임세대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관련 제 가치관(의식 및 태도)을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의 초·중·고 학교 중 일부를 표본추출하고,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배포·회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한편, 선행연구 고찰, 협동연구 연구진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구조화된 조사표를 설계한다. 조사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된 조사표(양식)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가치관 영역별로 구분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그러한 영역들로는 가족가치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 성관련 의식 등이 포함된다. 영역별로 학생의 가치관과 개인적·가족적 특성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저출산·고령사회와 연관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조사결과의 기술적(記述的) 분석 즉, cross-sectional 분석, χ^2 분석 등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12.0 version)을 활용하였다. 특히, 제10장에서는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으로서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에는 독립변수로서 가족, 자녀, 성평등, 성역할, 성지식 관련 학교교육 정도(학생 개인의 수업 경험 여부)가 포함되며, 통제 목적으로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족특성이 포함된다. 종속변수로는 학생의 가치관(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평등관 및 성역할관)과 성지식 수준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0장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미래 가임세대와 현재 가임세대로서 미혼남녀와 기혼여성간의 가치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실제 2005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실태조사에 2005년 조사항목의 일부를 동일하게 유지시켰다. 특히, 본 조사에서 활용된 가치관 관련 모듈화 항목들은 국내 조사로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의 전국가족조사 등이 참조되었다. 국외 조사로는 일본의 출생동향기본조사, 전국가족동향조사, 전국가족계획조사 등과 유럽의 출산가족조사(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를 참조하였다.³⁾ 미국의 조사로는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Labor Market Experience for Youth: 패널) 등이 참조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적합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에 관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 걸쳐 필요시마다 전문가회의와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한다.

3) FFS는 1990년대 이래 ECE 23회원국과 뉴질랜드가 참여한 프로젝트 형식의 다국적 조사로서 출산력을 포함한 서구사회의 가족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적 상황 및 의식과 사회경제 변화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미시적, 거시적 접근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에는 여성과 남성, 모든 결혼상태, 미혼모 등이 포함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가치와 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치는 행동의 방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박수현, 2003), 부분적으로 지적인 동시에 감정도 포함하는 정신적인 구성개념이며, 태도, 행동,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신념이다(최연실, 1995). 가치가 적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더 일반적인 행동장면을 포함하는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과 해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으로 이해된다(유영주 외, 2000). 유사한 맥락에서, 가치관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파악되기도 한다(김태길, 1996). 또한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이념 내지 신념으로 규정되기도 한다(정원식, 1969). 가치관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행동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경신, 1998).

가치나 가치관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집단의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한 사회집단 또는 한 국가의 가치관이란 그 사회의 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다(박수현, 2003). 그 결과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은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그 사회의 각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규율을 제공하게 된다(김경신, 1998).

한 사회의 가치관은 이러한 한 때의 평면적인 총화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성원들이 이루는 사회적 관련 및 구조 여하에도 크게 관계되어 있다(유영주 외, 2000).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한국인의 가치관이 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권위

주의적 가치관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으로, 숙명적 자연관에서 정복 지향적 자연관으로,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변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두 대립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박수현, 2003).

Mead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가족들의 상호작용으로 사회화가 시작되어 소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또 스스로 바람직한 규범체계나 가치체계를 내면화시킴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가치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완성시킨다고 하였다(유영주 외, 2000, 재인용). 이는 곧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은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의 신념, 가치, 규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됨을 의미한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이라는 생활문화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 세대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박수현, 2003). 정명숙·김혜리(2005)에 의하면, 동일 연령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유사한 삶의 경험을 통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공통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대로 규정할 수 있다. 삶의 경험과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를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치관이나 행동특성도 달라지게 되며, 이를 흔히 세대차라 부른다(Elder, 1984; 박재홍, 1999). 따라서 각 세대의 경험 이 그 세대만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위 양식을 특징짓게 된다(박수현, 2003).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로 인해 세대 차이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높은 탈물질주의 또는 낮은 탈물질주의(즉, 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이나 후진국과는 달리, 한국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고연령층은 물질주의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젊은 층은 급속히 탈물질주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대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가족가치관에서도 젊은 세대에

이르러 전통적 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역에 따라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가 많이 남아 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공미혜, 1993; 양명숙, 1996; 조소연·오윤자 2001). 김경신(1998)은 중년과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가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데 반해, 노년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거나 또는 여성이 더 가족중심적임을 보여주었다.

한 사회 또는 개인의 욕구 내지 관심이 변화하면 그 사회나 개인이 인정하는 가치에도 변화가 나타나므로(김태길, 1996)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가치의 변화를 동반함은 당연한 사실이다(김경신, 1998).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더 많은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시대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있다(유영주 외, 2000).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혹은 연령집단간 가치 차이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가치 차이가 심화될 때 여러 가지 가족갈등이나 사회문제가 파생되기도 한다(김경신, 1998). 사회와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여 가치관의 혼돈이 있는 오늘날에는 한번 선택한 가치관을 계속 고수하기가 어렵고 재평가, 재선별의 과정이 필요한 실정이다(박수현, 2003).

제 2 절 가족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Ackerman은 “가족의 기능이란 생물학적으로는 가족을 유지하는 일이며, 심리적으로는 가족원간의 상호의존으로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상호협력·협동에 의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에 적응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Ackerman, 1960: 박수현, 2003, 재인용).

Murdock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성적기능, 자녀출산, 교육, 경제적 기능의 4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경제적 특성, 연구자 자신의 이념 등에 따라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박수현, 2003, 재인용). 한 예로, 유계숙·유영주(2002)는

세부적인 가족의 기능으로 가족성원들을 위한 기능과 사회를 위한 기능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전자에 애정교환과 정서적 지지·유대기능, 성적욕구의 충족기능, 자녀출산기능, 자녀양육과 사회화기능, 생산기능, 소비기능, 자녀의 교육기능, 가족성원들의 재산보호기능, 휴식처로서의 기능, 오락 및 여가 기능, 종교적 기능이 포함된다. 후자로 성적욕구의 통제기능, 종족보존·사회성원 충원 기능, 노동력 제공기능, 경제 질서 유지기능, 문화의 세대간 전달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이 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일차적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체계로서,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이다(박혜인, 1990). 가족가치관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 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 주는 개념이다(박수현, 2003). 또한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갖는 바람직성의 일반적이며 지속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념은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변화와 차이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 또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심리적 요인, 즉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가치관은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간사회에 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박수현, 2003).

이러한 가족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여러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되곤 한다. 예를 들어, 옥선화(1984)는 가족가치관을 가족 형성 전후로 나누어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한 바 있다. 김일명(1988)은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이나 친족의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혜인(1990)은 가족가치관을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김경신(1998)은 가족가치관을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도관, 가족주의 가치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1〉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연구자	연도	가족가치관의 하위영역
홍승직	1969	결혼관, 가문관, 자부관, 궁합관, 자녀교육관, 효도관, 제사관, 형제관
옥선화	1984	배우자 선택, 결혼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박진숙	1984	가(家)의식, 혼인의식, 부모부양의식
김순옥·류점숙	1984	결혼관, 역할관, 부모부양관, 가족중요도
이동원	1987	가(家)의식, 친자관계, 부부관계, 부부역할분담
김일명	1988	효도관, 조상숭배의식, 성역할관, 가부장권, 친족의식
박해인	1990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
정영숙 외	1997	가정자원관리관, 부부관, 자녀관, 부모관, 미래관, 가정생활 및 행사에 관한 의식과 태도
김경신	1998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자료: 조소연·오윤자,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271-284, 2001; 유계숙·유영주, 2002, 재인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의하는 가족개념은 과거처럼 부부와 그들이 낳은 자녀로 구성된 순수한 핵가족만을 고수하는 단일한 개념에서 벗어나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점차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유계숙·유영주, 2002). 그러나 인지적 측면의 가족개념에서는 이혼, 재혼, 입양 등으로 형성된 관계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도 행동 지향적 측면의 가족가치관에서는 혈연중심의 초혼 핵가족 이데올로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간에 격차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와 획일적 가족규범이 성원들에게 매우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유계숙·유영주, 2002; 박수현, 2003, 재인용).

이는 전통사회에서 유교의 가치이념에 입각한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전수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다소 근대성을 띤 수정된 가족개념과 가족가치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수현, 2003). 즉, 현대의 도시가족은 친자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개념에서 부부 중심의 근대적 가족 이념으로 변모해가는 경향이며, 전통적인 의식과 근대적인 의식이 공존하는 이원적 의식구조를 가진 과도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신수진(1998)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같은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이라도 주어진 사회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또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다

른 위치를 점유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주어진 문화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받아들여 이에 적응함으로써 한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성향의 개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한다(박수현, 2003).

제 3절 결혼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을 혈연과 결혼, 그리고 양자를 통해 결합되는 인간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면, 결혼이란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야 하는가를 규정한 법과 관습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한남제, 1984). 따라서 결혼과 가족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들 두 현상은 어떤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결혼은 성인남녀가 사회적으로 정한 의식을 거쳐 부부가 되는 것으로 혼례는 도덕과 이상(異相), 관습의 총체이며 사회적 법률적 제한을 받는 제도로서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한다(이정우 외, 2000). 따라서 결혼제도는 사회문화여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며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점차 변화하여 왔다(옥선화·정민자, 1993).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다(김경신·이선미, 1998). 현대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와 더불어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결혼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혜선·신수아, 2002). 결혼을 하는 동기는 성적인 욕구충족, 경제적 안정유지, 정서적 안정유지, 자녀출산의 기회, 성인으로서의 신분획득, 그리고 사회적 기대의 부합 등이다(이정우 외, 1994).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남성에게 가족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여성에게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김경신·이선미, 1998). 즉, 결혼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전환점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김양희·이형실,

1997). 특히,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 규범은 한국 사회에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문소정, 1994). 또한 여성은 결혼을 지위부여와 지위상승의 중요 통로로 여겨왔기 때문에, 적령기에 달하면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되며, 또한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킨다(김혜선·박혜인·옥선화, 2002).

결혼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개인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혼형태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Kwon, 1997). 결혼관도 가족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김두현, 1982). 최근에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생활능력이 있고 불편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다는 식의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도 증가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적 측면으로 나타난 물질만능주의와 과소비 풍조는 결혼예식의 규모를 점차 커지게 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결혼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현옥·김양희·이경희, 1993).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은 인간의 복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일 것이다(김성혜·김초강, 1991).

결혼이란 어느 관점에서는 결합하는 당사자간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위 환경요건은 단지 고려의 대상으로 작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다른 관점에서는 인간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결혼이 비록 당사자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다 하여도 부모와 형제간의 관계라는 조직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상처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의식구조 하에서도 결혼관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써 배우자의 선택방법이나 기준 또한 변화하게 된다(김영옥, 1999).

종래의 전통사회에서의 결혼에서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보다 상대방의 집안의 사회적 배경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는데 비해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당사자간의 개인적 배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객관성이 무시되거나 또는 개인적 배경에만 비중이 많이 주어지는 결혼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에 있어서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과의 관계정립, 구조역학적인 면 등에서 많은 갈등이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이나 결혼관에 있어서 결혼을 향한 개인적, 심리적 욕구가 다양하고 또한 시대나 사회적 배경 그리고 성장해 온 가정의 인습 등 제반여건에 따라 많은 의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김영옥, 1999).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조건에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비경제적 조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을 통한 여성의 지위상승 욕구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화를 알 수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학생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 기준을 조사한 결과(김혜선·김영희, 1984; 박진숙, 1984; 홍준숙, 1987), 대체로 남녀 모두 성격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외모를 그 다음 순위로 꼽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학벌이나 직업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신·이선미, 1998). 여성은 자신보다 3~5세 정도 연령이 많고, 학력수준이 높은, 그리고 경제력이 높은 가문의 배우자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강은숙 1981;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⁴⁾ 결혼 시 상대방의 선택조건으로 가정배경, 외모, 건강, 공통의 관심도, 행동의 기준, 경제력 등의 동질적 요인 및 이질적 요인 등이 조건의 대상으로 작용한다고 제시되기도 한다(김영옥, 1999).

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개인적 조건으로 학력이나 직업이 외모나 출신지역 또는 종교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김영옥, 1999). 결혼 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은 필수적이지만 배우자의 직업이 단순히 수입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정성과 장래성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장 또는 직종인가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사회적 인정이나 장래성의 보장

4) 여대생의 결혼관에 대한 한 조사 결과,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에 있어서는 55% 정도의 학생들이 여전히 3~4세 차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김영옥, 1999).

을 위해서는 학벌도 제외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결혼관에서 볼 수 있는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다. 여성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남성에게 경제적, 정서적, 성적인 종속적 삶을 살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혼의 불평등성에 좌절되기보다 오히려 많은 미혼여성에게 자신의 구원처는 결혼이며, 기혼여성도 결혼생활에서 이타적, 헌신적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여성의 길이라고 믿게 된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두 성의 공존의 삶을 보장해야 할 결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처럼 결혼관에 나타난 남녀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결혼이데올로기라 한다. 여성은 자신에게 보다는 남편에게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성적 의존을 함으로써 남편의 성공을 통한 대리만족, 대라보다는 결혼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고, 신데렐라complex, 성complex, 착한여자complex, 등 여러 성차별적 complex에 얽매이게 되었다(김경신·이선미, 1998).

결혼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는 결혼을 언제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최새은·옥선화, 2003).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며(Lesthaeghe and Surkyn, 1988),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가진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eachman, Polonko, and Leigh, 1987).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하기를 더 꺼려하는 부정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고, 국내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중요시하고, 결혼생활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혜선, 이정음, 2003).

여성은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이 빨랐다(Simon and Marcussen, 1999). Simon과 Marcussen은 결혼을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속성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을 덜 스트레스적인 사건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던 것과 같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전이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초혼연령이 빠른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최새은·옥선화, 2003).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결혼에 대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

며, 이것을 어길 경우 명시적, 암시적으로 끊임없는 압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규범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초혼연령이 늦어지지 않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최세은·옥선화, 2003). 남자의 경우 안정된 직업을 갖춘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연령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은기수, 1995).

언제 결혼할 것인가 하는 결혼시기의 결정은 일견 매우 개인적 문제인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개인이 위치한 사회의 거시적, 역사적 상황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한경혜, 1993).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러한 결혼행동의 변화와 함께 소위 사회적 시간표 형태로 존재하는 결혼연령 규범 또한 변화하게 된다. 사회적 시간이란 개념은 사람의 생애과정상의 주요 전이의 시기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규범적 시간표가 연령기 대나 규범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결혼하기에 적절한 나이, 자녀를 가질 나이, 은퇴할 나이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대개 동의하는 그런 기대연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한경혜, 1993). 연령의 사회심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연령을 내재화하며, 이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지각할 때 불편하게 느낀다(한경혜, 1993). 이러한 연령규범의 제도화는 각 사회의 자원의 분배나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발달의 생물학적 리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역할전이의 시간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역시 변화하게 되며, 또한 사회적 시간표의 변화 자체가 사회 내의 제도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회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한경혜, 1993).

한부모 가족의 자녀의 경우에는 불행하고 복잡한 환경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는 한편(Goldscheider and Waite, 1986; Axinn and Thornton, 1992), 불행한 원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Avery, Goldscheider and Speare, 1992; 최세은·옥선화, 2003, 재인용).

가족환경도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세은·옥선화, 2003). 예컨대, 부모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의 초혼연령이 빨랐다. 부모의 자원이 풍부한 경우 기대하는 가족생활의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MaLaughlin, Lichter, and Johnston, 1993).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일수록 ‘결혼’을 통해서 원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Avery, Goldscheider and Speare, 1992), 가난한 여성일수록 실제 결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과 장애가 있으므로(MaLaughlin and Lichter, 1997),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Lloyd와 South(1996) 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부모의 생존여부가 남성의 초혼연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세은·옥선화, 2003, 재인용). 이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 장남이 다른 형제에 대해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의 특징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자녀가치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가 점차로 발전되고 도시화됨에 따라 가족형태도 자녀를 재산적 가치로 여겼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지되던 다산현상이 가족개념의 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었다(유영주, 1988). 1960년대 이래 정책적인 사업과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자녀 가치관의 형성도 출산력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김초강, 1987). 부인이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초혼연령이 높아지므로 부인의 생물학적 가임능력이 줄어들고, 자식이 곧 재산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함에 따라 출산력을 낮추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김성혜·김초강, 1991).

Hoffman과 Hoffman(1973)이 제시한 VOC(value of child)연구의 개념모형은 자녀관에 관한 5가지 측면 즉, 자녀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대치가치, 자녀의 부담감, 자녀가치 형성장애요인, 자녀가치 형성촉진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권용은·

김의철, 2004). 그의 모형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및 심리적 가치로 설명되고 있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부모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과 비용을 의미한다. 자녀의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점으로써 사회로부터 얻게 되리라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지위, 가계계승 등이 속한다. 자녀의 심리적 가치에는 행복, 즐거움 등과 반대로 자녀에 대한 기대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가치는 모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가치의 변화의 속도도 빠르며 세대간의 차이도 커지고 있다. 문화와 환경은 전 생애 걸쳐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문화적 맥락 내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영향을 준다.

Erikson(1950)은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개인이 인생에 있어서 성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생득적인 동기를 갖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낳고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현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생산성의 생득적 본능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Rabin(1965)은 부모가 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권용은·김의철, 2004). 첫째는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숙명적”인 이유이다. 둘째는 “이타주의적” 이유인데 부모가 되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비이기적인 바람과 욕구이다. 세 번째 동기는 “자기도취적(narcissistic)”동기인데 자녀를 갖는 것은 자신의 선(善)을 나타내 주고, 아기를 갖기에 적당할 만큼 성인으로 성숙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부모가 되는 것이 성인의 동족의식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갖는 데 대한 또 다른 “자기도취적”인 이유는 부모가 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애원동물을 친구처럼 원하는 것과 비슷하다. 네 번째 이유로 “도구적(instrumental)” 이유로서 자신이 부모를 대신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Kirchner와 Seaver(1977)는 부모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동기는 영속성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험, 자신의 아동

기에 대한 기억 및 재 경험, 노후보장, 파트너와 유대감, 양육을 통한 역할 수행, 자극과 자부심 획득, 개인 성장의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애정을 받으려는 욕구, 실용주의와 규범적 행동, 재미 등을 들었다. 부정적 동기로는 사회적·개인적 제약,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 비관적 세계관, 재정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책임,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제에 우려, 정서적 미숙, 교육 및 직업상의 제약 등이 포함된다(권용은·김의철, 2004).

자녀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로서 선택과 교환의 이론(choice-exchange theory)을 이용하였는데(Esaterlin, 1975; Hoffman and Hoffman, 1973), 개개의 부부들이 선택을 통해서 자녀로 인한 이점을 최대화하고 손실점을 최소화하여 가장 유용한 자녀로 인한 점과 손실점이 같아졌을 때, 부가적인 자녀를 가짐으로서 얻게 되는 만족을 대신해줄 수 있는 만족, 특히 여성이 가정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고 한다(권용은·김의철, 2004).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경제수준이 낮고 그들 자신이 첫째 아이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권용은·김의철, 2004).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한 사회였으나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원인은 여성지위향상, 자녀의 도구적 가치(대를 잇는다)의 낮은 지각 등을 들 수 있겠다(양명숙, 1996). 역으로 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가치(기르는 즐거움, 나이 들어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권용은·김의철, 2004). Rossi와 Rossi(1990)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딸은 결혼 이후에도 어머니와 자녀양육방식 교환을 통해서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며, 여자들이 정서적 관계를 통해서 유대감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김명자(1980),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아들선호의식에 있어서 비교적 근대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후대책으로 남아를 선호하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비불균형의 감소뿐만 아니라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한유미·곽혜경, 2004).

제 5절 성평등가치관 및 성역할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성평등가치관

최근에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성과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심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성을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이 생식기관과 기능의 차이는 어느 사회나 어느 시기에서나 동일하고 불변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성(gender)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다르며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많은 그릇된 관념과 믿음이 형성되어 왔다(이호숙, 2003).

고정관념이란 특정한 인간 집단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가지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과잉적으로 단순화된 관념을 의미하며 이에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한다는 견해가 포함된다(Wrightman, 1977; 김동일, 1991, 재인용). 따라서 성 고정관념이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특성이 뚜렷한 실체인 것으로 착각 또는 오인하여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고 획일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태도나 자세를 일컫는 말이다(김동일, 1991).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차이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사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 남성우위의 성차별이 사회문화적 지지를 받아 옴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성중심의 성차별주의(sexism)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유지되어 왔다(김경신·이선미, 1998). 성차별 사회가 형성한 성고정관념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개인을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틀 속에 고정시켜 버린다. 그러나 서구를 중심으로 확산된 남녀 평등사상과 더불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점차 각 분야에서 남녀의 평등권을 주장하게 됨으로서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편견은 새로운 평등주의적 사고방식과 마찰을 이루게 되었다(양명숙, 1996). 이렇게 사회가 형성한 성 불평등성은 여성뿐만 아니

라 남성의 삶도 제한, 왜곡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성차별 언어나, 대중매체, 교육, 가족과 같은 주요한 사회 기제에 의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어 남녀불평등의 사회구조가 유지·강화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인간은 성장하면서 양성 모두 결혼을 통해 부모의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독립을 기대한다. 여성은 결혼으로 부모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동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편 통제 하의 결혼생활이 일종의 독립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결혼의 현실이 가져다주는 남편의 통제와 남편에의 종속은 전통형의 여성에게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져 체념이라는 생존전략으로 처리된다. 또 현대형의 여성에게는 의사(擬似)평등관계-서로 이름을 부른다는가, 남편이 설거지를 한다든가하는 피상적인 평등관계-속으로 묻혀버리게 된다. 결국 결혼은 남성에게는 성취, 여성에게는 의존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영자 외, 1993).

김아영(1999)은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 분석과 중등교사의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를 비교한 결과, 학생이 교사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직 경력에 따른 교사들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 본 결과로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생의 성별, 학년, 학교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 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진보적이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평등한 성역할 사회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관

최근의 출산율저하는 출산, 혼인, 이혼 등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들 여성 개인의 희생으로 짐 지워지는 결과에 기인한다(장혜경, 2003). 서구산업사회에서는 여성취업의 증가가 출산율저

하를 일으키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을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한유미·곽혜경, 2004).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양육과 노동이 양립할 수 있는 비공식적 영역에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여성취업의 증가가 반드시 출산율저하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한유미·곽혜경, 2004).

가치관체계에서 가정지향성이 높은 여성들은 자녀양육이나 가족중심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직업과 가정에서의 이중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결국 출산과 더불어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높다. 가정지향적인 여성들보다 직업지향적인 여성들은 출산과 취업 중에서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성역할 태도 역시 여성이 직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능력이나 경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그리고 가정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임신 후 직장에 복귀하게 된다(한유미·곽혜경, 2004). 더욱이 남녀 평등적 태도와 양성적 성역할 지향성은 임신 횟수 자체와 부적인 관계가 있다(Booth and Duvall, 1981). 따라서 현대여성의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사회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는 성역할 개념에 근거한 가족윤리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김정신, 1998). 김정옥(1980)은 도시화 및 여성의 취업 증가 등으로 가족 내 부부의 역할분화의 경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옥선화(1980)는 역할 분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역할구분이 지켜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병숙·김윤(1983)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근대적 역할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행동에서는 완전히 평등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명자(1985)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결혼·육아에 상관없이 원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여성이 증가하여, 여성직업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가정 내 의사결정권도 항목별 구분이 지어지나 비교적 아내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규정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미혼 남녀의 성역할관은 비교적 진보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6 절 성가치관 및 성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

우리 사회는 결혼 전까지 성적 행동을 억제하도록 기대하면서, 동시에 남녀에게 각기 다른 이중적 성윤리를 적용하는 성문화로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여성의 사회활동의 확대, 청년기의 연장, 상업 성문화의 발달 및 남녀평등의 같은 가치의 변화가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영옥, 1983). 청소년기는 성적 욕구가 강렬한 시기인 반면, 사회는 혼전의 성을 규제하므로 사회적 규범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혼전 성행동에 대해 합의된 규범이 없는 현 상황에서 청년기 연장 현상은 새로운 성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청소년의 혼전 성형태는 개인요인으로서 종교, 가족요인으로서 자녀들이 취업이나 학업상의문제로 부모를 떠나 생활할 경우에는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나 감독이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어 거주형태, 부모의 교육 등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목표나 성취, 직업에 대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낮은 교육목표와 성취는 보다 높은 성행동 수준과 관련 된다(Miller and Sneesby, 1988).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mall과 Luster(199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이 여학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청년기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성경험률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김영옥, 1983)로 볼 때, 부모의 감독 정도도 성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요인으로서 대체로 동료가 부모보다 허용적이므로 동료가 준거점일 경우 성경험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Reiss, 1967; Kaats and Davis, 1970). Newcomer 등(1980)은 성행동과 태도는 동료집단의 실제 행동보다 그들의 행동과 가치관이 라고 '지각'되는 것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의 성경험 정도에 대한 지각과 동료로부터의 성경험 압력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재인용).

산업화와 근대화의 촉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적 개인주의에 입각한 결혼관이 수립되어 결혼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으로 변화였고 결혼 형태 또한 연애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배우자 선택 기준이 변화하면서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도 결혼외의 성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양명숙, 1996).

그러나 순결관의 변화 양상에서 성별에 따라 이중적 가치관을 나타나고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하고, 남성 자신은 혼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중적 성관념 내지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숙 1984; 홍준숙 1987; 송재희 1988; 권오주 1989; 장희숙 1994; 양명숙 1996).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남성은 결혼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입장과 남녀 모두 순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성관념을 유지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우리 사회에서도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매춘, 미혼모, 낙태, 성폭력, 성차별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발달 과정상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에는 자칫 반인간적으로나 반사회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성인잡지, TV, VTR, 컴퓨터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적 정보 속에 무방비 노출되어 올바른 성지식이나 성태도가 형성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호기심만 높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오덕자, 2003).

오덕자(2003)는 청소년의 그릇된 성의식을 첨단기기의 발달과 무분별한 서구 문화의 유입, 물질만능의 풍토, 어른들의 무분별하고 이중적인 성 의식 등 뿐 아니라, 성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교육풍토로 인한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의 비체계성과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열악한 잠재적 교육환경 및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기능의 무력화에 돌리고 있다.

채팅을 통한 소위 ‘번섹’의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음란물 중독증에 걸리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각종 성범죄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가해자로서 성일탈의 행위자가 되기도 하여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이경희, 2000).

사이버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궁금해 하고 또 고

민하고 있는 성 문제를 학교교육, 부모님, 친구 등으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이버 매체에 쉽게 접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오덕자, 2003). 청소년기에 자극적인 음란물들, 채팅, 원조교제, 음란사이트 등은 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윤가현, 1997). 심지어는 청소년들에게 금기하는 내용조차 아무런 제약 없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 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혼란을 초래하여 성 문제로 인한 많은 성 일탈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오덕자, 2003).

이구실(2001)의 연구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성태도와 성 행동을 보았을 때 성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태도와 행동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지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진다는데 일치하고 있다(김진선, 1995; 윤명선, 2000; 이구실, 2001; 배성미, 2002 등).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정규 성교육 시간이 아니라 가정, 체육, 과학, 도덕 등의 교과목 수업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그 학생들에게 많은 성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등 학교 성교육의 효과는 점점 그 효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오덕자, 2003). 학교 성교육 시간, 교재, 내용과 담당교사의 열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오덕자, 2003).

제 3 장 조사 설계 및 조사대상 특성

제 1 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과 조사기간이 한정된 현실에서 조사규모는 전국 132개 학교에서 약 13,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5년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였고, 표본추출 단위는 선정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개의 학급을 선정하여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응답능력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5~6학년(각 1학급)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 학년(1~3학년 각 1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초(5~6학년)·중(1~3학년)·고(1~3학년) 학생들을 ‘학생’, ‘청소년’, ‘미래세대’ 등의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학생조사는 전국 모집단을 토대로 과학적 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통계청의 승인에 따라 국가통계로서 지정 받았다.

한편, 교사 조사는 학생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즉, 교사조사 대상은 학생조사 대상의 초·중·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덕 교사와 기술·가정(실과) 교사 및 조사학급의 담임교사로 선정하였다. 한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당 과목 교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5~6학년 담임 중 무작위로 설정하였다. 교사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2명(5~6학년 담임 2명),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 9명(1~3학년 담임 3명, 도덕교사 1명, 기술·가정교사 1명)으로 약 1,000명이 포함되었다.

교사조사의 결과는 기본적인 통계표로 한정하여 본 보고서의 부록에만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소년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

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교사조사 결과는 과학적인 표본방법에 의하지 않아 대표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조사 결과는 관련 정책 기획과 학문적 연구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조사 결과의 심층적인 분석 내용은 본 협동연구시리즈의 다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었다.

2. 조사수행체계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급 교육청의 협조를 받았다. 조사 수행의 흐름을 요약하면, 저출산·고령사회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실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서 담당)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사 협조를 의뢰하였으며, 이 때 표본으로 선정된 초·중·고 학교명과 학급 등 관련 정보를 송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단, 제주도는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가 없는 관계로 제외되었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시 표본 고등학교교장과 산하 시·군·구 교육청에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한 시·군·구 교육청은 관내에 표본으로 선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이들 시·군·구 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에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해당 학교에 직접 접촉하여 조사가능 일시, 조사방법(조사원 투입조사 또는 학교교사에 의한 집적 조사) 등을 협의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학교측의 사정을 감안하여 담당교사가 통보해 준 일시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 학생 및 교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학교측에서 직접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 설문지는 학생의 ‘학생용 조사표’를, 교사의 경우 ‘교사용 조사표’를 각각 이용하였다. 완료된 조사표는 택배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 회송 조치하도록 하였다.

학생 조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사원 또는 담당교사가 학생용조사표를 표본학급의 학생에게 배포
- ② 조사원 또는 담당교사가 설문지내용에 관해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설명
- ③ 학생들 각자 조사표 작성(10~20분 소요)
- ④ 조사 중 질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동시 수행
- ⑤ 조사원 또는 담당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조사표를 확인한 후 수거
- ⑥ 패킹 및 회송 조치 등

3. 표본추출

가.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11~18세에 속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 연령에 속한 학령의 재학생에 한 하였다. 본 조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시설에 보호되는 청소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규모 파악은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한 사항이며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각 1~3학년)을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하는 전국의 지역별 학교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전국의 지역별·학교급별 학교수

(단위: 학교)

학교급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		1,513	1,460	3,233	6,206
중학교		919	769	1,307	2,995
고등학교	인문계	535	488	360	1,383
	실업계	204	207	327	738
	계	3,171	2,924	5,227	11,32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나. 표본추출 방법

최종 조사단위인 학생을 표본추출하기 위해서는 조사 연령의 학생에 대한 학년, 이름, 성, 연령, 거주지 등에 대한 명부(표본틀)를 구축하여 표본 추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본 추출은 표본틀 구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다단계집락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즉 1단계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의 학교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132개 표본 학교의 각 층별 배분은 층의 학급수에 비례하되 상대적으로 학급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0.8의 가중치를 주었고 학급수가 적은 실업계고등학교는 1.2의 가중치로 학교수를 배정하였다.

〈표 3-2〉 전국 지역별·학교급별 학급수

(단위: 학급)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8,519	18,693	4,089	41,301
중학교(1~3학년)	25,749	25,145	5,078	55,972
인문고등학교(1~3학년)	18,518	16,072	2,398	36,988
실업고등학교(1~3학년)	6,577	7,570	2,467	16,614
계	69,363	67,480	14,032	150,875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 교육통계연보」, 2005.

〈표 3-3〉 지역별 표본 학교수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14	12	5	31
중학교(1~3학년)	22	20	5	47
인문고등학교(1~3학년)	19	15	4	38
실업고등학교(1~3학년)	6	6	4	16
계	61	53	18	132

표본 학교 추출은 학교를 특성(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과 지역(시군구)에 의하여 분류한 후 학교의 학급수에 확률 비례한 계통추출로 표본 학교를 추출하였다(표 3-3 참조). 추출된 학교 내에서 학년별 1개 학급은 난수표를 사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다. 표본추출 결과

표본추출 결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90개 학교에서 1.6%에 해당하는 132개 학교를 추출하였고 학년 당 1개 학급을 조사대상으로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가정 할 경우 약 12,775명이 조사대상 학생으로 선정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학령별 표본 학급수 및 학생수

(단위: 천명, N, 명)

구분	모집단 학생수 (천명,%)	모집단 학교수 (개)	1.6% 표본학교 (개)	표본 학급수·학생수(추정)	
				표본학급수 (학년당 1학급)	표본학생수 (학급당 평균 35명 기준)
초(5~6학년)	1,380(26.8)	5,642	31	62	2,170
중(1~3학년)	2,010(39.0)	2,935	47	141	4,935
고(1~3학년)	1,763(34.2)	2,113	54	162	5,670
계	5,153(100)	10,690	132	365	12,775

4. 모집단 추정방법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은 표본추출 확률, 조사무응답 조정, 기지의 정보를 활용한 사후층화 과정을 거친다. 본 조사는 어떤 특성 Y 를 갖는 학생수에 대한 학령, 지역, 성별로 신뢰도 높은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층화추출로 조사되었으므로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에 의한 평균 및 구성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결과에 나타난 총 학생수를 가중표본합계치와 일치되도록 하였다.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Total)와 표본오차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 ① 학생 총수 추정용 승수 공식(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M_{hi} = \frac{N_h}{n_h} \frac{A_{hi}}{B_{hi}} \quad (1)$$

이 공식에서

M_{hi} = 학생총수 추정용 승수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3, \dots, 12$

i = 학급을 나타내는 첨자

j = 학급내의 학생을 나타내는 첨자

n = 표본학급수

A = 학급내 총학생수(미조사 학생 포함)

B = 조사완료 학생수

- ② 공식 (1)의 승수를 학급별 조사완료 학생수에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조사 모집단의 총학생수를 추정하였다.

$$\hat{B} = \sum_h \sum_i \sum_j M_{hi} B_{hij} \quad (2)$$

- ③ 조사완료학생수를 집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B = \sum_h \sum_i \sum_j B_{hij} \quad (3)$$

- ④ 공식 (2)의 총학생수 추정치를 (3)의 조사완료 학생수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 (1)의 총수 추정용 승수를 가중표본합계치 산출용 승수로 변환하였다.

$$W_{hi} = M_{hi} \left(\frac{B_{hi}}{\hat{B}_{hi}} \right) \quad (4)$$

- ⑤ 공식 (4)의 승수를 조사완료 학생수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중표

본합계치를 산출하였다.

$$\hat{Y} = \sum_h \sum_i \sum_j W_{hi} Y_{hij} \quad (5)$$

추정치의 표본오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⑥ 층 h 에서의 추정치 $\hat{Y}_h$ 의 분산은

$$Var(\hat{Y}_h) = \sum_i^{n_{hi}} N_{hi}^2 \left(\frac{N_{hi} - n_{hi}}{N_{hi}} \right) \frac{s_{hi}^2}{n_{hi}} \quad (6)$$

$$\text{여기서 } s_{hi}^2 = \frac{1}{n_{hi} - 1} \left(\sum_j^{n_{hi}} y_{hij}^2 - \frac{(\sum_j^{n_{hi}} y_{hij})^2}{n_{hi}} \right)$$

$$\textcircled{7} \text{ 표본오차 } SE(\hat{Y}_h) = [Var(\hat{Y}_h)]^{1/2} \quad (7)$$

$$\textcircled{8} \text{ 상대표본오차 } RSE(\hat{Y}_h) = \frac{SE(\hat{Y}_h)}{\hat{Y}_h} \cdot 100 \quad (8)$$

5. 조사항목

조사항목의 선정 기준으로는 연구주제에 적합하도록 학생 및 가족의 일반사항 이외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교육 등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항목들 우선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학생대상 조사의 특수성과 조사항목수 등 제약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에 해당하는 조사항목은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 중 일부항목은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조사항목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세대간 차이 등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조사항목은 총 86개 항목이며, 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의 조사표 양식을 참조하도록 한다.

〈표 3-5〉 조사항목 분류 체계

구분	문항수	문항내용
개인·가족 사항	13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종교, 희망 교육수준 형제자매수, 형제자매수에 대한 태도, 양육대상자 부모생존여부, 부모 이혼여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취업상태 가족구성(확대·핵가족), 가구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2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간의 관계
가족관	9	학생의 가족관(6) 과목별 가족내용, 학습한 가족내용, 가족내용 이해도
결혼관	16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 적령기에 대한 의견, 결혼관(12) 학생본인의 결혼 의향, 배우자의 조건
자녀관	15	자녀의 필요성, 학생의 자녀관(10) 학생본인의 자녀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 남아 선호 여부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경험
성역할관	8	부모의 가사분담 정도 부부간 가사분담, 자녀양육분담,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태도 학생의 성역할관(3) 남학생의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1	성평등에 대한 일반적 의식
성교육	16	학교 성교육 내용,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 담당 과목 학교 성교육 외 성지식 습득경로, 습득내용, 성지식 정도(5) 성문제 상담 대상자 남성·여성의 혼전순결, 혼전임신, 인공유산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 경험
정책	2	학교의 저출산·고령화 교육경험 여부, 저출산·고령화정책 인지도
고령화	4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부모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노인이 된 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태도

6. 조사결과 및 조사대상의 기본특성

가. 조사결과

132개 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학교에서 조사 거부가 발생하여 총 131개 학교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학급은 학교의 지원과 조사원의 지도에 의하여 당일 출석학생 전원을 조사한 결과 11,250명이 조사완

료 되었다(표 3-6 참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게 조사되었고 남녀 공학인 학급에서 10명의 성별 미상이 발생하였다(표 3-7 참조).

〈표 3-6〉 지역별 조사결과

(단위: 명)

구분	지역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초등학교(5~6학년)	761	808	328	1,897
중학교(1~3학년)	2,146	1,837	519	4,502
인문고등학교(1~3학년)	1,722	1,679	528	3,929
실업고등학교(1~3학년)	439	405	78	922
계	5,068	4,729	1,453	11,250

〈표 3-7〉 성별 조사결과

(단위: 명)

구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무응답	
초등학교(5~6학년)	1,005	889	3	1,897
중학교(1~3학년)	2,394	2,104	4	4,502
인문고등학교(1~3학년)	2,020	1,907	2	3,929
실업고등학교(1~3학년)	447	474	1	922
계	5,866	5,374	10	11,250

나. 조사완료의 기본 특성

1) 조사완료 학교의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학교특성을 살펴보면(표 3-8 참조), 전체적으로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남학교 16.7%, 여학교 19.0%로 각각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남녀공학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모두는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남녀공학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중학생 66.4%, 실업계고등학생 64.9%, 인문계 고등학생 42.6%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남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여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많으나, 고등학생(인문계, 실업계)의 경우 그 반대로 나타났다.

〈표 3-8〉 조사완료 학생의 학교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남학교	16.7	-	18.6	24.7	10.5
여학교	19.0	-	15.1	32.7	24.6
남녀공학	64.2	100.0	66.4	42.6	64.9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2) 조사완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으로 거주지, 성별, 학년구분(연령에 준함), 희망교육수준, 믿고 있는 종교를 살펴보았다(표 3-9 참조). 우선 조사완료 학생의 거주지로는 대도시가 43.9%, 중소도시가 44.0%로 유사하며, 나머지 12.1%는 농촌(군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⁵⁾ 학생의 거주지 분포는 학교급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중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대도시 거주 비율이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초등학생과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농촌에 거주하는 중학생과 인문계고등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완료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52.1%)이 여학생(47.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이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높은 출생성비와 진학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일부 학생의 경우 1~2세 편차가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학년구분은 학생의 연령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사완료 학생의 학년은 모집단의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14%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13%대, 고등학교 3학년은 12%대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초등학교 학생은 10% 미만(5학년 9.1%, 6학년 7.8%)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생아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5) 본 연구에서 대都市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를 포함하며, 광역시에 소재한 군(郡)은 농촌에 포함된다.

〈표 3-9〉 조사원료 학생의 개인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거주지					
대도시(광역시 이상 구)	43.9	42.0	45.6	42.0	46.7
중소도시	44.0	42.7	44.8	45.2	38.0
농촌(군지역)	12.1	15.4	9.6	12.8	15.3
성별					
남자	52.1	51.9	52.8	50.9	53.0
여자	47.8	47.9	47.1	49.0	46.9
무응답	0.1	0.2	0.1	0.1	0.1
학년구분					
초등학교 5학년	9.1	53.6	-	-	-
초등학교 6학년	7.8	46.4	-	-	-
중학교 1학년	13.8	-	32.8	-	-
중학교 2학년	14.3	-	33.8	-	-
중학교 3학년	14.1	-	33.4	-	-
고등학교 1학년	13.9	-	-	35.0	30.5
고등학교 2학년	14.2	-	-	33.6	39.3
고등학교 3학년	12.7	-	-	31.4	30.2
희망 교육수준					
중학교	0.6	0.6	1.2	0.1	-
고등학교	5.6	6.0	6.2	2.6	13.4
대학교	73.2	66.3	73.2	75.3	79.1
대학원	20.4	26.7	19.3	21.9	7.4
무응답	0.2	0.4	0.1	0.1	0.1
종교					
불교	18.0	20.8	18.9	15.3	18.0
개신교(기독교)	31.1	38.9	31.0	28.7	25.2
천주교	8.5	8.5	9.6	7.7	5.8
기타 종교	2.0	2.5	2.0	1.5	3.3
종교 없음	40.3	29.3	38.3	46.6	47.7
무응답	0.1	0.1	0.1	0.1	-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조사원료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대학교 73.2%, 대학원 20.4%로 93.5%가 대학 이상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겠다는 비율은 5.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실업계고등학생 중 더 이상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3.4%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6%대로 인문계고등학생에 비해 다소 높았다. 조사완료 학생의 종교로는 종교 없음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신교(기독교) 31.1%, 불교 18.0%, 천주교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다소 수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개신교가 38.9%로 종교 없음 29.3%에 비해 더 높다.

3)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으로 형제자매수, 학생의 주양육자,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혼인상태, 조부모와 동거여부, 학생-부모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사완료 학생의 형제자매수는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 63.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3명이 19.3%, 1명이 12.6% 순으로 나타났다. 4명 이상 형제자매를 둔 학생도 4.6%나 되었다. 학교급별로 학생의 형제자매수는 다소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물론 모든 학교급에서 예외없이 2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형제자매수 2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대로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명 형제자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3명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형제자매 1명이 14.1%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2명 비율이 초등학생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고등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형제자매 2명 비율과 3명 이상 비율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형제자매수와 고등학교 선택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완료 학생의 주된 양육자로는 부모(함께)가 73.1%로 나타났으며, 모가 주로 돌본 경우는 13.9%였다. 조모·외조모가 주로 양육한 학생의 비율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부가 주로 돌본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각급학교 학생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함께 돌본 비율이 68.3%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조모·외조모가 돌본 비율이 10% 수준으로 높았다. 가정(자녀양육) 환경과 고등학교 선택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표 3-10〉 조사완료 학생의 가족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형제자매수(본인 포함)					
1명	12.6	9.6	14.1	12.3	12.0
2명	63.4	66.6	61.7	64.9	60.3
3명	19.3	20.0	19.4	18.3	21.3
4명 이상	4.6	3.8	4.7	4.4	6.5
학생의 주된 양육자					
부모 함께	73.1	73.9	74.0	72.6	68.3
모가 주로	13.9	12.9	12.8	15.2	15.8
부가 주로	1.7	2.4	1.7	1.3	2.1
조모·외조모	9.2	8.8	9.3	9.0	10.3
조부·외조부	0.4	0.4	0.5	0.2	1.0
형제자매	0.3	0.3	0.3	0.2	0.4
이웃	0.2	0.4	0.1	0.2	0.2
도우미	0.3	0.1	0.3	0.4	0.1
기타	1.0	0.8	1.0	0.9	1.8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95.7	96.6	96.0	96.0	90.9
부만 생존	1.2	1.2	1.4	0.9	1.2
모만 생존	2.6	1.5	2.1	2.7	7.1
모두 사망	0.3	0.4	0.3	0.3	0.7
무응답	0.2	0.4	0.2	0.1	-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8.6	6.4	8.7	7.6	16.6
아니오	86.5	90.0	86.8	87.9	73.8
무응답	0.5	0.2	0.5	0.6	0.5
부 또는 모 사망	4.3	3.5	4.0	4.0	9.0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8.8	59.2	38.2	31.7	28.9
좋은 편	38.2	25.1	39.4	43.4	38.4
보통	16.5	10.3	16.3	18.3	23.3
나쁜 편	1.9	0.6	1.6	2.6	3.4
매우 나쁜 편	0.4	0.2	0.4	0.4	0.8
모르겠음	3.0	2.8	2.9	2.9	4.2
무응답	0.6	1.0	0.8	0.2	0.3
부모 사망	0.5	0.8	0.5	0.4	0.7
조부모와 동거여부					
예	17.7	18.2	19.9	14.3	18.2
아니오	82.3	81.7	80.0	85.7	81.8
무응답	0.1	0.2	0.1	-	-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부모 모두가 생존해 있는 학생은 전체의 96% 수준이며, 모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2.6%, 부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1.2%, 그리고 부모 모두 사망한 비율은 0.3%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예외적으로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부모 모두 생존하여 있는 비율은 90.9%로 상대적으로 낮고 모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이 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학생 중 부모가 결혼상태에 있는 비율은 86.5%이며, 이혼·별거 중인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학생의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비율은 중학생, 인문계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높았다.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16.6%로 높았으며, 두 유형의 고등학생을 합한 경우 동 비율은 중학생에 비해 높을 것이다.

조사완료 학생 중 부모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8%로 전체적으로 77.0%가 긍정적인 관계로 응답하였다. 부모와의 관계가 보통이라는 학생의 비율은 16.5%이며, 부정적인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은 2.3%(좋지 않은 편 1.9%, 매우 좋지 않은 편 0.4%)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과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고등학생 중 부모와의 관계가 보통 23.3%, 좋지 않은 편(매우 좋지 않은 편을 포함) 4.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학생은 17.7%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이하게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 14.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4)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수준, 경제활동상태, 부부관계 등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공히 고등학교와 대학이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의 경우 고등학교 39.0%, 대학교 28.0%, 대학원 5.8%, 모의 경우 고등학교 48.7%, 대학교 20.2%, 대학원 2.6%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으로 대학교 이상 고학력 비율이 34.6%로 모의 22.8%에 비해 높았다.

〈표 3-11〉 조사완료 학생의 부모 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부의 학력					
무학	0.2	0.2	0.2	0.1	0.5
초등학교	3.0	1.2	2.4	3.5	7.5
중학교	5.9	2.0	5.6	7.4	10.0
고등학교	39.0	22.9	38.3	46.0	47.5
대학교	28.0	29.8	30.0	28.1	13.6
대학원	5.8	5.4	6.0	7.0	1.0
모르겠음	14.8	35.8	14.6	4.8	11.9
무응답	0.2	0.5	0.2	0.1	0.3
사망	3.1	2.3	2.6	3.1	7.7
모의 학력					
무학	0.3	0.1	0.3	0.2	0.9
초등학교	3.2	1.0	2.4	4.0	8.6
중학교	7.2	2.7	5.8	9.6	13.8
고등학교	48.7	31.1	47.7	58.5	51.4
대학교	20.2	24.3	22.4	18.2	8.4
대학원	2.6	3.1	3.1	2.3	0.3
모르겠음	15.6	35.5	15.7	5.6	13.9
무응답	0.5	0.3	0.7	0.2	0.6
사망	1.7	1.9	1.9	1.3	2.0
부모의 취업상태					
부모 모두 취업	62.0	60.9	62.1	62.5	62.1
부만 취업	30.1	32.8	30.6	30.0	23.3
모만 취업	4.5	2.7	4.0	4.7	9.9
부모 비취업	2.4	1.8	2.5	2.2	3.4
무응답	0.4	0.9	0.3	0.2	0.5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2.7	43.1	34.9	27.4	21.3
좋은 편	34.5	29.9	33.5	38.8	32.3
보통	17.5	15.2	16.7	19.0	20.4
나쁜 편	4.0	2.9	3.6	4.6	5.8
매우 나쁜 편	2.0	1.6	1.5	2.2	4.3
모르겠음	3.4	2.7	4.0	2.7	4.2
무응답	1.6	1.1	1.9	1.4	2.7
부 또는 모 사망	4.3	3.5	4.0	4.0	9.1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주: 부모의 학력은 중퇴, 재학은 졸업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력에 포함시킴.

이러한 패턴은 모든 학교급 학생들의 부모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상급학교 학생의 부모일수록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최근일수록 즉, 젊은층 부모일수록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이와 관련이 있다. 한편, 실업계고등학생의 부모 중 고학력층 비중은 다른 학교급 학생 부모의 경우에 비해 아주 낮았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조사 당시 부모 모두 취업 중인 비율은 62.0%, 부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30.1%, 모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4.5%, 부모 모두 취업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였다. 다만,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부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은 23.3%로 비교적 낮고, 모만 취업하고 있는 비율(9.9%)과 부모 모두 취업하지 않고 있는 비율(3.4%)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완료 학생 중 2/3 정도(좋은 편 34.5%, 매우 좋은 편 32.7%)가 부모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7.5%이며, 부정적인 응답은 6.0%(나쁜 편 4.0%, 매우 나쁜 편 2.0%)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보통’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부모간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결혼생활이 길어지면서 부모간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부모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가정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조사완료 학생의 가구경제 특성

끝으로 조사완료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상태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조사완료 학생이나 그가 속해 있는 가구(가족)의 객관적인 특성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가구의 경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체변수(proxy variable)로 질문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학생들을 통해 가족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가족의 경제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다. 가족 경제가 좋다는 판단은 15.6%(잘사는 편 13.7%, 매우 잘사는 편 1.9%)로 나뉘는 판단 16.2%(못사는 편 14.7%, 매우 못사는 편 1.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비교하여 보면,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가족경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실업계고등학생 중 32.8%가 가족경제수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5.9%에 비해 아주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가구경제의 차이에 기인하기보다 성장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의 가족경제에 대한 판단이나 태도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비 등 가족의 자녀양육비 부담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가 가족경제의 곤란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다.

〈표 3-12〉 조사완료 학생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구의 경제상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	실업계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9	4.6	1.9	1.0	0.4
잘 사는 편	13.7	24.3	14.4	9.2	5.5
보통	64.2	59.0	65.8	66.5	58.3
못 사는 편	14.7	5.6	11.8	19.2	30.0
매우 못사는 편	1.5	0.4	1.5	1.6	2.8
모르겠음	3.9	5.8	4.4	2.4	2.9
무응답	0.1	0.2	0.1	0.1	
전체(명)	100.0(11,250)	100.0(1,900)	100.0(4,750)	100.0(3,630)	100.0(959)

제 4 장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

제 1 절 문제제기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 및 근대화를 통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쇠퇴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교육수준 향상에 따른 여성의 자아욕구 및 경제활동참여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빠르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문화적 급변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형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가족의 기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제도로 간주되어온 가족제도에도 큰 변화가 야기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정서적 안정 및 유대를 통해 감정적인 안식과 위안을 받고, 경제·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단위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혼인을 통한 양성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유지 및 공고화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는 가족, 결혼, 자녀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많은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법적관계 및 이성애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와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가 존재하는 핵가족 형태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미혼단독가구,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가족의 기능으로 간주되어 오던 출산기능, 자녀양육 기능, 정서적 기능, 경제적 기능 등은 사회변화와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에 따라 일부 기능은 상실 또는 약화되고 일부 기능은 강화되는 등 그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가족을 살펴보면 가

족의 구성 및 유형과 관련하여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형태로 칭해졌던 3세대 가족 즉 '조부모-부부-자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세대로 구성된 '부부-자녀'가족 역시 다양한 유형의 변화를 겪고 있다. 예컨대, 법적관계 및 이성애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와 혈연으로 맺어진 자녀가 존재하는 핵가족이라는 전형적 가족형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무자녀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미혼단독가구, 노인단독가구, 입양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2002년 '출산율 1.17 쇼크' 이후 전통적·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족위기' 혹은 '가족해체'로 이해해 왔으며,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가족위기 담론은 국가의 존폐 위기로까지 확대되어 '가족의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의 다양성과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기 보다는 특정 가족형태를 지지하여 전형적 형태인 핵가족은 정상가족이며, 그 외 보편적인 가족형태와는 상이한 유형의 가족형태는 비전형적인 가정으로서 결손 또는 비정상, 불완전한 것, 문제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의 변화를 문제가족 혹은 위기가족으로 낙인해서는 안되며, 그보다는 다양한 유형 혹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좀더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상가족 담론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가족에 준하는 가구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 가족상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Beck/Beck-Gernsheim, 1999). 즉, 사람들은 결혼·이혼·재혼을 하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새로운 가족을 창출해 내며,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억제하며 기존의 가족 유지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처방안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이혼, 입양, 동성애, 동거, 미혼부모 등의 형태

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로 정착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유형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는 적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족관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가족 가치관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가족가치관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한부모가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 조사대상 학생의 33.7%(매우 찬성 7.0% 포함)가 찬성한 반면, 66.3%(전혀 찬성 않음 24.1% 포함)가 반대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아주 우세하였다(표 4-1 참조). 이를 통해, 자녀들은 부모가 공동으로 키워야한다는 가족관이 학생들 사이에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지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여, 지역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69.9%)이 여학생(62.4%)에 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40% 미만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학생 대부분 부모 모두에 의한 양육을 바람직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점차 부 또는 모의 한부모 양육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조사인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로서 한부모가족 관련 부정적인 태도가 미혼남성(20~44세) 54.9%, 미혼여성(20~44세) 38.2%, 기혼여성(20~44세)의 56.0% 인 경우와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이삼식 외, 2005c).⁶⁾ 한편, 학교청소년은 물론

20~44세 미혼남녀의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과 같은 비전통적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표 4-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7.0	26.7	42.2	24.1	100.0 (11,239)	
거주지역						
대도시	6.8	26.1	42.3	24.8	100.0 (4,936)	12.4†
중소도시	6.8	27.4	42.5	23.3	100.0 (4,946)	
농촌(군)	8.9	26.3	40.9	23.9	100.0 (1,357)	
성별						
남학생	7.5	22.7	43.4	26.5	100.0 (5,852)	109.9***
여학생	6.5	31.1	40.9	21.5	100.0 (5,376)	
학년구분						
초 5학년	9.1	20.2	35.1	35.5	100.0 (1,019)	316.1***
초 6학년	7.7	19.9	35.5	36.9	100.0 (881)	
중 1학년	7.3	24.4	41.7	26.6	100.0 (1,558)	
중 2학년	6.4	24.5	41.4	27.7	100.0 (1,605)	
중 3학년	7.0	29.2	43.4	20.3	100.0 (1,589)	
고 1학년	6.9	29.0	46.1	18.0	100.0 (1,561)	
고 2학년	5.4	30.6	44.0	19.9	100.0 (1,599)	
고 3학년	7.5	30.7	45.3	16.5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태도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절반 이상인 51.1%(매우 찬성 14.4%)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 30.8%(5.8%)와 다소 대조적이었다. 이는

6)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미혼남녀(20~44세)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부모의 결혼상태로 대변되는 가정환경이 학생의 가족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2〉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여부						
예	14.4	36.7	33.5	15.3	100.0 (972)	205.8***
아니오	5.8	25.0	43.7	25.5	100.0 (9,730)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2	21.1	40.4	31.4	100.0 (3,678)	349.0***
좋은 편	4.4	26.0	47.9	21.7	100.0 (3,879)	
보통	5.6	30.1	43.8	20.4	100.0 (1,966)	
나쁜 편	11.4	36.1	31.8	20.6	100.0 (446)	
매우 나쁜 편	20.6	29.6	29.6	20.2	100.0 (223)	
모르겠음	9.0	32.3	36.0	22.8	100.0 (378)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8.7	23.4	37.8	30.0	100.0 (4,365)	251.6***
좋은 편	5.4	28.5	45.8	20.3	100.0 (4,298)	
보통	5.7	28.6	46.8	18.9	100.0 (1,858)	
나쁜 편	11.2	34.6	32.7	21.5	100.0 (214)	
매우 나쁜 편	18.2	31.8	27.3	22.7	100.0 (44)	
모르겠음	10.1	29.9	34.9	25.1	100.0 (335)	
부모 취업여부						
부모 모두 일함	6.6	26.6	42.5	24.3	100.0 (6,970)	208.6***
부만 일함	6.1	24.5	44.5	24.9	100.0 (3,388)	
모만 일함	18.5	41.2	27.0	13.2	100.0 (507)	
부모 모두 일안함	9.6	26.5	37.9	26.1	100.0 (272)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18.1	22.3	27.0	32.6	100.0 (215)	172.9***
잘 사는 편	9.0	23.0	40.6	27.4	100.0 (1,535)	
보통	5.6	26.5	44.6	23.3	100.0 (7,224)	
못 사는 편	8.7	31.4	38.2	21.6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10.4	25.0	35.4	29.3	100.0 (164)	
모르겠음	11.8	27.2	34.6	26.5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간의 관계도 학생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 50% 이상이 부모 또는 모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 또는 부만 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모만 일하거나 부모 모두 일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모만 일하고 있는 학생 중 무려 59.7%(매우 찬성 18.5%, 찬성 41.2%)가 한부모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아주 잘살거나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에게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보통 또는 잘사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미혼모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미혼모에 대한 학교 청소년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21.6%(찬성 17.4%, 매우찬성 4.2%)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78.4%(별로 찬성안함 36.0%, 전혀 찬성안함 42.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학생(18.4%)보다 여학생(25.1%)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 여전히 30% 미만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아주 우세하다. 학생 대부분은 결혼을 통한 출산·양육을 올바른 가치로 여기는 것이 보편적이면서, 성장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수용 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참고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20~44세) 80.2%, 미혼여성(20~44세) 78.0%, 기혼여성(20~44세) 86.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여전히 강하게 보편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4.2	17.4	36.0	42.4	100.0 (11,232)	
거주지역						
대도시	4.4	17.7	36.6	41.3	100.0 (4,934)	5.1
중소도시	3.9	17.2	35.6	43.2	100.0 (4,941)	
농촌(군)	4.4	17.2	35.1	43.3	100.0 (1,357)	
성별						
남학생	4.0	14.4	36.7	44.9	100.0 (5,846)	82.9***
여학생	4.4	20.7	35.3	39.7	100.0 (5,375)	
학년구분						
초 5학년	2.6	10.6	30.3	56.6	100.0 (1,018)	326.1***
초 6학년	3.6	12.5	29.8	54.0	100.0 (879)	
중 1학년	4.4	12.2	36.0	47.3	100.0 (1,555)	
중 2학년	3.8	15.5	36.8	43.9	100.0 (1,605)	
중 3학년	4.0	18.3	39.5	38.3	100.0 (1,586)	
고 1학년	3.7	20.5	37.1	38.8	100.0 (1,558)	
고 2학년	4.5	20.5	38.7	36.3	100.0 (1,599)	
고 3학년	6.2	25.3	35.0	33.5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23.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21.2%에 비해 다소 높았을 뿐이다. 즉,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가 학생의 미혼모관련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는 미혼모관련 학생의 가치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미혼모관련 태도도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와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구의 경제상태별로 미혼모관련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미혼모에 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아주 잘사는 편에 속한 학생들이 ‘매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미혼모에 대해 아주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

〈표 4-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여부						
예	4.9	18.6	34.6	41.9	100.0 (970)	3.5*
아니오	4.0	17.2	36.3	42.5	100.0 (9,72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5	15.0	32.8	47.7	100.0 (3,678)	120.3***
좋은 편	3.0	18.3	39.3	39.4	100.0 (3,875)	
보통	4.2	19.3	37.9	38.6	100.0 (1,965)	
나쁜 편	5.6	19.5	31.8	43.0	100.0 (446)	
매우 나쁜 편	8.1	22.0	26.9	43.0	100.0 (223)	
모르겠음	5.6	16.2	37.4	40.8	100.0 (377)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4.4	15.0	33.1	47.5	100.0 (4,365)	144.2***
좋은 편	3.4	18.3	39.2	39.1	100.0 (4,293)	
보통	4.3	19.9	37.1	38.6	100.0 (1,855)	
나쁜 편	4.2	22.0	33.2	40.7	100.0 (214)	
매우 나쁜 편	20.5	20.5	20.5	38.6	100.0 (44)	
모르겠음	7.5	20.1	34.4	38.0	100.0 (334)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8.4	10.7	25.1	55.8	100.0 (215)	87.6***
잘 사는 편	4.6	14.8	34.0	46.5	100.0 (1,536)	
보통	3.7	17.4	37.4	41.5	100.0 (7,217)	
못 사는 편	5.5	21.1	34.1	39.4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4.8	20.6	30.3	44.2	100.0 (165)	
모르겠음	4.4	13.9	34.9	46.9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1

3. 입양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입양에 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71.1%(매우 찬성 28.6% 포함)로 높고, 찬성하지 않은 태도는 28.9%(전혀 찬성 안함 9.14% 포함)에 불과하였다.

학생의 거주지별로 입양에 관한 태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별로는 입양에 관한 여학생의 태도(79.3%)가 남학생(6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매우찬성’ 태도는 감소하나 ‘찬성’ 증가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낮아져 30% 미만(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에서 유지하였다. 즉, 학생 대부분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점차 성장하면서 그러한 태도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20~44세) 61.5%, 미혼여성(20~44세) 67.5%, 기혼여성(20~44세) 51.9%로 나타났다.

〈표 4-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입양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8.6	42.5	19.8	9.1	100.0 (11,233)	
거주지역						
대도시	29.1	42.2	19.9	8.8	100.0 (4,932)	3.5
중소도시	28.0	43.1	19.5	9.4	100.0 (4,944)	
농촌(군)	29.3	41.3	20.3	9.2	100.0 (1,357)	
성별						
남학생	23.0	40.6	23.6	12.8	100.0 (5,849)	420.2***
여학생	34.7	44.6	15.6	5.1	100.0 (5,376)	
학년구분						
초 5학년	29.8	34.4	20.0	15.8	100.0 (1,017)	215.8***
초 6학년	32.5	33.7	20.7	13.2	100.0 (881)	
중 1학년	34.9	38.5	18.2	8.4	100.0 (1,555)	
중 2학년	29.8	43.9	16.6	9.6	100.0 (1,605)	
중 3학년	29.8	43.4	18.7	8.1	100.0 (1,587)	
고 1학년	25.4	46.0	21.0	7.6	100.0 (1,559)	
고 2학년	24.2	46.0	22.3	7.4	100.0 (1,599)	
고 3학년	24.5	47.5	21.3	6.8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가족배경으로서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입양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많은 형제자매와 지낸 경험으로 입양아와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부모 관계는 입양에 관한 태도와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학생-부모 관계가 나쁠수록 입양에 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었다. 자신의 처지를 감안하여, 입양아와 양부모간의 관계를 조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입양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단, 매우 못사는 편이라는 학생의 경우,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다소 약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학생들이 입양에 대한 배타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4-6〉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라는 입양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27.5	42.9	20.0	9.6	100.0 (1,413)	24.1**
2명	28.0	42.0	20.7	9.3	100.0 (7,119)	
3명	30.7	43.5	17.3	8.5	100.0 (2,173)	
4명 이상	32.4	43.5	16.4	7.7	100.0 (519)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33.9	37.9	18.2	9.9	100.0 (4,363)	192.3***
좋은 편	23.8	48.0	20.7	7.5	100.0 (4,295)	
보통	26.3	43.0	21.6	9.0	100.0 (1,857)	
나쁜 편	30.8	36.4	20.1	12.6	100.0 (214)	
매우 나쁜 편	31.8	25.0	15.9	27.3	100.0 (44)	
모르겠음	33.0	35.4	19.2	12.3	100.0 (333)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30.2	27.4	20.5	21.9	100.0 (215)	146.4***
잘 사는 편	29.4	38.2	21.1	11.3	100.0 (1,535)	
보통	27.6	44.4	20.0	8.1	100.0 (7,220)	
못 사는 편	32.5	42.4	17.8	7.3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30.3	36.4	13.3	20.0	100.0 (165)	
모르겠음	26.8	37.2	21.5	14.5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4. 재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재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8.7%(매우 찬성 13.8% 포함), 반대하는 비율이 41.3%(전혀 찬성 안함 14.7% 포함)로 초·중·고 학생의 태도가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재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학생(64.5%)이 남학생(53.6%)에 비해 재혼에 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4-7〉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재혼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3.8	44.9	26.5	14.7	100.0 (11,229)	
거주지역						
대도시	13.7	45.6	26.4	14.3	100.0 (4,932)	5.6
중소도시	13.7	44.6	27.0	14.7	100.0 (4,942)	
농촌(군)	14.7	43.8	25.2	16.2	100.0 (1,355)	
성별						
남학생	11.6	42.0	28.1	18.3	100.0 (5,845)	189.6***
여학생	16.3	48.2	24.8	10.8	100.0 (5,376)	
학년구분						
초 5학년	7.6	25.6	31.8	35.0	100.0 (1,014)	1095.4***
초 6학년	8.5	32.0	30.7	28.8	100.0 (880)	
중 1학년	11.5	34.7	32.9	20.8	100.0 (1,554)	
중 2학년	12.2	43.8	29.7	14.3	100.0 (1,604)	
중 3학년	16.1	47.9	24.6	11.5	100.0 (1,588)	
고 1학년	14.9	53.8	22.8	8.4	100.0 (1,559)	
고 2학년	16.6	55.0	22.1	6.3	100.0 (1,599)	
고 3학년	19.1	54.8	20.7	5.4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재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찬성비율이 50%미만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으나, 점차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이 높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약 75%가 찬성하였다. 어린 나이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성장하

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에 실시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로서 재혼관련 태도가 미혼남성(20~44세) 79.6%, 미혼여성(20~44세) 중 79.8%, 기혼여성(20~44세)의 60.3%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과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겠다(이삼식 외, 2005c).

〈표 4-8〉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재혼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생존여부						
부모 모두 생존	13.7	45.2	26.4	14.7	100.0 (10,744)	7.8
부만 생존	17.9	38.8	30.6	12.7	100.0 (134)	
모만 생존	14.7	40.4	28.8	16.1	100.0 (292)	
부모 모두 사망	18.4	42.1	28.9	10.5	100.0 (38)	
부모 이혼·별거여부						
예	17.4	46.2	21.7	14.7	100.0 (972)	19.5***
아니오	13.4	45.0	26.9	14.7	100.0 (9,719)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16.4	26.2	20.6	36.9	100.0 (214)	248.5***
잘 사는 편	13.0	38.4	28.6	19.9	100.0 (1,534)	
보통	12.9	46.5	27.4	13.2	100.0 (7,215)	
못 사는 편	18.0	48.7	21.8	11.5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0.1	45.1	14.0	20.7	100.0 (164)	
모르겠음	12.0	37.1	30.6	20.3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학생의 가족적 배경에 따른 재혼관련 가치관은 <표 4-8>에 제시하였다. 예상 외로 부모의 생존여부별 재혼관련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거나, 부모는 모 그리고 부모 모두 사망한 모든 경우에 재혼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학생의 재혼관련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63.5%가 찬성하며, 그렇지 않은 학생의 5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수준별로는 잘사는 편일수록 재혼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가 강한 반면, 못사는 편일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5. 동거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동거에 관해서 초·중·고 학생 중 찬성 33.4%(매우 찬성 7.1% 포함), 반대 66.6%(전혀 찬성 안함 26.4% 포함)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났다(표 4-9 참조).

〈표 4-9〉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동거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7.1	26.3	40.2	26.4	100.0 (11,232)	
거주지역						
대도시	7.0	26.6	39.6	26.7	100.0 (4,931)	4.5
중소도시	7.4	26.2	40.7	25.7	100.0 (4,944)	
농촌(군)	6.6	25.5	40.2	27.7	100.0 (1,357)	
성별						
남학생	8.8	29.2	38.7	23.3	100.0 (5,847)	139.5***
여학생	5.3	23.1	41.7	29.8	100.0 (5,376)	
학년구분						
초 5학년	4.0	17.3	38.2	40.5	100.0 (1,018)	373.3***
초 6학년	4.8	18.0	41.2	36.1	100.0 (882)	
중 1학년	6.4	20.7	42.2	30.8	100.0 (1,553)	
중 2학년	5.4	24.5	43.2	27.0	100.0 (1,606)	
중 3학년	8.6	29.3	38.9	23.2	100.0 (1,588)	
고 1학년	7.6	31.2	39.4	21.8	100.0 (1,559)	
고 2학년	8.0	31.0	39.7	21.3	100.0 (1,598)	
고 3학년	10.6	32.1	38.0	19.4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4-10〉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동거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여부						
예	8.5	26.1	38.9	26.4	100.0 (972)	3.4
아니오	7.0	26.2	40.4	26.5	100.0 (9,72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2	22.6	38.7	31.5	100.0 (3,675)	153.6***
좋은 편	5.4	27.9	43.4	23.3	100.0 (3,876)	
보통	9.2	27.9	39.4	23.5	100.0 (1,965)	
나쁜 편	9.4	28.6	37.1	24.8	100.0 (447)	
매우 나쁜 편	14.3	22.9	35.0	27.8	100.0 (223)	
모르겠음	8.2	31.2	35.2	25.4	100.0 (378)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6.7	22.0	39.0	32.3	100.0 (4,362)	199.0***
좋은 편	6.2	28.7	42.7	22.4	100.0 (4,293)	
보통	8.5	29.9	39.3	22.3	100.0 (1,858)	
나쁜 편	12.2	31.0	33.8	23.0	100.0 (213)	
매우 나쁜 편	15.9	27.3	31.8	25.0	100.0 (44)	
모르겠음	11.6	29.6	32.2	26.6	100.0 (335)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9.8	22.3	27.9	40.0	100.0 (215)	66.2***
잘 사는 편	6.8	24.8	39.5	28.9	100.0 (1,535)	
보통	6.7	26.4	41.3	25.7	100.0 (7,216)	
못 사는 편	8.5	28.4	38.4	24.7	100.0 (1,656)	
매우 못사는 편	13.4	28.0	28.0	30.5	100.0 (164)	
모르겠음	8.1	24.0	40.2	27.7	100.0 (433)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동거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표 4-9 참조). 성별로는 남녀학생 모두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으나, 그 강도는 남학생(62.0%)에 비해 여학생(71.5%)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혼전 동거의 비전통적 결합형태에 대한 남녀간 인식의 차이는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거에 관한 부

정적인 태도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 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강도 면에서는 상급학교·고학년에서는 약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거에 관한 태도는 학생들이 성장단계에서 점차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는 2005년에 실시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로서 동거관련 태도가 미혼남성(20~44세) 중 57.5%, 미혼여성(20~44세) 중 44.7%, 기혼여성(20~44세)의 36.3%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과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겠다(이삼식 외, 2005c).⁷⁾

학생의 가족환경과 동거에 관한 태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표 4-10 참조),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학생의 동거관련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동거에 관한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그 영향으로 결혼 전에 동거생활을 통해 검증할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소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가구의 경제상태별로는 잘사는 편일수록 동거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6. 국제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라는 국제결혼에 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61.3%(매우 찬성 21.4%), 반대 38.7%(전혀 찬성 안함 15.6%)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다른 가족관 변수와 달리, 국제결혼관련 학생의 태도는 거주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국제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높아,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43.1%)에 비해 여학생(66.2%)이 국제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7)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도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유사한 항목에 대해 미혼남녀의 태도를 조사한 바 있다.

〈표 4-11〉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라는 국제결혼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1.4	39.9	23.1	15.6	100.0 (11,237)	
거주지역						
대도시	22.7	41.5	22.3	13.4	100.0 (4,935)	44.8***
중소도시	20.4	39.0	23.6	16.9	100.0 (4,945)	
농촌(군)	20.0	37.4	24.0	18.6	100.0 (1,357)	
성별						
남학생	18.5	38.4	24.3	18.8	100.0 (5,850)	146.9***
여학생	24.6	41.6	21.7	12.1	100.0 (5,376)	
학년구분						
초 5학년	19.7	32.2	26.9	21.3	100.0 (1,020)	204.1***
초 6학년	22.6	30.1	23.4	24.0	100.0 (881)	
중 1학년	21.0	34.7	25.1	19.3	100.0 (1,555)	
중 2학년	21.0	41.9	22.1	15.0	100.0 (1,605)	
중 3학년	23.0	40.6	21.8	14.6	100.0 (1,587)	
고 1학년	20.0	44.1	23.3	12.6	100.0 (1,559)	
고 2학년	21.9	44.3	21.5	12.3	100.0 (1,598)	
고 3학년	21.9	44.6	22.2	11.2	100.0 (1,432)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7. 가족가치관별 청소년의 태도 종합비교

다양한 가족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매우 찬성+찬성)는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71.1%)”에 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61.3%)”,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58.7%)”,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33.7%)”,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33.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21.6%)”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입양, 국제결혼, 재혼 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나, 한부모가족, 동거, 미혼모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4-12〉 가족가치관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종합비교
(단위: %, 점)

구분	전체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긍정태도(찬성%)										
한부모가족 ¹⁾	33.7	27.2	29.8	28.5	30.0	36.3	33.0	31.6	42.2	36.7
미혼모 ²⁾	21.6	9.9	19.4	14.6	17.9	21.1	19.4	22.6	31.1	26.7
입양 ³⁾	71.1	56.2	74.8	65.1	66.7	81.1	73.5	63.5	79.4	71.2
재혼 ⁴⁾	58.8	31.7	41.9	36.6	49.0	52.6	55.4	67.5	43.0	71.4
동거 ⁵⁾	33.4	23.9	20.1	22.0	35.6	27.1	31.6	46.6	33.1	40.1
국제결혼 ⁶⁾	61.3	47.8	57.0	52.2	54.8	67.5	60.8	62.8	68.7	65.7
평균점수										
한부모가족 ¹⁾	1.83	2.02	1.96	1.99	1.90	1.79	1.85	1.82	1.68	1.75
미혼모 ²⁾	2.17	2.47	2.28	2.38	2.23	2.16	2.20	2.12	1.97	2.05
입양 ³⁾	1.09	1.39	0.96	1.18	1.21	0.85	1.04	1.27	0.95	1.11
재혼 ⁴⁾	1.42	2.00	1.74	1.87	1.59	1.33	1.47	1.28	1.09	1.18
동거 ⁵⁾	1.86	2.09	2.15	2.12	1.80	1.98	1.89	1.59	1.86	1.72
국제결혼 ⁶⁾	1.33	1.60	1.37	1.49	1.48	1.18	1.34	1.32	1.18	1.25

주: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4) 사별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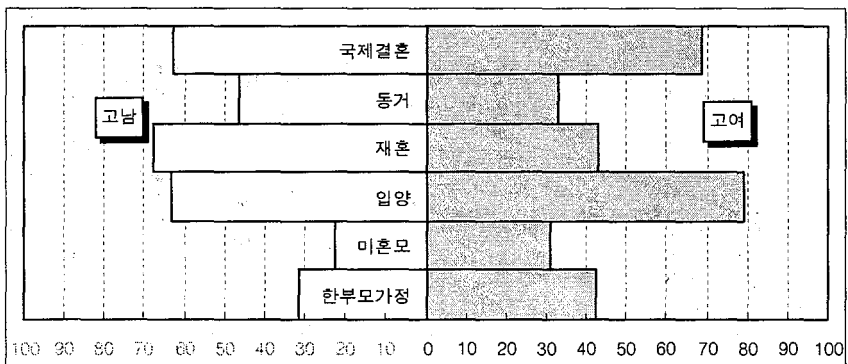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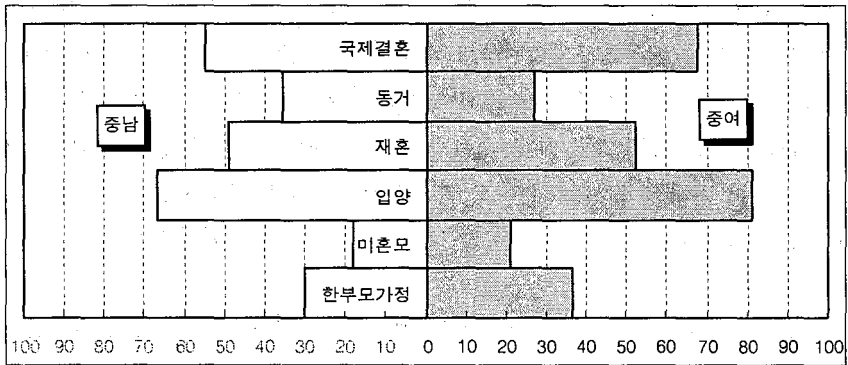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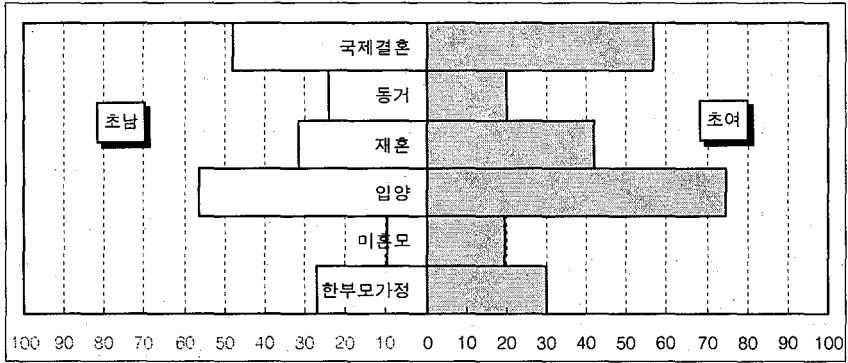
5) 남자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각급 학교별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가족관련 태도를 비교하여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 국제결혼에 관한 태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면, 동거에 관해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중학생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국제결혼에는 대해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재혼과 동거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요컨대 다양한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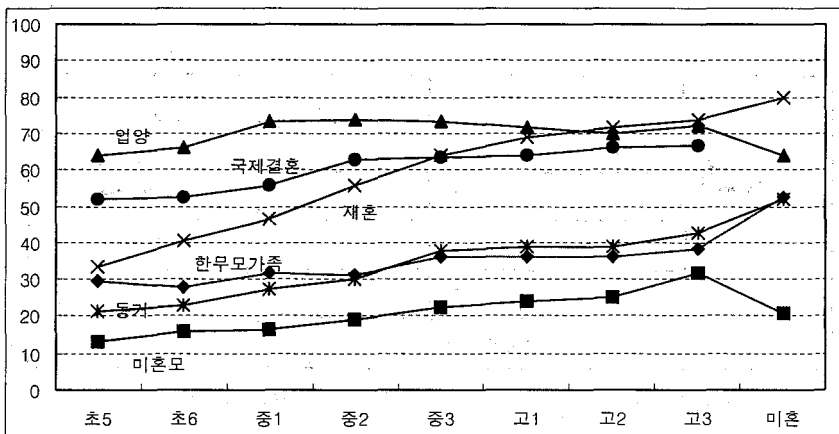
유형에 대해서 각급학교 학생 공통적으로 여학생이 더 수용도가 높은 반면, 동거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하겠다. 재혼에 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남학생의 수용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패턴은 더 성장하면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에 대해서는 미혼남성(20~44세)에 비해 미혼여성(20~44세)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거에 관한 태도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고 학생과 미혼자의 가족관련 태도의 성차를 비교하여 보면, 성장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4-1] 학교급별 가족가치관에 관한 초(5·6학년)·중·고 남녀학생간 성차



학교급별 학년 구분은 연령에 준하며, 이는 비록 서로 다른 코호트에 속하나 성장과정의 일선상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가장 높으며,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전환하면서 더 높아지나 그 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전 생애과정에서 7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국제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도 입양과 마찬가지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전 생애과정에서의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입양에 비해 다소 낮은 60~70% 사이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재혼, 동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초, 중, 고, 청년기를 통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기에 더욱 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가족유형에 대한 수용성은 성장과정을 통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고등학생 2학년부터 비교대상 가족유형 중 가장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용 정도는 입양, 국제결혼, 재혼, 한부모가족 순으로 높다.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성장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초등학생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른 가족유형보다 수용성 정도가 낮아 아주 보수적인 가치관이다.

[그림 4-2] 학교급·학년별 가족가치관에 관한 학생의 태도 차이: 찬성비율



제 3 절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편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인식은 ‘일반가족처럼 행복’ 31.6%, ‘행복하지 못할 것’ 23.3%, ‘행·불행은 가족형태와 무관’ 28.3%로 부정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양한 가족이 불행할 것이라는 인식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학생의 순으로 높았다. 남학생(24.8%)이 여학생(21.8%)에 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행·불행의 양자택일적 인식은 약해지는 반면, 가족형태와 행·불행과 무관하다는 인식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향적인 가치관이 점차 가치중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13〉 다양한 가족형태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인식: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일반 가족 처럼 행복	행복 하지 못할 것임	행·불행과 가족형태와 무관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31.6	23.3	28.3	16.8	100.0 (11,213)	
거주지역						
대도시	30.9	23.7	30.6	14.8	100.0 (4,928)	42.2***
중소도시	31.7	23.2	26.6	18.6	100.0 (4,931)	
농촌(군)	33.8	22.7	26.1	17.4	100.0 (1,354)	
성별						
남학생	29.2	24.8	26.5	19.5	100.0 (5,837)	102.1***
여학생	34.2	21.8	30.2	13.8	100.0 (5,363)	
학년구분						
초 5학년	40.5	25.6	11.7	22.2	100.0 (1,017)	608.9***
초 6학년	31.5	32.3	15.7	20.6	100.0 (880)	
중 1학년	37.0	24.4	18.1	20.5	100.0 (1,553)	
중 2학년	34.9	22.0	25.5	17.6	100.0 (1,597)	
중 3학년	32.2	20.9	28.8	18.1	100.0 (1,578)	
고 1학년	28.6	21.5	36.5	13.3	100.0 (1,557)	
고 2학년	25.8	22.7	37.6	13.9	100.0 (1,597)	
고 3학년	24.9	21.9	42.1	11.2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의 생존여부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식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14 참조). 편부모 또는 부모가 없는 학생의 경우 다양한 가족이 불행할 것이라는 의식은 10%대로 아주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양한 가족이 불행할 것이라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23.7%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이 일반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의식과 가족형태와 행복·불행과는 무관하다는 의식은 부모생존 여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편부모가정의 학생이 다양한 가족도 일반가족처럼 행복하다는 의식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편모가정 또는 부모 모두 사망한 학생의 경우에 가족형태와 행·불행과는 무관하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학생의 의식이 자신의 배경에 대한 합리화(rationalization)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식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식이 다소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모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관계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의식차이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관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다양한 가족도 일반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가족형태가 행·불행과 무관하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양한 가족이 불행할 것이라는 의식은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관계가 나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양한 가족이 일반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핵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경우 다양한 가족이 불행하거나 행·불행과 무관하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요컨대 가족구성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태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아주 잘사는 편이라는 학생의 경우 다양한 가족이 일반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못산다는 학생일수록 가족형태와 행·불행과 무관하다는 의식이 일관성 있게 높았다. 다양한 가족이 불행할 것이라는 의식은 잘 살거나 아주 못산다는 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4〉 다양한 가족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일반 가족 처럼 행복	행복 못할 것임	행·불행과 가족형태 무관	모르겠음	계 (명)	χ^2
부모생존여부						
부모 모두 생존	31.4	23.7	28.3	16.6	100.0 (10,727)	26.8**
부만 생존	38.8	16.4	23.1	21.6	100.0 (134)	
모만 생존	34.8	15.0	32.4	17.7	100.0 (293)	
부모 모두 사망	29.7	10.8	29.7	29.7	100.0 (37)	
부모 이혼·별거여부						
예	32.6	22.7	29.4	15.4	100.0 (970)	2.3
아니오	31.3	23.8	28.2	16.7	100.0 (9,70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5.8	24.1	24.9	15.3	100.0 (3,671)	127.1***
좋은 편	30.4	24.4	29.0	16.1	100.0 (3,866)	
보통	28.6	21.6	31.5	18.3	100.0 (1,960)	
나쁜 편	24.3	28.6	31.7	15.4	100.0 (448)	
매우 나쁜 편	24.2	24.2	34.5	17.0	100.0 (223)	
모르겠음	24.3	17.6	30.1	28.0	100.0 (375)	
학생-부모간 관계						
매우 좋은 편	36.7	24.0	23.9	15.4	100.0 (4,359)	191.5***
좋은 편	30.1	23.2	30.8	15.9	100.0 (4,278)	
보통	27.1	21.8	32.1	19.0	100.0 (1,855)	
나쁜 편	16.8	34.6	33.6	15.0	100.0 (214)	
매우 나쁜 편	22.7	22.7	31.8	22.7	100.0 (44)	
모르겠음	21.5	18.5	31.0	29.0	100.0 (335)	
조부모 동거여부						
예	36.2	20.7	25.6	17.6	100.0 (1,975)	30.5***
아니오	30.6	23.9	28.9	16.6	100.0 (9,229)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42.1	18.5	16.2	23.1	100.0 (216)	241.7***
잘 사는 편	35.2	27.0	23.2	14.6	100.0 (1,532)	
보통	32.1	23.0	28.6	16.3	100.0 (7,206)	
못 사는 편	27.0	23.5	34.7	14.7	100.0 (1,649)	
매우 못사는 편	20.1	29.3	31.7	18.9	100.0 (164)	
모르겠음	27.7	14.2	21.2	37.0	100.0 (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다양한 가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의식을 살펴보면(표 4-15 참조), 별거·이혼이 많이 발생해서가 59.3%로 가장 높고, 모름 16.2%, 맞벌이부부로 자녀양육 곤란 때문에 16.0%, 자녀교육을 위해 따로 거주하기 때문 4.3%, 부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4.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다양한 가족의 발생이 이유를 모른다는 비율이 1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의 미흡을 짐작할 수 있다. 학생들 대부분 다양한 가족의 발생원인으로 부모의 이혼·별거로 기록하고 있으나, 맞벌이부부로 자녀양육이 곤란하다는 이유 비율이 높다는 점은 다소 의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교육의 영향이기 보다 아무래도 학생의 부모가 맞벌이부부인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 사망이나 자녀교육으로 인한 별거·이혼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패턴은 학생의 학교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집단별로 다소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다양한 가족의 발생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율이 점차 낮게 나타났다. 즉, 학년이 진행되면서 교육의 효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발생 이유 중에서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부모의 별거·이혼 이유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맞벌이부부 증가 이유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른 이유들의 비율은 학교급 및 학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본인 또는 주변에서 부모의 이혼·별거와 맞벌이부부를 상대적으로 더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학교특성별로는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에 비해 남학생 또는 남녀공학의 경우 다양한 가족의 발생 이유를 모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성차에 의해 여학생 집단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이 남학생보다 더 예민하거나, 여학교 특성상 교과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 발생의 이유로는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의 경우 별거·이혼의 비율(72.6%)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신 맞벌이부부 때문에 12.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가족 발생의 원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여학생만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4-15〉 초(5·6학년)·중·고 학생이 생각하는 다양한 가족 발생 이유
(단위: %, 명)

구분	별거·이혼 많아져서 ¹⁾	자녀교육 위해 따로거주 ²⁾	부모 질병· 사망 ³⁾	맞벌이로 육아곤란 ⁴⁾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59.3	4.3	4.1	16.0	16.2	100.0 (11,173)	
학교급							
초등학교	51.9	3.9	6.4	14.5	23.2	100.0 (1,878)	203.5***
중학교	57.3	5.0	4.5	16.6	16.5	100.0 (4,716)	
인문고등학교	65.6	4.0	2.8	15.7	11.9	100.0 (3,620)	
실업고등학교	59.8	2.9	3.1	16.8	17.3	100.0 (958)	
학교특성							
남학교	54.2	5.7	4.0	19.8	16.2	100.0 (1,871)	226.4***
여학교	72.6	3.0	2.4	12.4	9.6	100.0 (2,130)	
남녀공학	56.7	4.4	4.7	16.0	18.2	100.0 (7,170)	
학년구분							
초 5학년	49.2	4.4	6.2	14.5	25.8	100.0 (1,007)	228.7***
초 6학년	55.1	3.4	6.8	14.5	20.2	100.0 (871)	
중 1학년	55.8	6.3	4.8	17.5	15.6	100.0 (1,544)	
중 2학년	59.9	4.0	4.2	14.4	17.5	100.0 (1,595)	
중 3학년	56.2	4.8	4.6	18.0	16.5	100.0 (1,578)	
고 1학년	65.7	3.6	3.0	14.7	13.0	100.0 (1,553)	
고 2학년	63.2	3.4	2.5	18.0	12.9	100.0 (1,593)	
고 3학년	64.3	4.3	3.0	15.1	13.2	100.0 (1,430)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1) 부모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
- 2)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 3)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일찍 돌아가셔서.
- 4)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 p<0.1, * p<0.05, ** p<0.01, *** p<0.001

제 4 절 청소년의 가족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

1. 학교에서 가족을 배운 교과목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5~6학년)·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가족에 대해 배웠던 과목들은 도덕이 82.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기술·가정(초등학생의 경우 실과)이 5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해 배웠던 다른 과목으로는 사회 29.5%, 국어 19.5%,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13.0%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어(4.6%), 과학(3.1%) 등을 통해 배운 비율은 아주 낮았으며, 학생 중 3.6%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다.

〈표 4-16〉 초(5·6학년)·중·고 학생의 가족 내용을 배운 학교 교과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 가정 실과	외국어	특별· 재량 활동	기타	배운적 없음	(전체응답자)
전체 성별	19.5	82.6	29.5	3.1	57.5	4.6	13.0	9.2	3.6	(11,246)
남학생	20.3	80.3	28.1	3.9	52.1	5.4	14.1	11.2	4.6	(5856)
여학생	18.6	85.0	31.0	2.2	63.5	3.8	11.7	6.9	2.4	(5380)
학교급										
초등학교	27.1	80.3	46.6	3.3	41.5	7.5	12.6	14.3	3.3	(1,901)
중학교	17.1	86.4	16.7	2.3	58.2	3.4	13.3	7.8	3.3	(4,754)
인문고등학교	18.1	78.9	39.7	4.0	69.0	4.8	12.9	8.4	3.4	(3,630)
실업고등학교	21.3	81.9	20.3	3.4	42.4	4.5	12.2	8.8	6.1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24.8	81.5	48.8	4.5	44.2	7.9	11.2	14.6	2.1	(1019)
초 6학년	29.6	79.1	44.3	1.8	38.5	7.2	14.2	14.0	4.8	(881)
중 1학년	12.8	88.6	7.4	1.9	69.2	3.0	9.1	7.3	1.2	(1557)
중 2학년	21.2	85.6	15.5	2.1	47.1	3.7	16.0	10.1	4.2	(1608)
중 3학년	17.1	85.3	26.8	2.8	58.8	3.5	14.7	5.9	4.5	(1588)
고 1학년	14.9	77.5	22.3	3.4	73.9	4.4	14.6	7.5	2.8	(1561)
고 2학년	20.3	79.2	39.6	3.7	59.7	4.5	11.7	9.6	4.4	(1598)
고 3학년	21.2	82.1	45.6	4.5	56.1	5.5	11.9	8.3	4.7	(1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다소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비율은 여학생(2.4%)에 비해 남학생(4.6%)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구분별로도 전체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족관련 수업과목에 대한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간의 비교에서, 인문계의 경우 기술·가정과 사회 과목에서의 수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업계의 경우에는 국어와 도덕 과목에서의 수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혀 배운 적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6.1%로 인문계고등학교의 3.4%로 약 두 배나 높았다. 학년별로도 전체 패턴이 유지되고 있으나, 학년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2.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배운 내용

학생들이 가족에 대해 배운 내용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이 76.9%,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 71.7%,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 평등 47.8%, 가족-이웃관계 46.4%,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 41.4%, 가족-사회·국가 관계 37.7%, 가족의 의식주 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관련 수업내용의 정도는 학생 및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가족의 소중함,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 가족-이웃관계,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 평등,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 가족-사회·국가 관계, 가족의 의식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 가족의 소중함, 가족내 남녀간 역할평등, 가족-이웃관계,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 가족-사회·국가 관계, 가족의 의식주 등의 순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과 가족내 남녀간 역할평등에 관해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도 가족관련 수업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 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외 다른 내용은 정도가 낮고,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중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16.8%), 가족의 의식주(20.1%)는 특히 낮았다.

〈표 4-17〉 초(5·6학년)·중·고 학생들이 가족에 관한 배운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가족 소중함	가족형태· 구성원 역할	가족의 의식주	가족내 남녀간 역할평등	가족 구성원 갈등·화해	가족-이웃 관계	가족·사회· 국가 관계	기타	배운 학생 전체
전체	76.9	71.7	35.2	47.8	41.4	46.4	37.7	6.8	(11238)
성별									
남학생	77.6	66.5	33.4	42.1	39.1	43.6	34.8	8.4	(5852)
여학생	76.1	77.4	37.2	53.9	43.9	49.4	40.9	5.0	(5377)
학교급									
초등학교	81.9	55.2	20.1	31.5	16.8	43.4	24.3	8.5	(1899)
중학교	80.8	73.7	32.9	43.9	46.3	51.0	37.5	6.6	(4749)
인문고	71.5	80.4	47.3	64.7	47.0	42.8	48.7	6.1	(3630)
실업고	67.4	61.7	30.6	35.3	44.7	43.5	23.7	6.6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81.7	58.3	21.2	29.2	14.1	47.4	22.8	8.7	(1019)
초 6학년	82.0	51.6	18.6	34.2	19.8	38.9	26.1	8.2	(880)
중 1학년	90.0	75.6	27.1	39.8	50.4	51.5	35.5	7.5	(1556)
중 2학년	79.2	70.7	28.4	40.8	37.6	47.3	41.9	6.3	(1608)
중 3학년	73.5	74.8	43.3	50.9	51.2	54.1	35.1	6.0	(1585)
고 1학년	71.0	78.9	45.5	58.0	49.1	43.2	40.4	5.8	(1561)
고 2학년	70.5	74.9	42.9	54.9	44.4	42.2	44.2	5.9	(1598)
고 3학년	71.0	77.4	45.1	63.5	46.2	43.6	46.4	7.1	(1423)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①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 ②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③ 가족 의식주에 관한 내용 ④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
 ⑤ 가족구성원의 갈등과 화해 ⑥ 가족과 이웃의 관계
 ⑦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⑧ 기타

3) 배운 적 없음 제외

중학생의 경우에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 가족-이웃관계,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 평등, 가족·사회·국가 관계, 가족의 의식주 등의 순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였다.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 가족의 소중함,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 평등, 가족·사회·국가 관계, 가족의 의식주,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 가족-이웃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 가족-이웃관계,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 평등, 가족의 의식주, 가족-사회·국가 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계고등학생에 비해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모든 가족사항에 대해 배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중학생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 내 남녀간 역할평등에 관한 수학 정도는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 64.7%로 초등학생 31.5%, 중학생 43.9%, 실업계고등학생 35.3%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도 학년별로 가족에 관한 배운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그 패턴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로,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사회·국가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에서 배운 정도가 고등학교 2학년생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년별 교육내용의 수준차이는 학교교과목 편성이나 학년별 교과내용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학교에서 가족관련 수업 후 소감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 45.8%,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 17.1%,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13.7%,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 12.5%,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됨 6.2% 등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됨)은 52.0%이며, 부정적인 반응(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음,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은 43.3%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남녀 학생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급별 및 학년별로 가족관련 수업 후 소감은 차이가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66.5%로 아주 높고, 전체적으로 가족교육의 긍정적인 반응은 73.3%로 전체 평균이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48.4%로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5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8〉 초(5·6학년)·중·고 학생의 가족관련 수업 후 생각

(단위: %, 명)

구분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	화목한 가정을 만들 생각	가족갈등 극복방법 지식습득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뤄 현실과 괴리	아무 생각 없음	기타	계 (명)
전체	12.5	45.8	6.2	17.1	13.7	4.7	100.0 (10,786)
성별($\chi^2=123.2^{***}$)							
남학생	11.4	49.4	6.9	15.3	11.5	5.4	100.0 (5,535)
여학생	13.6	42.1	5.4	18.9	16.0	4.0	100.0 (5,241)
학교급($\chi^2=927.0^{***}$)							
초등학교	3.2	66.5	6.8	9.3	8.3	5.8	100.0 (1,820)
중학교	9.9	48.4	7.8	15.0	13.7	5.2	100.0 (4,571)
인문고등학교	20.8	33.3	3.9	23.0	15.5	3.5	100.0 (3,502)
실업고등학교	11.6	40.0	5.7	19.9	17.4	5.4	100.0 (893)
학년구분($\chi^2=1062.5^{***}$)							
초 5학년	3.5	68.7	7.2	7.6	7.7	5.4	100.0 (990)
초 6학년	3.0	64.0	6.3	11.4	9.0	6.3	100.0 (830)
중 1학년	5.4	57.5	9.4	12.0	11.0	4.7	100.0 (1,530)
중 2학년	10.6	48.8	6.3	14.2	14.2	5.9	100.0 (1,533)
중 3학년	13.8	38.7	7.7	18.9	16.0	4.9	100.0 (1,509)
고 1학년	15.6	39.1	4.8	22.6	14.0	4.0	100.0 (1,516)
고 2학년	19.4	33.1	4.4	22.8	16.2	4.0	100.0 (1,523)
고 3학년	22.3	31.5	3.5	21.7	17.6	3.5	100.0 (1,356)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① 식상한 이야기라 지루했다, ②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③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④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 p<0.1, * p<0.05, ** p<0.01, *** p<0.001

인문계고등학생과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가족관련 수업 후 긍정적인 반응의 정도는 더욱 낮았다. 전자의 경우 37.2%(화목한 가정 만들 생각 33.3%, 가족간의 갈등 해결방법 습득 3.9%), 후자의 경우 45.7%(화목한 가정 만들 생각 40.0%, 가족간의 갈등 해결방법 습득 5.7%)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다. 환언하면,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가족관련 교육의 내용이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식상하여 지루하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별로도 나타났다. 요컨대, 기 지식습득 정도가 낮

거나 인터넷 등 다른 교육매체를 접하는 정도가 낮은 어린 학생일수록 가족관련 학교교육의 내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점차 학교교육 내용이 학생성장발달 수준에 비해 부족하거나 불충분해지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제 5 절 청소년 가족관의 시사점

우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긍정적 태도)는 입양(71.1%), 국제결혼(61.3%), 재혼(58.7%), 한부모가족(33.7%), 혼전동거(33.4%), 미혼모(21.6%) 순이다.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한부모가족, 동거 및 미혼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둘째, 남녀학생별로는 동거를 제외한 한부모가족, 미혼모, 입양, 재혼, 국제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동거에 대한 수용도는 남학생이 더 높다.

셋째, 성장과정별로 입양과 국제결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중학생 시기까지 높아진다. 재혼, 동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도 성장에 따라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그 수준은 여전히 낮아 거부감이 심하다.

넷째, 한부모가족, 재혼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일반가족처럼 행복’ 31.6%, ‘행복하지 못할 것’ 23.3%, ‘행·불행은 가족형태와 무관’ 28.3%로 부정적인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향적인 가치관이 점차 가치중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섯째, 학생들이 가족에 대해 배운 내용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이 76.9%,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역할 71.7%,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 평등 47.8%, 가족-이웃관계 46.4%, 가족구성원의 갈등·화해 41.4%, 가족-사회·국가 관계 37.7%, 가족의 의식주 35.2% 등의 순이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가족형태 및 구성

원의 역할과 가족내 남녀간 역할평등에 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 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외 다른 내용은 정도가 낮다. 가족에 관한 학교교육 후 학생들의 태도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 생각 45.8%, 이상적 가정만 다뤄 비현실적 7.1%, 아무 생각 없음 13.7%, 식상하여 지루 12.5%, 가족갈등 극복방법 습득 계기 6.2% 등이. 가족교육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43.3%로 높으며, 이러한 태도는 상급학교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다른 매체를 접근하는 정도가 낮은 어린 학생일수록 가족관련 학교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점차 학교교육 내용이 성장발달수준에 비해 부족하거나 불충분해지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즉,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제도적·문화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축되어야 하며,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가치관의 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친화적·양육친화적 사회제도적 문화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한번 형성된 가족관은 생애 전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종국에는 전 사회적으로도 지대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미래세대인 청소년기에 가족관련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부록에 수록된 교사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보면, 전체 응답 교사 중 약 50% 정도만이 해당학교에서 가족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답해,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에 관한 수업 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교사의 75%가 넘는 수가 가족관련 교육내용이 진부하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여, 관련 자료의 확충 및 내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적 가치관 함양’, ‘학습자의 수준이나 흥미 고려’, ‘시대

성 및 현실성 반영', '교육 분량의 적절성', '삽화·사진·도표 등의 적절성' 측면에서 학교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초·중·고등학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초·중학교 교사에 비해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앞서 나열한 사항들과 관련해서 현재 학교교육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가족관련 학교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 및 과정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관련 교육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적합하도록 교과내용을 개편하고 교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 5 장 청소년의 결혼 가치관

제 1 절 문제제기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있다(변화순, 2002). 1995년 남자와 여자의 초혼연령은 28.4세와 25.4세였으나 2005년에는 30.9세와 27.7세로 10년 동안 각각 2.5세와 2.3세가 높아졌다(통계청, 2006).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미혼인구가 25세에서 29세 사이는 14.9%가 늘어서 70.6%로 30세에서 34세 사이에는 10.7%가 늘어서 30.2%가 되었다(통계청, 2006b).

혼인상태의 변화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 개인적으로 혼인상태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30세 이후 동일연령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할 확률이 6배가 높다. 미혼자들은 영양 불균형과 불균형한 수면, 잦은 흡연 및 음주 등으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큰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늦은 결혼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이삼식 외, 2005b).

이러한 혼인 행위의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많은 학자들은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다(이삼식 외, 2005c). 최근 성인의 미혼남녀들은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는 일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6세에서 35세까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절반 가까이(43.3%)가 혼전 동거에 긍정적이며 여성들은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50.0%)이며 싱글도 좋다(62.8%)고 말한다(제일기획, 2005). 이 젊은이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이면 자기 시간을 못 가지니까 아이에게 들여야 할 돈·노력·정성을 나에게 쏟고 싶다”고 말하고 “나이 더 먹기 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야 하며 “가만히 있으면 밀려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미혼남녀들과 비슷한 사고방식

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다(여성가족부, 2004).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으로 이들의 가치관은 한국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점이다. 저출산 문제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근 혼인 형태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및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 등 부정적 결과를 고려할 때 결혼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모아진 자료를 통해 10대 학생들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특히 다양한 개인적·가족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가치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 2 절 결혼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가 66.5%이나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는 16.8%에 불과하였다(표 5-1 참조). 결혼에 대한 유보적(‘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29.3%)이거나 부정적(‘하지 않은 게 낫다’ 1.6%)인 태도도 40%에 육박하였다. 청소년들은 성인인 미혼 남녀보다도 결혼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2005년 20세에서 44세까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문항에 대해 미혼남성은 29.5%, 42.0%, 23.5%가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미혼여성은 12.9%, 36.3%, 44.9%가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대답했다(이삼식, 2005c).

1. 개인적 특성별 결혼필요성에 관한 태도

학생의 거주지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아, 학생의 결혼관은 지역 구분 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성별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56.8%(반드시 결혼 10.4% 포함)로 남학생의 75.5%(반드시 결혼 2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학년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65%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대체적으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모르겠다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판단유보나 결혼하지 않은 게 낫다는 부정적인 태도의 비율도 근소하게나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1〉 결혼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함	하는편이 좋음	해도·하지 않아도 좋음	하지않는게 낫음	모르 겠음	계 (명)
전체	16.8	49.7	29.3	1.6	2.5	100.0 (11,236)
거주지역						
대도시	16.8	49.4	29.9	1.8	2.2	100.0 (4,935)
중소도시	16.3	49.8	29.5	1.6	2.8	100.0 (4,945)
농촌(군)	18.6	50.2	27.0	1.4	2.8	100.0 (1,356)
성별($\chi^2=649.1^{***}$)						
남학생	22.8	52.7	20.4	1.1	3.1	100.0 (5,850)
여학생	10.4	46.4	39.1	2.2	1.9	100.0 (5,377)
학년구분($\chi^2=173.3^{***}$)						
초 5학년	13.5	52.1	25.9	1.9	6.7	100.0 (1,020)
초 6학년	15.1	52.2	27.6	0.9	4.2	100.0 (877)
중 1학년	16.9	50.1	28.3	1.5	3.2	100.0 (1,552)
중 2학년	15.6	50.6	30.3	1.1	2.4	100.0 (1,608)
중 3학년	14.9	49.5	32.5	1.6	1.5	100.0 (1,589)
고 1학년	17.6	51.8	27.4	1.8	1.4	100.0 (1,561)
고 2학년	19.7	46.5	30.0	2.2	1.6	100.0 (1,599)
고 3학년	19.6	46.3	30.7	2.0	1.3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2. 가족적 특성별 결혼 필요성에 관한 태도

학생의 형제자매수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형제의 양적인 측면보다 형제의 이혼경험 여부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생존여부별로 보면, 부모 모두 생존해 있거나 모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부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부정적인 태도와 모르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별거가 자녀의 결혼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으나, 이번 조사의 대상인 학생들의 경우 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로 실제 본인의 결혼과 결부시킬 경우에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한편, 부모간의 관계는 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부모간의 관계가 나쁜 학생일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일관성 있게 낮아지는 반면, ‘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과 부모의 관계는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관계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편인데 비해 보통인 경우는 오히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차이는 부모 모두 취업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67.2%), 부만(65.5%) 또는 모만(66.4%) 취업한 경우에는 유사하였으며,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62.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2〉 결혼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함	하는편 좋음	해도·하지 않아도 좋음	하지않는 게 좋음	모르 겠음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19.1	49.2	28.1	1.5	2.1	100.0 (1,414)	12.4
2명	16.6	49.8	29.5	1.6	2.5	100.0 (7,122)	
3명	15.6	49.6	30.3	1.9	2.7	100.0 (2,171)	
4명 이상	18.3	49.9	27.0	1.9	2.9	100.0 (519)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16.8	49.7	29.4	1.6	2.5	100.0 (10,749)	30.1**
부만 생존	14.9	50.0	30.6	1.5	3.0	100.0 (134)	
모만 생존	18.8	49.8	28.0	1.0	2.4	100.0 (293)	
모두 사망	10.5	47.4	21.1	7.9	13.2	100.0 (38)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6.7	46.5	31.9	2.2	2.7	100.0 (974)	6.3
아니오	16.7	50.0	29.2	1.6	2.5	100.0 (9,725)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0.2	49.8	26.8	1.1	2.0	100.0 (3,674)	172.6***
좋은 편	15.1	53.2	28.5	1.1	2.1	100.0 (3,879)	
보통	14.5	46.1	33.5	2.6	3.3	100.0 (1,966)	
나쁜 편	17.3	43.6	34.6	2.7	1.8	100.0 (445)	
매우 나쁜 편	16.6	41.3	31.8	5.4	4.9	100.0 (223)	
모르겠음	13.0	47.2	31.3	2.4	6.1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9.6	49.8	26.8	1.3	2.5	100.0 (4,367)	207.5***
좋은 편	15.1	52.6	29.3	1.3	1.7	100.0 (4,292)	
보통	14.3	45.4	34.9	2.0	3.3	100.0 (1,855)	
나쁜 편	19.5	40.5	31.2	5.6	3.3	100.0 (215)	
매우 나쁜 편	20.0	40.0	22.2	11.1	6.7	100.0 (45)	
모르겠음	12.3	42.2	34.4	4.2	6.9	100.0 (334)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17.1	50.1	28.8	1.5	2.5	100.0 (6,971)	16.4
부만 취업	15.8	49.7	30.3	1.8	2.5	100.0 (3,384)	
모만 취업	18.7	47.7	30.0	1.2	2.4	100.0 (507)	
모두 비취업	16.6	45.4	31.0	3.7	3.3	100.0 (271)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5.0	32.7	22.9	2.8	6.5	100.0 (214)	255.7***
잘 사는 편	18.8	50.9	27.7	1.0	1.6	100.0 (1,536)	
보통	16.1	50.9	29.5	1.3	2.2	100.0 (7,221)	
못 사는 편	15.7	48.4	30.7	2.8	2.4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3.6	35.2	32.1	6.7	2.4	100.0 (165)	
모르겠음	14.1	44.6	28.9	2.5	9.9	100.0 (433)	

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아주 못산다고 하는 학생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하니 않은게 낫다는 부정적인 태도도 6.7%로 다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실업 포함) 가구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을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제 3절 이상적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초(5·6학년)·중·고 학생들에게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대답하였다.

1. 이상적인 남성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

초·중·고 학생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8~29세 33.1%, 26~27세 22.9%, 25세 이하 21.7%, 30~31세 16.6%, 32세 이상 5.7% 등의 순으로, 평균 27.9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국의 분포는 지역별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의 평균은 대도시 28.0세, 중소도시 27.9세, 농촌 27.8세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녀 학생별로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8~29세 29.9%, 25세 이하 27.4세, 26~27세 24.8%, 30~31세 14.0% 등의 순으로 28~29세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반면, 여학생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8~29세 37.5%, 26~27세와 30~31세 각각 20.2%, 25세 이하 13.9%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28~29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는 있으나, 그 비율이 여학생의 경우 더 높다. 또한, 다른 연령들의 분포도 남학생의 응답 결과는 상대적인 저연령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응답결과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에 비해 여학생은 더 높은 연령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로서 미혼남녀간의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의식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이삼식 외, 2005c). 성인 미혼 남녀(20~44세)는 학생들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 성인 미혼 남성과 여성은 각각 남자는 30.6세와 31.3세에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삼식 외, 2005c).

학교급 및 학년별로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일관성 있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는 늦게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으로서 26~27세와 25세 이하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28~29세, 30~31세, 32세 이상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 25세 이하(34.7%), 26~27세(27.4%), 28~28세(27.0%) 등 저연령층일수록 선호 비중이 높았으나, 중학생의 경우 27~28세(31.5%), 25세 이하(26.7%), 26~27세(25.6%) 등의 순으로,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 28~29세(38.4%), 30~31세(27.5%), 26~27세(15.7%) 등의 순으로 점차 고연령층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업계고등학생은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28~29세(34.4%), 26~27세(26.7%), 25세 이하(19.3%)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인문계고등학생에 비해 이른 연령을 이상적인 결혼연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응답학생집단별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의 평균은 초등학생의 경우 27.0세, 중학생의 경우 27.5세, 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 28.0세,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 29.1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남녀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20세에서 24세의 미혼남성과 여성은 각각 29.8세와 30.8세에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35세에서 44세 미혼남성과 여성은 각각 31.2세와 31.6세에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삼식 외, 2005c).

또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교육적 열망이 높을수록 남성의 적절한 혼인연령이 상승한다. 희망 중학수준별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의 평균은 중학교 희망 경우 24.9세, 고등학교 희망 경우 26.8세, 대학교 희망 경우 28.0세, 대학원 희망

경우 28.1세 등의 순이다. 결국 고학력화 추이가 계속되는 한, 혼인연령도 계속 지연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겠다.

〈표 5-3〉 이상적 남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평균 연령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전체	21.7	22.9	33.1	16.6	4.7	1.0	100.0 (10,010)	27.9
지역($\chi^2=28.5^{**}$)								
대도시	20.6	23.4	32.6	17.0	5.4	1.0	100.0 (4,313)	28.0
중소도시	22.8	21.8	33.0	16.9	4.4	1.0	100.0 (4,444)	27.9
농촌(군)	21.9	24.4	35.6	14.0	3.3	0.8	100.0 (1,253)	27.8
성별($\chi^2=408.6^{***}$)								
남학생	27.4	24.8	29.9	14.0	3.3	0.6	100.0 (5,780)	27.4
여학생	13.9	20.2	37.5	20.2	6.7	1.5	100.0 (4,222)	28.6
학교급($\chi^2=1,091.6^{***}$)								
초등학교	34.7	27.4	27.0	8.4	2.1	0.5	100.0 (1,745)	27.0
중학교	26.7	25.6	31.5	12.3	3.3	0.7	100.0 (4,269)	27.5
인문고등학교	8.7	15.7	38.4	27.5	8.3	1.5	100.0 (3,188)	29.1
실업고등학교	19.3	26.7	34.4	14.1	3.8	1.6	100.0 (808)	28.0
학년구분($\chi^2=1061.7^{***}$)								
초 5학년	35.1	25.9	26.6	9.0	2.8	0.5	100.0 (919)	27.1
초 6학년	34.3	29.1	27.4	7.7	1.2	0.4	100.0 (826)	27.0
중 1학년	31.4	28.3	28.4	9.3	2.0	0.6	100.0 (1,428)	27.2
중 2학년	25.5	24.3	32.3	13.8	3.3	0.7	100.0 (1,438)	27.6
중 3학년	23.1	24.1	33.7	13.6	4.6	0.9	100.0 (1,404)	27.7
고 1학년	13.0	21.8	36.0	22.5	5.0	1.7	100.0 (1,385)	28.5
고 2학년	10.9	17.8	37.7	23.4	8.9	1.3	100.0 (1,373)	28.9
고 3학년	8.3	13.7	39.3	28.9	8.3	1.5	100.0 (1,238)	29.1
희망교육 수준($\chi^2=233.8^{***}$)								
중학교	51.5	20.6	16.2	10.3	1.5		100.0 (68)	24.9
고등학교	41.2	21.7	21.6	11.8	1.4	2.3	100.0 (566)	26.8
대학교	20.4	23.2	34.6	16.5	4.7	0.7	100.0 (7,294)	28.0
대학원	20.3	22.2	31.6	18.2	5.8	1.8	100.0 (2,073)	28.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일부 특성별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표 5-4>와 같다. 부모가 별거·이혼 중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결혼연령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다소 높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모간의 관계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쁜 학생들은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빠르게 잡은 경향이 있는 반면, 중간 정도로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시기를 상대적으로 늦추어 잡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와 유사하다. 즉, 자신의 주관에 따라 가구의 경제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중간 또는 다소 낮거나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에 비해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추어 생각하고 있었다.

<표 5-4> 이상적 남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평균 연령	
	25세이하	26-27세	28-29세	30-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부모의 이혼·별거 상태($\chi^2=4.2^*$)								
예	26.2	20.4	30.8	16.5	4.6	1.4	100.0 (843)	27.8
아니오	21.2	22.8	33.6	16.7	4.8	1.0	100.0 (8,686)	28.0
부모간의 관계($\chi^2=49.2^{**}$)								
매우 좋은 편	23.0	23.0	34.1	15.4	3.6	0.9	100.0 (3,292)	27.8
좋은 편	19.6	23.4	33.3	17.5	5.3	0.9	100.0 (3,458)	28.1
보통	21.5	21.8	31.7	18.0	5.8	1.3	100.0 (1,752)	28.0
나쁜 편	21.9	21.4	33.5	15.6	5.8	1.8	100.0 (397)	28.1
매우 나쁜 편	27.7	18.6	34.0	14.9	4.3	0.5	100.0 (188)	27.6
모르겠음	25.6	19.8	32.9	15.9	4.9	0.9	100.0 (328)	27.8
가구 경제상태($\chi^2=152.8^{***}$)								
매우 잘 사는 편	39.4	23.1	22.6	13.0	1.9	-	100.0 (208)	26.4
잘 사는 편	28.0	23.9	28.9	14.0	3.8	1.4	100.0 (1,403)	27.6
보통	19.7	22.8	34.6	17.1	4.8	0.9	100.0 (6,423)	28.1
못 사는 편	19.0	22.4	32.4	18.9	6.2	1.1	100.0 (1,430)	28.2
매우 못사는 편	29.6	16.9	32.4	18.3	2.8	-	100.0 (142)	27.4
모름	29.9	22.8	32.5	10.5	3.6	0.8	100.0 (391)	27.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2. 이상적 여성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

초·중·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5세 이하가 38.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26~27세 32.9%, 28~29세 21.1%, 30~31세 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시기로 27세 이하는 71.1%나 되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평균 26.4세로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27.9세에 비해 1.5세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05년 현재 여성의 초혼평균연령이 27.7세임을 감안하면 이른 편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전체 패턴과 유사하나, 30세 이상 연령에 대한 선호도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의 평균은 대도시 학생의 경우 26.6세, 중소도시 학생의 경우 26.5세, 농촌 학생의 경우 26.4세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였다.

학생의 성별로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이 응답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5세 이하가 무려 50.4%이며, 26~27세도 29.2%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이 응답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26~27세가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5세 이하 27.3%, 28~29세 26.4%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의 평균은 남학생의 경우 25.8세로 여학생의 27.2세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는 학교급·학년별로 차이가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적절한 혼인연령 역시 상승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25세 이하 50.4%, 26~27세 29.2% 순으로 평균 25.8세로 나타나며, 중학생의 경우 25세 이하 44.0%, 26~27세 32.3% 순으로 평균 26.2세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와 실업계간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자의 경우 26~27세 35.3%, 28~29세 30.3% 순으로 평균 27.4세로 나타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25세 이하 39.4%, 26~27세 33.4% 순으로 평균 26.5세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편,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학력을 희망하는 학생일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높게 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고학력화가 결혼시기를 지연시키는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5〉 이상적 여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세)

구분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계 (명)	평균 연령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전체	38.2	32.9	21.1	6.3	1.2	0.3	100.0 (10,112)	26.4
지역($\chi^2=37.3^{***}$)								
대도시	38.4	31.8	20.6	7.3	1.5	0.4	100.0 (4,491)	26.6
중소도시	38.1	32.9	22.2	5.6	1.1	0.2	100.0 (4,409)	26.5
농촌(군)	38.2	37.1	18.8	4.9	0.8	0.2	100.0 (1,212)	26.4
성별($\chi^2=623.0^{***}$)								
남학생	50.4	29.2	15.2	4.5	0.6	0.1	100.0 (4,779)	25.8
여학생	27.3	36.3	26.4	7.9	1.8	0.4	100.0 (5,324)	27.2
학교급($\chi^2=701.2^{***}$)								
초등학교	53.1	29.5	12.9	3.6	0.7	0.1	100.0 (1,736)	25.8
중학교	44.0	32.3	17.5	4.9	1.0	0.2	100.0 (4,280)	26.2
인문고등학교	22.3	35.3	30.3	9.8	1.7	0.5	100.0 (3,256)	27.4
실업고등학교	39.4	33.5	20.0	5.3	1.7	0.1	100.0 (842)	26.5
학년구분($\chi^2=702.7^{***}$)								
초 5학년	53.8	28.2	12.9	3.9	1.1	0.1	100.0 (920)	25.7
초 6학년	52.3	31.0	12.9	3.3	0.4	0.1	100.0 (816)	25.8
중 1학년	50.4	31.3	14.5	3.2	0.6	0.1	100.0 (1,393)	25.9
중 2학년	43.2	32.3	17.7	5.3	1.1	0.3	100.0 (1,434)	26.3
중 3학년	38.8	33.3	20.3	6.1	1.3	0.2	100.0 (1,450)	26.4
고 1학년	29.8	36.7	24.0	7.7	1.3	0.5	100.0 (1,394)	27.0
고 2학년	26.5	33.6	28.5	9.3	1.9	0.1	100.0 (1,439)	27.3
고 3학년	20.7	34.5	32.5	9.8	1.8	0.7	100.0 (1,265)	27.5
학교육 수준($\chi^2=151.5^{***}$)								
중학교	71.2	16.7	9.1	3.0			100.0 (66)	23.1
고등학교	56.9	24.1	12.1	5.3	1.2	0.4	100.0 (564)	25.4
대학교	37.0	33.8	21.9	6.0	1.1	0.2	100.0 (7,373)	26.6
대학원	36.5	32.6	20.8	7.5	1.9	0.6	100.0 (2,098)	26.7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학생의 부모의 혼인상태(이혼·별거여부)나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결혼생활이 학생의 결혼시기관련 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의 경제수준별로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아주 잘사는 편이라는 학생의 경우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아주 못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다소 빠르게 나타났다. 이들 양극단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가구경제수준이 나쁠수록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 5-6〉 이상적 여성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명, 세)

구분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평균 연령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 이상		계 (명)
부모의 이혼·별거 상태($\chi^2=6.0$)								
예	41.4	30.2	20.3	6.3	1.5	0.3	100.0 (888)	26.4
아니오	37.7	33.2	21.2	6.3	1.2	0.3	100.0 (8,745)	26.6
부모간의 관계($\chi^2=24.8$)								
매우 좋은 편	39.4	33.1	20.6	5.4	1.3	0.3	100.0 (3,323)	26.4
좋은 편	36.8	33.6	21.7	6.5	1.1	0.3	100.0 (3,495)	26.6
보통	37.0	31.9	21.7	7.5	1.6	0.3	100.0 (1,758)	26.6
나쁜 편	38.6	32.7	19.3	7.6	1.0	0.8	100.0 (394)	26.5
매우 나쁜 편	38.5	32.7	20.5	7.3	0.5	0.5	100.0 (205)	26.3
모르겠음	38.9	32.5	20.2	7.0	1.5		100.0 (342)	26.4
가구경제상태($\chi^2=120.5^{***}$)								
매우 잘 사는 편	55.7	27.6	10.9	5.7	-	-	100.0 (192)	25.1
잘 사는 편	45.2	29.8	17.8	5.1	1.5	0.6	100.0 (1,373)	26.2
보통	36.0	34.5	21.8	6.3	1.2	0.2	100.0 (6,513)	26.6
못 사는 편	36.2	30.5	23.5	8.0	1.3	0.5	100.0 (1,496)	26.8
매우 못사는 편	45.5	31.5	16.8	4.9	0.7	0.7	100.0 (143)	26.0
모르겠음	46.2	30.3	17.0	4.4	2.1	-	100.0 (383)	26.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3. 이상적 남녀 결혼연령에 관한 태도 종합 비교

학생들이 여성과 남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초·중·고 학생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간의 차이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평균 1.4세가 높으며,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차이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남학생이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때, 기대 결혼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7〉 이상적 남녀 결혼연령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비교: 학교급·학년별 평균연령 (단위: 세)

구분	전체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전체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7.9	27.1	27.0	27.2	27.6	27.8	28.5	28.9	29.2
여성 이상결혼연령	26.1	25.7	25.8	25.9	26.3	26.4	27.0	27.3	27.5
차이	1.4	1.4	1.2	1.3	1.3	1.4	1.5	1.6	1.7
남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7.4	26.9	26.7	26.7	27.1	27.0	27.8	28.3	28.7
여성 이상결혼연령	25.8	25.5	25.3	25.4	25.5	25.5	26.0	26.5	26.6
차이	1.6	1.4	1.4	1.3	1.6	1.5	1.8	1.8	2.1
여학생									
남성 이상결혼연령	28.6	27.3	27.3	27.7	28.3	28.7	29.4	29.7	29.9
여성 이상결혼연령	27.2	25.9	26.2	26.3	26.9	27.2	27.7	27.9	28.3
차이	1.4	1.4	1.1	1.4	1.4	1.5	1.7	1.8	1.6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 4 절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측정해보았다. 결혼에 대한 12개의 진술을 주고 각 진술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4점 척도를 통해 물어보았다. 이제부터 결혼에 대한 태도를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1. 가족의 중요성에 관한 태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72.9%(매우 찬성 24.0% 포함)로 반대 27.1%(전혀 찬성 안함 4.0% 포함)에 비해 아주 우세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전국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74.6%)이 여학생(70.9%)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성인 미혼남녀 간에도 발견된다. 20세에서 44세 미혼남성은 위 진술에 대해 23.0% 매우 찬성하였으며 48.9% 대체로 찬성했으며 24.9%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는데 비해 미혼 여성은 19.3%가 매우 찬성하며 56.8%가 대체로 찬성하며 21.2%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이삼식 외, 2005c).

학력 구분도 뚜렷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은 36.9%, 34.1%가 매우 찬성하며 48.3%와 47.2%가 대체로 찬성하는데 비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18.5%와 19.5%만이 매우 찬성하며 49.2%와 44.9%가 대체로 찬성한다. 이렇게 볼 때 학교구분에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응답은 눈길을 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학교급·학년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성인 남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이삼식 외, 2005c). 요컨대, 농촌·남학생·저학년 학생일수록 결혼에 대해 개인주의적 가치보다 가족주의적 가치를 더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결혼에 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즉, 성장하면서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5-8〉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4.0	48.9	23.1	4.0	100.0 (11,222)	
지역						
대도시	23.0	48.5	24.6	3.9	100.0 (4,936)	16.5*
중소도시	24.4	49.4	22.2	3.9	100.0 (4,940)	
농촌(군)	26.0	48.3	21.0	4.7	100.0 (1,359)	
성별						
남학생	27.9	46.7	21.2	4.2	100.0 (5,854)	111.3***
여학생	19.7	51.2	25.2	3.9	100.0 (5,371)	
학교급						
초등학교	35.6	47.8	13.5	3.1	100.0 (1,895)	313.0***
중학교	23.2	50.2	22.5	4.1	100.0 (4,750)	
인문고등학교	18.1	47.9	29.4	4.5	100.0 (3,626)	
실업고등학교	26.8	48.0	21.4	3.7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36.9	48.3	12.7	2.1	100.0 (1,016)	342.4***
초 6학년	34.1	47.2	14.3	4.3	100.0 (879)	
중 1학년	27.9	49.2	19.1	3.9	100.0 (1,558)	
중 2학년	23.2	50.4	23.0	3.4	100.0 (1,607)	
중 3학년	18.7	51.0	25.5	4.9	100.0 (1,587)	
고 1학년	21.9	49.4	24.8	3.9	100.0 (1,560)	
고 2학년	18.5	49.2	27.9	4.3	100.0 (1,597)	
고 3학년	19.5	44.9	30.7	4.8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과 가족적 배경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학생의 부모간의 관계 정도에 따른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대체적으로 전체의 분포를 따르고는 있으나, 부모간의 관계가 안 좋은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는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다른 측면이지만,

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수준이 나쁠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역시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는 다소 예외일지라도, 가족성원간(부모간, 부모와 학생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결혼에 대한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가구경제수준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5-9〉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6.7	48.7	20.6	4.0	100.0 (971)	6.6†
아니오	23.7	48.8	23.5	4.0	100.0 (9,724)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9.2	47.6	19.6	3.6	100.0 (3,678)	166.7***
좋은 편	19.4	52.1	25.3	3.3	100.0 (3,877)	
보통	22.1	46.5	26.3	5.1	100.0 (1,963)	
나쁜 편	24.4	44.4	24.4	6.7	100.0 (446)	
매우 나쁜 편	29.3	39.2	24.8	6.8	100.0 (222)	
모르겠음	25.5	45.9	22.3	6.4	100.0 (377)	
학생-부모관계						
매우 좋은 편	30.1	47.6	18.5	3.8	100.0 (4,365)	271.9***
좋은 편	20.4	51.8	24.4	3.4	100.0 (4,291)	
보통	17.8	47.7	29.8	4.6	100.0 (1,855)	
나쁜 편	22.9	36.9	31.8	8.4	100.0 (214)	
매우 나쁜 편	32.6	30.2	25.6	11.6	100.0 (43)	
모르겠음	24.0	40.7	26.6	8.7	100.0 (334)	
가구 경제상태						103.3***
매우 잘 사는 편	27.9	48.1	20.4	3.6	100.0 (1,536)	
잘 사는 편	22.2	50.5	23.6	3.7	100.0 (7,218)	
보통	24.4	45.9	24.7	5.1	100.0 (1,654)	
못 사는 편	25.0	45.1	21.3	8.5	100.0 (164)	
매우 못사는 편	29.3	44.0	22.1	4.6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2. 마땅한 상대에 관한 태도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찬성 73.6%로 반대 26.4%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성별로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학생(66.2%)보다 여학생(81.5%)에게서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요컨대,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배우자의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성장하면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10〉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3.6	50.0	21.5	4.9	100.0 (11,229)	
지역						
대도시	24.8	49.8	20.7	4.6	100.0 (4,935)	12.4†
중소도시	22.5	50.5	21.9	5.0	100.0 (4,935)	
농촌(군)	22.8	48.6	23.0	5.7	100.0 (1,359)	
성별						
남학생	17.3	48.9	27.0	6.8	100.0 (5,847)	453.3***
여학생	30.3	51.2	15.6	3.0	100.0 (5,374)	
학교급						
초등학교	22.7	41.1	27.9	8.4	100.0 (1,895)	
중학교	22.2	50.6	22.1	5.1	100.0 (4,748)	195.4***
인문고등학교	25.7	54.1	17.3	3.0	100.0 (3,627)	
실업고등학교	24.1	49.3	21.9	4.8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22.9	38.9	30.5	7.7	100.0 (1,017)	261.2***
초 6학년	22.4	43.5	24.8	9.2	100.0 (878)	
중 1학년	19.3	48.1	25.9	6.7	100.0 (1,555)	
중 2학년	22.1	51.5	21.7	4.7	100.0 (1,604)	
중 3학년	25.1	52.1	18.9	3.9	100.0 (1,589)	
고 1학년	22.4	54.3	19.6	3.7	100.0 (1,560)	
고 2학년	24.5	53.7	18.9	2.9	100.0 (1,597)	
고 3학년	29.6	51.0	15.9	3.4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배우자 선택의 신중한 태도는 학생의 가족적 배경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간의 관계나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학생들은 배우자 선택에 더 신중성을 기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경제수준이 나쁜 학생일수록 배우자 선택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 가족구성원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와 가구경제수준이 열악할 경우, 학생은 그 영향으로 배우자선택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에 따른 학생의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표 5-11〉 “미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5.2	50.9	18.9	4.9	100.0 (972)	4.5
아니오	23.4	50.1	21.7	4.8	100.0 (9,721)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3.8	48.3	22.4	5.4	100.0 (3,680)	78.2***
좋은 편	20.7	52.8	22.4	4.0	100.0 (3,876)	
보통	25.7	49.4	20.2	4.6	100.0 (1,962)	
나쁜 편	30.6	49.0	14.5	5.8	100.0 (447)	
매우 나쁜 편	34.7	45.0	14.4	5.9	100.0 (222)	
모르겠음	23.9	48.7	21.5	5.9	100.0 (376)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4.2	47.6	22.4	5.8	100.0 (4,365)	84.0***
좋은 편	21.5	52.7	21.8	4.0	100.0 (4,292)	
보통	24.9	51.6	19.1	4.3	100.0 (1,853)	
나쁜 편	30.2	48.4	13.5	7.9	100.0 (215)	
매우 나쁜 편	39.5	48.8	7.0	4.7	100.0 (43)	
모르겠음	30.5	41.3	20.7	7.5	100.0 (33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6.4	35.6	20.8	17.1	100.0 (216)	144.9***
잘 사는 편	24.5	45.2	24.2	6.1	100.0 (1,536)	
보통	22.5	51.6	21.7	4.2	100.0 (7,217)	
못 사는 편	27.0	50.7	18.0	4.3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29.4	44.2	17.8	8.6	100.0 (163)	

† $p<0.1$, * $p<0.05$, ** $p<0.01$, *** $p<0.001$

3. 직장의 중요성과 결혼에 관한 태도

최근 미혼 성인들은 결혼에서 경제적 조건을 매우 중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이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학생들에게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주고 얼마나 찬성하는지 물어보았다.

〈표 5-12〉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1.0	52.1	21.9	5.0	100.0 (11,219)	
지역						
대도시	22.1	51.7	21.4	4.8	100.0 (4,927)	7.8
중소도시	20.4	52.6	22.0	5.1	100.0 (4,935)	
농촌(군)	19.5	52.0	23.1	5.5	100.0 (1,357)	
성별						
남학생	19.2	52.3	23.0	5.5	100.0 (5,840)	31.9***
여학생	23.0	51.9	20.6	4.5	100.0 (5,369)	
학교급						
초등학교	16.4	40.5	32.1	11.0	100.0 (1,888)	589.4***
중학교	18.4	51.6	24.4	5.5	100.0 (4,745)	
인문고등학교	25.9	58.3	14.1	1.7	100.0 (3,625)	
실업고등학교	24.1	54.2	18.6	3.0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14.5	39.3	33.8	12.4	100.0 (1,014)	704.2***
초 6학년	18.6	42.0	30.1	9.3	100.0 (874)	
중 1학년	16.0	46.3	29.9	7.8	100.0 (1,553)	
중 2학년	18.5	53.3	22.9	5.3	100.0 (1,607)	
중 3학년	20.8	55.1	20.6	3.6	100.0 (1,585)	
고 1학년	22.8	57.8	17.1	2.2	100.0 (1,558)	
고 2학년	25.0	60.2	13.2	1.6	100.0 (1,597)	
고 3학년	29.2	54.0	14.7	2.1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동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73.1%(매우 찬성 21.0% 포함)로 반대 26.9%(전혀 찬성 안함 5.0% 포함)보다 우세하여, 학생들은 결혼의 전

제로서 직장의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거주별로는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71.5%)에 비해 여학생(74.9%)이 결혼의 전제로서 직업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직장을 강조하는 태도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에 적용된다. 인문계 고등학생은 24.1%와 54.2%가 경제적 조건을 강조한 진술에 대해 매우 찬성 및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 역시 25.9%와 58.3%가 매우 찬성 및 대체로 찬성하였다.

학년구분을 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여, 결혼 및 가족형성(family formation)의 조건으로 직장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는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노동세대에 진입한 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만혼 또는 결혼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미혼인구의 실업 및 고용불안정은 결혼 연기 또는 포기로 이어져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5b).

결혼 조건으로서 직장 안정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적 배경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결혼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나쁜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학생-부모간의 관계도 동일한 방향으로 결혼의 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에 관한 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구의 경제수준이 좋지 않을수록 결혼의 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가구경제 수준이 열악할 경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보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직장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겠다.

〈표 5-13〉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5.1	51.0	19.4	4.4	100.0 (972)	12.5**
아니오	20.6	52.3	22.1	5.0	100.0 (9,70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0.7	48.8	24.1	6.5	100.0 (3,674)	128.7***
좋은 편	18.6	55.5	22.0	3.9	100.0 (3,874)	
보통	22.3	53.8	19.8	4.1	100.0 (1,957)	
나쁜 편	28.4	50.1	17.2	4.3	100.0 (447)	
매우 나쁜 편	35.9	38.1	17.0	9.0	100.0 (223)	
모르겠음	22.1	52.3	20.5	5.1	100.0 (375)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1.7	47.5	24.4	6.4	100.0 (4,359)	127.8***
좋은 편	19.2	56.7	20.5	3.5	100.0 (4,288)	
보통	21.9	53.7	19.5	4.8	100.0 (1,852)	
나쁜 편	25.6	49.8	20.9	3.7	100.0 (215)	
매우 나쁜 편	30.2	44.2	18.6	7.0	100.0 (43)	
모르겠음	29.0	45.5	18.0	7.5	100.0 (33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3.7	35.8	24.7	15.8	100.0 (215)	193.3***
잘 사는 편	21.1	46.4	25.7	6.8	100.0 (1,535)	
보통	19.5	54.0	22.0	4.5	100.0 (7,213)	
못 사는 편	26.2	53.5	16.8	3.6	100.0 (1,652)	
매우 못사는 편	36.2	35.6	19.6	8.6	100.0 (16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4. 수입의 안정성과 결혼에 관한 태도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68.8%(매우 찬성 21.7% 포함), 반대 31.2%(전혀 찬성 안함 5.7% 포함)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거주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66.7%)에 비해 여학생(71.1%)의 경우 결혼조건으로서 수입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

다. 수입의 안정성은 상급학교·고학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결혼조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환언하면, 수입의 불안정은 향후 만혼 또는 결혼 포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실제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현상은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만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삼식 외, 2005b).

〈표 5-1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1.7	47.1	25.4	5.7	100.0 (11,202)	
지역						
대도시	21.9	47.2	24.9	6.0	100.0 (4,921)	5.5
중소도시	21.9	46.5	26.1	5.4	100.0 (4,925)	
농촌(군)	20.3	48.7	25.1	5.8	100.0 (1,356)	
성별						
남학생	20.9	45.8	26.5	6.8	100.0 (5,833)	37.6***
여학생	22.6	48.5	24.3	4.6	100.0 (5,358)	
학교급						
초등학교	19.7	39.7	31.0	9.7	100.0 (1,883)	364.0***
중학교	18.8	44.9	29.4	6.9	100.0 (4,735)	
인문고등학교	25.8	52.7	19.0	2.5	100.0 (3,626)	
실업고등학교	25.3	50.9	19.3	4.5	100.0 (958)	
학년구분						
초 5학년	18.4	38.0	34.2	9.4	100.0 (1,009)	445.9***
초 6학년	21.1	41.7	27.3	10.0	100.0 (873)	
중 1학년	16.6	40.4	33.9	9.1	100.0 (1,552)	
중 2학년	18.7	45.3	29.7	6.3	100.0 (1,602)	
중 3학년	21.0	49.0	24.7	5.3	100.0 (1,581)	
고 1학년	23.2	53.5	19.8	3.4	100.0 (1,557)	
고 2학년	26.2	52.1	19.2	2.4	100.0 (1,595)	
고 3학년	27.6	51.4	18.0	3.0	100.0 (1,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가 이혼·별거 중이거나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결혼 조건으로서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구경제수준이 나쁠수록 결혼조건으로서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아무래도 가구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그로 인하여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결혼조건으로서 수입 안정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결혼의 조건으로서 수입의 안정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명백하지 않다.

〈표 5-15〉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5.1	43.9	25.8	5.3	100.0 (966)	7.8*
아니오	21.5	47.4	25.4	5.7	100.0 (9,698)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8	43.2	26.9	7.1	100.0 (3,670)	102.1***
좋은 편	19.1	51.0	25.4	4.4	100.0 (3,869)	
보통	23.4	48.9	23.1	4.7	100.0 (1,957)	
나쁜 편	25.2	44.7	24.5	5.6	100.0 (445)	
매우 나쁜 편	32.0	37.4	21.6	9.0	100.0 (222)	
모르겠음	23.1	44.5	26.0	6.4	100.0 (373)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2.7	43.6	26.8	6.9	100.0 (4,351)	86.0***
좋은 편	20.4	50.7	24.6	4.4	100.0 (4,284)	
보통	22.0	48.8	24.4	4.8	100.0 (1,852)	
나쁜 편	29.6	39.4	22.5	8.5	100.0 (213)	
매우 나쁜 편	27.3	31.8	27.3	13.6	100.0 (44)	
모르겠음	23.0	43.2	26.0	7.9	100.0 (331)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7.8	38.7	23.6	9.9	100.0 (212)	72.0***
잘 사는 편	23.6	42.4	26.6	7.3	100.0 (1,529)	
보통	20.8	48.6	25.4	5.2	100.0 (7,205)	
못 사는 편	23.7	47.9	23.7	4.8	100.0 (1,644)	
매우 못사는 편	28.5	39.4	22.4	9.7	100.0 (165)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5. 일과 결혼에 관한 태도

많은 미혼여성은 물론 남성도 일과 가족을 균형 있게 양립시키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혼과 출산이 늦춰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청소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 알아본다.

〈표 5-16〉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2.3	42.2	27.1	8.4	100.0 (11,203)	
지역						
대도시	23.2	42.0	26.8	7.9	100.0 (4,927)	14.1*
중소도시	22.4	41.9	27.2	8.5	100.0 (4,928)	
농촌(군)	18.9	43.4	27.9	9.8	100.0 (1,357)	
성별						
남학생	15.9	39.0	33.3	11.8	100.0 (5,837)	583.8***
여학생	29.2	45.6	20.5	4.8	100.0 (5,367)	
학교급						
초등학교	20.5	37.4	29.8	12.3	100.0 (1,881)	106.6***
중학교	23.1	42.4	25.7	8.8	100.0 (4,744)	
인문고등학교	23.0	44.8	26.5	5.7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19.3	40.4	30.9	9.4	100.0 (958)	
학년구분						
초 5학년	20.9	36.8	30.0	12.3	100.0 (1,005)	108.9***
초 6학년	20.1	38.1	29.6	12.2	100.0 (877)	
중 1학년	21.9	40.7	27.7	9.7	100.0 (1,551)	
중 2학년	23.9	42.2	25.5	8.4	100.0 (1,605)	
중 3학년	23.5	44.3	24.1	8.1	100.0 (1,588)	
고 1학년	19.6	45.8	27.9	6.7	100.0 (1,558)	
고 2학년	22.5	42.1	29.2	6.1	100.0 (1,597)	
고 3학년	24.8	43.8	24.9	6.5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동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64.5%(매우 찬성 22.3% 포함)로 반대 35.5%(전혀 찬성 안함 8.4% 포함)에 비해 높았다(표 참조). 거주지별로는 대도시 거주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다소나마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남학생(54.9%)에 비해 여학생(74.8%)이 훨씬 더 자아성취를 위해 결혼을 포기할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성취를 위한 결혼포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국 일한 학생들의 태도는 최근 자아실현을 위한 비혼현상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5-17〉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3.3	42.7	24.8	9.2	100.0 (970)	3.3
아니오	22.2	42.2	27.3	8.3	100.0 (9,706)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7	40.4	26.9	9.9	100.0 (3,667)	90.8***
좋은 편	19.0	44.9	28.9	7.2	100.0 (3,876)	
보통	24.6	42.6	25.7	7.0	100.0 (1,959)	
나쁜 편	28.1	38.9	22.2	10.8	100.0 (445)	
매우 나쁜 편	26.9	38.6	22.9	11.7	100.0 (223)	
모르겠음	27.9	37.7	26.5	8.0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3.4	40.1	26.8	9.7	100.0 (4,350)	94.8***
좋은 편	19.7	44.4	28.5	7.3	100.0 (4,289)	
보통	23.2	44.3	25.5	6.9	100.0 (1,854)	
나쁜 편	29.8	34.0	25.6	10.7	100.0 (215)	
매우 나쁜 편	25.0	36.4	20.5	18.2	100.0 (44)	
모르겠음	32.2	35.8	20.9	11.0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70.0***
매우 잘 사는 편	24.3	31.8	27.6	16.4	100.0 (214)	
잘 사는 편	22.7	38.6	28.4	10.4	100.0 (1,535)	
보통	21.8	43.2	27.4	7.5	100.0 (7,203)	
못 사는 편	23.4	43.7	25.0	8.0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29.9	36.0	22.0	12.2	100.0 (16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일부 가족적 배경도 자아성취를 위한 결혼 포기에 관한 학생들의 태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예외(아주 나쁜 편)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아성취를 위한 결혼 포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생-부모간의 열악한 관계도 부부간의 관계와 유사하게 자아실현을 위한 결혼포기에 대한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자아실현을 위한 결혼포기관련 태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요컨대, 가구구성원간의 관계나 가구경제 수준이 열악할수록 학생들은 자아성취욕구과 결혼포기를 연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겠다. 한편, 부모의 이혼·별거여부가 자아성취를 위한 결혼 포기에 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6. 독신생활에 관한 태도

결혼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미혼 남녀가 늘고 있다. 독신의 삶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60.6%(매우 찬성 22.2% 포함)로 반대 39.4%(전혀 찬성 안함 14.7% 포함)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독신주의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거주지별로 무의미하나, 남녀별로는 유의미하여 남학생(50.0%)에 비해 여학생(72.1%)의 독신주의적 사고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독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보편적이면서도 성장과정에서 더 강화되며, 특히 여학생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표 5-18〉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2.2	38.4	24.7	14.7	100.0 (11,203)	
지역						
대도시	22.3	39.1	23.6	14.9	100.0 (4,928)	10.3
중소도시	22.6	37.6	25.5	14.3	100.0 (4,931)	
농촌(군)	20.1	38.5	25.6	15.7	100.0 (1,357)	
성별						
남학생	15.5	34.5	29.3	20.6	100.0 (5,836)	693.0***
여학생	29.5	42.6	19.6	8.3	100.0 (5,367)	
학교급						
초등학교	20.6	33.0	27.4	19.0	100.0 (1,889)	85.7***
중학교	23.2	39.2	23.6	14.0	100.0 (4,742)	
인문고등학교	22.6	40.8	23.9	12.6	100.0 (3,624)	
실업고등학교	18.9	35.7	27.5	18.0	100.0 (958)	
학년구분						
초 5학년	20.0	32.5	26.3	21.1	100.0 (1,014)	110.4***
초 6학년	21.3	33.6	28.7	16.4	100.0 (876)	
중 1학년	20.0	37.1	27.7	15.2	100.0 (1,553)	
중 2학년	23.6	40.5	22.0	13.9	100.0 (1,607)	
중 3학년	25.8	40.1	21.3	12.9	100.0 (1,583)	
고 1학년	20.8	42.8	22.9	13.5	100.0 (1,557)	
고 2학년	22.2	37.3	26.0	14.5	100.0 (1,598)	
고 3학년	22.6	39.1	25.0	13.2	100.0 (1,427)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가족적 배경 중 부모의 이혼·별거여부는 학생의 독신관련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 수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 부모-학생간의 관계 및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에 따른 학생의 독신관련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대체적으로 독신관련 학생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생-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이 나쁠수록 대체적으로 학생의 독신관련 태도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학

생들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대신 독신주의적 사고방식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19〉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3.3	37.1	24.7	14.9	100.0 (973)	1.2
아니오	22.1	38.7	24.5	14.7	100.0 (9,704)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4	36.8	24.2	16.6	100.0 (3,673)	92.8***
좋은 편	19.0	41.1	26.3	13.5	100.0 (3,877)	
보통이	26.0	37.5	22.4	14.0	100.0 (1,955)	
나쁜 편	25.6	35.7	22.7	16.0	100.0 (445)	
매우 나쁜 편	33.5	35.7	16.1	14.7	100.0 (224)	
모르겠음	26.3	36.5	25.7	11.5	100.0 (373)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3.1	35.9	24.3	16.7	100.0 (4,359)	102.1***
좋은 편	19.7	40.4	26.5	13.4	100.0 (4,290)	
보통	23.2	41.0	22.8	12.9	100.0 (1,848)	
나쁜 편	31.2	34.4	20.0	14.4	100.0 (215)	
매우 나쁜 편	20.5	34.1	15.9	29.5	100.0 (44)	
모르겠음	33.6	33.6	19.1	13.6	100.0 (33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9.9	22.9	20.6	26.6	100.0 (214)	78.2***
잘 사는 편	22.2	36.0	25.0	16.8	100.0 (1,535)	
보통	21.5	39.4	25.2	13.9	100.0 (7,208)	
못 사는 편	24.6	39.7	21.9	13.7	100.0 (1,646)	
매우 못사는 편	23.6	34.5	22.4	19.4	100.0 (165)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7. 결혼생활 부담에 관한 태도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65.6%(매우 찬성 20.3% 포함)로 반대 34.5%(전혀 찬성 안함 9.6% 포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20〉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지역	20.3	45.3	24.9	9.6	100.0 (11,214)	
대도시	20.8	46.1	23.7	9.5	100.0 (4,930)	9.0
중소도시	20.0	44.8	25.6	9.5	100.0 (4,936)	
농촌(군)	19.3	44.0	26.5	10.2	100.0 (1,357)	
성별						
남학생	14.6	41.9	29.8	13.7	100.0 (5,842)	556.5***
여학생	26.4	48.9	19.5	5.1	100.0 (5,371)	
학교급						
초등학교	18.8	39.1	28.8	13.3	100.0 (1,889)	117.4***
중학교	20.3	45.7	24.7	9.2	100.0 (4,746)	
인문고등학교	21.9	48.6	22.0	7.6	100.0 (3,626)	
실업고등학교	16.9	42.6	28.8	11.8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18.5	37.2	30.1	14.2	100.0 (1,013)	107.8***
초 6학년	19.1	41.3	27.3	12.3	100.0 (875)	
중 1학년	19.2	43.0	27.1	10.7	100.0 (1,556)	
중 2학년	19.6	46.3	25.1	8.9	100.0 (1,609)	
중 3학년	22.1	47.9	22.0	8.0	100.0 (1,583)	
고 1학년	19.2	49.3	22.9	8.6	100.0 (1,559)	
고 2학년	21.3	46.2	24.0	8.5	100.0 (1,598)	
고 3학년	22.2	46.4	23.2	8.2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거주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 견해에 대한 여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75.3%로 남학생의 5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급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나나, 동일학교급에서 학년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관한 의무감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생활 자체가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가부장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느껴질수록 결혼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에서도 미혼여성

(20-44세)이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가부장적 결혼생활의 부담이 제시된 바 있다(이삼식 외, 2005c).

〈표 5-21〉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1.4	44.5	25.3	8.7	100.0 (972)	1.7
아니오	20.2	45.6	24.6	9.6	100.0 (9,713)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0.0	43.5	25.0	11.5	100.0 (3,673)	104.6***
좋은 편	17.0	48.4	26.0	8.5	100.0 (3,877)	
보통	23.6	45.1	23.3	8.0	100.0 (1,958)	
나쁜 편	27.4	41.7	21.5	9.4	100.0 (446)	
매우 나쁜 편	30.2	41.0	18.9	9.9	100.0 (222)	
모르겠음	25.3	42.7	24.5	7.5	100.0 (375)	
학생 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1.1	42.7	24.5	11.6	100.0 (4,361)	117.1***
좋은 편	17.7	47.6	26.5	8.2	100.0 (4,288)	
보통	21.4	48.1	23.0	7.4	100.0 (1,853)	
나쁜 편	29.0	41.6	19.2	10.3	100.0 (214)	
매우 나쁜 편	20.9	37.2	27.9	14.0	100.0 (43)	
모르겠음	31.6	37.9	21.2	9.3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2.0	29.0	22.9	26.2	100.0 (214)	149.7***
잘 사는 편	21.0	40.6	27.2	11.2	100.0 (1,536)	
보통	19.3	47.1	24.8	8.9	100.0 (7,214)	
못 사는 편	23.8	45.8	23.1	7.3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25.2	37.4	19.6	17.8	100.0 (16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 가족의 경제수준은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관계 또는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결혼생활 부담으로 인한 결혼포기 태도에 더 찬성하고 있으며, 주관적인 가구 경제수준이 나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에 따른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8. 결혼연령규범에 관한 태도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38.7%(매우 찬성 9.0% 포함)에 불과하나, 반대 61.2%(전혀 찬성 안함 19.8% 포함)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거주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p < 0.05$ 수준). 남학생(56.7%)에 비해 여학생(66.1%)이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급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하여,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결혼적령기’를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요컨대, 결혼적령기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기 보다는, 본인의 여러 상황에 적합한 시기를 택하겠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학생들 사이에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장과정에서 점차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학생의 가족적 배경으로서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 부모간의 관계, 부모-학생간의 관계,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 등은 보편화된 결혼연령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동 견해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또는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나쁜 편인 경우,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는 무려 74.4%로 높았다. 그리고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가족적 배경이 열악할수록 결혼시기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를 다르게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표 5-22〉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9.0	29.7	41.4	19.8	100.0 (11,224)	
지역						
대도시	8.7	30.3	41.0	20.0	100.0 (4,932)	4.2
중소도시	9.2	29.0	41.8	19.9	100.0 (4,943)	
농촌(군)	9.7	30.3	41.0	18.9	100.0 (1,357)	
성별						
남학생	10.8	32.5	38.3	18.4	100.0 (5,848)	113.9***
여학생	7.1	26.8	44.8	21.3	100.0 (5,373)	
학교급						
초등학교	15.1	30.9	35.2	18.8	100.0 (1,890)	145.9***
중학교	9.0	28.7	42.3	20.0	100.0 (4,753)	
인문고등학교	6.4	31.2	43.5	18.9	100.0 (3,628)	
실업고등학교	7.7	27.1	41.1	24.1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15.7	31.2	34.1	19.0	100.0 (1,014)	150.9***
초 6학년	14.4	30.6	36.5	18.5	100.0 (876)	
중 1학년	10.9	29.0	40.9	19.2	100.0 (1,557)	
중 2학년	8.2	28.2	43.0	20.6	100.0 (1,609)	
중 3학년	7.8	29.0	42.9	20.2	100.0 (1,587)	
고 1학년	6.4	29.8	44.6	19.2	100.0 (1,559)	
고 2학년	7.0	28.7	43.2	21.2	100.0 (1,598)	
고 3학년	6.7	32.7	41.0	19.6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표 5-23〉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8.9	25.9	42.7	22.5	100.0 (973)	11.0*
아니오	9.2	30.3	41.2	19.3	100.0 (9,720)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1.0	28.8	39.8	20.4	100.0 (3,675)	41.4***
좋은 편	8.2	32.0	42.6	17.1	100.0 (3,878)	
보통이	7.1	30.4	41.9	20.5	100.0 (1,962)	
나쁜 편	10.1	26.4	43.6	19.9	100.0 (447)	
매우 나쁜 편	6.7	22.9	39.5	30.9	100.0 (223)	
모르겠음	9.3	26.8	39.0	24.9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1.3	29.0	39.4	20.3	100.0 (4,360)	115.6***
좋은 편	7.6	31.2	43.7	17.4	100.0 (4,296)	
보통	6.9	30.0	42.2	20.9	100.0 (1,856)	
나쁜 편	10.7	25.2	41.1	22.9	100.0 (214)	
매우 나쁜 편	11.4	25.0	31.8	31.8	100.0 (44)	
모르겠음	9.3	22.7	35.5	32.5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9.9	26.4	29.6	24.1	100.0 (216)	101.9***
잘 사는 편	11.5	31.1	37.1	20.2	100.0 (1,536)	
보통	8.6	30.5	42.5	18.4	100.0 (7,216)	
못 사는 편	7.3	27.3	41.8	23.6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7.9	25.5	37.0	29.7	100.0 (165)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9.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한 태도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35.7%(매우 찬성 8.3% 포함), 반대 64.3%(전혀 찬성 안함 20.1% 포함)로 부정적인 태도가 더 우세하였다.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지역별로 $p<0.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남학생(54.6%)에 비해 여학생(74.8%)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중학생에

게서 다소 높으며, 초등생과 고등학생에게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학교급·학년별로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같이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순정을 지켜야한다는 가치관에서 최근에 올수록 자유스러운 여러 이성교제를 통해 보다 적합한 사람과 결혼하여야 한다는 현실성을 더 추구하는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표 5-24〉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8.3	27.4	44.1	20.2	100.0 (11,224)	
지역						
대도시	7.7	27.4	44.7	20.2	100.0 (4,931)	7.0
중소도시	8.6	27.9	43.2	20.3	100.0 (4,943)	
농촌(군)	9.3	26.1	44.7	19.9	100.0 (1,359)	
성별						
남학생	11.7	33.7	40.4	14.2	100.0 (5,849)	602.7***
여학생	4.5	20.7	48.1	26.7	100.0 (5,374)	
학교급						
초등학교	10.1	28.3	41.6	20.0	100.0 (1,894)	31.5***
중학교	7.6	26.1	45.2	21.1	100.0 (4,751)	
인문고등학교	8.4	29.3	43.6	18.7	100.0 (3,628)	
실업고등학교	7.9	25.2	45.0	21.9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10.8	27.9	41.0	20.3	100.0 (1,015)	60.7***
초 6학년	9.1	28.8	42.4	19.7	100.0 (878)	
중 1학년	6.7	27.1	43.4	22.8	100.0 (1,556)	
중 2학년	7.7	24.5	45.2	22.7	100.0 (1,607)	
중 3학년	8.4	26.9	46.9	17.8	100.0 (1,588)	
고 1학년	7.0	28.0	47.1	17.9	100.0 (1,562)	
고 2학년	8.1	28.8	43.3	19.8	100.0 (1,597)	
고 3학년	9.9	28.4	41.1	20.6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25〉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9.4	24.5	45.4	20.8	100.0 (973)	5.6
아니오	8.1	27.7	44.1	20.1	100.0 (9,723)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9.6	26.6	42.2	21.6	100.0 (3,678)	68.9***
좋은 편	6.6	29.2	46.3	18.0	100.0 (3,878)	
보통	8.0	25.7	45.4	20.9	100.0 (1,963)	
나쁜 편	9.4	30.0	43.0	17.7	100.0 (447)	
매우 나쁜 편	13.0	22.4	39.5	25.1	100.0 (223)	
모르겠음	8.5	27.9	40.1	23.6	100.0 (377)	
학생 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9.2	27.2	41.7	21.9	100.0 (4,362)	61.3***
좋은 편	6.7	28.6	46.3	18.4	100.0 (4,294)	
보통	9.1	26.4	44.9	19.6	100.0 (1,856)	
나쁜 편	12.2	23.0	44.1	20.7	100.0 (213)	
매우 나쁜 편	15.9	22.7	34.1	27.3	100.0 (44)	
모르겠음	7.7	24.4	44.0	23.8	100.0 (33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0.9	27.9	29.8	21.4	100.0 (215)	112.4***
잘 사는 편	10.9	29.5	41.8	17.8	100.0 (1,537)	
보통	7.2	27.5	45.2	20.1	100.0 (7,221)	
못 사는 편	9.1	25.9	42.9	22.1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15.2	25.0	36.6	23.2	100.0 (16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 및 부모-학생간의 관계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부정적인 태도만을 고려할 경우 그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학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경제수준과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가구경제수준이 열악할수록 학생은 동 견해에 대해 더 부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학생은 이성교제와 결혼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사고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가족적 배경과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부분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이 원만한 학생일수록 이성교제와 결혼을 연계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10. 성관계와 결혼에 관한 태도

과거에 비해 혼전 성관계가 기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성향을 계속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30.8%(매우 찬성 8.3% 포함), 반대 69.1%(전혀 찬성 안함 34.5% 포함)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다른 항목과는 달리 성관계에 대해 청소년들은 매우 보수적인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혼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무절제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과 상관없는 성관계에 개방성이 크다. 남학생(59.3%)에 비해 여학생(79.8%)의 경우 혼전 성행위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거의 80%가 부정적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결혼과 상관없는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이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혼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혼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반절 미만(48.7%)으로, 역으로 혼전 성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다소나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농촌학생 및 여학생 중심으로 혼전순결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성장과정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5-26〉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8.3	22.5	34.6	34.5	100.0 (11,206)	
지역						
대도시	9.1	22.6	33.7	34.6	100.0 (4,928)	12.9*
중소도시	8.0	23.0	35.0	34.0	100.0 (4,933)	
농촌(군)	7.1	20.6	36.5	35.8	100.0 (1,358)	
성별						
남학생	13.5	27.2	35.5	23.8	100.0 (5,839)	907.3***
여학생	2.8	17.4	33.6	46.2	100.0 (5,368)	
학교급						
초등학교	4.0	13.6	38.7	43.7	100.0 (1,889)	562.6***
중학교	7.4	17.6	36.2	38.8	100.0 (4,744)	
인문고등학교	10.7	31.3	31.4	26.6	100.0 (3,626)	
실업고등학교	13.2	31.1	31.2	24.5	100.0 (959)	
학년구분						
초 5학년	4.1	14.6	37.8	43.5	100.0 (1,014)	721.0***
초 6학년	3.9	12.4	39.7	43.9	100.0 (876)	
중 1학년	4.7	14.2	36.4	44.7	100.0 (1,555)	
중 2학년	6.6	16.8	37.6	38.9	100.0 (1,605)	
중 3학년	10.7	21.9	34.6	32.8	100.0 (1,586)	
고 1학년	9.1	28.0	31.7	31.2	100.0 (1,558)	
고 2학년	11.3	29.5	33.4	25.8	100.0 (1,598)	
고 3학년	13.4	36.8	28.6	21.1	100.0 (1,429)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가족적 특성에 따라서도 성관계에 대한 개방도가 달랐다. 학생의 가족환경이 열악할수록 혼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해지고, 반대로 원만한 가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의 경우에는 혼전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혼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65.4%이며,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더 높은 69.8%이었다.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또한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혼전 성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적 상태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가구 경제상태는 성관계 태도와 u자형 관계를 이루고 있

다. 매우 잘 사는 가구에 사는 학생 16.4%와 매우 못사는 가구에 사는 학생 18.3%가 매우 찬성하는데 비해 경제적으로 보통인 가구에 사는 학생은 7.5%만이 매우 찬성하였다.

〈표 5-27〉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9.2	25.4	31.5	33.9	100.0 (971)	9.1*
아니오	8.2	22.0	35.1	34.7	100.0 (9,710)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8.2	18.2	33.6	40.0	100.0 (3,673)	137.9***
좋은 편	7.5	23.9	37.4	31.2	100.0 (3,871)	
보통	9.2	23.9	34.7	32.2	100.0 (1,961)	
나쁜 편	10.5	28.2	30.4	30.9	100.0 (447)	
매우 나쁜 편	13.9	30.0	28.3	27.8	100.0 (223)	
모르겠음	8.0	28.6	30.5	32.9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7.6	17.8	34.5	40.1	100.0 (4,353)	220.8***
좋은 편	7.5	24.2	36.4	31.8	100.0 (4,289)	
보통	10.5	26.9	33.4	29.3	100.0 (1,855)	
나쁜 편	14.6	34.9	25.9	24.5	100.0 (212)	
매우 나쁜 편	15.9	38.6	15.9	29.5	100.0 (44)	
모르겠음	14.1	27.8	27.2	30.8	100.0 (33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6.4	21.0	24.8	37.9	100.0 (214)	95.2***
잘 사는 편	8.6	20.9	34.4	36.1	100.0 (1,534)	
보통	7.5	22.1	35.9	34.4	100.0 (7,209)	
못 사는 편	9.9	27.1	29.6	33.5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18.3	22.6	31.1	28.0	100.0 (16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11. 이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31.3%(매우 찬성 7.7% 포함), 반대 68.6%(전혀 찬성 안

합 28.4% 포함)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표 5-28〉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7.7	23.6	40.2	28.4	100.0 (11,215)	
지역						
대도시	8.1	24.1	39.4	28.4	100.0 (4,930)	8.3
중소도시	7.4	23.0	41.5	28.1	100.0 (4,937)	
농촌(군)	7.7	24.2	38.5	29.6	100.0 (1,360)	
성별						
남학생	6.9	19.7	41.4	31.9	100.0 (5,846)	148.4***
여학생	8.7	27.9	38.8	24.6	100.0 (5,372)	
학교급						
초등학교	5.1	14.5	39.7	40.6	100.0 (1,892)	489.4***
중학교	6.8	20.5	40.9	31.8	100.0 (4,750)	
인문고등학교	9.9	31.6	40.1	18.4	100.0 (3,628)	
실업고등학교	9.5	27.2	38.0	25.3	100.0 (959)	
학년구분						
초 5학년	4.4	13.9	38.8	42.9	100.0 (1,015)	629.3***
초 6학년	5.9	15.1	40.9	38.1	100.0 (877)	
중 1학년	5.4	15.9	39.7	39.1	100.0 (1,556)	
중 2학년	6.2	19.8	42.0	31.9	100.0 (1,606)	
중 3학년	8.6	25.8	40.9	24.7	100.0 (1,586)	
고 1학년	7.4	28.3	43.3	21.0	100.0 (1,560)	
고 2학년	9.1	32.6	38.1	20.2	100.0 (1,597)	
고 3학년	13.2	31.2	37.5	18.1	100.0 (1,428)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해주지 못하였다. 동 견해에 대한 남녀학생간의 태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태도가 남학생의 경우 73.3%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63.4%로 나타나, 여학생이 이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사고를 보이고 있었다. 이혼에 대한 성별 차이는 미혼남녀에서도 나타난다. 미혼 남성은 위 진술에 대해서 12.2%가 매우 찬성하며 37.0%가 대체로 찬성하는데 비해 미혼

여성은 18.21%가 매우 찬성하며 46.8%가 대체로 찬성한다(이삼식, 2005c).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하급생일수록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고, 상급생일수록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이혼에 대한 학령기 아동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보편적이나, 성장과정에서 점차 찬성하는 의견도 증가하여 이혼관련 의식이 다양화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태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하겠다.

다양한 가족적 특성이 이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가족 구성원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 간 관계가 나쁠수록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다.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학생의 태도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34.0%) 그렇지 않은 학생들(31.1%)에 비해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자라는 청소년에 비해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다. 또한,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그리고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 대부분은 이혼에 대해 반대하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수록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가치관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29〉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0.5	23.5	37.7	28.4	100.0 (972)	12.9**
아니오	7.4	23.7	40.5	28.4	100.0 (9,718)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6.6	20.2	38.7	34.5	100.0 (3,676)	258.6***
좋은 편	5.9	24.5	43.6	26.0	100.0 (3,879)	
보통	9.7	27.4	39.8	23.1	100.0 (1,961)	
나쁜 편	13.1	26.8	34.2	25.9	100.0 (444)	
매우 나쁜 편	22.9	23.8	27.4	26.0	100.0 (223)	
모르겠음	9.5	27.1	39.0	24.4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7.2	20.4	37.8	34.5	100.0 (4,362)	220.9***
좋은 편	6.8	25.5	42.7	24.9	100.0 (4,293)	
보통	9.5	26.2	41.9	22.4	100.0 (1,855)	
나쁜 편	13.6	30.0	31.9	24.4	100.0 (213)	
매우 나쁜 편	32.6	14.0	30.2	23.3	100.0 (43)	
모르겠음	11.7	24.3	35.3	28.7	100.0 (33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9.3	16.3	30.2	44.2	100.0 (215)	95.4***
잘 사는 편	7.2	19.6	39.0	34.2	100.0 (1,534)	
보통	7.4	24.3	41.3	27.0	100.0 (7,217)	
못 사는 편	9.3	25.5	38.9	26.3	100.0 (1,649)	
매우 못사는 편	14.5	22.4	32.1	30.9	100.0 (165)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12. 자녀와 이혼에 관한 태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25.7%(매우 찬성 5.2% 포함), 반대 74.3%(전혀 찬성 안함 37.0% 포함)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것에 찬성하는 정도는 자녀 조건 없이 부부 갈등시 이혼에 대한 찬성 태도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면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에 대한 태도는 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5-30〉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5.2	20.5	37.3	37.0	100.0 (11,225)	
지역						
대도시	5.0	21.0	37.6	36.4	100.0 (4,934)	3.4
중소도시	5.4	20.1	36.9	37.6	100.0 (4,940)	
농촌(군)	5.2	19.8	37.9	37.2	100.0 (1,359)	
성별						
남학생	5.1	16.7	35.8	42.4	100.0 (5,850)	188.6***
여학생	5.3	24.6	39.0	31.1	100.0 (5,372)	
학교급						
초등학교	5.8	14.8	32.5	46.9	100.0 (1,895)	266.0***
중학교	4.9	17.9	37.8	39.3	100.0 (4,750)	
인문고등학교	5.1	26.4	40.2	28.3	100.0 (3,628)	
실업고등학교	5.9	21.9	33.4	38.8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6.3	14.8	33.2	45.8	100.0 (1,016)	307.3***
초 6학년	5.2	14.9	31.7	48.2	100.0 (880)	
중 1학년	4.8	15.8	36.1	43.3	100.0 (1,555)	
중 2학년	4.7	16.9	39.2	39.2	100.0 (1,608)	
중 3학년	5.2	21.0	38.1	35.7	100.0 (1,586)	
고 1학년	4.4	20.6	40.7	34.3	100.0 (1,561)	
고 2학년	5.6	25.8	38.7	29.8	100.0 (1,598)	
고 3학년	6.0	30.3	36.6	27.1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자녀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거주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 여학생(29.9%)이 남학생(2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이혼에 관해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나, 성장하면서 이혼의 현실성에 대해 점차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31〉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6.4	24.0	33.7	35.9	100.0 (973)	14.6**
아니오	5.0	20.1	38.0	36.9	100.0 (9,72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4	16.6	36.0	43.1	100.0 (3,677)	231.7***
좋은 편	3.8	20.8	40.6	34.8	100.0 (3,878)	
보통	6.7	24.3	37.7	31.3	100.0 (1,961)	
나쁜 편	9.2	28.0	33.3	29.5	100.0 (447)	
매우 나쁜 편	14.0	24.8	27.0	34.2	100.0 (222)	
모르겠음	8.2	23.9	35.1	32.7	100.0 (376)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5.1	17.6	34.6	42.7	100.0 (4,363)	205.5***
좋은 편	4.1	21.7	40.1	34.2	100.0 (4,294)	
보통	6.4	22.9	40.0	30.7	100.0 (1,855)	
나쁜 편	10.3	26.3	30.5	32.9	100.0 (213)	
매우 나쁜 편	22.7	25.0	22.7	29.5	100.0 (44)	
모르겠음	10.4	25.4	29.6	34.6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6.5	13.9	25.5	54.2	100.0 (216)	123.8***
잘 사는 편	5.6	17.0	34.5	42.9	100.0 (1,537)	
보통	4.8	20.3	39.6	35.3	100.0 (7,218)	
못 사는 편	6.0	24.4	33.9	35.7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11.6	22.6	23.2	42.7	100.0 (16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부 갈등시 이혼에 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것에 대한 태도 역시 가족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30.4%) 그렇지 않은 학생들(25.1%)에 비해 자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것에 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그리고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는 높아지고 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하나, 가정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 사이에 자녀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13. 학생의 결혼관련 태도에 관한 종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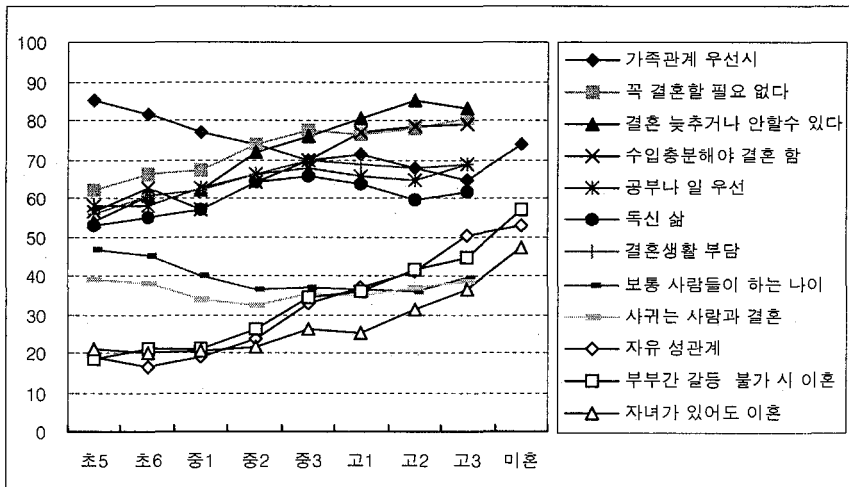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학생의 결혼관련 가치에 대한 태도들 대부분은 학교급 이행 과정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결혼 가치관들로는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할 수도 있다’, ‘독신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하는 게 낫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즉, 성장과정에서 여건들에 따라 만혼, 비혼, 혼전성관계, 이혼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등 결혼의 가족주의적 가치관, 결혼 연령규범 준수, 순결가치관 등은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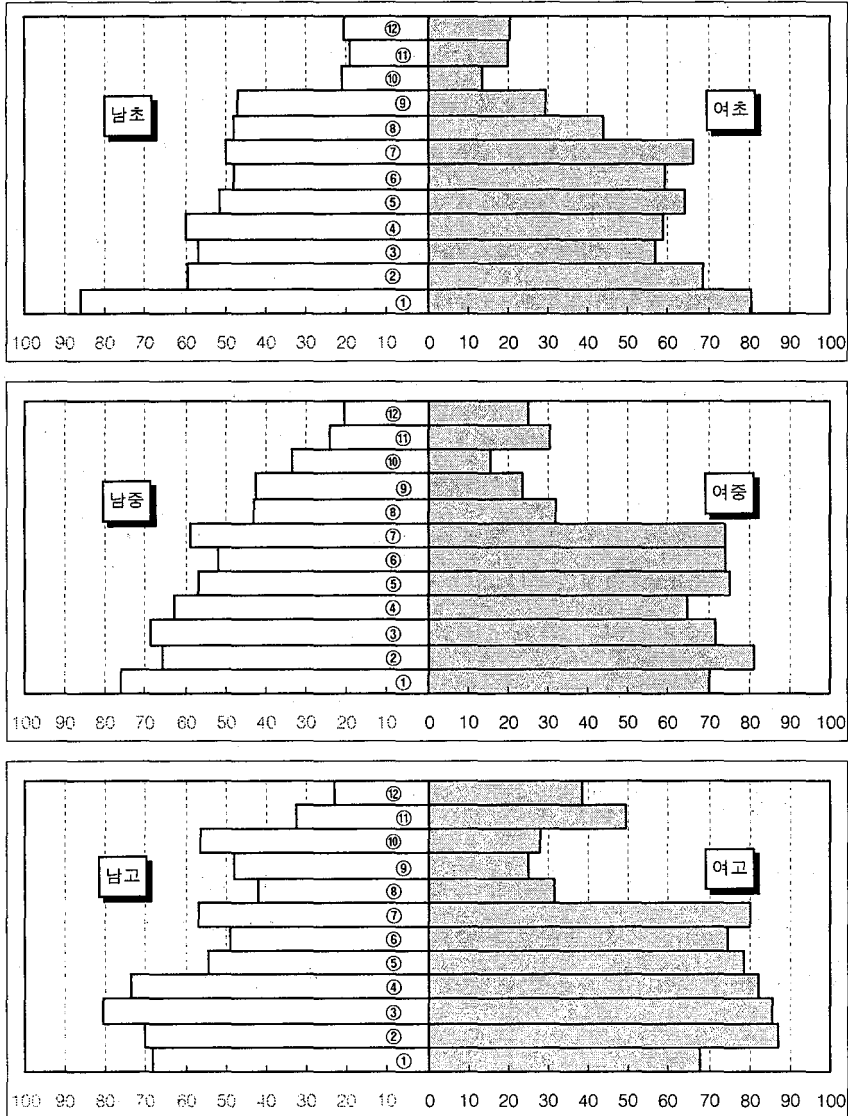
〈표 5-32〉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종합: 긍정적 태도(매우찬성+찬성비율)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먼저 생각해야 한다	72.9	85.9	80.7	83.4	76.3	70.1	73.4	68.1	67.6	67.9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73.6	59.3	68.6	64.0	65.6	80.9	72.8	70.0	87.3	78.4						
작정을 굳히지 못하나 어떤 작정을 가하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73.1	57.0	56.8	56.9	68.5	71.8	70.0	80.8	85.4	83.0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68.8	59.9	58.9	59.4	62.7	64.8	63.7	73.9	82.3	78.0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64.5	51.5	64.5	57.9	57.0	75.0	65.5	54.1	78.8	66.1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의 즐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60.6	48.1	59.5	53.9	51.8	74.3	62.4	48.9	74.9	61.6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65.6	49.8	66.5	57.8	58.8	74.2	66.1	56.9	80.1	68.2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38.8	47.9	43.9	46.0	42.8	31.9	37.7	42.0	31.7	37.0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35.7	46.8	29.3	38.4	42.5	23.8	33.7	47.9	25.0	36.8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30.9	21.3	13.6	17.6	33.6	15.4	25.0	56.4	27.8	42.5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하는게 낫다	31.3	18.9	20.2	19.5	24.3	30.7	27.3	32.3	49.2	40.5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25.7	20.7	20.5	20.6	20.8	25.1	22.8	23.3	38.6	30.7						

[그림 5-1] 생애경로 이행과정별 결혼관련 청소년의 태도 비교



[그림 5-2] 학교급 및 성별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종합비교



주: ①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②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③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만혼/비혼, ④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 ⑤ 공부나 일을 위해 비혼 가능
 ⑥ 독신의 삶의 즐기 위해 비혼, ⑦ 결혼생활 부담시 비혼, ⑧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⑨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야, ⑩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 ⑪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
 ⑫ 자녀가 있어도 이혼

남녀학생별 비교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가치관들로는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가치관들로는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독신의 삶의 즐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이 내재된 결혼관련 가치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면, 현대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는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여학생의 결혼관이 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5 절 자신의 결혼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청소년의 향후 결혼 의향

초·중·고 학생에게 향후 결혼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73.2%로 나타나며,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6.1%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학생들 중 20.7%는 결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표 5-33> 청소년의 향후 결혼 의향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음	결혼할 생각이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73.2	6.1	20.7	100.0 (11,222)	
지역					
대도시	73.9	6.2	19.9	100.0 (4,928)	6.9
중소도시	72.3	6.3	21.4	100.0 (4,936)	
농촌(군)	73.8	5.0	21.2	100.0 (1,357)	
성별					
남학생	77.0	4.2	18.8	100.0 (5,844)	118.3***
여학생	69.1	8.2	22.7	100.0 (5,369)	
학교급					
초등학교	61.8	6.4	31.8	100.0 (1,893)	259.8***
중학교	72.0	5.8	22.1	100.0 (4,742)	
인문고등학교	79.7	6.0	14.3	100.0 (3,627)	
실업고등학교	76.9	7.1	16.1	100.0 (959)	
학년구분					
초 5학년	60.1	6.8	33.1	100.0 (1,017)	296.1***
초 6학년	63.8	5.9	30.3	100.0 (876)	
중 1학년	67.8	6.3	25.9	100.0 (1,554)	
중 2학년	72.1	5.4	22.6	100.0 (1,605)	
중 3학년	76.1	5.9	18.1	100.0 (1,583)	
고 1학년	80.8	5.8	13.4	100.0 (1,556)	
고 2학년	77.5	6.6	15.9	100.0 (1,600)	
고 3학년	79.0	6.4	14.6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거주지별 학생의 결혼의향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결혼할 의향이 없는 비율은 남학생(4.2%)에 비해 여학생(8.2%)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결혼에 대한 판단유보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본인의 결혼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비율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점차 낮게 나타나, 성장하면서 본인의 결혼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려는 의향은 대체적으로 6% 수준으로 학교급·학년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가족환경에 따른 향후 학생 본인의 결혼의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표 5-34 참조).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결혼의향은 69.2%, 결혼의향 없음은 7.5%였다. 즉, 이들의 결혼의향은 부모가 결혼 중인 학생의 73.5%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결혼의향 없음은 다른 학생의 6.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그리고 부모-학생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결혼의향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대신에 결혼의향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아주 잘사는 편이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학생의 주관적 가구경제수준과 결혼의향비율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결혼의향 없는 비율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가족환경은 학생의 향후 결혼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형제자매수에 따른 향후 학생 본인의 결혼의향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예로 대체적으로 응답학생의 형제자매들이 아직은 어려 결혼기에 진입하지 못한 관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형제자매수 보다는 형제자매의 결혼여부와 이혼경험 등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도 할 수 있다.

<표 5-34> 청소년의 향후 결혼 의향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음	결혼할 생각이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69.2	7.5	23.3	100.0 (972)	8.6*
아니오	73.5	6.0	20.5	100.0 (9,713)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5.7	5.3	19.0	100.0 (3,674)	74.0***
좋은 편	74.6	5.6	19.9	100.0 (3,873)	
보통	69.2	8.0	22.8	100.0 (1,960)	
나쁜 편	70.6	8.7	20.6	100.0 (446)	
매우 나쁜 편	63.7	9.9	26.5	100.0 (223)	
모르겠음	63.2	6.9	29.9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74.7	5.6	19.6	100.0 (4,362)	90.6***
좋은 편	74.5	5.4	20.2	100.0 (4,286)	
보통	69.4	6.9	23.7	100.0 (1,854)	
나쁜 편	74.3	13.1	12.6	100.0 (214)	
매우 나쁜 편	63.6	18.2	18.2	100.0 (44)	
모르겠음	60.3	11.0	28.7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75.3	7.0	17.7	100.0 (215)	69.0***
잘 사는 편	72.3	5.4	22.3	100.0 (1,536)	
보통	74.1	5.7	20.1	100.0 (7,213)	
못 사는 편	73.4	8.2	18.4	100.0 (1,648)	
매우 못사는 편	69.1	7.9	23.0	100.0 (165)	
모르겠음	60.4	6.3	33.3	100.0 (432)	
형제자매수					
1명	74.9	6.8	18.3	100.0 (1,416)	11.9†
2명	73.6	5.8	20.6	100.0 (7,113)	
3명	71.4	6.3	22.3	100.0 (2,167)	
4명 이상	71.4	7.2	21.5	100.0 (517)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2. 청소년의 배우자 조건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 믿음·사랑(29.4%), 성격(18.1%), 외모 및 신체조건(16.4%), 경제력(소득, 재산)(12.2%), 건강(11.4%), 직업·직위(3.4%), 종교(3.4%), 가정환경(2.3%), 연령(0.7%), 학력·학벌(1.7%) 순으로 나타났다. 조건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0.2% 이었다. 결혼조건에 대한 청소년과 미혼인 성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전체 미혼 성인 중 32.1%는 배우자의 제1조건으로 성격을 꼽았다(이삼식, 2005c).

학생의 개인적 특성별로 배우자 선택의 조건들은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다만, 거주지별로 보면 도시학생일수록 믿음·사랑과 성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농촌학생일수록 외모·신체조건, 건강, 소득·재산, 종교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배우자 선택의 조건은 전체 패턴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믿음·사랑(28.1%), 외모·신체조건(21.9%), 성격(17.8%), 건강(13.4%), 경제력(소득, 재산)(8.0%) 순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믿음·사랑(30.9%), 성격(18.4%), 경제력(소득, 재산)(17.3%), 외모·신체조건(9.7%), 건강(9.1%) 순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특히, 배우자 선택조건으로서 외모신체조건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12.2%포인트, 경제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9.3%포인트 높았다. 즉, 남학생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외모 등 신체적 조건, 건강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여학생은 경제력, 직업·지위, 믿음·사랑, 성격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의 이러한 생각은 성인이 되면 더욱 굳어질지 모른다. 미혼인 여성들은 배우자 조건으로 경제력을 제1조건으로 뽑았다(이삼식, 2005c).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학생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믿음·사랑, 성격, 경제력(소득·재산), 직업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나, 건강, 외모·신체조건, 종교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감소하고 있다.

〈표 5-35〉 학생의 배우자 조건(1순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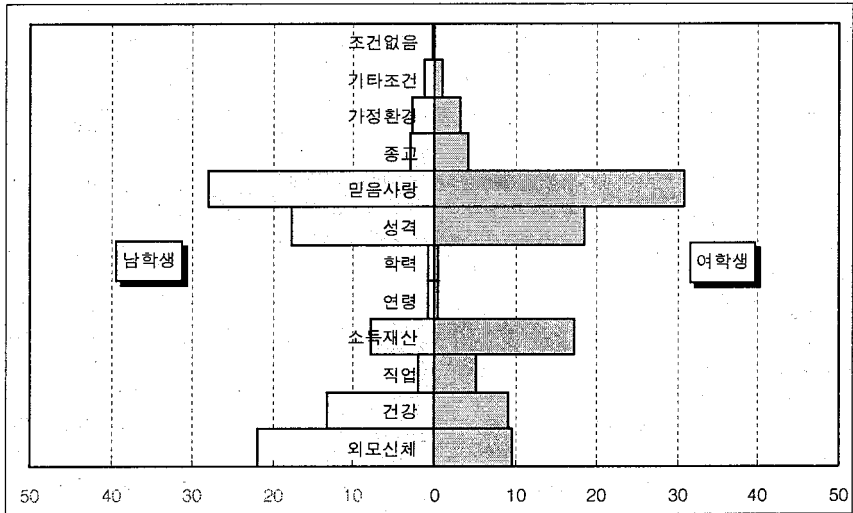
구분	① 외모 신체	② 건강	③ 직업 직위	④ 소득 재산	⑤ 연령	⑥ 학력 학벌	⑦ 성격	⑧ 믿음 사랑	⑨ 종교	⑩ 가정 환경	⑪ 기타 조건	⑫ 조건 없음	계 (명)
전체	16.4	11.4	3.4	12.2	0.7	0.7	18.1	29.4	3.4	2.3	1.2	0.2	100.0 (8,182)
지역($\chi^2=51.0^{**}$)													
대도시	15.7	10.6	3.4	12.8	0.6	0.7	18.8	29.9	3.4	2.5	1.4	0.2	100.0 (3,627)
중소도시	16.6	11.9	3.5	11.0	0.8	0.7	18.2	30.0	3.0	3.2	1.0	0.2	100.0 (3,559)
농촌(군)	18.0	12.9	3.3	14.5	0.6	0.5	15.3	25.4	5.2	3.1	1.0	0.1	100.0 (999)
성별($\chi^2=444.4^{***}$)													
남학생	21.9	13.4	2.0	8.0	0.8	0.8	17.8	28.1	2.9	2.7	1.3	0.3	100.0 (4,488)
여학생	9.7	9.1	5.1	17.3	0.6	0.6	18.4	30.9	4.2	3.1	1.0	0.1	100.0 (3,699)
학교급($\chi^2=469.2^{***}$)													
초등학교	18.7	21.6	2.4	7.0	0.6	0.9	11.6	26.4	5.4	3.9	1.3	0.3	100.0 (1,167)
중학교	19.6	12.5	3.3	10.9	0.9	1.0	15.9	28.6	2.8	2.9	1.5	0.1	100.0 (3,404)
인문고등학교	12.3	6.4	3.7	14.0	0.6	0.4	23.3	32.6	3.6	2.0	1.0	0.2	100.0 (2,887)
실업고등학교	13.6	10.7	4.4	19.6	0.3	0.3	18.4	24.8	2.9	4.1	0.7	0.4	100.0 (730)
학년구분($\chi^2=503.4^{***}$)													
초 5학년	16.9	23.0	2.1	7.1	0.8	1.1	10.5	26.1	5.4	4.6	1.8	0.5	100.0 (609)
초 6학년	20.6	20.1	2.5	7.0	0.4	0.7	12.9	26.9	5.2	3.1	0.7		100.0 (558)
중 1학년	21.0	16.0	3.5	8.9	1.0	1.0	13.5	27.4	2.3	3.7	1.5	0.1	100.0 (1,051)
중 2학년	18.7	12.2	2.8	11.8	1.0	1.0	16.3	29.3	2.8	2.9	1.2		100.0 (1,153)
중 3학년	19.2	9.7	3.7	11.9	0.8	0.9	17.5	29.1	3.1	2.3	1.7	0.2	100.0 (1,198)
고 1학년	12.8	8.6	3.5	13.9	0.8	0.3	20.6	31.5	3.7	2.6	1.2	0.4	100.0 (1,256)
고 2학년	13.7	7.2	3.7	15.3	0.4	0.3	21.7	30.8	3.5	2.7	0.6	0.1	100.0 (1,238)
고 3학년	11.1	5.8	4.4	16.2	0.4	0.4	24.8	30.7	3.1	2.0	0.9	0.2	100.0 (1,125)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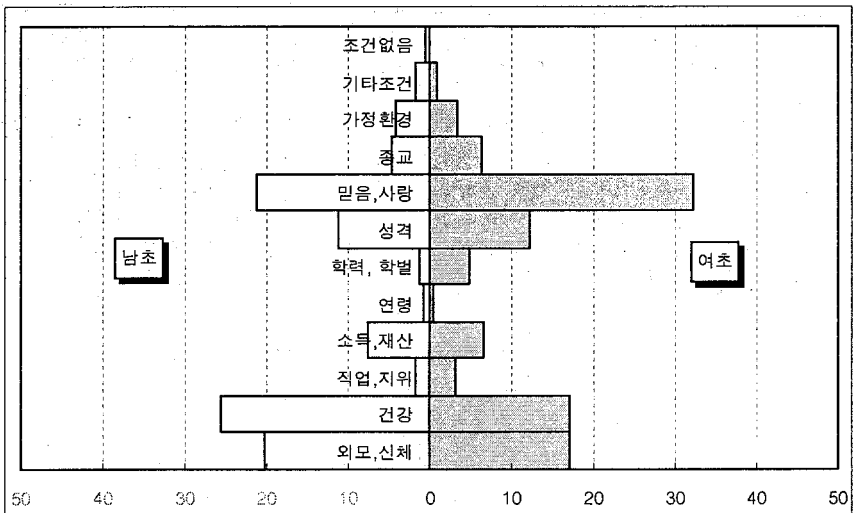
2)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건강, ③직업(직종 및 직위), ④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⑤ 연령, ⑥ 학력, 학벌(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⑦ 성격, ⑧ 믿음과 사랑, ⑨ 종교, ⑩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관계, 성장배경, ⑪ 기타조건(궁합, 출신지역), ⑫ 조건 없다.

+ p<0.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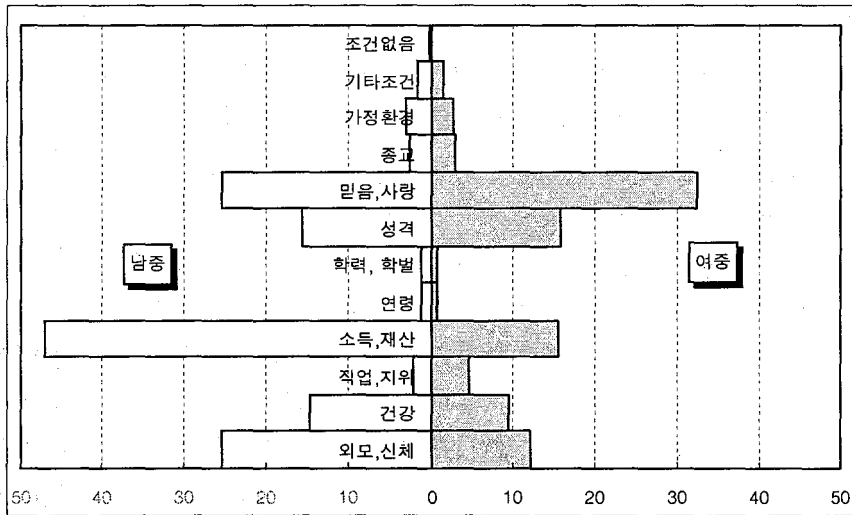
[그림 5-3]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초(5-6학년)·중·고 학생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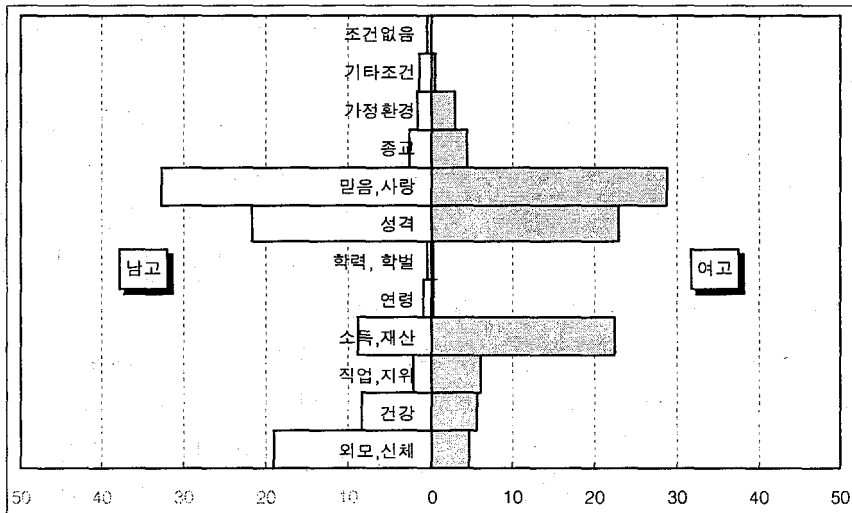
[그림 5-4]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초등학생(5-6학년)



[그림 5-5]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중학생



[그림 5-6] 남녀학생별 배우자 조건(1순위): 고등학생



가족 특성별로 학생의 배우자 선택조건은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부만 생존한 학생집단은 믿음·사랑, 건강, 소득·재산, 가정환경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반면, 외모·신체조건은 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모만 생존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배우자 선택조건으로서 성격, 소득·재산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으나, 믿음·사랑, 건강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부 또는 모의 상실로 인한 영향이 배우자 선택조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배우자 조건의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간 관계는 학생의 배우자 선택조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가 극히 적은 ‘아주 나쁜 편’을 제외하면, 배우자 선택조건 중 성격, 외모·신체조건, 소득·재산(경제력) 등의 비중은 부모간 관계가 나쁠수록 증가하는 반면, 믿음·사랑, 건강 등은 부모간 관계가 좋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간 관계가 여타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거나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모간 관계도 학생의 배우자 선택조건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성격과 소득·재산(경제력) 조건들의 비중은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건강과 가정환경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생-부모관계가 다른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거나 미세하였다.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경제수준에 따른 배우자 선택조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구경제수준이 좋다고 여기는 학생일수록 배우자 선택조건으로서 외모·신체조건과 건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소득·재산, 성격, 종교 등의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이상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미래 배우자의 조건들은 직·간접적으로 가족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36〉 학생의 배우자 조건(1순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① 외모 신체	② 건강	③ 직업 직위	④ 소득 재산	⑤ 연령	⑥ 학력 학벌	⑦ 성격	⑧ 믿음 사랑	⑨ 종교	⑩ 가정 환경	⑪ 기타 조건	⑫ 조건 없음	계 (명)
부모 생존여부($\chi^2=128.0^{***}$)													
모두 생존	16.4	11.4	3.4	12.1	0.7	0.7	18.2	29.5	3.5	2.8	1.2	0.1	100.0 (7,829)
부만 생존	14.4	14.4	4.4	14.4	-	2.2	7.8	33.3	-	6.6	2.2	-	100.0 (90)
모만 생존	15.1	10.3	4.3	15.5	0.4	0.9	19.4	23.3	4.3	3.0	1.7	1.7	100.0 (232)
부모 사망	18.5	33.3	-	-	-	-	14.8	33.3	-	-	-	-	100.0 (27)
부모의 혼인상태($\chi^2=18.5$)													
예	16.3	10.9	3.9	13.2	1.0	-	18.1	32.0	2.1	1.8	0.6	-	100.0 (668)
아니오	16.4	11.4	3.3	12.0	0.7	0.7	18.2	29.4	3.6	2.9	1.2	0.1	100.0 (7,116)
부모간의 관계($\chi^2=119.5^{***}$)													
매우좋은편	16.1	13.4	3.2	10.7	0.6	0.6	16.6	30.3	4.1	3.2	1.1	0.1	100.0 (3,249)
좋은 편	15.9	10.2	3.5	13.4	0.7	0.9	19.1	29.2	3.1	2.8	1.2	0.1	100.0 (3,181)
보통	17.1	9.4	4.0	13.0	0.9	0.5	19.7	28.9	2.3	2.2	1.3	0.5	100.0 (1,283)
나쁜 편	16.9	8.1	1.3	13.1	1.3	1.3	20.6	29.4	5.6	1.9	0.6	-	100.0 (160)
매우나쁜편	25.0	3.6	-	21.4	-	-	17.9	28.6	3.6	-	-	-	100.0 (28)
모르겠음	21.8	8.9	3.5	14.9	0.5	-	17.8	22.8	3.5	2.5	3.0	1.0	100.0 (202)
학생-부모 관계($\chi^2=106.7^{***}$)													
매우좋은편	15.7	12.8	3.2	10.5	0.5	0.7	17.1	30.1	4.8	3.4	1.2	0.1	100.0 (2,775)
좋은 편	16.7	10.1	4.0	12.6	0.7	0.7	18.1	29.9	2.9	3.0	1.1	0.1	100.0 (2,881)
보통	17.1	11.8	2.7	14.2	1.1	0.7	19.6	27.1	2.1	2.0	1.2	0.3	100.0 (1,354)
나쁜 편	16.2	10.2	3.8	12.1	0.6	1.0	20.1	30.3	3.5	1.0	1.3	-	100.0 (314)
매우나쁜편	12.0	7.7	1.4	16.2	0.7	-	21.8	31.0	5.6	2.8	0.7	-	100.0 (142)
모르겠음	20.3	11.4	2.1	14.4	0.4	0.4	20.8	25.0	1.7	1.3	2.1	-	100.0 (236)
가구경제상태($\chi^2=151.3^{***}$)													
매우잘산편	27.8	16.7	3.7	11.7	0.6	1.9	14.8	19.8	0.6	2.5	-	-	100.0 (162)
잘 사는 편	18.8	13.4	4.2	8.5	0.8	0.7	15.6	29.7	2.5	4.2	1.4	-	100.0 (1,106)
보통	15.9	11.1	3.4	12.2	0.7	0.7	18.6	30.0	3.4	2.6	1.2	0.2	100.0 (5,337)
못 사는 편	13.4	10.1	2.9	16.0	0.7	0.4	19.8	28.6	4.2	2.4	1.2	0.2	100.0 (1,202)
매우못산편	18.9	9.0	3.6	13.5	-	0.9	9.0	29.7	9.9	3.6	0.9	0.9	100.0 (111)
모르겠음	20.7	13.8	2.7	10.3	1.9	1.1	15.7	25.3	3.8	3.4	0.8	0.4	100.0 (261)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건강, ③ 직업(직종 및 직위), ④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⑤ 연령, ⑥ 학력, 학벌(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⑦ 성격, ⑧ 믿음과 사랑, ⑨ 종교, ⑩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관계, 성장배경, ⑪ 기타(궁합, 출신지역), ⑫ 조건 없다.

† p<0.1, * p<0.05, ** p<0.01, *** p<0.001

제 6 절 청소년 결혼관의 시사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결혼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알아본 청소년의 결혼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과반수의 청소년들이 독신의 삶이 매력 있다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또한 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가 있으면 결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대체로 반대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갈등하는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미혼 성인남녀들과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다.

둘째, 다양한 개인적 특징이 결혼에 대한 의견과 관련이 있었다. 그 중 결혼에 대해서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결혼에 대한 거의 전 문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남자 청소년들은 결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다. 반면 여자 청소년들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차는 한국의 사회적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결혼은 여성에게 굴레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게 되면 그 굴레는 더욱 힘겨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들은 결혼을 과거처럼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연령에 대한 차이도 뚜렷하다.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혼에 대해 현실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절한 혼인연령이 올라갔으며 결혼에서 직업이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으며 대신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셋째, 다양한 가족적 특징에 의해 결혼에 대한 의견이 달라졌다. 가족적 특징 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였다. 부모간의 관계, 학

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대체적으로 가구원 간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결혼에서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반면 구성원 간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결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부모 간 관계가 매우 나쁜 학생은 이혼을 가능한 선택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정리하자면 결혼에 대해 청소년들은 많이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특히 여학생들과 고등학생은 그러한 경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자신의 가족 관계가 큰 영향을 갖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교과서 내용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는 일이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a).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대한교과서)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아버지: 일터에 나가신다. 가족여행을 계획하신다.

어머니: 집안 살림을 맡아 하신다. 가족회의를 여신다.

많은 여학생들이 일을 위해서는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취업포털 코리아 리쿠르트가 2005년 미혼 직장인 16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후 '맛벌이 하겠다'는 응답자가 85.3%나 됐다. '남편만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그럼에도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살림만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여기저기에도 발견되고 있다. 교과서에 게재된 삽화에서 어머니는 바느질이나 뜨개질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반면 아버지는 모녀가 설거지를 하고 상 치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중1기술가정)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서술도 있다. 중2 사회교과서(교학사)에서는 아들이 있는 직장여성을 예로 들어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아 살림이 엉망이 되곤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둘째, 학생들의 가치관은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적 변수와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관계 등 가족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은 대를 잇는데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자아실현을 중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데 비해 고등학생들은 이혼을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우선 학년별로 학생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과 및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저학년 학생에게 적절한 주제라면 이혼 등 새로운 가족에 대한 내용은 고학년 학생에게 적당한 주제일 것이다. 또는 남학생들에게 집안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역시 고학년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고학년들이 맞벌이나 양육 등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나이에 맞는 가치관 형성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가능하면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 결혼 등에 대한 기본적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현실에 노출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다양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화 될 것이다. 고등학교 때는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는 이미 자녀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결혼관에 가정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 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일본 국립여성교육회관이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태국, 스웨덴 6개국에서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한국 아빠들이 아이와 지내는 시간이 평일 하루 2.8시간으로 꼴찌를 차지하였다(중앙일보, 2006). 또 스웨덴의 아빠들이 2명 중 1명꼴로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는 데 비해 한국은 5명 중 1명이었다. 그래서 가정에 아빠가 ‘없는’ 한국 아이들은 암전하게 밥을 먹는 등 예의범절을 배우거나 자립심을 기르는 게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 예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장 청소년의 자녀 가치관

제 1 절 문제제기

한국의 출산력은 매우 낮다. 2005년 여성 1명이 임신할 수 있는 기간(15-49세)에 낳은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08명이다(통계청, 2005). 통계가 작성된 1970년(4.53명) 이후 가장 낮고, 1.06명이었던 2004년보다 0.08명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00년에서 2004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0.95명인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2005년 태어난 아이 수는 43만8000명으로 2004년의 47만6000명보다 3만8000명 감소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또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2005년 30대 산모의 비율이 51.3%로 47.7%인 20대 산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아이를 낳은 주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간 것이다. 1995년 30대 산모의 비율은 25.1%에 그쳤다.

급격한 저출산현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해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경제에 결정타가 될 것이다. 성장을 잃어질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 내수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는 줄어든 상태에서 노인의 비중이 커져 젊은 층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며,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은 데 20-30년 후 이를 부담할 젊은 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가치관 변화를 꼽는다. 우선 많은 성인들은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실시된 전국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35.0%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이삼식 외, 2005c). 같은 조사에 대해 2000년 10.0%, 2003년에는 12.6%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5년 사이에 그 비율이 3-4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자녀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식 변화가 있다. 기혼 여성들은 자녀

의 의미를 ‘부모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찬성 97.6%),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 준다’(찬성 95.8%)는데 두었습니다. 자녀가 ‘노후의 경제적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혼여성은 20.3%에 불과했습니다(이삼식 외, 2005c).

그러면 과연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들은 어떤 자녀관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는 저출산현상에 대한 미래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연구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개인적·가족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춘다.

제 2절 자녀필요성과 자녀수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27.0%,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48.2%로 총 75.2%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17.3%, 모르겠다는 판단유보는 7.5%를 각각 차지하였다. 즉, 학생들 전체적으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나, 부정적인 태도도 20%에 육박하였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20~44세) 61.1%, 미혼여성(20~44세) 53.8%, 기혼여성(20~44세) 63.4% 등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에 비해 더 긍정적이나, 이들이 성장 및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겠다.

대부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달랐다.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꼭 있

어야 한다는 태도는 남학생 중 30.8%로 여학생의 23.0%에 비해 높은 반면, 없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21.8%로 남학생의 13.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20~44세 미혼남녀간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태도의 비교에서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다소 낮았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도 남학생(78.2%)에 비해 여학생(71.8%)이 자녀필요성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환언하면, 학생들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6-1〉 자녀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나음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27.0	48.2	17.3	7.5	100.0 (11,230)	
지역						
대도시	26.8	48.0	18.2	7.0	100.0 (4,937)	17.8**
중소도시	26.5	48.5	17.1	7.9	100.0 (4,947)	
농촌(군)	30.2	47.2	14.5	8.0	100.0 (1,356)	
성별						
남학생	30.8	47.4	13.2	8.6	100.0 (5,852)	202.2***
여학생	23.0	48.8	21.8	6.3	100.0 (5,378)	
학교급						
초등학교	29.8	45.9	11.5	12.8	100.0 (1,898)	244.4***
중학교	25.4	49.0	16.9	8.6	100.0 (4,752)	
인문고등학교	26.1	49.2	20.8	3.9	100.0 (3,631)	
실업고등학교	33.9	44.0	17.0	5.2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29.4	44.8	11.6	14.2	100.0 (1,018)	262.0***
초 6학년	30.2	47.2	11.6	11.0	100.0 (881)	
중 1학년	27.5	47.2	14.3	11.0	100.0 (1,558)	
중 2학년	25.1	50.1	17.2	7.6	100.0 (1,608)	
중 3학년	23.7	49.8	19.3	7.2	100.0 (1,588)	
고 1학년	26.3	49.4	19.4	4.9	100.0 (1,560)	
고 2학년	28.0	47.1	20.9	4.0	100.0 (1,599)	
고 3학년	28.8	47.8	19.7	3.6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2> 자녀 필요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임	없어도 상관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28.3	47.7	16.7	7.3	100.0 (1,415)	16.8†
2명	27.0	48.0	17.8	7.2	100.0 (7,127)	
3명	25.5	49.4	16.7	8.4	100.0 (2,170)	
4명 이상	32.2	45.5	14.5	7.9	100.0 (519)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27.1	48.2	17.4	7.3	100.0 (10,754)	39.2***
부만 생존	30.1	39.1	13.5	17.3	100.0 (133)	
모만 생존	28.0	51.5	14.0	6.5	100.0 (293)	
모두 사망	15.4	43.6	17.9	23.1	100.0 (39)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6.1	47.2	18.9	7.7	100.0 (972)	2.0
아니오	27.0	48.4	17.3	7.3	100.0 (9,72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1.7	45.8	15.2	7.2	100.0 (3,677)	143.9***
좋은 편	25.4	51.7	16.6	6.3	100.0 (3,877)	
보통	23.7	47.9	20.3	8.1	100.0 (1,967)	
나쁜 편	26.8	46.5	19.5	7.2	100.0 (447)	
매우 나쁜 편	25.9	37.1	29.0	8.0	100.0 (224)	
모르겠음	19.9	44.0	22.3	13.8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32.6	45.3	14.6	7.5	100.0 (4,365)	238.4***
좋은 편	24.3	52.4	16.7	6.6	100.0 (4,294)	
보통	23.1	46.2	22.3	8.4	100.0 (1,858)	
나쁜 편	17.8	54.2	22.9	5.1	100.0 (214)	
매우 나쁜 편	29.5	29.5	40.9		100.0 (44)	
모르겠음	19.0	39.0	28.9	13.1	100.0 (33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3.5	33.8	13.4	9.3	100.0 (216)	179.8***
잘 사는 편	30.5	45.6	16.9	7.0	100.0 (1,536)	
보통	26.7	49.2	17.1	7.0	100.0 (7,223)	
못 사는 편	24.4	50.2	19.0	6.5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34.5	38.8	20.6	6.1	100.0 (165)	
모르겠음	21.7	42.6	14.7	21.0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2>에서 편부모가족(부 또는 모 사망의 경우) 학생들이 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는 낮았고,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태도는 다소 높았다. 학생의 형제자매수와 부모 이혼·별거 여부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하였다.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는 자녀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성은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즉,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하고, 자녀가 상관없다는 태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감소하고, 대신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가족환경은 학생들의 자녀관련 가치관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형제자매수에 관한 태도

여기에서는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수에 관한 태도를 통해 자녀수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에 자녀로 본인만 있는 학생의 경우, 형제자녀매수 1명이 적다는 태도가 43.6%로 적당 37.6%, 많은 편 3.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15.5%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형제자매수가 2명(학생 가족에 본인을 포함하여 1명의 형제자매가 더 있는 경우)인 학생의 경우 현 형제자매수가 적당하다는 태도가 76.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적은 편이라는 태도는 19.0%로 많은 편이라는 태도의 1.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에 형제자매수가 3명이 있는 학생의 경우, 현 형제자매수가 적당하다는 태도는 66.7%로 높게 나타났으나, 적은 편이라는 태도는 2.4%로 많다는 태도 27.4%에 비해 낮았다. 형제자매수가 4명 이상인 학

생의 경우 현 형제자매수가 많다는 태도가 68.2%, 적당하다는 태도가 24.8%로 각각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별로 형제자매수에 대한 태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형제자매수별로 학생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2명의 자녀가 적당하다는 태도가 가장 우세하며, 3명이 적당하다는 태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명은 적다는 태도가 가장 높으며, 4명 이상은 많다는 태도가 우세하였다. 결국 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자녀수 2~3명에 대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3〉 본인의 형제자매수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학교급별

(단위: %, 명)

구분	많은편	적은편	적당	모르겠음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3.3	43.6	37.6	15.5	100 (1,369)	4,811.4***
2명	1.0	19.0	76.5	3.5	100 (7,120)	
3명	27.4	2.4	66.7	3.6	100 (2,168)	
4명 이상	68.2	3.1	24.8	24.8	100 (516)	
초등학교						
1명	1.7	52	24.9	21.5	100 (177)	765.4***
2명	1	23.4	71.7	4	100 (1,263)	
3명	25.6	4.5	63.3	6.6	100 (379)	
4명 이상	61.6	1.4	28.8	8.2	100 (73)	
중학교						
1명	3.5	39.3	39.9	17.3	100.0 (649)	2,066.3***
2명	1.0	14.3	80.6	4.1	100 (2,925)	
3명	29.6	1.3	65.6	3.5	100 (922)	
4명 이상	65.0	2.2	28.7	4.0	100 (223)	
고등학교						
1명	3.5	46.0	39.0	11.4	100 (543)	2,039.7***
2명	1.0	21.8	74.5	2.7	100.0 (2,932)	
3명	25.7	2.8	69.3	2.3	100.0 (869)	
4명 이상	73.3	4.5	19.5	2.7	100.0 (22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제 3절 자녀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본 조사에서는 자녀관련 일반적인 가치관들에 대해 학생의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일반적인 자녀관 항목들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조사와 연구들에서 실시된 모듈로서 집단이나 조사시기별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부모되기의 가치에 관한 태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6-4 참조). 초·중·고 학생들 중 동 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92.0%(매우 찬성 46.2%, 대체로 찬성 45.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인 태도는 8.0%에 불과하였다. 보편적으로 학생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하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적 특성에 따라서도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일관성 있게 아주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집단별 부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학생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거주지별 동 견해에 대한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성보다 남성이 부모 되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부모로서의 가치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미혼인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부모되기의 가치를 더 인정한다. 위 진술에 대해 미혼남성은 50.5%가 매우 찬성하며 44.5%가 대체로 찬성하는데 비해 미혼여성은 43.2%가 매우 찬성하며 49.3%가 대체로 찬성하였다(이삼식, 2006c).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대체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나, 그 차이는 미세하게 나타났다.

〈표 6-4〉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46.2	45.8	6.8	1.2	100.0 (11,240)	
지역						
대도시	46.7	45.5	6.8	1.0	100.0 (4,935)	6.1
중소도시	45.5	46.3	6.9	1.4	100.0 (4,946)	
농촌(군)	46.9	45.0	6.6	1.5	100.0 (1,359)	
성별						
남학생	48.3	44.2	6.1	1.5	100.0 (5,848)	35.8***
여학생	44.0	47.6	7.6	0.9	100.0 (5,381)	
학교급						
초등학교	48.6	43.0	7.0	1.5	100.0 (1,899)	21.2*
중학교	45.3	46.1	7.2	1.4	100.0 (4,751)	
인문고등학교	46.5	46.6	6.2	0.7	100.0 (3,630)	
실업고등학교	44.7	47.1	7.1	1.1	100.0 (962)	
학년구분						
초 5학년	48.0	42.7	8.0	1.3	100.0 (1,019)	43.1**
초 6학년	49.1	43.3	5.8	1.8	100.0 (880)	
중 1학년	45.3	45.6	7.1	2.0	100.0 (1,556)	
중 2학년	45.5	46.5	6.7	1.3	100.0 (1,606)	
중 3학년	45.1	46.1	7.9	0.9	100.0 (1,588)	
고 1학년	45.1	48.5	5.4	0.9	100.0 (1,560)	
고 2학년	45.6	47.2	6.3	0.9	100.0 (1,598)	
고 3학년	47.9	44.1	7.3	0.6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가족적 특징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부여 정도는 다르다(표 6-5 참조). 부모의 생존여부별로는 부모 모두 생존하고 있는 학생에 비해 편부모가정 학생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부가 사망한 경우보다 모나 부모 모두 사망한 학생의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거나 나쁜 학생은 부모 되기를 중시하는데 비해 관계가 보통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 마찬가지로 관계를 학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6-5〉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47.7	44.3	6.5	1.5	100.0 (1,415)	5.9
2명	46.1	45.8	7.0	1.1	100.0 (7,123)	
3명	45.3	46.8	6.6	1.2	100.0 (2,172)	
4명 이상	46.2	45.9	6.2	1.7	100.0 (519)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46.3	45.9	6.7	1.1	100.0 (10,753)	19.4*
부만 생존	41.8	45.5	11.9	0.7	100.0 (134)	
모만 생존	47.4	42.3	7.8	2.4	100.0 (293)	
모두 사망	31.6	52.6	10.5	5.3	100.0 (38)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44.2	47.0	7.5	1.2	100.0 (972)	2.4
아니오	46.5	45.8	6.6	1.1	100.0 (9,727)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54.4	39.9	4.7	1.0	100.0 (3,677)	213.0***
좋은 편	42.3	50.3	6.7	0.7	100.0 (3,881)	
보통	39.8	49.2	9.2	1.8	100.0 (1,964)	
나쁜 편	43.8	46.5	7.6	2.0	100.0 (447)	
매우 나쁜 편	49.5	39.2	9.0	2.3	100.0 (222)	
모르겠음	42.5	44.6	11.3	1.6	100.0 (379)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55.6	38.9	4.6	0.9	100.0 (4,368)	428.3***
좋은 편	42.6	50.1	6.5	0.8	100.0 (4,294)	
보통	35.4	52.4	10.6	1.6	100.0 (1,854)	
나쁜 편	36.4	45.8	12.1	5.6	100.0 (214)	
매우 나쁜 편	42.2	33.3	15.6	8.9	100.0 (45)	
모르겠음	37.4	44.9	14.4	3.3	100.0 (334)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46.3	45.9	6.7	1.1	100.0 (6,969)	17.5*
부만 취업	45.8	46.2	6.9	1.1	100.0 (3,388)	
모만 취업	48.7	42.4	6.7	2.2	100.0 (507)	
모두 비취업	46.5	41.0	10.0	2.6	100.0 (271)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61.1	30.6	3.7	4.6	100.0 (216)	126.1***
잘 사는 편	50.2	42.6	6.2	1.0	100.0 (1,537)	
보통	44.8	47.8	6.6	0.9	100.0 (7,219)	
못 사는 편	47.8	42.6	8.0	1.6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47.9	40.0	6.1	6.1	100.0 (165)	
모르겠음	41.8	46.2	10.2	1.8	100.0 (433)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와 관계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면 부모 되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가구의 경제 상태도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 준다. 가구의 경제적 사정이 좋을수록 부모 되기를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모 모두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동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모가 되는 것에 가치 부여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겠다.

2.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으로서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최근 자녀를 갖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사항이라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30.2%(매우 찬성 5.6%), 반대 69.8%(전혀 찬성 안함 15.4%)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에 비해 미혼남녀가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 적었다(이삼식 외, 2005c). 위 진술에 대해 미혼남은 10.6%가 매우 찬성했으며 30.1%가 대체로 찬성했고 미혼녀는 6.1%가 매우 찬성했으며 29.4%가 대체로 찬성했다 즉,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이용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은 이른바 자녀의 수단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미혼성인보다는 덜 부정적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패턴은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도 유사하며, 다만 부분적으로 정도 차이가 있었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대도시 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와 농촌 학생들 순이었다. 남녀별로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77.1%로 남학생의 6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 견해

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초등학생의 경우 52.8%, 중학생의 경우 70.7%,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 87.3%로 나타났다.

〈표 6-6〉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5.6	24.6	54.4	15.4	100.0 (11,240)	
지역						
대도시	5.3	23.9	55.0	15.8	100.0 (4,936)	16.6*
중소도시	5.5	24.7	54.3	15.6	100.0 (4,945)	
농촌(군)	7.0	27.2	52.6	13.2	100.0 (1,359)	
성별						
남학생	7.7	29.2	49.9	13.2	100.0 (5,847)	289.3***
여학생	3.2	19.7	59.3	17.8	100.0 (5,380)	
학교급						
초등학교	9.9	37.3	41.1	11.7	100.0 (1,899)	380.3***
중학교	5.2	24.1	55.6	15.1	100.0 (4,747)	
인문고등학교	3.9	18.5	59.7	18.0	100.0 (3,630)	
실업고등학교	5.3	25.7	54.6	14.4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10.1	39.3	39.0	11.6	100.0 (1,018)	391.3***
초 6학년	9.5	35.1	43.5	11.8	100.0 (880)	
중 1학년	5.6	28.1	51.1	15.2	100.0 (1,557)	
중 2학년	5.4	22.8	58.0	13.8	100.0 (1,604)	
중 3학년	4.6	21.4	57.6	16.4	100.0 (1,588)	
고 1학년	4.2	19.5	59.0	17.2	100.0 (1,561)	
고 2학년	4.1	20.9	59.4	15.7	100.0 (1,597)	
고 3학년	4.2	19.6	57.4	18.9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견해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는 가족적 특성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 모두 살아있는 학생들에 비해 모만 생존하고 있거나 부모 모두 사망한 학생의 경우,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었다.

〈표 6-7〉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견해에 관한 청
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6.5	25.5	52.1	16.0	100.0 (1,414)	10.0
2명	5.4	24.0	55.0	15.5	100.0 (7,125)	
3명	5.1	25.8	54.2	15.0	100.0 (2,173)	
4명 이상	6.4	25.9	53.6	14.1	100.0 (517)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5.4	24.7	54.6	15.3	100.0 (10,753)	15.3*
부만 생존	8.9	21.5	51.9	17.8	100.0 (135)	
모만 생존	7.8	24.8	48.0	19.4	100.0 (294)	
모두 사망	10.5	15.8	57.9	15.8	100.0 (38)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5.4	26.0	53.8	14.8	100.0 (973)	1.1
아니오	5.4	24.5	54.7	15.3	100.0 (9,728)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7.3	25.8	52.0	14.9	100.0 (3,677)	92.1***
좋은 편	4.1	24.3	58.2	13.4	100.0 (3,880)	
보통	4.5	23.9	54.0	17.5	100.0 (1,964)	
나쁜 편	5.8	22.1	52.2	19.9	100.0 (448)	
매우 나쁜 편	5.0	18.1	56.1	20.8	100.0 (221)	
모르겠음	6.1	25.9	49.2	18.8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7.0	27.2	50.5	15.3	100.0 (4,367)	127.4***
좋은 편	4.5	23.3	58.0	14.1	100.0 (4,294)	
보통	4.3	21.8	57.8	16.1	100.0 (1,855)	
나쁜 편	4.6	20.4	49.5	25.5	100.0 (216)	
매우 나쁜 편	2.3	16.3	44.2	37.2	100.0 (43)	
모르겠음	6.9	25.1	46.9	21.2	100.0 (335)	
부모 취업여부						
모두 취업	5.6	24.2	55.1	15.1	100.0 (6,968)	18.6**
부만 취업	5.0	25.7	53.9	15.5	100.0 (3,386)	
모만 취업	7.5	25.2	50.1	17.2	100.0 (507)	
모두 비취업	6.6	20.6	52.6	20.2	100.0 (272)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6.3	34.9	34.0	14.9	100.0 (215)	169.4***
잘 사는 편	6.8	29.8	48.0	15.3	100.0 (1,538)	
보통	4.8	23.9	56.6	14.7	100.0 (7,220)	
못 사는 편	5.0	21.9	55.0	18.2	100.0 (1,656)	
매우 못사는 편	12.3	19.8	45.1	22.8	100.0 (162)	
모르겠음	9.0	25.2	51.7	14.1	100.0 (433)	

† p<0.1, * p<0.05, ** p<0.01, *** p<0.001

형제자매수와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간의 관계 정도별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부모간의 좋은 관계 정도는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역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사회적 인정도구로서 자녀의 가치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적으로 부모 모두 또는 부만 취업 중인 학생들에 비해 모만 취업 중이거나 부모 모두 비취업상태인 학생들의 경우 동 견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의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인정 가치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다. 특히, 매우 잘사는 편에 속한 학생의 경우에는 동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48.9%)보다 긍정적인 태도(51.1%)가 미세하나마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3. 부부관계 공고화 매개로서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75.4%(매우 찬성 20.4%), 반대 24.6%(전혀 찬성 안함 3.7%)로 긍정적인 태도가 아주 우세하였다. 이러한 분포는 대체적으로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 유치되고 있다.

거주지별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남녀별로 남학생(78.5%)이 여학생(7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자녀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어, 자녀의 정서적 가치마저 부인하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녀는 정서적 가치보다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이유 어느 하나도 검증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표 6-8〉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0.4	55.0	20.9	3.7	100.0 (11,225)	
지역						
대도시	20.4	54.6	21.2	3.8	100.0 (4,931)	13.1**
중소도시	19.5	55.6	21.4	3.5	100.0 (4,937)	
농촌(군)	23.8	54.8	17.8	3.7	100.0 (1,357)	
성별						
남학생	24.0	54.5	18.3	3.2	100.0 (5,843)	129.5***
여학생	16.4	55.7	23.7	4.2	100.0 (5,373)	
학교급						
초등학교	31.6	48.3	17.0	3.2	100.0 (1,893)	229.6***
중학교	20.4	56.0	19.9	3.6	100.0 (4,742)	
인문고등학교	14.7	57.5	23.9	3.9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19.9	54.4	21.9	3.8	100.0 (962)	
학년구분						
초 5학년	33.2	47.2	16.7	3.0	100.0 (1,015)	275.2***
초 6학년	29.7	49.5	17.3	3.4	100.0 (878)	
중 1학년	24.6	54.7	17.0	3.7	100.0 (1,556)	
중 2학년	19.7	57.2	19.8	3.3	100.0 (1,601)	
중 3학년	16.9	56.3	23.0	3.9	100.0 (1,584)	
고 1학년	15.8	59.9	21.1	3.2	100.0 (1,562)	
고 2학년	15.0	55.4	25.5	4.2	100.0 (1,598)	
고 3학년	16.7	55.1	23.9	4.3	100.0 (1,429)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부모취업상태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표 6-9 참조). 그러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 학생-부모간)가 안 좋을수록 동 가치를 덜 수용하고 있었다.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도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가구경제수준이 안 좋다고 여기는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학생들은 부부관계 공고화라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보편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가족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자녀의 가치를 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 학생

은 가족 내에서 본인의 위치·역할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6-9〉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21.7	52.6	21.7	4.0	100.0 (1,413)	10.2
2명	20.2	54.8	21.2	3.7	100.0 (7,117)	
3명	20.1	57.3	19.2	3.3	100.0 (2,168)	
4명 이상	19.7	55.3	21.1	3.9	100.0 (517)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8.2	54.8	23.0	4.0	100.0 (971)	4.9
아니오	20.5	55.2	20.7	3.6	100.0 (9,715)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7.4	53.2	16.2	3.2	100.0 (3,673)	271.1***
좋은 편	16.7	58.9	21.7	2.7	100.0 (3,878)	
보통	16.0	53.4	25.3	5.2	100.0 (1,959)	
나쁜 편	17.0	50.2	27.6	5.2	100.0 (446)	
매우 나쁜 편	19.5	48.2	25.5	6.8	100.0 (220)	
모르겠음	17.2	52.4	24.1	6.3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7.8	53.0	16.4	2.8	100.0 (4,364)	413.2***
좋은 편	16.3	59.2	21.5	3.1	100.0 (4,288)	
보통	13.9	52.4	28.3	5.3	100.0 (1,852)	
나쁜 편	12.2	47.9	30.5	9.4	100.0 (213)	
매우 나쁜 편	18.2	47.7	20.5	13.6	100.0 (44)	
모르겠음	17.7	46.8	27.0	8.4	100.0 (333)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2.5	37.4	13.1	7.0	100.0 (214)	186.9***
잘 사는 편	25.8	52.6	17.8	3.8	100.0 (1,537)	
보통	19.0	57.6	20.4	3.1	100.0 (7,214)	
못 사는 편	18.7	51.0	25.2	5.1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17.8	47.2	26.4	8.6	100.0 (163)	
모르겠음	21.9	48.1	25.1	4.9	100.0 (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4. 노후 정서적 의존 대상으로서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라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78.4%(매우 찬성 27.1%), 반대 21.6%(전혀 찬성 안함 4.5%)로 긍정적인 태도가 월등하게 우세하였다(표 6-10 참조). 이러한 특징은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에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6-10〉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27.1	51.3	17.2	4.5	100.0 (11,230)	
지역						
대도시	27.4	50.9	16.9	4.8	100.0 (4,929)	3.8
중소도시	26.8	51.4	17.5	4.3	100.0 (4,945)	
농촌(군)	26.9	52.5	16.7	3.9	100.0 (1,356)	
성별						
남학생	28.2	49.8	17.2	4.8	100.0 (5,844)	14.2**
여학생	25.8	52.9	17.2	4.1	100.0 (5,377)	
학교급						
초등학교	36.3	47.0	12.1	4.6	100.0 (1,895)	120.7***
중학교	25.4	51.5	18.4	4.7	100.0 (4,749)	
인문고등학교	24.6	53.4	18.1	3.9	100.0 (3,627)	
실업고등학교	26.2	51.2	17.5	5.1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38.9	45.5	10.7	4.9	100.0 (1,016)	160.2***
초 6학년	33.3	48.7	13.8	4.2	100.0 (879)	
중 1학년	28.6	49.1	17.0	5.3	100.0 (1,555)	
중 2학년	25.8	52.4	17.7	4.1	100.0 (1,606)	
중 3학년	21.9	53.0	20.5	4.6	100.0 (1,587)	
고 1학년	24.1	55.1	17.5	3.3	100.0 (1,560)	
고 2학년	24.4	53.4	17.8	4.4	100.0 (1,596)	
고 3학년	26.5	50.2	18.5	4.8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11〉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28.5	49.2	18.2	4.2	100.0 (1,414)	6.4
2명	26.8	51.7	17.0	4.5	100.0 (7,120)	
3명	27.0	51.4	17.4	4.1	100.0 (2,171)	
4명 이상	26.4	51.5	16.4	5.6	100.0 (518)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5.9	49.7	19.6	4.8	100.0 (970)	5.7
아니오	27.1	51.8	16.8	4.4	100.0 (9,72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2.3	48.9	14.8	4.0	100.0 (3,674)	169.0***
좋은 편	24.7	54.7	17.1	3.5	100.0 (3,877)	
보통	22.1	53.1	19.3	5.4	100.0 (1,964)	
나쁜 편	27.1	46.1	21.9	4.9	100.0 (447)	
매우 나쁜 편	27.1	39.4	19.9	13.6	100.0 (221)	
모르겠음	24.1	52.0	17.5	6.4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33.6	48.2	14.3	3.9	100.0 (4,363)	239.2***
좋은 편	23.5	55.3	17.4	3.8	100.0 (4,294)	
보통	20.4	52.1	21.3	6.2	100.0 (1,852)	
나쁜 편	22.8	43.7	25.1	8.4	100.0 (215)	
매우 나쁜 편	27.3	47.7	15.9	9.1	100.0 (44)	
모르겠음	24.5	45.7	22.1	7.8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0.0	37.7	13.5	8.8	100.0 (215)	103.8***
잘 사는 편	30.9	49.7	15.7	3.7	100.0 (1,536)	
보통	26.6	52.8	16.6	4.0	100.0 (7,217)	
못 사는 편	24.2	50.3	20.3	5.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7.4	38.4	22.0	12.2	100.0 (164)	
모르겠음	26.4	48.8	18.5	6.3	100.0 (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학생의 태도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표 6-10 참조),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가치로 풀이할 수 있다.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학생(78.7%)이 남학생(78.0%)에 다소 높을 뿐이다. 대체적으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노후에 있어서의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점차 자녀에 대한 노후 의존적인 가치를 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와 부모의 이혼·별거여부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표 6-11 참조). 그러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간의 관계) 좋지 않을수록 동 견해에 대해 학생은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생활이 각박해질 경우, 학생들은 노후 대비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덜 인정하려는 경향을 짐작할 수 있겠다.

5. 노후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서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견해는 자녀의 노후 경제적 의존 가치를 의미한다. 반면, 바로 앞서 분석한 견해는 자녀의 노후 정서적 가치를 의미한다. 자녀의 노후 경제적 의존 가치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63.6%(매우 찬성 14.9%), 반대 36.4%(전혀 찬성 안함 6.7%)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지역별로 농촌 학생이 도시 학생에 비해 노후 경제적 의존체로서 자녀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성별로 자녀의 노후 경제적 의존 가치는 여학생(59.9%)보다 남학생(66.9%)이 더 중요시하였다. 앞선 분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녀의 노후 정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즉, 남학생은 자녀의 노후 경제적 가치를, 그리고 여학

생은 자녀의 노후 정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하겠다. 한편, 비슷한 성별 차이를 미혼남녀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 미혼남성은 11.1%가 매우 찬성하는데 비해 미혼여성은 7.7%에 불과하다(이삼식 외, 2005c).

자녀의 노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대체적으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또한,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점차 자녀에 대한 노후 의존적인 가치를 덜기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4.9	48.7	29.7	6.7	100.0 (11,220)	
지역						
대도시	14.4	48.8	29.8	7.0	100.0 (4,933)	14.1*
중소도시	14.6	48.4	30.5	6.5	100.0 (4,932)	
농촌(군)	17.4	49.2	26.4	6.9	100.0 (1,355)	
성별						
남학생	18.0	48.9	26.4	6.7	100.0 (5,839)	128.1***
여학생	11.4	48.5	33.4	6.7	100.0 (5,372)	
학교급						
초등학교	26.0	50.6	19.1	4.3	100.0 (1,892)	368.7***
중학교	14.4	49.6	28.9	7.1	100.0 (4,744)	
인문고등학교	9.7	47.0	36.0	7.3	100.0 (3,625)	
실업고등학교	14.6	46.7	30.7	8.0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28.2	50.1	18.3	3.4	100.0 (1,013)	410.2***
초 6학년	23.3	51.1	20.2	5.4	100.0 (878)	
중 1학년	16.9	49.6	26.6	6.9	100.0 (1,555)	
중 2학년	14.3	50.5	28.1	7.0	100.0 (1,603)	
중 3학년	12.2	48.6	31.9	7.2	100.0 (1,587)	
고 1학년	10.6	50.6	32.1	6.7	100.0 (1,560)	
고 2학년	11.7	45.7	36.2	6.3	100.0 (1,596)	
고 3학년	9.7	44.2	36.5	9.5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1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16.5	45.2	31.5	6.7	100.0 (1,414)	16.0†
2명	14.9	49.2	29.2	6.7	100.0 (7,114)	
3명	13.3	49.9	29.8	7.0	100.0 (2,169)	
4명 이상	16.9	45.7	31.0	6.4	100.0 (516)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5.3	46.4	30.5	7.7	100.0 (969)	3.7
아니오	14.7	49.3	29.4	6.6	100.0 (9,715)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7.4	48.0	28.0	6.6	100.0 (3,675)	92.4***
좋은 편	13.4	51.1	30.2	5.2	100.0 (3,875)	
보통	12.7	48.0	31.0	8.3	100.0 (1,959)	
나쁜 편	14.3	44.6	32.5	8.5	100.0 (446)	
매우 나쁜 편	16.8	42.7	25.5	15.0	100.0 (220)	
모르겠음	11.7	50.7	30.8	6.9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9.1	48.1	26.6	6.1	100.0 (4,362)	201.5***
좋은 편	11.9	51.0	31.5	5.6	100.0 (4,286)	
보통	12.1	46.7	32.5	8.7	100.0 (1,852)	
나쁜 편	11.2	45.6	28.4	14.9	100.0 (215)	
매우 나쁜 편	23.3	30.2	23.3	23.3	100.0 (43)	
모르겠음	11.9	43.3	33.7	11.0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4.4	38.1	18.1	9.3	100.0 (215)	152.7***
잘 사는 편	18.0	50.6	25.0	6.3	100.0 (1,533)	
보통	13.9	49.3	30.8	6.0	100.0 (7,210)	
못 사는 편	13.1	46.9	31.3	8.7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15.3	42.9	25.2	16.6	100.0 (163)	
모르겠음	16.9	46.2	29.0	7.9	100.0 (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자녀의 노후 정서적 가치에 관한 분석결과 동일하게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학생의 태도도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경제적 가치 역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

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간의 관계)와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냈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도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가족생활이 각박해질 경우, 학생들은 노후 대비 자녀의 정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공히 상대적으로 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6. 부모 이상의 실현수단으로서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40.2%(매우 찬성 11.9%), 반대 59.8%(전혀 찬성 안함 22.0%)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즉, 학생들 사이에 자녀를 통한 부모의 자아실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농촌 학생들에 비해 대도시나 중소도시 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동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여학생 66.0%, 남학생 54.2%로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였다.

부모의 자아실현 수단으로서 자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견해에 대한 초등학생의 부정적인 태도는 42.8%로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중학생 57.2%, 인문계고등학생 71.3%(실업계고등학생 63.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4〉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1.9	28.3	37.9	22.0	100.0 (11,227)	
지역						
대도시	11.2	26.7	39.1	23.1	100.0 (4,931)	26.8***
중소도시	12.0	29.3	37.3	21.4	100.0 (4,941)	
농촌(군)	14.2	30.4	35.4	20.0	100.0 (1,355)	
성별						
남학생	14.6	31.2	35.9	18.3	100.0 (5,843)	198.9***
여학생	9.0	25.1	40.0	26.0	100.0 (5,370)	
학교급						
초등학교	22.0	35.1	30.0	12.9	100.0 (1,893)	642.0***
중학교	11.9	30.9	39.3	17.9	100.0 (4,745)	
인문고등학교	7.0	21.7	39.5	31.8	100.0 (3,627)	
실업고등학교	10.0	26.8	40.1	23.1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22.8	35.6	29.5	12.1	100.0 (1,014)	657.0***
초 6학년	21.2	34.5	30.6	13.8	100.0 (879)	
중 1학년	13.7	33.6	36.0	16.7	100.0 (1,552)	
중 2학년	11.8	31.4	40.0	16.9	100.0 (1,604)	
중 3학년	10.4	27.8	41.9	19.9	100.0 (1,588)	
고 1학년	8.1	25.0	40.9	26.0	100.0 (1,561)	
고 2학년	7.5	22.2	38.6	31.7	100.0 (1,598)	
고 3학년	7.4	20.9	39.3	32.4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녀를 통한 부모의 자아실현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표 6-15 참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동 가치를 더 부정하였다. 또한,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하였다. 결국 구성원간의 관계나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부모의 자아실현에 대한 자녀의 수단화나 그 가능성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표 6-15〉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13.4	28.8	36.0	21.8	100.0 (1,413)	6.5
2명	11.5	28.2	38.4	21.9	100.0 (7,117)	
3명	12.1	28.2	37.8	21.9	100.0 (2,169)	
4명 이상	12.0	28.4	36.4	23.2	100.0 (517)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1.0	27.2	39.5	22.2	100.0 (971)	1.9
아니오	12.0	28.4	37.8	21.9	100.0 (9,715)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5.4	28.5	35.8	20.3	100.0 (3,671)	110.0***
좋은 편	9.9	28.7	40.6	20.8	100.0 (3,877)	
보통	9.5	29.3	37.2	24.0	100.0 (1,961)	
나쁜 편	12.6	23.1	35.7	28.7	100.0 (446)	
매우 나쁜 편	10.8	23.0	35.6	30.6	100.0 (222)	
모르겠음	11.1	27.0	39.4	22.5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5.9	28.1	35.5	20.5	100.0 (4,363)	163.3***
좋은 편	9.6	29.0	40.3	21.1	100.0 (4,287)	
보통	8.4	27.0	40.0	24.6	100.0 (1,853)	
나쁜 편	7.5	26.6	31.8	34.1	100.0 (214)	
매우 나쁜 편	20.9	18.6	27.9	32.6	100.0 (43)	
모르겠음	10.5	25.7	34.1	29.6	100.0 (33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1.0	25.0	28.2	15.7	100.0 (216)	172.7***
잘 사는 편	16.6	30.4	33.5	19.5	100.0 (1,534)	
보통	10.7	28.9	38.9	21.5	100.0 (7,214)	
못 사는 편	9.7	24.8	38.4	27.1	100.0 (1,651)	
매우 못사는 편	12.3	22.1	36.2	29.4	100.0 (163)	
모르겠음	13.4	28.3	38.9	19.4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7. 가문계승의 매체로서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49.7%(매우 찬성 13.2%), 반대 50.3%(전혀 찬성 안함 15.1%)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냈다(표 6-16 참조).

〈표 6-1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3.2	36.5	35.2	15.1	100.0 (11,226)	
지역						
대도시	12.2	36.0	35.5	16.3	100.0 (4,928)	24.3***
중소도시	13.6	36.5	35.9	14.1	100.0 (4,940)	
농촌(군)	15.5	37.8	32.1	14.5	100.0 (1,358)	
성별						
남학생	18.6	42.4	29.2	9.8	100.0 (5,843)	745.8***
여학생	7.3	30.0	41.7	20.9	100.0 (5,375)	
학교급						
초등학교	26.2	38.7	27.2	7.9	100.0 (1,895)	685.7***
중학교	13.2	39.6	34.6	12.6	100.0 (4,742)	
인문고등학교	6.6	30.8	40.2	22.4	100.0 (3,630)	
실업고등학교	12.5	37.9	35.5	14.1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27.5	39.7	25.6	7.1	100.0 (1,014)	676.0***
초 6학년	24.5	37.6	29.1	8.8	100.0 (880)	
중 1학년	16.3	41.5	30.9	11.3	100.0 (1,555)	
중 2학년	12.2	40.9	35.0	11.9	100.0 (1,602)	
중 3학년	11.1	36.4	37.8	14.7	100.0 (1,585)	
고 1학년	8.2	32.5	40.2	19.0	100.0 (1,561)	
고 2학년	8.9	31.9	39.1	20.1	100.0 (1,598)	
고 3학년	6.1	32.5	38.2	23.1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에 대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대도시에서는 다소나마 부정적인 경향(반대 51.8%)이 상대적으로 강하나, 농촌(찬성 53.3%)에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중소도시 학생들 사이에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동 가치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경향(반대 62.6%)이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경향(찬성 61.0%)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동 가치에 대한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64.8%로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의 경우에도 그 정도는 약하나 찬성 52.8%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인문계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 가치에 대해 62.6%가 반대하여, 부정적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실업계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소 찬성비율이 높으나,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성장과정에서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도 다른 자녀가치관과 마찬가지로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했다(표 6-17 참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간의 관계)나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에 따른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동 가치관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였다. 유사한 특징으로서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긍정적이었으나,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자녀의 가치로 가문계승의 전통적·수단적 가치는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에 의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전통적·수단적 가치관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특징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1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15.2	35.6	33.0	16.3	100.0 (1,414)	14.2
2명	13.1	36.9	35.2	14.8	100.0 (7,115)	
3명	12.1	35.5	36.9	15.4	100.0 (2,171)	
4명 이상	14.5	36.4	34.8	14.3	100.0 (517)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3.4	34.5	35.1	17.0	100.0 (973)	3.8
아니오	13.1	36.6	35.4	14.8	100.0 (9,717)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6.6	37.1	32.2	14.1	100.0 (3,671)	115.3***
좋은 편	10.9	37.6	38.0	13.5	100.0 (3,879)	
보통	11.8	34.4	36.4	17.4	100.0 (1,962)	
나쁜 편	12.5	31.1	37.4	19.0	100.0 (447)	
매우 나쁜 편	13.5	30.6	32.4	23.4	100.0 (222)	
모르겠음	10.1	38.0	37.0	14.9	100.0 (376)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8.0	35.5	32.9	13.5	100.0 (4,364)	196.2***
좋은 편	9.7	38.1	37.5	14.7	100.0 (4,288)	
보통	10.4	35.7	36.3	17.7	100.0 (1,854)	
나쁜 편	8.4	35.8	31.6	24.2	100.0 (215)	
매우 나쁜 편	9.3	27.9	39.5	23.3	100.0 (43)	
모르겠음	11.7	30.3	35.7	22.2	100.0 (333)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2.1	35.3	19.1	13.5	100.0 (215)	199.9***
잘 사는 편	18.5	37.8	32.3	11.5	100.0 (1,537)	
보통	12.1	36.8	36.4	14.6	100.0 (7,211)	
못 사는 편	10.1	33.7	36.0	20.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15.2	31.7	26.8	26.2	100.0 (164)	
모르겠음	14.1	38.0	34.3	13.6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8. 사회적 의무로서 자녀가치에 관한 태도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52.9%(매우 찬성 12.4%), 반대 47.1%(전혀 찬성 안함 12.5%)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1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2.4	40.5	34.7	12.5	100.0 (11,229)	
지역						
대도시	12.4	40.9	33.4	13.3	100.0 (4,930)	15.3*
중소도시	12.3	40.9	35.0	11.9	100.0 (4,943)	
농촌(군)	12.5	38.1	38.1	11.4	100.0 (1,356)	
성별						
남학생	14.9	41.4	33.1	10.6	100.0 (5,847)	110.5***
여학생	9.6	39.7	36.3	14.5	100.0 (5,371)	
학교급						
초등학교	19.7	44.0	27.1	9.2	100.0 (1,892)	260.9***
중학교	13.4	41.2	34.4	11.1	100.0 (4,746)	
인문고등학교	8.1	38.8	37.6	15.6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9.1	37.2	39.8	13.8	100.0 (962)	
학년구분						
초 5학년	21.3	44.3	26.7	7.8	100.0 (1,016)	300.5***
초 6학년	17.9	43.7	27.5	10.8	100.0 (876)	
중 1학년	13.9	41.1	33.0	11.9	100.0 (1,556)	
중 2학년	14.6	41.4	33.9	10.1	100.0 (1,604)	
중 3학년	11.5	40.9	36.2	11.4	100.0 (1,588)	
고 1학년	8.8	38.8	39.2	13.1	100.0 (1,560)	
고 2학년	7.9	37.1	40.2	14.8	100.0 (1,597)	
고 3학년	8.1	39.7	34.4	17.9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19〉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12.6	39.4	34.6	13.4	100.0 (1,415)	3.2
2명	12.3	40.8	34.6	12.2	100.0 (7,116)	
3명	12.0	40.8	34.5	12.7	100.0 (2,170)	
4명 이상	13.3	38.7	35.6	12.4	100.0 (517)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2.8	37.2	37.8	12.3	100.0 (971)	6.3 †
아니오	12.4	41.0	34.3	12.3	100.0 (9,717)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6.2	39.7	32.1	12.0	100.0 (3,672)	112.2***
좋은 편	10.2	42.7	36.0	11.1	100.0 (3,879)	
보통	9.9	39.7	36.2	14.1	100.0 (1,962)	
나쁜 편	13.6	38.2	34.8	13.4	100.0 (448)	
매우 나쁜 편	13.5	31.5	34.7	20.3	100.0 (222)	
모르겠음	10.6	40.2	36.8	12.4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6.5	40.3	31.5	11.6	100.0 (4,365)	207.2***
좋은 편	10.0	42.8	35.8	11.4	100.0 (4,287)	
보통	8.7	37.5	40.1	13.7	100.0 (1,854)	
나쁜 편	9.3	32.7	36.0	22.0	100.0 (214)	
매우 나쁜 편	9.3	27.9	27.9	34.9	100.0 (43)	
모르겠음	10.7	34.6	34.9	19.7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8.8	37.7	21.9	11.6	100.0 (215)	111.9***
잘 사는 편	15.2	42.5	29.5	12.8	100.0 (1,536)	
보통	11.6	40.5	36.0	11.9	100.0 (7,214)	
못 사는 편	10.5	40.5	34.6	14.3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14.1	37.4	29.4	19.0	100.0 (163)	
모르겠음	12.7	35.9	39.1	12.3	100.0 (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지역별로 약하나마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6-18 참조). 동 견해에 대한 남학생의 태도는 찬성 56.3%로 긍정적인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태도는 반대 50.7%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인 미혼남

녀는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다(이삼식 외, 2005c). 위 진술에 대해 미혼남성은 10.6%가 매우 찬성했으며 30.1%가 대체로 찬성했고 미혼여성은 6.1%가 매우 찬성했으며 29.4%가 대체로 찬성했다.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동 견해에 대한 태도는 찬성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아, 다소 부정적이었다.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 역시 성장과정에서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도 다른 자녀관련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가족적 특성 중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여부와의 관계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상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19 참조). 반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부모간의 관계 및 학생-부모간의 관계)나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에 따른 학생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동 가치관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주관적 가구경제수준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간의 관계나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보통 이하일 경우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의 사회적 의무 의식이 성장과정에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9. 자녀양육과 부모의 생활에 관한 태도

자녀의 양육과 부모의 생활을 양립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기혼남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이러한 선택이 주어졌을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물어보았다. 초·중·고 학생들은 찬성 60.0%(매우 찬성 13.5%), 반대 40.0%(전혀 찬성 안함 5.8%)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인 태도에 비해 우세하였다.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학생(62.3%)이 여학생(57.3%)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강하였다.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동 견해에 대한 찬성태도는 47.3%에 불과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다소 우세하였다. 그러나 중학생(55.3%), 인문계고등학생(71.5%) 및 실업계고등학생(64.6%)의 태도는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학생들은 자녀양육에 비해 부모생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하겠다.

〈표 6-20〉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3.5	46.5	34.2	5.8	100.0 (11,226)	
지역						
대도시	13.2	46.6	34.3	5.9	100.0 (4,926)	4.3
중소도시	13.6	46.6	34.4	5.4	100.0 (4,942)	
농촌(군)	13.9	46.0	33.3	6.8	100.0 (1,358)	
성별						
남학생	15.5	46.8	32.0	5.7	100.0 (5,844)	52.5***
여학생	11.3	46.3	36.5	5.8	100.0 (5,373)	
학교급						
초등학교	12.2	35.1	40.3	12.3	100.0 (1,895)	499.3***
중학교	12.1	43.2	38.4	6.2	100.0 (4,746)	
인문고등학교	15.2	56.3	26.4	2.1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16.2	48.4	30.9	4.6	100.0 (959)	
학년구분						
초 5학년	12.6	34.7	39.7	13.0	100.0 (1,016)	595.7***
초 6학년	11.7	35.6	41.1	11.5	100.0 (878)	
중 1학년	12.5	37.4	41.4	8.7	100.0 (1,555)	
중 2학년	11.2	42.9	39.2	6.6	100.0 (1,603)	
중 3학년	12.7	49.3	34.6	3.5	100.0 (1,588)	
고 1학년	13.3	52.3	30.8	3.6	100.0 (1,561)	
고 2학년	15.3	53.2	29.0	2.5	100.0 (1,595)	
고 3학년	17.7	58.8	21.8	1.7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21〉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14.9	46.6	32.9	5.7	100.0 (1,414)	11.5
2명	13.1	47.3	33.8	5.7	100.0 (7,118)	
3명	13.3	45.0	35.6	6.2	100.0 (2,169)	
4명 이상	14.7	42.4	37.2	5.6	100.0 (516)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4.2	43.1	35.1	7.6	100.0 (968)	9.9*
아니오	13.2	46.9	34.3	5.6	100.0 (9,721)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4.0	44.3	35.3	6.4	100.0 (3,671)	64.1***
좋은 편	11.2	49.6	34.4	4.7	100.0 (3,879)	
보통	15.0	47.1	32.6	5.2	100.0 (1,963)	
나쁜 편	14.8	43.7	34.5	7.0	100.0 (446)	
매우 나쁜 편	16.7	39.2	33.3	10.8	100.0 (222)	
모르겠음	15.9	42.9	34.4	6.9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4.0	43.7	35.1	7.2	100.0 (4,364)	102.1***
좋은 편	12.3	49.4	34.6	3.7	100.0 (4,289)	
보통	13.2	48.7	31.9	6.2	100.0 (1,854)	
나쁜 편	14.9	46.0	32.6	6.5	100.0 (215)	
매우 나쁜 편	27.3	38.6	25.0	9.1	100.0 (44)	
모르겠음	18.0	39.6	32.4	9.9	100.0 (333)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5.9	35.6	28.2	10.2	100.0 (216)	114.8***
잘 사는 편	14.1	43.4	34.7	7.8	100.0 (1,535)	
보통	12.6	47.9	34.7	4.8	100.0 (7,214)	
못 사는 편	13.1	47.3	32.7	6.8	100.0 (1,652)	
매우 못사는 편	27.0	38.7	27.6	6.7	100.0 (163)	
모르겠음	16.1	40.6	35.0	8.3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례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형제자매수가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6-21 참조).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57.3%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60.1%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즉, 전자의 학생들은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수용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 부모간의 관계 별로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동 가치관과 가구경제수준간의 관계도 일정하지 못했다. 한편,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10. 자녀 교육에 관한 태도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견해에 대해 초·중·고 청소년은 찬성 84.8%(매우 찬성 39.4%), 반대 15.2%(전혀 찬성안함 2.9%)로 긍정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6-22 참조). 그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비단 부모세대뿐 아니라 현재 성장하는 세대도 아주 높다고 하겠다.

동 견해에 대한 태도 차이는 지역별로 무의미($p<0.05$ 수준)하였다. 자녀교육 열의는 남학생(88.5%)이 여학생(85.13%)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또한, 성장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의 비율은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줘, 학생의 성장과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감 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형제자매수 및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가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표 6-23 참조). 부모간 또는 학생-부모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또한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다소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표 6-22〉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39.4	45.4	12.4	2.9	100.0 (11,237)	
지역						
대도시	39.5	45.5	12.4	2.6	100.0 (4,932)	7.2
중소도시	38.7	45.6	12.5	3.2	100.0 (4,946)	
농촌(군)	41.5	43.9	11.8	2.8	100.0 (1,359)	
성별						
남학생	40.6	43.9	12.2	3.3	100.0 (5,848)	16.5**
여학생	38.1	47.0	12.5	2.5	100.0 (5,380)	
학교급						
초등학교	53.5	33.8	9.8	2.9	100.0 (1,898)	240.9***
중학교	38.8	45.2	13.3	2.7	100.0 (4,750)	
인문고등학교	33.4	51.5	12.3	2.8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36.9	45.6	13.0	4.5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52.4	33.5	10.8	3.3	100.0 (1,019)	269.7***
초 6학년	54.8	34.1	8.6	2.4	100.0 (879)	
중 1학년	43.2	42.1	11.8	2.9	100.0 (1,555)	
중 2학년	39.5	45.8	12.5	2.2	100.0 (1,605)	
중 3학년	33.8	47.8	15.5	2.9	100.0 (1,589)	
고 1학년	33.9	49.3	13.5	3.3	100.0 (1,561)	
고 2학년	33.3	51.6	12.4	2.8	100.0 (1,598)	
고 3학년	35.3	49.9	11.4	3.4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23〉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견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40.6	44.5	12.0	3.0	100.0 (1,415)	9.6
2명	39.1	45.8	12.2	2.9	100.0 (7,122)	
3명	38.8	45.9	12.5	2.9	100.0 (2,172)	
4명 이상	43.1	39.4	14.5	3.1	100.0 (518)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41.0	44.1	11.7	3.1	100.0 (972)	2.1
아니오	39.0	45.7	12.5	2.8	100.0 (9,724)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5.6	40.3	11.2	2.9	100.0 (3,675)	160.0***
좋은 편	34.7	51.0	12.3	2.0	100.0 (3,880)	
보통	36.0	46.3	14.0	3.8	100.0 (1,965)	
나쁜 편	40.8	40.6	15.0	3.6	100.0 (446)	
매우 나쁜 편	41.9	40.5	10.8	6.8	100.0 (222)	
모르겠음	36.2	44.4	16.4	2.9	100.0 (378)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46.3	40.6	10.4	2.6	100.0 (4,368)	274.4***
좋은 편	35.2	50.3	12.5	2.0	100.0 (4,293)	
보통	33.3	47.5	15.4	3.8	100.0 (1,854)	
나쁜 편	37.4	38.8	14.5	9.3	100.0 (214)	
매우 나쁜 편	32.6	34.9	14.0	18.6	100.0 (43)	
모르겠음	35.8	41.2	17.3	5.7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52.1	32.6	9.3	6.0	100.0 (215)	113.6***
잘 사는 편	45.2	40.9	10.9	3.1	100.0 (1,537)	
보통	37.6	47.3	12.7	2.4	100.0 (7,219)	
못 사는 편	39.1	45.1	12.8	3.0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41.5	37.8	11.0	9.8	100.0 (164)	
모르겠음	43.3	38.5	12.7	5.5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11. 자녀에 관한 태도의 종합비교

여기에서는 자녀관련 가치관들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기로 하며, 특히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과로서 미혼 남녀(20~44세)와 기혼여성(20~44세)의 태도와도 비교하기로 한다. <표 6-24>에는 자녀관련 가치관별 응답집단의 긍정적인 태도(찬성+매우찬성)를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치관별로 비교하여 보면, 자녀를 가지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92.0%),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완수 필요(84.9%), 노후에의 정서적 의존(78.3%), 부부관계 공고화(75.4%), 노후에의 경제적 의존(63.6%), 자녀양육보다 부모생활이 더 중요(60.0%)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25.9%),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30.2%),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40.2%), 가문계승에 필요(49.7%) 등 자녀가치관들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그 순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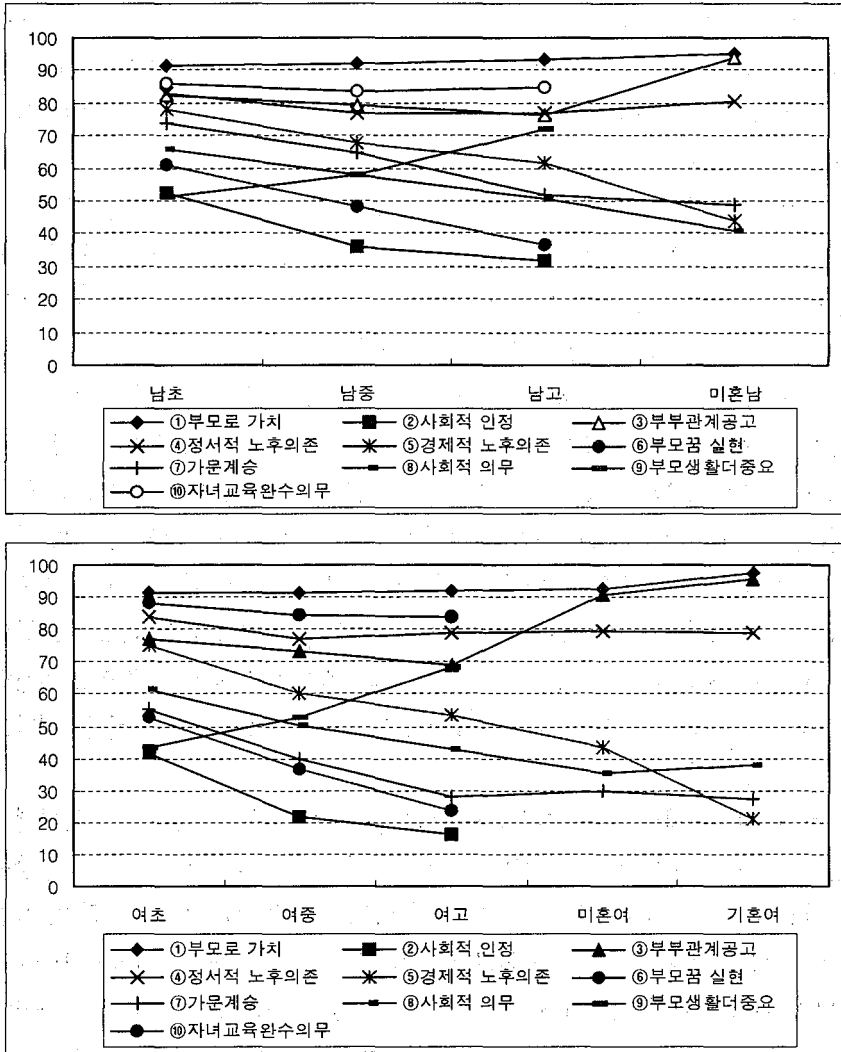
<표 6-24> 자녀관련 가치관 비교: 긍정적인 태도(찬성+매우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초등	중학	고등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
① 부모로서 가치	91.6	91.4	92.8	95.0	92.5	97.6
② 사회적 인정	47.2	29.3	24.1	-	-	-
③ 부부관계공고	79.8	76.4	72.6	93.8	90.7	95.8
④ 정서적 노후의존	83.3	76.9	77.9	80.6	79.2	78.9
⑤ 경제적 노후의존	76.5	64.0	57.7	43.9	43.2	21.3
⑥ 부모꿈 실현	57.1	42.9	30.4	-	-	-
⑦ 가문계승	65.0	52.8	40.1	48.5	29.9	27.2
⑧ 사회적 의무	63.8	54.5	46.8	40.7	35.5	37.9
⑨ 부모생활더중요	47.4	55.4	70.0	-	-	-
⑩ 자녀교육완수의무	87.3	84.0	84.5	-	-	-

- 주: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②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③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진다. ④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⑤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⑦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⑧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⑨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⑩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그림 6-1] 생애경로별 자녀가치관 변화: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비율



자녀 관련 가치관을 생애경로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의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태도와 함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중 미혼인구와 기혼여성의 태도를 시간흐름의 연속선상으

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표 6-24 및 그림 6-1 참조). 두 조사간 표본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5년 조사 역시 전국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사시점 상 1년의 차이가 있으나, 초단기간에 이들 가치관이 대폭 변화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집단에게서 90%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 차이는 미세할지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혼인구, 기혼여성 등 인생경로에 따라 동 가치관은 더욱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초등학교 79.8%, 중학생 76.4%, 고등학교 72.6% 등으로 점차 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미혼남녀(20~44세)와 기혼여성(20~44세)의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들이 동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동 가치를 부부생활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의 가치를 노후에의 정서적 의존에서 찾은 태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83.3%로 다소 높을 뿐, 전 인생경로에서 80% 내외 수준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즉, 동 자녀가치는 생애경로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보편화되었다고 여길 수 있겠다.

반면, 자녀가치로 노후 경제적 의존대상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초등학교의 경우 76.5%로 다소 높으나, 이후 생애경로에서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령기에 점차 감소하여, 성인기(미혼남녀, 기혼여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강화되었다(기혼여성의 21.3%만 찬성). 이러한 경향성은 자녀의 가치를 가문계승과 사회적 의무에 두는 가치에 대한 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가문계승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도 노후에 경제적 의존체로서 가치와 마찬가지로 생애경로의 진행단계에서 급속하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의 65.0%, 중학교의 52.8%가 찬성하여 긍정적이었으나, 고등학생부터는 부정적인 태도(찬성 50% 미만)가 더 강화되어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27.2%만이 찬성하고 있다.

이의 2005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자녀가치를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매개체로서 여기거나 부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기는 태도는 생애경로 단계의 진행에서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전자에 대한 가치관은 초등학생부터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가치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게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중학생부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여야 한다”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의무 의식은 전 학령기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반면, 자녀의 수단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생들은 노후 경제적 의존 대상으로서의 자녀가치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애경로 이행단계별로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자녀 가치관별 남녀 비교를 실시하였다(표 6-25 및 그림 6-2 참조). 초등학생의 경우 정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자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녀의 가치를 노후에의 정서적 의존에 두는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교육을 끝까지 책임 져야한다는 태도도 여학생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끝까지 완수해야한다는 책임성은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노후의 정서적 의존체로서 자녀가치만을 제외하고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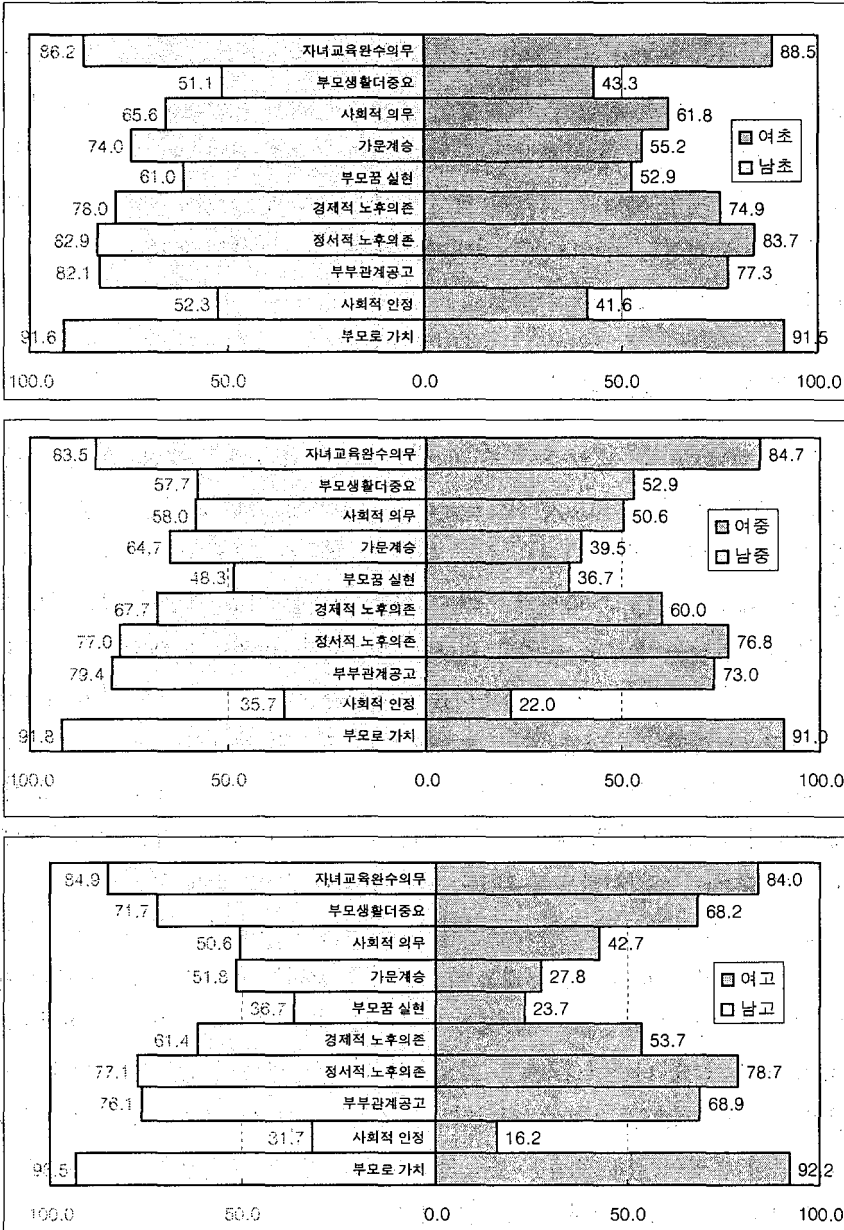
요컨대, 생애경로 이행단계에서 그 정도는 변화하고 있으나, 남녀간의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다. 다만, 모든 생애경로의 이행과정에서 여학생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노후의 정서적 의존과 관련하여 자녀 가치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25〉 자녀가치에 관한 남녀간 태도 비교(종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긍정(찬성+찬성비율)						
① 부모로 가치	91.6	91.5	91.8	91.0	93.5	92.2
② 사회적 인정	52.3	41.6	35.7	22.0	31.7	16.2
③ 부부관계공고	82.1	77.3	79.4	73.0	76.1	68.9
④ 정서적 노후의존	82.9	83.7	77.0	76.8	77.1	78.7
⑤ 경제적 노후의존	78.0	74.9	67.7	60.0	61.4	53.7
⑥ 부모꿈 실현	61.0	52.9	48.3	36.7	36.7	23.7
⑦ 가문계승	74.0	55.2	64.7	39.5	51.8	27.8
⑧ 사회적 의무	65.6	61.8	58.0	50.6	50.6	42.7
⑨ 부모생활더중요	51.1	43.3	57.7	52.9	71.7	68.2
⑩ 자녀교육완수의무	86.2	88.5	83.5	84.7	84.9	84.0
평균점수						
① 부모로 가치	3.4	3.4	3.4	3.3	3.4	3.3
② 사회적 인정	2.5	2.4	2.3	2.1	2.2	2.0
③ 부부관계공고	3.1	3.0	3.0	2.9	2.9	2.8
④ 정서적 노후의존	3.2	3.1	3.0	3.0	3.0	3.0
⑤ 경제적 노후의존	3.0	2.9	2.8	2.6	2.7	2.5
⑥ 부모꿈 실현	2.7	2.6	2.5	2.2	2.2	1.9
⑦ 가문계승	3.0	2.6	2.8	2.3	2.5	2.0
⑧ 사회적 의무	2.8	2.7	2.6	2.5	2.5	2.3
⑨ 부모생활더중요	2.5	2.4	2.7	2.6	2.9	2.8
⑩ 자녀교육완수의무	3.4	3.4	3.2	3.2	3.2	3.1

주: ①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②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③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진다. ④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⑤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⑥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
 ⑦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⑧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⑨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⑩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

[그림 6-2] 자녀가치에 관한 남녀비교: 긍정적 태도(찬성+매우 찬성)



제 4 절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앞서 자녀와 관련한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절에서는 향후 학생 본인의 자녀 출산과 관련한 직접적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향후 자녀 출산에 관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학생이 향후 본인의 출산과 관련하여 제시한 응답 내용은 적어도 자녀와 관련하여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을 제시해주는 것으로서 분석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1. 향후 자녀 출산 의향

초·중·고 학생 중 향후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태도가 33.8%,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는 태도가 49.1%로 총 82.9%가 자녀를 가질 의향을 보였다. 반면, ‘자녀를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6.7%,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1.1%로 학생의 7.8%는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을 유보한 학생의 비율은 9.4%였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 그러나 무자녀를 선호하는 정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판단유보까지 감안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겠다.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의향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파악된 미혼남성(20~44세)의 93.1%(54.4% 반드시, 38.7% 가능하면)과 미혼여성(20~44세)의 88.7%(반드시 42.1%, 가능하면 46.6%)에 비해서도 낮다.

초·중·고 학생의 향후 자녀 출산의향은 지역별로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84.5%(반드시+가능하면 가지고 싶다)로 여학생의 8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녀출산 의향이 없는 정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미세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5%대, 중학교의 경우 6%대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7~8%대로 나타났다.

<표 6-26>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가지고 싶음	가능하면 가지고 싶음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음	전혀 가지고 싶지 않음	모르 겠음	계 (명)	χ^2
전체	33.8	49.1	6.7	1.1	9.4	100.0 (11,232)	
지역							
대도시	34.0	48.8	6.9	1.1	9.2	100.0 (4,938)	10.9
중소도시	32.8	49.6	6.8	1.0	9.8	100.0 (4,948)	
농촌(군)	36.6	48.1	5.5	1.0	8.8	100.0 (1,356)	
성별							
남학생	34.4	50.1	4.9	0.9	9.7	100.0 (5,855)	69.1***
여학생	33.1	47.9	8.6	1.2	9.1	100.0 (5,378)	
학교급							
초등학교	26.0	54.3	6.3	1.1	12.3	100.0 (1,898)	218.6***
중학교	31.1	50.6	6.1	1.0	11.3	100.0 (4,754)	
인문고등학교	39.5	45.2	8.0	1.1	6.2	100.0 (3,631)	
실업고등학교	41.0	45.7	5.6	1.1	6.6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26.3	52.1	6.9	1.2	13.6	100.0 (1,018)	247.8***
초 6학년	25.7	56.8	5.6	1.0	10.9	100.0 (880)	
중 1학년	28.6	52.2	5.5	0.6	13.0	100.0 (1,558)	
중 2학년	31.6	50.2	6.1	1.1	11.1	100.0 (1,609)	
중 3학년	33.0	49.4	6.6	1.1	9.8	100.0 (1,586)	
고 1학년	37.9	47.8	7.2	1.2	6.0	100.0 (1,561)	
고 2학년	39.7	45.4	7.3	0.9	6.7	100.0 (1,598)	
고 3학년	42.0	42.5	8.2	1.3	6.1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가족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자녀출산의향은 달랐다. 부모의 생존여부별로 부모가정 또는 편모가정에 비해 부자가정의 학생들이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의 이혼·별거가 청소년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혼가정 청소년의 생활양태(모와 동거, 부와 동거 등)가 서로 다를 수 있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반응할 것이다. 그 결과 이혼가정 청소년의 태도나 의식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표 6-27〉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의향: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음	가능하면 가지고 싶음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음	전혀 가지고 싶지 않음	모르겠음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35.5	47.5	7.5	1.1	8.5	100.0 (1,417)	8.1
2명	33.5	49.1	6.7	1.0	9.7	100.0 (7,125)	
3명	34.1	49.5	6.3	1.2	9.0	100.0 (2,173)	
4명 이상	32.2	50.8	6.2	0.8	10.0	100.0 (518)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33.9	49.0	6.7	1.1	9.4	100.0 (10,757)	22.7*
부만 생존	29.3	45.1	9.8	-	15.8	100.0 (133)	
모만 생존	33.1	53.6	5.5	1.0	6.8	100.0 (293)	
모두 사망	21.1	50.0	5.3	2.6	21.1	100.0 (38)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33.6	48.6	6.8	1.1	9.9	100.0 (971)	0.5
아니오	33.9	49.1	6.7	1.0	9.3	100.0 (9,73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39.5	46.3	5.6	0.6	8.0	100.0 (3,680)	177.5***
좋은 편	31.8	51.9	6.4	0.9	9.0	100.0 (3,880)	
보통	29.7	49.0	9.1	1.8	10.4	100.0 (1,965)	
나쁜 편	33.4	49.1	7.6	1.8	8.1	100.0 (446)	
매우 나쁜 편	35.4	42.6	9.4	0.9	11.7	100.0 (223)	
모르겠음	25.2	47.5	6.1	1.6	19.6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39.3	46.5	5.5	0.8	8.0	100.0 (4,368)	275.3***
좋은 편	32.6	51.1	6.4	0.7	9.3	100.0 (4,295)	
보통	27.4	50.9	9.1	1.3	11.3	100.0 (1,856)	
나쁜 편	30.2	45.1	11.6	4.7	8.4	100.0 (215)	
매우 나쁜 편	27.3	45.5	11.4	11.4	4.5	100.0 (44)	
모르겠음	21.5	47.2	9.6	3.3	18.5	100.0 (335)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5.1	37.7	4.7	1.4	11.2	100.0 (215)	130.6***
잘 사는 편	33.9	50.2	6.2	1.1	8.6	100.0 (1,538)	
보통	33.4	49.6	6.8	0.8	9.3	100.0 (7,225)	
못 사는 편	35.6	47.7	7.5	1.9	7.2	100.0 (1,653)	
매우 못사는 편	37.0	45.5	6.7	1.8	9.1	100.0 (165)	
모르겠음	25.9	47.3	4.4	0.7	21.7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행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인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자녀출산의향은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성은 학생-부모간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을 경우 학생의 자녀출산의향은 85.8%인 반면, 좋지 않을 경우에는 75.3%, 매우 좋지 않을 경우에는 72.8%로 큰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은 향후 자녀출산 의향과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약하나마 가구경제수준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향후 자녀출산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요컨대, 가족구성원의 관계와 가구경제수준은 학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사고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2. 학생의 희망자녀수

학생들이 향후 갖기를 희망하는 희망자녀수는 2자녀가 5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자녀 18.3%, 1자녀 9.4%, 무자녀 8.9%, 4자녀 3.1%, 5자녀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호 자녀수의 분포에 따라 학생들이 갖기를 희망하는 희망자녀수는 평균 2.04명으로 산출되었다.

학생 특성별 희망자녀수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2자녀 출산의향이 보편적이며, 이에 따라 평균 희망자녀수도 2명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특성에 따라 무자녀와 1자녀간의 희망수준이 역전되기도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3자녀보다 1자녀 선호도가 높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적·가족적 특성에 따른 희망자녀수 분포의 차이보다 평균 희망자녀수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간 학생의 평균 희망자녀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p < 0.1$ 수준에서 유의). 대도시 학생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2.02명으로 중소도시 학생 2.04명, 농촌 학생 2.14명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남학생과 여학생간 희망자녀수 차이는 보다 뚜렷하였다. 남학생의 희망자녀수는 2자녀, 3자녀, 1자녀, 무자녀 순이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무자녀 선호도가 1자녀 선호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결과 여학생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1.99명으로 남학생의 2.10명보다 0.11명이 적었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1~2자녀 출산의향 비율이 낮은 반면, 3명 이상 자녀 출산의향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무자녀 선호도가 높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1자녀 선호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자녀 선호도 상승 폭이 무자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결과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의 경우 1.95명이며, 중학생 2.02명, 인문계고등학생 2.09명, 실업계고등학생 2.17명 등으로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많게 나타났다. 환언하면, 저학년일수록 소자녀관이 더 뚜렷하다 하겠다.

〈표 6-28〉 청소년의 희망자녀수: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계 (명)	평균
전체	8.9	9.4	57.9	18.3	3.1	2.3	100.0 (9,736)	2.04
지역($\chi^2=17.8^{\dagger}$)								
대도시	9.2	9.9	58.2	17.5	3.1	2.1	100.0 (4,290)	2.02
중소도시	9.1	9.3	57.8	18.3	3.2	2.3	100.0 (4,263)	2.04
농촌(농촌)	7.5	7.6	57.6	21.2	3.2	2.9	100.0 (1,183)	2.14
성별($\chi^2=114.8^{***}$)								
남학생	6.7	8.9	60.3	19.1	2.2	2.8	100.0 (5,018)	2.10
여학생	11.3	9.9	55.4	17.5	4.2	1.8	100.0 (4,710)	1.99
학교급($\chi^2=117.8^{***}$)								
초등학교	8.8	12.8	57.8	17.3	2.1	1.3	100.0 (1,591)	1.95
중학교	8.4	9.8	60.4	16.7	2.4	2.3	100.0 (3,999)	2.02
인문고등학교	10.1	7.5	55.3	20.6	3.9	2.6	100.0 (3,285)	2.09
실업고등학교	7.5	8.0	56.5	19.0	5.8	3.1	100.0 (862)	2.17
학년구분($\chi^2=145.4^{***}$)								
초 5학년	9.7	13.9	58.3	15.1	1.4	1.5	100.0 (847)	1.89
초 6학년	7.8	11.4	57.1	19.9	2.8	0.9	100.0 (744)	2.02
중 1학년	7.5	10.4	63.3	15.1	1.7	2.0	100.0 (1,266)	1.99
중 2학년	8.5	10.0	59.7	16.9	2.5	2.4	100.0 (1,361)	2.02
중 3학년	8.9	9.1	58.7	18.0	2.8	2.6	100.0 (1,370)	2.04
고 1학년	9.3	7.6	56.9	20.0	3.4	2.7	100.0 (1,400)	2.09
고 2학년	9.0	8.9	56.1	18.7	4.6	2.7	100.0 (1,442)	2.09
고 3학년	10.4	6.2	53.5	22.3	4.9	2.7	100.0 (1,303)	2.1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인하여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dagger$ $p<0.1$, * $p<0.05$, ** $p<0.01$, *** $p<0.001$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형제자매수는 향후 출산수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의 형제자매수가 본인의 희망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무자녀나 1자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3자녀 및 4자녀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자녀 선호도는 형제자매수가 1명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자녀수 선호도의 변동에 따라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도 많아지는 정(+)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형제자매수가 1명인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1.98명, 형제자매수가 2명인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2.04명, 형제자매수가 3명인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2.06명 등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수가 1명인 경우는 응답학생만 있는 경우로 희망자녀수 차이는 형제자매 성구성에 의한 것이기 보다 남녀학생간의 차이로 간주할 수 있다. 본인 포함 형제자매수가 2명인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형제자매 성구성이 남2명인 경우 2.08명, 남1+여1인 학생의 경우 2.07명, 여2명인 경우 1.89명으로 나타났다. 2자매만 있는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1.89명으로 무남독녀 여학생의 1.90명보다 오히려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형제만 있는 경우에도 유사하다.

가족적 특성 중 부모의 생존여부와 이혼·별거 여부가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p < 0.05$ 수준) 무의미하였다. 학생의 생활양태(모와 동거, 부와 동거 등)나 심리적 반응이 다양하여, 태도나 의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부모간의 관계는 학생의 희망자녀수 선호도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희망자녀수별 선호도의 차이가 다소 불규칙 또는 상쇄하여 뚜렷한 방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생-부모간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2자녀 선호도가 낮은 반면, 무자녀 선호도가 높았다. 다른 희망자녀수의 선호도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적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부모간 관계가 매우 좋은 학생의 평균희망자녀수는 2.10명인 반면, 나쁜 편인 경우 1.89명이었다. 가구경제수준이 아주 좋은 편인 학생의 희망자녀수 선호도는 3자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29〉 청소년의 희망자녀수: 형제자매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계 (명)	평균 자녀수
형제자매수($\chi^2=48.0^{***}$)								
1명	9.7	9.4	61.2	14.8	2.3	2.7	100.0 (1,240)	1.98
2명	8.9	10.0	56.5	19.1	3.1	2.3	100.0 (6,151)	2.04
3명	8.5	7.5	60.7	18.1	3.0	2.2	100.0 (1,887)	2.06
4명 이상	8.2	7.8	56.8	18.5	6.2	2.4	100.0 (449)	2.14
형제자매수구성($\chi^2=121.8^{***}$)								
남자1명 여자0명	6.3	8.5	66.8	13.6	2.1	2.7	100.0 (714)	2.05
남자0명 여자1명	14.3	10.8	53.6	16.3	2.5	2.5	100.0 (526)	1.90
남자2명 여자0명	7.1	9.6	58.5	20.1	2.2	2.5	100.0 (1,693)	2.08
남자0명 여자2명	13.7	11.1	53.9	16.2	3.5	1.5	100.0 (1,016)	1.89
남자1명 여자1명	8.4	9.9	56.3	19.5	3.5	2.4	100.0 (3,443)	2.07
3명 이상	8.5	7.5	59.9	18.2	3.6	2.2	100.0 (2,336)	2.08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2자녀 선호도보다 3자녀 선호도가 높아 평균희망자녀수는 다소 많았다(표 6-30 참조). 결과적으로 가구경제수준과 청소년의 평균희망자녀수는 U형태를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실제 소득계층간의 출산력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이삼식 외(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출산율 수준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고, 중산층의 경우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로서 미혼남녀(20~44세) 및 기혼여성(20~44세)의 희망자녀수와 학생의 희망자녀수를 비교하면, 생애경로 이행단계에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6-3 참조). 우선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령기에서는 무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다른 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희망자녀수도 초등학교의 경우 1.95명으로 가장 낮고, 중학생의 경우 2.02명으로 다음으로 낮았다. 아무래도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의 연령기로 최근의 저출산현상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엿볼 수 있겠다.

<표 6-30>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희망자녀 수(출산의향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명)	평균
부모생존여부($\chi^2=17.7$)								
모두 생존	8.9	9.4	58.1	18.2	3.1	2.3	100.0 (9,328)	2.04
부만 생존	12.3	7.5	60.4	16.0	2.8	0.9	100.0 (106)	1.93
모만 생존	7.3	9.2	53.5	25.0	3.1	1.9	100.0 (260)	2.12
모두 사망	12.0	8.0	52.0	12.0	8.0	8.0	100.0 (25)	2.22
부모 이혼·별거상태($\chi^2=2.0$)								
예	9.3	9.3	59.4	16.4	3.1	2.4	100.0 (828)	2.02
아니오	8.9	9.4	57.9	18.4	3.1	2.3	100.0 (8,452)	2.04
부모간의 관계($\chi^2=78.3^{***}$)								
매우 좋은 편	7.0	9.4	57.7	20.1	3.3	2.6	100.0 (3,259)	2.11
좋은 편	8.4	9.6	59.4	17.6	3.1	2.0	100.0 (3,376)	2.03
보통	12.8	9.4	56.9	16.0	2.7	2.2	100.0 (1,686)	1.93
나쁜 편	10.9	7.5	56.0	19.2	2.8	3.6	100.0 (386)	2.06
매우 나쁜 편	12.0	7.3	52.6	19.3	5.7	3.1	100.0 (192)	2.09
모르겠음	10.4	9.7	60.1	15.5	2.9	1.4	100.0 (278)	1.95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chi^2=136.9^{***}$)								
매우 좋은 편	7.1	8.4	59.6	19.4	3.1	2.4	100.0 (3,860)	2.10
좋은 편	8.2	9.6	58.3	18.8	3.1	2.0	100.0 (3,738)	2.05
보통	12.4	10.6	55.7	15.1	3.5	2.6	100.0 (1,561)	1.95
나쁜 편	18.2	8.9	49.0	17.2	3.1	3.6	100.0 (192)	1.89
매우 나쁜 편	25.6	20.5	28.2	23.1		2.6	100.0 (39)	1.59
모르겠음	17.3	11.7	50.0	15.7	2.0	3.2	100.0 (248)	1.82
주관적 경제상태($\chi^2=83.0^{***}$)								
매우 잘 사는 편	7.7	9.3	50.8	19.7	3.8	8.7	100.0 (183)	2.30
잘 사는 편	8.2	10.6	58.5	18.2	2.4	2.1	100.0 (1,349)	2.02
보통	8.8	9.5	58.9	17.8	3.0	2.1	100.0 (6,280)	2.03
못 사는 편	10.6	7.3	55.3	20.4	3.8	2.5	100.0 (1,468)	2.07
매우 못사는 편	9.7	12.4	44.1	22.8	6.2	4.8	100.0 (145)	22.17
모르겠음	7.3	9.9	58.9	16.9	4.0	3.0	100.0 (302)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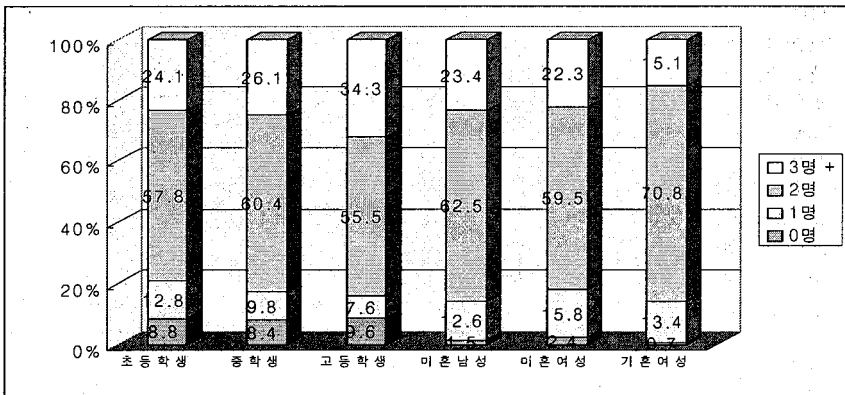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인하여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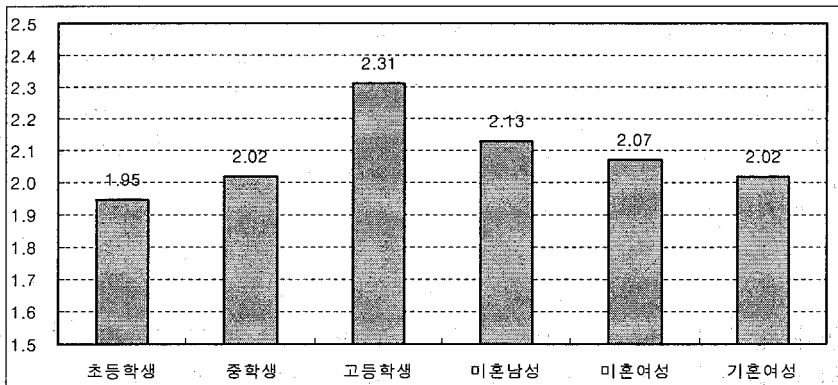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 생애경로단계인 고등학생의 경우 3자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희망자녀수도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저출산현상에 대한 심리적인 반동일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희망일 수도 있다. 이후 생애경로 단계에서 희망자녀수는 무자녀나 3자녀 이상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2자녀와 1자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성장과정의 청소년이

아주 많거나 적은 자녀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결혼을 앞둔 성인 미혼남녀(20~44세)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1자녀 또는 2자녀를 보다 희망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20~44세)은 실제 결혼생활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2자녀를 집중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어린 시기에 형성된 다자녀관은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3] 생애경로 단계별 희망자녀수 분포



[그림 6-4] 생애경로 단계별 평균 희망자녀수



3. 청소년의 자녀출산 희망 및 불원 이유

가.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자녀를 두고자 하는 이유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 비율이 6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6-31 참조). 다음으로 가문계승 10.2%, 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노후 정서적 의지) 5.9%, 부부관계 공고화 5.1%이며, 노후 경제적 의지, 결혼 후 출산은 당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등 나머지 이유들은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이유(보람 또는 가치,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공, 부모 만족)가 7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단적 이유(가문계승, 노후 경제적 의존)는 13.0%에 불과하였다. 앞서 자녀가치관련 태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생들도 수단적인 이유보다 정서적인 이유에 의해 자녀를 가지려는 경향이 높았다.

지역별로 부모로서 보람·가치의 이유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부분 이유(가문계승, 노후 정서적 의지, 노후 경제적 의지, 부모 만족)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가문계승과 부부관계 공고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로서 삶의 보람·가치, 노후 정서적 의지, 노후 경제적 의지의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자녀출산의향 이유로서 삶의 가치·보람, 부부관계 공고, 노후 정서적 의지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문계승과 노후 경제적 의지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요컨대, 성장과정에서 자녀출산의향 이유로서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더 중요시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대도시 지역에서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하겠다.

〈표 6-31〉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① 가문 계승	② 노후 정서적 의지	③ 노후 경제적 의지	④ 부부 관계 공고	⑤ 보람 가치	⑥ 결혼후 당연	⑦ 부모 만족	기타	모르 겠음	계 (명)	χ^2
전체	10.2	5.9	2.8	5.1	63.9	3.0	2.2	3.5	3.4	100.0 (9,246)	
지역											
대도시	9.1	5.6	2.7	5.1	66.0	2.9	1.8	3.6	3.3	100.0 (4,060)	47.2***
중소도시	10.8	6.0	2.6	4.7	64.0	2.8	2.4	3.4	3.3	100.0 (4,046)	
농촌(군)	12.0	6.4	3.8	6.4	56.5	4.1	3.0	3.8	4.0	100.0 (1,140)	
성별											
남학생	16.7	4.7	2.7	6.3	58.2	2.9	2.6	3.1	2.8	100.0 (4,914)	572.7***
여학생	2.8	7.2	2.9	3.7	70.4	3.1	1.8	4.0	4.2	100.0 (4,328)	
학교급											
초등학교	18.2	4.6	3.3	4.2	55.8	1.6	5.9	2.3	4.2	100.0 (1,514)	372.4***
중학교	10.5	5.0	2.9	5.4	64.3	3.2	2.1	3.2	3.5	100.0 (3,855)	
인문고등학교	5.8	7.5	2.5	4.8	68.4	3.2	0.8	4.2	2.9	100.0 (3,051)	
실업고등학교	10.1	6.3	2.7	6.4	60.2	4.1	1.6	4.8	3.9	100.0 (829)	
학년구분											
초 5학년	21.5	5.3	3.2	4.2	51.6	1.6	6.4	2.3	3.9	100.0 (791)	449.2***
초 6학년	14.6	3.7	3.3	4.3	60.4	1.5	5.2	2.5	4.4	100.0 (724)	
중 1학년	13.9	4.6	3.1	6.0	60.1	2.6	2.2	3.4	4.2	100.0 (1,252)	
중 2학년	8.6	4.4	3.4	4.7	67.4	3.5	2.1	2.1	3.8	100.0 (1,306)	
중 3학년	9.2	5.9	2.2	5.7	65.3	3.3	2.0	4.0	2.5	100.0 (1,298)	
고 1학년	5.9	5.7	2.6	6.2	68.1	3.7	0.8	3.8	3.1	100.0 (1,326)	
고 2학년	8.3	8.2	3.0	5.0	65.0	2.8	1.0	4.4	2.4	100.0 (1,350)	
고 3학년	5.9	7.8	1.7	4.2	67.2	3.7	1.0	4.8	3.8	100.0 (1,200)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① 대를 이어야 하니까, ②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③,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④,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⑦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 p<0.1, * p<0.05, ** p<0.01, *** p<0.001.

형제자매수가 청소년의 자녀출산의향 이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p<0.05$ 수준) 무의미하였다(표 6-32 참조). 부모가정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문계승 이유는 부자가정의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자가정의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로서 삶의 보람·가치’의 이유는 편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달리, 노후 정서적 의존의 이유는 모자가정의 경우 11.9%, 부자가정의 경우 7.1%로 부모가정의 5.7%보다 상대적

으로 높았다. 노후 경제적 의존의 이유도 부모가정의 경우에 비해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한편,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사례수가 극히 적어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별로 학생의 자녀출산의향 이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이유로서 가문계승, 노후 정서적 의지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주된 이유로서 부모로서 삶의 보람·가치는 부모간의 관계와의 상관성이 뚜렷하지 못했다. 학생-부모간의 관계 범주 중 ‘매우 나쁜 편이다’의 경우 사례수가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범주를 제외하면, 학생-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노후 정서적 의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부모로서 삶의 보람·가치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맞벌이부모의 경우 학생의 향후출산의향 이유로서 부모로서 삶의 가치·보람의 비중(63.8%)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부만 일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65.8%). 모만 일하는 학생의 경우 동 이유의 비중은 59.0%로 맞벌이부모의 경우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가문계승이나 노후 정서적 의지의 이유들은 맞벌이부모의 경우보다 외벌이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경제수준이 좋을수록 가문계승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각 이유별 차이는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학생의 가족환경은 자녀 관련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특성의 경우, 자녀효용의 가치관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해 그만큼 다양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성장단계별로 교육의 효과가 학생의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환경 차이와 다소 혼재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겠다. 그 건거로 학생의 학교급 및 학년별로 자녀출산의향 이유의 분포가 다소 체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6-32〉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희망 이유: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① 가문 계승	② 노후 정서적 의지	③ 노후 경제적 의지	④ 부부 관계 공고	⑤ 보람 가치	⑥ 결혼 후 당면	⑦ 부모 만족	기타	모르 겠음	계 (명)	χ^2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10.1	5.7	2.7	5.1	64.3	2.9	2.2	3.5	3.4	100.0 (8,852)	54.6***
부만 생존	11.1	7.1	5.1	5.1	60.6	3.0	2.0	2.0	4.0	100.0 (99)	
모만 생존	8.3	11.9	3.6	6.7	56.0	4.0	2.0	5.2	2.4	100.0 (252)	
모두 사망	37.0	7.4			40.7	7.4		3.7	3.7	100.0 (27)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10.0	5.3	3.0	4.7	64.8	3.4	1.0	3.9	3.8	100.0 (789)	8.0
아니오	10.1	5.7	2.7	5.1	64.2	2.9	2.3	3.5	3.4	100.0 (8,017)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1.0	5.2	2.4	5.1	65.2	2.6	2.4	3.0	3.2	100.0 (3,137)	67.1**
좋은 편	9.5	6.0	3.0	4.7	65.1	2.5	2.4	3.6	3.3	100.0 (3,223)	
보통	10.6	6.0	3.0	5.4	61.5	4.0	2.1	3.7	3.6	100.0 (1,531)	
나쁜 편	10.4	4.4	2.5	4.9	64.8	3.6	0.5	6.0	2.7	100.0 (364)	
매우 나쁜 편	7.5	4.6	2.9	5.2	64.2	5.8	1.7	1.7	6.4	100.0 (173)	
모르겠음	9.1	7.7	3.3	8.0	58.0	1.8	1.8	4.7	5.5	100.0 (274)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1.0	4.8	2.6	5.3	65.2	2.2	2.7	3.0	3.2	100.0 (3,721)	115.9***
좋은 편	9.0	6.1	3.0	4.5	65.6	3.2	1.9	3.7	3.1	100.0 (3,564)	
보통	10.6	7.7	2.9	6.1	59.5	3.6	1.7	3.7	4.1	100.0 (1,441)	
나쁜 편	8.8	7.5	2.5	3.8	60.6	6.3	1.9	6.3	2.5	100.0 (160)	
매우 나쁜 편	15.6			3.1	65.6		3.1	6.3	6.3	100.0 (32)	
모르겠음	7.9	7.9	3.5	6.1	51.5	5.7	3.5	6.1	7.9	100.0 (229)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9.8	5.6	3.0	5.4	63.8	3.0	2.4	3.7	3.5	100.0 (5,763)	49.8**
부만 취업	10.4	6.0	2.4	4.4	65.8	2.7	2.0	2.6	3.5	100.0 (2,757)	
모만 취업	10.0	8.4	3.2	6.4	59.0	2.7	1.1	6.2	3.0	100.0 (439)	
모두 비취업	11.7	3.3	2.3	4.7	63.4	5.6	1.9	5.6	1.4	100.0 (213)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20.5	4.0	2.8	5.7	50.6	6.3	3.4	2.8	4.0	100.0 (176)	157.5***
잘 사는 편	11.7	5.4	2.6	5.5	64.7	2.6	2.7	2.6	2.3	100.0 (1,285)	
보통	10.0	5.8	2.7	5.1	65.0	2.7	2.0	3.3	3.4	100.0 (5,956)	
못 사는 편	8.0	6.9	3.3	4.4	63.1	4.7	2.5	4.7	2.6	100.0 (1,370)	
매우 못사는 편	11.9	5.2	2.2	6.7	56.3	6.7	2.2	3.0	5.9	100.0 (135)	
모르겠음	11.4	6.0	2.5	6.7	53.3	1.0	2.2	7.0	9.8	100.0 (315)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 2) ① 대를 이어야 하니까, ②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③,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④,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⑦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 향후 자녀출산 불원 이유

초·중·고 학생들이 향후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는 ‘내 일에 전념’ 33.2%,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 24.9%,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8.1%,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해야 하므로’ 4.0%, 부모부양 곤란 2.5%, ‘자녀 왕따·체벌 우려’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33〉 청소년의 자녀출산 불원 이유: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양육 교육비 부담	부부 시간 행복 감소	내 일 전념	자녀 공부 힘듦	자녀 왕따 우려	부모 부양 곤란	기타	모르 겠음	계 (명)	χ^2
전체	24.9	8.1	33.2	4.0	2.2	2.5	10.1	15.0	100.0 (726)	
지역										
대도시	24.3	7.9	37.4	3.5	2.0	2.0	11.1	11.7	100.0 (342)	16.0
중소도시	26.8	7.7	29.0	5.2	2.3	3.2	8.7	17.1	100.0 (310)	
농촌(군)	20.3	10.8	31.1	1.4	2.7	1.4	10.8	21.6	100.0 (74)	
성별										
남학생	31.9	8.8	21.2	4.4	1.5	5.5	7.3	19.4	100.0 (273)	53.7***
여학생	21.0	7.9	40.4	3.3	2.9	0.7	11.5	12.4	100.0 (453)	
학교급										
초등학교	16.3	2.9	34.6	2.9	5.8	1.9	9.6	26.0	100.0 (104)	55.2***
중학교	23.8	5.7	33.8	2.8	1.8	4.3	9.6	18.1	100.0 (281)	
인문고등학교	29.3	12.1	33.1	4.5	1.4	1.4	9.7	8.6	100.0 (290)	
실업고등학교	24.1	9.3	27.8	7.4	3.7		16.7	11.1	100.0 (54)	
학년구분										
초 5학년	22.2	1.9	31.5	5.6	7.4	1.9	3.7	25.9	100.0 (54)	86.4**
초 6학년	10.2	4.1	36.7		4.1	2.0	16.3	26.5	100.0 (49)	
중 1학년	18.8	5.9	41.2	4.7	1.2	7.1	7.1	14.1	100.0 (85)	
중 2학년	24.2	2.2	28.6	1.1	1.1	5.5	14.3	23.1	100.0 (91)	
중 3학년	27.2	8.7	33.0	2.9	1.9	1.0	7.8	17.5	100.0 (103)	
고 1학년	26.3	11.4	32.5	5.3	2.6	0.9	11.4	9.6	100.0 (114)	
고 2학년	29.3	12.9	30.2	6.0	0.9	1.7	8.6	10.3	100.0 (116)	
고 3학년	30.2	11.2	33.6	4.3	1.7	0.9	12.1	6.0	100.0 (116)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드니까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 당할까 염려 되어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p<0.1, * p<0.05, ** p<0.01, *** p<0.001.

자녀 불원 이유 중 ‘내 일에 전념’과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는 개인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표 6-33 참조).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은 가족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이유로 간주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이유들이 41.3%를 차지하는데 비해, 가족주의적 이유는 3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체적으로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도 유사하였다.

지역별로 학생의 자녀불원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05$ 수준)하지 않았다. 성별 자녀불원이유로는 여학생의 경우 내 일의 전념하고자자와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만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다른 이유들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내 일에 전념하고자자 이유의 비중은 여학생의 경우 40.4%로 남학생 21.2%에 비해 두 정조로 높았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자녀불원이유 중 양육·교육비 부담,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내 일의 전념과 자녀의 공부 힘들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생의 가족적 특성별로 보면(표 6-34 참조),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 부모간의 관계, 부모-학생간의 관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모두 자녀불원의 이유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형제자매수와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이 학생의 자녀불원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계의 방향성은 뚜렷하지 못했다.

요컨대, 학생의 가족적 특성 내지 환경이 향후 자녀불원 이유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로는 가족환경보다 교육, 친구관계, 대중매체 등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 자녀를 불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아직 어린 나이로 자녀불원의 이유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제약요인에 기인하기보다 단순한 생각에 그칠 수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다.

〈표 6-34〉 청소년의 자녀출산 불원 이유: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양육 비용 부담	부부 시간 감소	내일 전념	자녀 공 부 힘듦	자녀 왕따 우려	부모 부양 곤란	기타	모르 겠음	계 (명)	χ^2
형제자매수										
1명	29.8	12.5	26.9	3.8	1.0	5.8	3.8	16.3	100.0 (104)	40.3**
2명	22.4	7.5	35.6	3.2	3.0	1.5	11.2	15.5	100.0 (464)	
3명	33.9	5.6	32.3	4.0	0.8	3.2	11.3	8.9	100.0 (124)	
4명 이상	15.6	12.5	25.0	9.4	3.1	--	6.3	28.1	100.0 (32)	
부모생존여부										
모두 생존	24.3	8.3	33.9	4.1	2.4	2.3	9.6	15.1	100.0 (700)	27.7
부만 생존	50.0	10.0	20.0	-	-	-	20.0	-	100.0 (10)	
모만 생존	37.5	--	12.5	-	-	12.5	18.8	18.8	100.0 (16)	
모두 사망	--	50.0	-	-	-	-	-	50.0	100.0 (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1.3	13.1	26.2	8.2	-	1.6	16.4	13.1	100.0 (61)	11.4
아니오	24.6	7.7	34.9	3.6	2.7	2.4	9.0	15.1	100.0 (634)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4.6	8.9	36.1	3.1	1.6	1.6	8.9	15.2	100.0 (191)	41.3
좋은 편	24.6	6.5	34.1	3.9	3.4	2.6	8.6	16.4	100.0 (232)	
보통	26.6	9.2	33.7	4.9	1.6	2.2	8.7	13.0	100.0 (184)	
나쁜 편	27.8	16.7	27.8	5.6	-	2.8	8.3	11.1	100.0 (36)	
매우 나쁜 편	10.5	10.5	10.5	5.3	5.3	5.3	15.8	36.8	100.0 (19)	
모르겠음	8.0	--	48.0	4.0	4.0	--	28.0	8.0	100.0 (25)	
학생 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23.4	7.1	37.2	2.9	1.7	2.9	10.5	14.2	100.0 (239)	21.0
좋은 편	22.6	10.3	31.3	4.0	2.8	2.8	10.7	15.5	100.0 (252)	
보통	31.6	7.1	30.3	4.5	1.9	1.9	7.1	15.5	100.0 (155)	
나쁜 편	26.7	6.7	30.0	3.3	-	3.3	10.0	20.0	100.0 (30)	
매우 나쁜 편	11.1	11.1	33.3	-	11.1	--	11.1	22.2	100.0 (9)	
모르겠음	27.3	3.0	39.4	6.1	3.0	--	12.1	9.1	100.0 (33)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24.2	8.5	33.6	4.7	2.3	3.1	9.4	14.3	100.0 (426)	22.0
부만 취업	26.2	9.0	34.4	3.3	1.6	0.8	9.0	15.6	100.0 (244)	
모만 취업	24.0	--	20.0	-	4.0	8.0	24.0	20.0	100.0 (25)	
모두 비취업	25.0	4.2	37.5	-	4.2	--	12.5	16.7	100.0 (2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0.0	50.0	-	10.0	--	10.0	20.0	100.0 (10)	48.4*
잘 사는 편	27.8	9.3	29.9	3.1	2.1	3.1	8.2	16.5	100.0 (97)	
보통	23.7	7.9	35.5	2.9	2.6	2.0	10.3	15.1	100.0 (456)	
못 사는 편	26.3	8.3	29.3	9.0	0.8	4.5	12.0	9.8	100.0 (133)	
매우 못사는 편	50.0	21.4	-	-	-	--	-	28.6	100.0 (14)	
모르겠음	30.0	5.0	25.0	5.0	-	--	5.0	30.0	100.0 (20)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드니까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제벌) 당할까 염려 되어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p<0.1, * p<0.05, ** p<0.01, *** p<0.001.

4. 청소년의 자녀 성 선호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학생 중 39.1%가 자녀의 특정한 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학생의 성 선호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자녀 성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자녀의 성 선호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6-35〉 청소년의 향후 자녀출산 희망시 성 선호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χ^2
전체	39.1	60.9	100.0 (9,274)	
지역				
대도시	39.4	60.6	100.0 (4,067)	0.6
중소도시	38.7	61.3	100.0 (4,061)	
농촌(군)	39.6	60.4	100.0 (1,146)	
성별				193.9***
남학생	45.7	54.3	100.0 (4,929)	
여학생	31.6	68.4	100.0 (4,341)	
학교급				
초등학교	49.3	50.7	100.0 (1,518)	104.1***
중학교	39.8	60.2	100.0 (3,859)	
인문고등학교	33.8	66.2	100.0 (3,066)	
실업고등학교	37.1	62.9	100.0 (831)	
학년구분				
초 5학년	50.1	49.9	100.0 (798)	114.0***
초 6학년	48.3	51.7	100.0 (721)	
중 1학년	43.4	56.6	100.0 (1,243)	
중 2학년	39.1	60.9	100.0 (1,312)	
중 3학년	37.0	63.0	100.0 (1,303)	
고 1학년	34.5	65.5	100.0 (1,335)	
고 2학년	33.6	66.4	100.0 (1,356)	
고 3학년	35.6	64.4	100.0 (1,206)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제 5 절 육아관련 학교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학교에서 육아방법을 배웠던 청소년의 비율은 38.6%에 불과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하였다. 여학생 중 42.1%가 육아방법을 배워, 남학생의 3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업계고등학생이 육아방법을 배운 경험률이 인문계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특성별로는 여학교 학생의 56.9%가 육아방법을 배웠으나, 남녀공학 학생의 경우 32.3%로 남학교 학생의 41.7%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6-36〉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배웠던 경험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χ^2
전체	38.6	61.4	100.0 (11,223)	
지역				
대도시	39.0	61.0	100.0 (4,932)	4.5
중소도시	37.6	62.4	100.0 (4,943)	
농촌(군)	40.5	59.5	100.0 (1,359)	
성별				
남학생	35.3	64.7	100.0 (5,847)	54.9***
여학생	42.1	57.9	100.0 (5,376)	
학교급				
초등학교	19.1	80.9	100.0 (1,898)	2093.3***
중학교	23.5	76.5	100.0 (4,746)	
인문고등학교	68.1	31.9	100.0 (3,630)	
실업고등학교	40.0	60.0	100.0 (961)	
학교특성				
남학교	41.7	58.3	100.0 (1,878)	429.0***
여학교	56.9	43.1	100.0 (2,140)	
남녀공학	32.3	67.7	100.0 (7,216)	
학년구분				
초 5학년	17.5	82.5	100.0 (1,017)	1936.4***
초 6학년	21.0	79.0	100.0 (881)	
중 1학년	24.9	75.1	100.0 (1,554)	
중 2학년	21.5	78.5	100.0 (1,606)	
중 3학년	24.1	75.9	100.0 (1,585)	
고 1학년	71.4	28.6	100.0 (1,561)	
고 2학년	59.4	40.6	100.0 (1,598)	
고 3학년	55.4	44.6	100.0 (1,433)	

† $p<0.1$, * $p<0.05$, ** $p<0.01$, *** $p<0.001$.

남자도 육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84.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남자의 육아방법 교육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남학생(80.1%)에 비해 여학생(59.1%)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으며,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학교특성별로는 여학교 학생의 92.6%가 남아의 육아방법교육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남녀공학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81.9%로 남학교 학생의 84.5%에 비해서도 낮았다.

〈표 6-37〉 남자도 육아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χ^2
전체	84.4	15.6	100.0 (11,213)	
지역				
대도시	85.3	14.7	100.0 (4,924)	9.4**
중소도시	84.2	15.8	100.0 (4,942)	
농촌(군)	81.9	18.1	100.0 (1,358)	
성별				
남학생	80.1	19.9	100.0 (5,844)	175.3***
여학생	89.1	10.9	100.0 (5,370)	
학교급				
초등학교	74.0	26.0	100.0 (1,895)	347.1***
중학교	82.9	17.1	100.0 (4,742)	
인문고등학교	92.5	7.5	100.0 (3,626)	
실업고등학교	81.8	18.2	100.0 (959)	
학교특성				
남학교	84.5	15.5	100.0 (1,878)	142.8***
여학교	92.6	7.4	100.0 (2,140)	
남녀공학	81.9	18.1	100.0 (7,205)	
학년구분				
초 5학년	72.4	27.6	100.0 (1,015)	303.6***
초 6학년	75.9	24.1	100.0 (880)	
중 1학년	80.2	19.8	100.0 (1,554)	
중 2학년	83.1	16.9	100.0 (1,605)	
중 3학년	85.4	14.6	100.0 (1,584)	
고 1학년	89.7	10.3	100.0 (1,560)	
고 2학년	89.7	10.3	100.0 (1,595)	
고 3학년	91.3	8.7	100.0 (1,430)	

무응답 및 비례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제 6 절 청소년의 자녀관의 시사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자녀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자녀를 갖는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90% 정도의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자녀는 2명 정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으며 3명을 선호하는 청소년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반 이상의 청소년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 때문에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들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들의 출산행위는 현재 20대 30대의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그들은 자녀를 바라고 있지만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본인들이 큰 희생을 해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는 자녀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즉 현재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는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

정부는 2006년 6월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기본계획 시안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32조원이 투입되고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짚는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을 개정한 후 실행한다. 1.08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앞으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을 1년 더 부은 것으로 쳐주고,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셋째 이상을 낳으면 민간 아파트 청약 때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2008년부터는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여 남는 시간을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단축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이다.

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아동 나이에 따라 월 6만3200원~35만원씩 보육료를 보조해 주는 차등보육료제가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재산환산액+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가구 평균 소득의 7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7만원, 3인 가구 월 227만원)인 경우다. 정부는 2009년까지 130%이하 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위주였던 육마 및 보육비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0-4세 아동의 50%였던 보육 및 교육비 지원 대상이 2009년 80%까지로 확대된다. ‘방과 후 학교’도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둘째아이를 낳으면 최소 9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탈 수 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8년6개월로 줄어든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경우는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한다.

연령별로는 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연령대 아이를 키우기가 가장 힘들고, 지원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편은 3일간 출산휴가를 낼 수 있다. 육아휴직도 2008년부터는 아이가 만3세가 되기 전에만 쓰면 된다. 지금은 생후 1년 내로 한정돼 있었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어반에는 올해부터 아동1인당 최고 24만9000원이 지원된다. 여성이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2006년 7월부터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휴직을 하면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건강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저출산 보육 지원에 대해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지원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고, 서비스 개선 등의 명목을 보육료가 인상되고 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나 기본보조금제·아동수당제와 같이 도입을 검토 중인 지원책은 부처 또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커다란 변화도 희망하기 어렵고 또한 청소년들도 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출산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 중인 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큰 변화가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지 안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나중에 자신의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고에 걸맞게 교육 내용도 개편해야 한다. 사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아직도 교과서에는 출산에 대해 과거의 사고가 남아 있다고 한다(이삼식, 2005a) 아직도 80년대식 ‘인구 폭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등학교 사회교과서(교학사)에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1990년의 인구 증가율은 0.92%로 낮아졌으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중학교 3학년 사회책(고려출판)의 한 구절이다. 아이를 덜 낳는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뒤떨어진 인식은 오래된 통계와 자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중3 사회교과서(교학사)에는 ‘세계 인구 60억 명 돌파(90년)’와 관련된 행사 사진이 실려 있다. 사회과부도(대한교과서)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98년 자료다. 게다가 가정에서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말하기·듣기·쓰기(대한교과서)에는 아들은 TV를 보고, 딸은 설거지를 돕는 삽화가 있다. 가정 내 평등은 정부가 저출산 해결의 필수 요소로 꼽는 것이다.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출산 억제를 해 온 가족계획협회는 99년 가족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모유 수유, 가족 건강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육지침을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연구 결과 중 주목을 끄는 결과는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는 2년 전 피터 코스텔 재무장관이 국민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조하며 자녀 한 명은 부인을 위해, 다른 한 명은 남편을 위해, 또 한 명은 국가를 위해 낳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2005년 신생아 수가 1992년 이후 최고 수준인 26만1400명을 기록했다.

제 7 장 청소년의 성역할과 성평등 가치관

제 1 절 문제제기

출산력 저하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히 인구학적 위기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출산력의 문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합리적 행위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서 출산력의 저하는 단순히 출산장려정책으로 대표되는 몇 개의 정책들만을 통해서 완화·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산업화된 복지국가들에서 출산력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성평등 가치관, 빈곤율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leeboos, 2003). 출산력과 관련된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현상적 대응만을 양산하고 있다. 여성주의 학자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출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출산을 저하라는 현상에만 집착할 뿐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지난 2003년에 법제화된 건강가정기본법(현재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제8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현재의 출산력 저하는 출산력 저하라는 인구학적 변화 자체가 문제아니라 출산력 저하 현상은 전통적 젠더역할에 기반한 국가와 가족, 시장과 가족, 국가와 시장의 사회구조에 기반 한다. 그러므로 대안은 전통적 젠더역할에 근거한 한국사회를 보다 더 성 평등한 사회로 전환

하는 지향 속에서 찾아야한다. 특히 Esping-Andersen(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재편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성 평등한 사회의 실현은 한국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이루어야할 당위적 과제인 것이다. 일본이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전개했음(장혜경·이미정·김경미·김영란, 2004)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사회가 여전히 전통적 성별분업의 이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학적 분석에서 만혼 및 미혼인구의 증가를 출산력 감소의 중요한 인구학적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이나 일본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임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왜 한국사회가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OECD 14개국의 출산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 평등 가치관이 출산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윤홍식·김수정·김은지, 2005).

그러나 문제는 젠더역할로 지칭된 가치관은 단기적 정책대응을 통해서만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한다면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는 장기적으로 한국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개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치관이라는 것이 반드시 실제 행동과 연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치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행동을 예단하는 것은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실제행위가 (외생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떠나)개인의 내생적 변수인 가치관과의 관련되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Pollak and Watkins, 199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분석에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남녀역할(성역할)과 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였다. 주

요한 분석내용으로는 먼저 제2절에서는 초·중·고학생들의 남녀역할(성역할)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제3절에서는 부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초·중·고학생들의 남녀역할(성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마지막 제4절에서는 성평등에 관한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했다.

구체적 분석내용에 들어가지 전에 남녀역할과 성평등과 관련된 청소년의 태도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 이유는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에 기반 한 (또는 성별분업에 근거한) 사회구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가구는 남성생계부양자가구에서 이인 생계부양자가구로 전환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사회구조는 여전히 성별역할 분업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성별분업 해체를 통한 보편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체계의 확립이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기반이 되는 성별분업과 성평등 가치관에 대한 분석은 변화와 전환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인 것이다. 더 나아가 남녀역할과 성평등 가치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때 저출산, 불평등, 빈곤 등의 한국 사회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인식한다면 남녀역할과 성평등과 관련된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는 것이다.

제 2 절 부부간 역할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

부부간 가사분담(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초·중·고 학생 중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는 태도는 78.9%로 높으나, 학생 중 19.8%(전적으로 2.6%, 대체적 17.2%)은 부인이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남편이 해야 한다는 태도는 1.3%에 불과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 고정적 또는 양성 불평등적 역할관이 지배적임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학생의 성 고정적 역할관은 지역간 유의미($p<0.05$ 수준)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 중 부인일 가사를 도맡아 해야 한다는 태도는 11.3%인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2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급별로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학년별 차이의 유의미성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남녀학생간의 태도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적은 그만큼 학생들 사이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7-1〉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χ^2
전체	2.6	17.2	78.9	1.0	0.3	100.0 (11,227)	
지역							
대도시	2.3	17.7	78.8	0.9	0.4	100.0 (4,933)	7.5
중소도시	2.8	16.8	78.9	1.1	0.4	100.0 (4,945)	
농촌(군)	2.9	16.9	79.2	0.8	0.2	100.0 (1,359)	
성별							456.4***
남학생	3.8	23.7	71.2	1.1	0.3	100.0 (5,850)	
여학생	1.2	10.2	87.2	0.9	0.4	100.0 (5,376)	
학교급							
초등학교	3.5	16.9	78.2	1.2	0.3	100.0 (1,901)	20.6†
중학교	2.7	16.8	79.3	0.8	0.4	100.0 (4,745)	
인문고등학교	2.0	17.3	79.3	1.2	0.3	100.0 (3,631)	
실업고등학교	2.6	19.9	76.4	0.8	0.3	100.0 (962)	
학년구분							
초 5학년	3.9	16.1	78.1	1.5	0.4	100.0 (1,019)	45.0*
초 6학년	3.0	17.8	78.4	0.7	0.1	100.0 (881)	
중 1학년	3.7	17.2	77.4	1.0	0.6	100.0 (1,552)	
중 2학년	2.1	16.4	80.5	0.7	0.3	100.0 (1,607)	
중 3학년	2.2	16.8	79.9	0.7	0.4	100.0 (1,587)	
고 1학년	1.5	17.3	80.0	0.8	0.4	100.0 (1,562)	
고 2학년	2.6	17.5	78.6	1.0	0.3	100.0 (1,598)	
고 3학년	2.3	18.7	77.3	1.4	0.3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인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치관은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가족환경과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모가 이혼·별거 중인 학생의 경우 가사에 대한 여성 고정적 역할관을 가진 비율은 16.1%로, 그렇지 않은 학생의 2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 비해 좋지 않을수록 가사의 여성 고정적 역할관을 가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간의 불화가 가사분담의 적절치 못한 결과로 여김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표 7-2〉 부부간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3.2	12.9	82.3	1.2	0.3	100.0 (973)	16.5**
아니오	2.5	17.8	78.4	0.9	0.3	100.0 (9,727)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7	18.2	78.0	0.8	0.3	100.0 (3,679)	62.6***
좋은 편	2.2	19.0	78.0	0.6	0.2	100.0 (3,878)	
보통	2.7	15.1	80.3	1.5	0.5	100.0 (1,966)	
나쁜 편	3.4	13.3	81.5	0.9	0.9	100.0 (444)	
매우 나쁜 편	5.4	9.0	83.0	2.2	0.4	100.0 (223)	
모르겠음	2.4	16.4	79.3	1.6	0.3	100.0 (377)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2.4	15.2	80.9	1.1	0.4	100.0 (6,971)	102.0***
부만취업	2.8	22.3	73.8	0.7	0.3	100.0 (3,386)	
모만 취업	3.4	12.1	83.2	1.2	0.2	100.0 (505)	
모두 비취업	3.3	12.6	82.2	1.5	0.4	100.0 (27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6.5	19.1	71.6	2.3	0.5	100.0 (215)	71.1***
잘 사는 편	2.9	20.8	75.5	0.5	0.3	100.0 (1,536)	
보통	2.3	17.1	79.5	0.9	0.3	100.0 (7,222)	
못 사는 편	2.6	14.4	80.9	1.6	0.5	100.0 (1,652)	
매우 못사는 편	4.9	16.5	75.0	3.0	0.6	100.0 (164)	
모르겠음	3.9	17.1	77.8	0.9	0.2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의 여성 고정적 역할관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부만 일하는 경우 25.1%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부모를 가진 학생의 17.6%, 모만 일하는 학생의 15.5%, 부모 모두 일을 하지 않은 학생의 15.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구의 경제수준별로 가사에 대한 여성의 성 고정적 역할관을 보면, 잘사는 또는 못사는 편이라는 학생의 경우 보통이라는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컨대, 실질적인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가사분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생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2. 부부간 육아분담에 관한 태도

일반적인 부부간 육아(자녀 돌보기)분담에 관해 초·중·고 학생의 태도를 살펴보면, 부부가 공동으로 담당 84.9%, 부인이 전적으로 담당 2.3%, 부인인 대체적으로 담당 11.9% 등으로 나타났다. 부인이 육아를 도맡아야 한다는 태도는 총 14.2%로 나타났으며, 남편이 도맡아야 한다는 태도는 0.9%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다소 예외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별로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부인이 육아를 전담(전적+대체적)하여야 한다는 학생의 태도는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이어서 농촌, 대도시 순이었다. 육아를 부인이 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8.9%인데 비해 남학생의 경우 19.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이는 크지 않으나,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부인의 육아전담에 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성장과정에서 성 고정적 역할에 대응하는 교육 등을 받아왔으면서도,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교육효과의 미흡에 기인하는가 하며, 사회 내재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특히 가족환경 등)의 영향 때문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겠다.

〈표 7-3〉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한다	계 (명)	χ^2
전체	2.3	11.9	84.9	0.7	0.2	100.0 (11,239)	
지역							
대도시	2.1	13.1	83.9	0.7	0.1	100.0 (4,934)	17.7*
중소도시	2.3	11.0	85.8	0.7	0.3	100.0 (4,946)	
농촌(군)	2.7	11.2	85.0	0.7	0.4	100.0 (1,359)	
성별							
남학생	3.6	15.4	80.0	0.7	0.2	100.0 (5,852)	258.1***
여학생	0.8	8.1	90.2	0.7	0.2	100.0 (5,376)	
학교급							
초등학교	3.2	10.6	85.2	0.9	0.2	100.0 (1,900)	27.2**
중학교	2.4	11.9	84.7	0.7	0.3	100.0 (4,747)	
인문고등학교	1.5	12.5	85.3	0.5	0.2	100.0 (3,630)	
실업고등학교	2.6	12.7	83.7	0.7	0.3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3.0	10.5	85.5	0.8	0.2	100.0 (1,018)	56.8**
초 6학년	3.5	10.6	84.7	1.0	0.1	100.0 (883)	
중 1학년	3.1	10.6	84.8	0.8	0.7	100.0 (1,553)	
중 2학년	2.2	12.3	84.5	0.9	0.1	100.0 (1,608)	
중 3학년	2.0	12.7	84.7	0.6	0.1	100.0 (1,587)	
고 1학년	1.5	11.7	86.1	0.6	0.1	100.0 (1,561)	
고 2학년	2.3	13.2	83.7	0.5	0.3	100.0 (1,597)	
고 3학년	1.4	12.7	85.0	0.6	0.3	100.0 (1,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학생의 가족환경에 따라 부부간 육아분담관련 태도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한 가족환경들로는 부모간의 관계,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주관적인 가구경제수준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이혼·별거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부모 이혼 후 학생의 생활양태(모와 동거, 부와 동거 등)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부부간의 일에 대한 심리적 반응도 다양할 것이다. 이는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학생 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과 연계해도 짐작할 수 있다.

〈표 7-4〉 부부간 자녀 돌보기 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3	12.0	84.8	0.8	0.1	100.0 (973)	1.0
아니오	2.3	11.9	84.9	0.7	0.2	100.0 (9,72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2	11.0	86.0	0.6	0.2	100.0 (3,678)	39.3**
좋은 편	2.0	12.7	84.5	0.6	0.2	100.0 (3,879)	
보통	2.1	12.8	83.8	0.8	0.4	100.0 (1,966)	
나쁜 편	3.8	9.9	85.9	-	0.4	100.0 (446)	
매우 나쁜 편	2.7	9.9	85.7	1.8	-	100.0 (223)	
모르겠음	3.5	13.6	80.7	1.6	0.5	100.0 (374)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2.1	10.7	86.3	0.7	0.2	100.0 (6,970)	44.9***
부만 취업	2.7	14.4	82.0	0.6	0.3	100.0 (3,388)	
모만 취업	2.2	10.1	86.3	1.0	0.4	100.0 (505)	
모두 비취업	0.7	15.6	82.2	1.1	0.4	100.0 (27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6.0	11.1	81.0	1.4	0.5	100.0 (216)	40.0**
잘 사는 편	2.8	12.9	83.5	0.7	0.1	100.0 (1,536)	
보통	1.9	11.9	85.3	0.7	0.2	100.0 (7,223)	
못 사는 편	2.3	11.6	85.2	0.6	0.3	100.0 (1,654)	
매우 못사는 편	2.5	12.9	82.8	1.8	-	100.0 (163)	
모르겠음	4.4	10.9	84.1	0.2	0.5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간의 관계가 아주 좋거나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그 영향으로(또는 심리적 반작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부부이거나 모만 일하는 학생의 경우 육아를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 특히,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육아분담에 관한 학생의 태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이라고 느끼는 학생의 경우 육아에 대한 부인의 전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으며, 반면 보통 수준으로 느끼는 학생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맡겨야 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예

측컨대, 아주 잘사는 가정에서는 가사도우미 등 보조인력 동원이 가능함으로써 또는 모가 취업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육아에 대한 부부간 공동분담에 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적절한 수준의 중산층을 이루고 사는 경우 특히, 젊은 맞벌이부모일 가능성이 높아 육아의 부부간 공동분담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육아관련 태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족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3.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일반적인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로 부부공동 결정 85.0%, 남편 전적 결정 9.0%, 남편 대체적 결정 2.1%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성평등적 부부관이 지배적이나, 학생 중 11.1%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촌보다 도시(중소도시, 대도시 순)의 학생들 사이에서 남성에 의한 의사결정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농촌에서 부모들이 모두 일하면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농촌사회에서 부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반동의 효과로도 볼 수 있겠다. 남편의 의한 의사결정 태도의 비중은 여학생의 경우 6.2%인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에는 15.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 학교·고학년일수록 부부간의 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3학년생 경우에는 87.8%에 이르고 있었다. 반면, 남편의 의사결정 태도는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7-5>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개인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χ^2
전체	1.2	2.5	85.0	9.0	2.1	100.0 (11,232)	
지역							
대도시	1.0	2.7	85.7	8.9	1.7	100.0 (4,936)	17.2*
중소도시	1.4	2.3	84.5	9.3	2.4	100.0 (4,947)	
농촌(군)	1.8	2.9	84.3	8.5	2.5	100.0 (1,360)	
성별							
남학생	1.5	3.0	79.7	12.5	3.3	100.0 (5,854)	289.9***
여학생	1.0	2.0	90.8	5.3	0.9	100.0 (5,378)	
학교급							
초등학교	1.4	2.2	78.7	12.7	5.1	100.0 (1,900)	178.8***
중학교	1.1	2.7	84.9	9.2	2.1	100.0 (4,750)	
인문고등학교	1.2	2.3	88.9	6.9	0.8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1.7	3.4	83.6	9.6	1.8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1.6	2.5	77.0	12.7	6.3	100.0 (1,018)	205.0***
초 6학년	1.2	1.8	80.6	12.7	3.6	100.0 (882)	
중 1학년	1.2	2.8	82.5	10.2	3.2	100.0 (1,554)	
중 2학년	1.2	2.7	85.5	9.1	1.4	100.0 (1,607)	
중 3학년	0.9	2.6	86.7	8.1	1.7	100.0 (1,588)	
고 1학년	1.0	2.1	88.7	7.1	1.1	100.0 (1,560)	
고 2학년	1.3	2.9	86.8	8.0	1.0	100.0 (1,599)	
고 3학년	1.7	2.4	87.8	7.3	0.8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학생의 태도가 가족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의 이혼·별거 여부와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상실하였다. 즉, 부모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부부간 공동결정 태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남편에 의한 결정 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학생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이는 맞벌이부모와 외벌이부모를 둔 학생간의 태도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구경제수준이 잘 사는 편일수록 부부공동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가 낮고 대신 남편에 의한 의사결정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유층에서 부부간 의사결정이 남편이 주도하는 경향성의 존재를 의심케 해주는 결과이다.

〈표 7-6〉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가족적 특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적으로 부인	대체로 부인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	전적으로 남편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2.0	2.8	84.0	8.6	2.7	100.0 (973)	7.3
아니오	1.2	2.4	85.4	9.0	2.0	100.0 (9,72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3	2.1	85.4	9.1	2.1	100.0 (3,679)	39.3**
좋은 편	0.7	2.8	85.3	9.2	2.0	100.0 (3,880)	
보통	1.7	2.1	85.3	8.9	2.1	100.0 (1,967)	
나쁜 편	2.9	3.1	82.6	8.7	2.7	100.0 (448)	
매우 나쁜 편	2.2	2.2	82.1	9.9	3.6	100.0 (223)	
모르겠음	1.6	4.2	83.8	8.5	1.9	100.0 (377)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1.3	2.5	85.2	8.9	2.1	100.0 (6,970)	9.7
부만 취업	1.0	2.3	84.7	9.7	2.3	100.0 (3,390)	
모만 취업	1.4	3.3	85.6	7.5	2.2	100.0 (508)	
모두 비취업	1.9	2.6	86.3	8.1	1.1	100.0 (27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2	4.2	75.9	10.2	5.6	100.0 (216)	87.0***
잘 사는 편	1.0	3.1	80.8	11.9	3.3	100.0 (1,536)	
보통	1.1	2.2	86.2	8.6	1.9	100.0 (7,223)	
못 사는 편	1.7	3.3	85.3	8.4	1.4	100.0 (1,656)	
매우 못사는 편	2.4	1.8	82.4	9.7	3.6	100.0 (165)	
모르겠음	1.8	2.8	84.3	8.3	2.8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제 3 절 부부역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가족 내 전통적 성별분업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53.9%(매우 찬성 12.0% 포함)로 반대 46.1%(전혀 찬성 안함 12.0% 포함)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견해에 대한 태도의 거주지별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지역간 구분 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학생별로는 여학생(43.4%)에 비해 남학생(63.9%)의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요컨대, 학생의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은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남학생과 저학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하겠다.

〈표 7-7〉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2.0	41.9	34.1	12.0	100.0 (11,126)	
지역						
대도시	12.3	42.6	33.6	11.6	100.0 (4,886)	9.5
중소도시	11.9	42.0	33.9	12.1	100.0 (4,899)	
농촌(군)	11.3	38.9	36.8	13.0	100.0 (1,350)	
성별						
남학생	14.6	49.0	30.1	6.4	100.0 (5,778)	588.4***
여학생	9.2	34.2	38.5	18.1	100.0 (5,348)	
학교급						
초등학교	23.3	47.8	21.5	7.4	100.0 (1,876)	553.3***
중학교	11.6	42.4	33.7	12.3	100.0 (4,696)	
인문고등학교	6.2	37.8	40.9	15.2	100.0 (3,609)	
실업고등학교	13.7	43.0	35.4	7.9	100.0 (956)	
학년구분						
초 5학년	25.4	47.0	20.8	6.9	100.0 (1,005)	548.3***
초 6학년	21.0	48.7	22.3	7.9	100.0 (870)	
중 1학년	14.6	45.2	28.3	11.9	100.0 (1,537)	
중 2학년	11.3	43.5	34.0	11.2	100.0 (1,587)	
중 3학년	8.8	38.8	38.7	13.7	100.0 (1,571)	
고 1학년	8.1	38.8	40.9	12.2	100.0 (1,547)	
고 2학년	7.7	40.1	38.4	13.8	100.0 (1,592)	
고 3학년	7.4	37.5	39.9	15.2	100.0 (1,425)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와 가구경제수준은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부모를 둔 학생에 비해 외벌이 부모 또는 모두 일하지 않은 부모를 둔 학생이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모만 일하고 있는 학생 중 16.1%가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매우 찬성하고 있었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이 좋을수록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은 이유는 고소득자의 경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고, 남성이 고소득자의 경우 남성의 소득만으로 가족의 윤택한 생활 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가구의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 소득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일인생계부양자가구 남성의 연평균 임금소득은 26,371천원으로 이인생계부양자가구 남성의 연평균 임금소득 23,750천원 보다 2,621천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윤홍식·조막래, 2006).

〈표 7-8〉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10.6	40.1	36.1	13.1	100.0 (6,905)	97.2***
부만 취업	14.0	46.1	30.1	9.8	100.0 (3,360)	
모만 취업	16.1	38.0	34.2	11.7	100.0 (503)	
모두 비취업	13.9	42.1	32.3	11.7	100.0 (26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1.9	36.2	20.0	11.9	100.0 (210)	164.6***
잘 사는 편	15.1	45.4	27.8	11.7	100.0 (1,528)	
보통	11.0	42.0	35.4	11.6	100.0 (7,153)	
못 사는 편	9.7	39.4	37.9	13.1	100.0 (1,643)	
매우 못사는 편	18.3	34.8	30.5	16.5	100.0 (164)	
모르겠음	14.4	42.8	28.7	14.1	100.0 (425)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2. 가구 내 생계부양 주체에 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38.1%(매우 찬성 8.1% 포함)로 반대 61.9%(전혀 찬성 안함 13.4% 포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한 반면, 맞벌이부부로 한정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구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해설할 수 있겠다.

〈표 7-9〉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8.1	30.0	48.6	13.4	100.0 (11,099)	
지역						
대도시	7.9	30.2	48.5	13.4	100.0 (4,872)	3.6
중소도시	8.1	30.3	48.5	13.1	100.0 (4,884)	
농촌(군)	8.7	27.9	49.1	14.2	100.0 (1,343)	
성별						
남학생	10.0	35.5	44.2	10.3	100.0 (5,755)	313.6***
여학생	6.0	23.9	53.4	16.7	100.0 (5,335)	
학교급						
초등학교	11.7	32.9	42.3	13.1	100.0 (1,866)	120.6***
중학교	7.6	28.4	50.4	13.6	100.0 (4,678)	
인문고등학교	5.7	29.9	50.4	14.0	100.0 (3,602)	
실업고등학교	12.4	32.1	45.2	10.4	100.0 (954)	
학년구분						
초 5학년	11.7	32.6	42.0	13.7	100.0 (1,000)	90.4***
초 6학년	11.7	33.2	42.6	12.5	100.0 (864)	
중 1학년	9.1	29.0	49.0	12.9	100.0 (1,531)	
중 2학년	7.0	28.7	51.0	13.3	100.0 (1,583)	
중 3학년	6.6	27.6	51.0	14.7	100.0 (1,564)	
고 1학년	6.0	28.9	52.6	12.5	100.0 (1,541)	
고 2학년	7.1	31.2	48.6	13.1	100.0 (1,591)	
고 3학년	8.2	30.9	46.7	14.3	100.0 (1,42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거주지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남녀학생별로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여학생(29.9%)에 비해 남학생(45.5%)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 역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요컨대,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의 생계 책임에 대해 학생들은 공감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우세하며, 특히 여학생과 고학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하겠다.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부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가족의 생계부양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39.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35.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앞선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는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는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해 아내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좋은 반면 남편과 아내 모두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나쁘다는 분석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Cherlin, 1992). 즉, 부모간의 관계가 나쁠수록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 부모가 모두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부모 모두가 가족 내 성별분업에 대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성의 생계부양역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부부관계는 나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맞벌이부모 여부와 상관없이 공히 우세하게 나

타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인 학생의 경우에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특히, 아주 잘사는 편이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동견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보다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유층의 경우 모가 밖에서 일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는데다가 집안일도 가사도우미 등이 하고 있어, 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가구경제가 너무 안 좋은 가정에서는 모가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 부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표 7-10〉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8.6	30.7	46.1	14.5	100.0 (3,630)	45.6***
좋은 편	6.8	30.4	51.1	11.7	100.0 (3,836)	
보통	8.1	28.6	49.2	14.2	100.0 (1,943)	
나쁜 편	8.6	28.9	48.9	13.6	100.0 (440)	
매우 나쁜 편	8.5	26.9	48.0	16.6	100.0 (223)	
모르겠음	12.1	29.1	44.7	14.0	100.0 (371)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8.0	29.4	48.8	13.8	100.0 (6,878)	13.8
부만 취업	7.9	31.1	48.6	12.3	100.0 (3,353)	
모만 취업	10.6	29.9	46.1	13.4	100.0 (501)	
모두 비취업	6.1	29.9	47.7	16.3	100.0 (264)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18.4	35.3	29.5	16.9	100.0 (207)	87.6***
잘 사는 편	9.3	30.9	44.2	15.6	100.0 (1,523)	
보통	7.4	29.6	50.4	12.6	100.0 (7,133)	
못 사는 편	8.7	30.0	47.8	13.6	100.0 (1,635)	
매우 못사는 편	13.3	29.7	41.2	15.8	100.0 (165)	
모르겠음	6.0	30.5	48.1	15.5	100.0 (42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3. 남편(남성)의 자녀 돌봄 능력에 관한 태도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찬성 93.5%(매우 찬성 49.3% 포함)로 반대 6.5%(전혀 찬성 안함 1.1% 포함)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거주지별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지역간 구분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학생별로 여학생(반대 4.0%)에 비해 남학생(반대 8.9%)이 동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다. 동 견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매우 찬성하는 태도는 저학년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7-11〉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49.3	44.2	5.4	1.1	100.0 (11,081)	
지역						
대도시	48.2	45.2	5.7	0.9	100.0 (4,866)	8.1
중소도시	49.9	43.6	5.4	1.1	100.0 (4,876)	
농촌(군)	50.8	42.9	4.9	1.4	100.0 (1,339)	
성별						
남학생	40.3	50.8	7.4	1.5	100.0 (5,747)	413.7***
여학생	58.9	37.2	3.4	0.6	100.0 (5,324)	
학교급						
초등학교	55.5	37.5	4.9	2.0	100.0 (1,860)	97.3***
중학교	50.3	42.9	5.7	1.1	100.0 (4,668)	
인문고등학교	45.7	48.7	5.1	0.5	100.0 (3,601)	
실업고등학교	45.5	46.9	6.4	1.2	100.0 (953)	
학년구분						
초 5학년	56.3	36.9	4.8	2.0	100.0 (1,000)	122.2***
초 6학년	54.5	38.2	5.2	2.1	100.0 (862)	
중 1학년	53.9	38.5	6.2	1.4	100.0 (1,526)	
중 2학년	49.2	44.5	5.4	0.9	100.0 (1,581)	
중 3학년	47.9	45.6	5.5	1.0	100.0 (1,562)	
고 1학년	46.4	47.6	5.4	0.6	100.0 (1,541)	
고 2학년	42.8	51.2	5.2	0.9	100.0 (1,590)	
고 3학년	47.9	46.0	5.7	0.4	100.0 (1,42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남편도 아내와 같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94.8%가 찬성했다. 부모관계가 좋은 편 93.2%, 보통 92.8%, 나쁜 편 92.1%, 매우 나쁜 편 91.0%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가족 내 성별분업과 역할에 대한 앞의 질문들에서는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응답하는 학생들의 남녀역할에 관한 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추정해 보면 하나는 학생들이 가사분담이나 생계부양 등의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사고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다른 추론은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가사와 생계부양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의존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일은 함께 나누고 있으며 자녀 돌봄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전통적 성별역할분담과 상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 7-12〉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56.2	38.6	4.0	1.2	100.0 (3,623)	153.6***
좋은 편	44.1	49.1	6.0	0.8	100.0 (3,830)	
보통	45.7	47.1	6.1	1.1	100.0 (1,942)	
나쁜 편	49.7	42.4	6.8	1.1	100.0 (439)	
매우 나쁜 편	57.1	33.9	6.7	2.2	100.0 (224)	
모르겠음	43.2	47.6	7.6	1.6	100.0 (370)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49.8	43.9	5.2	1.0	100.0 (6,868)	16.6†
부만 취업	47.3	45.7	5.8	1.2	100.0 (3,346)	
모만 취업	55.1	38.5	5.6	0.8	100.0 (501)	
모두 비취업	46.6	45.1	6.4	1.9	100.0 (26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63.8	25.6	7.7	2.9	100.0 (207)	81.8***
잘 사는 편	52.8	41.7	4.4	1.1	100.0 (1,519)	
보통	48.1	45.7	5.3	0.9	100.0 (7,126)	
못 사는 편	49.4	43.7	6.0	1.0	100.0 (1,635)	
매우 못사는 편	49.4	40.2	6.7	3.7	100.0 (164)	
모르겠음	47.9	41.2	8.1	2.9	100.0 (42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에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는 맞벌이부부이든 아니든 동 견해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가 공히 우세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잘사는 학생일수록 동 견해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주 잘사는 편이거나 못사는 편인 학생의 경우에 동 견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10%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유층의 경우 모가 밖에서 일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는데다가 집안일도 가사도우미 등이 하고 있어, 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가구경제수준이 너무 안 좋은 경우 부의 자녀케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4. 부부역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종합비교

지금까지 분석한 일반적인 부부역할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적인 역할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소 상반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편이 일하여 수입을 벌고, 부인은 전적으로 집안을 돌보는 이른바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수용태도는 긍정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생계책임을 강조한 견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는 아무래도 전업주부로서 모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맞벌이부부가 아닌 이상 성분업적 역할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학생들 사이에 성평등적 역할관은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경향성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가족생활에서 남편중심의 생계모형과 달리, 남편의 육아능력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는 부부의 경제활동참가 형태와 상관없이 남편의 육아 참여 능력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남녀학생간의 태도는 부부간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남성의 육아능력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더 긍

정적인 태도는 지녔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 내 성평등적 역할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7-13〉 일반적인 부부 역할에 대한 학생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긍정(찬성비율)									
남편 직업생활, 아내 가정 돌봄	53.9	75.8	66.1	71.1	64.2	42.7	54.0	57.8	34.9
맞벌이부부의 생계는 남편 책임	38.1	48.5	40.2	44.5	43.8	27.4	36.0	46.2	28.2
남편도 자녀 잘 돌 볼 수 있음	93.5	89.8	96.4	93.0	91.1	95.4	93.2	91.5	96.5
평균점수									
남편 직업생활, 아내 가정 돌봄	2.54	3.0	2.8	2.9	2.7	2.3	2.5	2.6	2.2
맞벌이부부의 생계는 남편 책임	2.33	2.5	2.4	2.4	2.4	2.2	2.3	2.5	2.2
남편도 자녀 잘 돌 볼 수 있음	3.42	3.4	3.6	3.5	3.3	3.6	3.4	3.3	3.5

제 4 절 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공동명의의 자산소유에 관한 태도

가.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관한 태도

집, 땅 등과 같은 자산을 남편과 아내의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의 태도는 <표 7-14>와 같이 조사되었다. 전체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4.0%로 찬성하는 의견이 89.1%로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8.3%, 2.6%로 반대하는 의견은 10.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들의 자산소유에 관한 성평등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공동명의 자산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차이에 따른 부부명의 공동자산에 대한 태도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학생들이 공동명의의 자산에 대해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의견을 보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1.1%,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3.9%로 전체 여학생들의 95.0%가 자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경우도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찬성하는 비율은 83.7%로 여학생들의 비해 11.3%포인트 낮게 조사되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자산의 부부 공동소유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의 학년과 일관되게 정의 관계를 갖지는 않지만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의 경우 자산의 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86.9%가 찬성하고, 중학교 3학년생은 89.6%,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90.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은 초등학교 5학년생이 49.7%, 6학년생이 48.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7-14〉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45.1	44.0	8.3	2.6	100.0 (11,231)	
성별						
남학생	30.5	53.2	12.3	3.9	100.0 (5,849)	1142.6***
여학생	61.1	33.9	3.9	1.1	100.0 (5,372)	
학교급						
초등학교	49.1	38.6	7.9	4.3	100.0 (1,897)	112.2***
중학교	44.4	43.4	9.4	2.8	100.0 (4,743)	
인문고등학교	44.8	47.6	6.3	1.3	100.0 (3,631)	
실업고등학교	42.1	43.6	11.3	2.9	100.0 (961)	
학교특성						
남학교	26.6	57.7	12.5	3.2	100.0 (1,879)	601.7***
여학교	63.9	32.1	3.0	0.9	100.0 (2,139)	
남녀공학	44.4	43.9	8.8	3.0	100.0 (7,213)	
학년구분						
초 5학년	49.7	38.8	7.6	4.0	100.0 (1,019)	113.8***
초 6학년	48.4	38.5	8.3	4.8	100.0 (878)	
중 1학년	44.3	40.5	11.8	3.4	100.0 (1,552)	
중 2학년	44.6	44.5	8.7	2.2	100.0 (1,604)	
중 3학년	44.3	45.3	7.6	2.8	100.0 (1,586)	
고 1학년	42.5	48.8	7.4	1.3	100.0 (1,560)	
고 2학년	45.1	46.3	6.8	1.8	100.0 (1,599)	
고 3학년	45.0	45.0	8.0	2.0	100.0 (1,432)	
형제자매 수						
1명	41.7	44.9	10.3	3.1	100.0 (1,413)	25.7**
2명	44.8	44.4	8.3	2.5	100.0 (7,118)	
3명	48.3	41.7	7.3	2.7	100.0 (2,170)	
4명 이상	46.1	44.8	7.3	1.7	100.0 (518)	
형제자매 구성						
남자1명 여자0명	28.3	52.1	15.2	4.5	100.0 (828)	480.9***
남자0명 여자1명	60.6	34.6	3.6	1.2	100.0 (586)	
남자2명 여자0명	31.3	53.5	11.2	3.9	100.0 (1,959)	
남자0명 여자2명	61.0	32.4	5.3	1.3	100.0 (1,185)	
남자1명 여자1명	46.5	43.6	7.7	2.2	100.0 (3,972)	
3명 이상	47.9	42.3	7.3	2.5	100.0 (2,688)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형제자매 수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보면 형제자매 수가 4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90.9%(매우 찬성함 46.1%, 대체로 찬성함 44.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형제자매 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찬성비율은 86.6%로 네 집단 중 가장 낮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형제자매의 성별구성에 따른 차이도 앞선 분석들과 같이 여자형제만 있는 경우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남자형제만 있는 경우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여자형제만 2명 있는 학생들이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93.4%로 남자형제만 2명 있는 학생들의 찬성하는 비율인 84.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8.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여자형제만 있는 경우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형제들만 있는 경우 대체로 찬성한다는 비율이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즉, 여자형제만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가 남자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태도

<표 7-15>는 학생의 가족특성에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혼인상태와 부모의 취업여부는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목할 점은 부모의 취업여부가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모 모두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89.8%가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아버지만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88.3%가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여 두 집단 간의 차이는 1.0%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모두가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가족 내 역할분담에 의해 한 사람만 생계부양역할을 담당하던 결혼관계에서 형성한 자산은 부부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학생들의 인

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간의 관계에 따라서 학생들의 태도는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태도가 부모간의 관계에 비례해서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한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좋은 편이다”와 “매우 나쁜 편이다”에서 가장 높은 89.7%로 집계 되었다. 즉, 학생들의 태도는 부모간의 관계가 좋고 나쁨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가장 높게 (49.1%) 나타났다.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는 양자간의 관계가 좋을 수록 찬성한다는 태도의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다.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90.0%가 찬성한다 (매우 찬성함 51.4%, 대체로 찬성함 38.6%)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학생과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찬성비율은 75.0%(매우 찬성함 45.5%, 대체로 찬성함 29.5%)에 그쳤다.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관한 태도는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가 가구의 경제상태와 비례적 관계에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제상태가 “보통이다”와 “못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89.9%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 경제상태가 “매우 못사는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찬성비율이 가장 낮은 82.4%로 조사되었고, “매우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찬성비율이 83.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매우 찬성한다”는 가구 경제상태가 “매우 잘사는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가구 경제상태가 “매우 못사는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추측할 때 자산소유에 관한 성평등 의식은 가구 경제상태가 중간 정도인 경우 가장 높은 반면 매우 유복하거나, 매우 어려운 양극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7-15〉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44.8	43.7	8.3	3.2	100.0 (971)	2.1
아니오	45.1	44.2	8.3	2.4	100.0 (9,71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9.1	40.2	8.1	2.6	100.0 (3,672)	68.5***
좋은 편	42.0	47.7	7.8	2.4	100.0 (3,879)	
보통	43.6	45.2	9.3	1.9	100.0 (1,963)	
나쁜 편	44.2	44.8	8.3	2.7	100.0 (446)	
매우 나쁜 편	48.9	40.8	4.9	5.4	100.0 (223)	
모르겠음	43.5	42.7	10.1	3.7	100.0 (377)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51.4	38.6	7.4	2.7	100.0 (4,363)	184.5***
좋은 편	40.9	49.2	7.9	1.9	100.0 (4,289)	
보통	40.7	46.3	10.2	2.9	100.0 (1,856)	
나쁜 편이	40.5	46.0	9.3	4.2	100.0 (215)	
매우 나쁜 편	45.5	29.5	11.4	13.6	100.0 (44)	
모르겠음	45.4	37.9	11.3	5.4	100.0 (335)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45.6	44.2	7.9	2.4	100.0 (6,967)	12.3
부만 취업	44.3	44.0	8.9	2.8	100.0 (3,385)	
모만 취업	46.4	42.2	8.3	3.2	100.0 (507)	
모두 비취업	41.1	43.7	11.5	3.7	100.0 (27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54.7	28.5	12.1	4.7	100.0 (214)	91.0***
잘 사는 편	44.7	43.2	8.7	3.3	100.0 (1,533)	
보통	44.1	45.7	7.9	2.2	100.0 (7,216)	
못 사는 편	49.3	40.5	8.1	2.1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41.5	40.9	11.0	6.7	100.0 (164)	
모르겠음	44.0	38.9	11.1	6.0	100.0 (43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2.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

가.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태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태도는 <표 7-16>에 정리되어있다. 전체적인 태도를 보면 별로 찬성안함과 전혀 찬성안함이 각각 38.0%, 15.3%로 53.3%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찬성하는 비율은 매우 찬성함이 12.2%, 대체로 찬성함이 34.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남녀역할 분담과 성평등의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생활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녀역할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상적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먼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전통적 이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이념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구체적 특성은 보면 형제자매 수에 따른 구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 예상과 같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49.2%(매우 찬성함 14.1%, 대체로 찬성함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찬성하는 비율은 45.6%(매우 찬성함 11.5%, 대체로 찬성함 34.1%)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성별은 가치관이 분명히 나뉘지는 변수인데 여학생들은 68.3%(매우 찬성안함 23.1%, 대체로 찬성안함 45.2%)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반면 남학생들은 60.3%(매우 찬성 18.1%, 대체로 찬성 42.5%)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찬성하는 비율은 줄고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초등학교 5학년생의 경우로 60.4%(매우 찬성 24.3%, 대체로 찬성 37.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생 중 찬성 비율은 38.8%(매우 찬성 7.7%, 대체로 찬성 31.1%)에 불과했다.

〈표 7-16〉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12.2	34.6	38.0	15.3	100.0 (11,224)	
지역						
대도시	11.5	34.1	38.0	16.3	100.0 (4,926)	14.3*
중소도시	12.3	34.8	38.2	14.6	100.0 (4,942)	
농촌(군)	14.1	35.1	37.2	13.6	100.0 (1,356)	
성별						
남학생	18.1	42.5	31.3	8.1	100.0 (5,844)	1132.2***
여학생	5.7	26.0	45.2	23.1	100.0 (5,371)	
학교급						
초등학교	22.9	37.4	29.6	10.0	100.0 (1,896)	494.0***
중학교	11.9	37.0	36.9	14.2	100.0 (4,740)	
인문고등학교	6.4	29.7	43.6	20.3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14.0	35.3	38.9	11.8	100.0 (959)	
학교특성						
남학교	13.5	43.3	34.2	9.0	100.0 (1,877)	566.3***
여학교	4.2	23.1	45.7	27.0	100.0 (2,138)	
남녀공학	14.2	35.7	36.7	13.4	100.0 (7,208)	
학년구분						
초 5학년	24.3	37.1	29.2	9.4	100.0 (1,017)	469.5***
초 6학년	21.4	38.0	30.0	10.6	100.0 (877)	
중 1학년	15.2	39.8	32.5	12.6	100.0 (1,551)	
중 2학년	11.2	36.9	37.6	14.3	100.0 (1,604)	
중 3학년	9.3	34.4	40.6	15.7	100.0 (1,583)	
고 1학년	7.6	31.6	43.5	17.3	100.0 (1,559)	
고 2학년	8.6	29.8	42.9	18.7	100.0 (1,598)	
고 3학년	7.7	31.1	41.4	19.7	100.0 (1,433)	
형제자매 구성						
남자1명 여자0명	17.4	43.5	31.5	7.6	100.0 (826)	607.2***
남자0명 여자1명	4.5	22.3	47.0	26.2	100.0 (583)	
남자2명 여자0명	16.5	41.7	32.7	9.1	100.0 (1,959)	
남자0명 여자2명	5.4	19.6	46.0	29.0	100.0 (1,185)	
남자1명 여자1명	12.2	35.7	37.8	14.3	100.0 (3,971)	
3명이상	12.0	34.3	38.6	15.1	100.0 (2,69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의문은 저학년 학생의 성평등의식이 왜 고학년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한 추론은 저학년 학생 일수록 독립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변(성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영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가치관을 습득해 감으로써 학생들의 태도에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해 간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추론의 저변에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기성세대(학생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세대)에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남아를 선호하는 생각이 잔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형제자매 구성에 따른 차이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남자형제만 있는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여자형제만 있는 경우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나. 학생들의 가족특성에 따른 태도

학생들의 가족특성에 따른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는 <표 7-17>에 제시되어있다.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혼인상태, 부모의 취업여부는 학생들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부가 무학인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가 대학원 학력을 가진 경우 4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모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대학졸업자인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43.4%로 가장 낮게 집계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부모의 학력과 관련된 태도를 추정해보면 부의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다소간 등락이

있지만) 부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집안을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의 경우는 학력수준에 따른 등락이 보이는데 초등학교 학력에서 대학교 학력까지는 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차 감소하다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증가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왜 부와 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인식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모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요구된다.

부모간의 관계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49.5%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부모관계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41.5%만이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부부간의 관계는 남편이 성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Cherlin, 1992) 부부관계가 좋다는 것과 성평등의식과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체로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0.3%(매우 찬성함 15.1%, 대체로 찬성함 35.2%)였다. 반면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이 보다 9.7%포인트 낮은 40.0%(매우 찬성함 15.6%, 대체로 찬성함 24.4%)였다.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경제상태가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은 66.0%(매우 찬성함 30.2%, 대체로 찬성함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잘사는 편이다 53.2%, 매우 못사는 편이다 48.2%, 보통이다 45.5%, 못 사는 편이다 42.3%순이었다.

〈표 7-17〉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의 학력						
학교를 안다녔음	13.6	36.4	45.5	4.5	100.0 (22)	118.2***
초등학교	13.8	31.1	40.4	14.7	100.0 (334)	
중학교	10.9	36.7	38.2	14.1	100.0 (667)	
고등학교	11.3	34.3	39.8	14.6	100.0 (4,370)	
대학교	10.8	33.9	37.6	17.7	100.0 (3,138)	
대학원	10.1	31.1	38.3	20.4	100.0 (652)	
모르겠음	17.7	37.3	33.9	11.1	100.0 (1,659)	
모의 학력						
학교를 안다녔음	12.9	29.0	32.3	25.8	100.0 (31)	152.9***
초등학교	13.8	36.7	36.5	13.0	100.0 (362)	
중학교	12.6	35.2	37.9	14.3	100.0 (807)	
고등학교	10.4	34.1	40.1	15.5	100.0 (5,470)	
대학교	10.8	32.6	38.8	17.8	100.0 (2,268)	
대학원	13.0	34.1	31.4	21.5	100.0 (293)	
모르겠음	18.3	38.3	32.6	10.7	100.0 (1,749)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14.5	35.0	35.2	15.4	100.0 (3,672)	79.5***
좋은 편	10.2	36.1	39.9	13.8	100.0 (3,875)	
보통	11.3	32.1	40.5	16.0	100.0 (1,961)	
나쁜 편	10.4	34.7	36.7	18.2	100.0 (444)	
매우 나쁜 편	16.5	25.0	35.3	23.2	100.0 (224)	
모르겠음	11.7	34.0	39.3	15.1	100.0 (377)	
학생-부모 관계						
매우 좋은 편	15.1	35.2	34.5	15.2	100.0 (4,362)	110.3***
좋은 편	9.8	35.5	40.3	14.3	100.0 (4,285)	
보통	10.6	32.0	41.3	16.1	100.0 (1,854)	
나쁜 편	9.3	34.0	37.7	19.1	100.0 (215)	
매우 나쁜 편	15.6	24.4	28.9	31.1	100.0 (45)	
모르겠음	12.8	26.8	42.3	18.2	100.0 (33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30.2	35.8	20.5	13.5	100.0 (215)	145.8***
잘 사는 편	15.7	37.5	32.9	13.8	100.0 (1,534)	
보통	10.9	34.6	39.0	15.4	100.0 (7,211)	
못 사는 편	10.4	31.9	41.1	16.5	100.0 (1,656)	
매우 못사는 편	17.1	31.1	33.5	18.3	100.0 (164)	
모르겠음	15.7	33.9	38.3	12.0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3. 여자는 남자보다 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대한 태도

가.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태도는 <표 7-18>에 정리 되어있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생각을 보면 매우 찬성 3.6%, 대체로 찬성 17.6%로 찬성 의견은 전체의 1/5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43.2%,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35.6%로 집계 되어 절대다수인 78.8%가 여자가 남자보다 사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대한 결정을 적절하게 내리는 능력은 성별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반적 예상과 같이 남학생의 찬성비율이 29.2%(매우 찬성 5.4%, 대체로 찬성 23.8%)로 여학생의 찬성비율 12.6%(매우 찬성 1.8%, 대체로 찬성 10.8%)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찬성하는 비율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했다.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이전의 결과들과 같이 학생들의 학년과 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학년이 될 수록 동 의견에 관해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30.8%인데 반해 고 3학년생의 찬성하는 비율은 17.8%에 불과해 찬성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5학년생의 절반을 조금 넘는 57.8%수준에 불과했다.

형제자매구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여자형제만 있는 경우가 남자형제만 있는 경우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여자형제만 2명 있는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12.8%(매우 찬성함 1.7%, 대체로 찬성함 11.1%)에 불과했다. 반면 남자형제만 2명 있는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29.6%(매우 찬성함 5.6%, 대체로 찬성함 24.0%)로 여자형제만 2명 있는 경우에 비해 찬성하는 비율이 2.3배나 높게 나타났다.

〈표 7-18〉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전체	3.6	17.6	43.2	35.6	100.0 (11,216)	
지역						
대도시	3.6	16.3	43.7	36.3	100.0 (4,922)	10.1
중소도시	3.6	18.5	43.0	34.9	100.0 (4,940)	
농촌(군)	4.0	18.6	42.2	35.2	100.0 (1,354)	
성별						
남학생	5.4	23.8	50.5	20.3	100.0 (5,839)	1312.9***
여학생	1.8	10.8	35.3	52.1	100.0 (5,367)	
학교급						
초등학교	6.5	22.9	41.0	29.5	100.0 (1,893)	155.0***
중학교	3.6	16.9	43.8	35.7	100.0 (4,736)	
인문고등학교	2.1	15.3	42.9	39.7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3.9	18.6	46.4	31.1	100.0 (960)	
학교특성						
남학교	4.6	22.3	53.2	19.9	100.0 (1,878)	712.6***
여학교	1.4	8.6	32.2	57.8	100.0 (2,139)	
남녀공학	4.1	19.0	43.9	33.0	100.0 (7,199)	
학년구분						
초 5학년	6.6	24.2	41.6	27.6	100.0 (1,015)	160.6***
초 6학년	6.4	21.4	40.4	31.8	100.0 (878)	
중 1학년	4.5	19.3	43.0	33.2	100.0 (1,548)	
중 2학년	3.5	16.2	43.4	36.9	100.0 (1,604)	
중 3학년	3.0	15.3	44.8	36.9	100.0 (1,584)	
고 1학년	3.0	15.2	44.5	37.3	100.0 (1,561)	
고 2학년	1.8	17.4	44.4	36.3	100.0 (1,599)	
고 3학년	2.7	15.1	41.8	40.4	100.0 (1,428)	
형제자매 수						
1명	3.1	19.4	42.3	35.1	100.0 (1,410)	17.4*
2명	3.7	17.6	43.9	34.8	100.0 (7,109)	
3명	3.6	16.6	41.2	38.6	100.0 (2,169)	
4명 이상	4.3	15.9	45.0	34.8	100.0 (515)	
형제자매 구성						
남자1명 여자0명	4.7	26.0	48.1	21.2	100.0 (826)	593.3***
남자0명 여자1명	1.0	10.1	34.3	54.6	100.0 (586)	
남자2명 여자0명	5.6	24.0	50.2	20.2	100.0 (1,958)	
남자0명 여자2명	1.7	11.1	33.6	53.6	100.0 (1,185)	
남자1명 여자1명	3.4	16.4	43.9	36.3	100.0 (3,967)	
3명이상	3.8	16.4	41.9	37.9	100.0 (2,686)	

† p<0.1, * p<0.05, ** p<0.01, *** p<0.001

나. 학생들의 가족특성에 따른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가족특성에 따른 차이는 <표 7-19>에서 나타나있다. 부모의 혼인 상태, 부모의 취업여부, 조부모 동거여부는 학생들의 상이한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간의 관계에 따른 차이는 앞선 분석들과 같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 전통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은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찬성비율이 22.2%(매우 찬성함 4.0%, 대체로 찬성함 18.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반대로 부모간의 관계가 “매우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15.9%로 가장 낮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38.6%(매우 찬성함 0.0%, 대체로 찬성함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집단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매우 좋은 편이다 22.2%, 좋은 편이다 20.4%, 보통이다 20.0%, 나쁜 편이다 20.6%). 가구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는 학생들의 가구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상태가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찬성 비율은 35.3%(매우 찬성함 7.5%, 대체로 찬성함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못 사는 편이다와 매우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찬성비율은 각각 19.4%(매우 찬성함 3.0%, 대체로 찬성함 16.4%), 21.9%(매우 찬성함 6.3%, 대체로 찬성함 15.6%)를 보여 가장 낮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가구 경제형편이 좋을수록 성평등에 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구의 대부분의 소득이 남편의 (임금)소득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다는 것은 남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남녀역할 가치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 7-19〉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성평등에 관한 태도: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계 (명)	χ^2
부모 이혼·별거 상태						
예	3.6	17.1	43.3	36.0	100.0 (972)	0.2
아니오	3.5	17.5	43.6	35.5	100.0 (9,707)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0	18.2	40.5	37.3	100.0 (3,666)	54.1***
좋은 편	2.9	17.8	45.7	33.5	100.0 (3,875)	
보통	3.1	17.1	44.9	34.9	100.0 (1,959)	
나쁜 편	3.6	16.2	43.1	37.1	100.0 (445)	
매우 나쁜 편	2.3	13.6	38.5	45.7	100.0 (221)	
모르겠음	6.4	13.3	44.4	35.9	100.0 (376)	
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매우 좋은 편	4.1	18.1	39.1	38.8	100.0 (4,361)	97.5***
좋은 편	2.8	17.6	46.6	33.0	100.0 (4,283)	
보통	3.9	16.1	46.1	33.8	100.0 (1,852)	
나쁜 편	5.6	15.0	47.9	31.5	100.0 (213)	
매우 나쁜 편		38.6	20.5	40.9	100.0 (44)	
모르겠음	5.1	14.3	40.8	39.9	100.0 (336)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3.6	17.4	43.3	35.7	100.0 (6,956)	7.4
부만 취업	3.6	17.5	44.1	34.9	100.0 (3,378)	
모만 취업	4.5	17.1	38.8	39.6	100.0 (508)	
모두 비취업	3.3	18.9	43.3	34.4	100.0 (270)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7.5	27.8	33.0	31.6	100.0 (212)	80.3***
잘 사는 편	4.6	20.4	40.2	34.8	100.0 (1,532)	
보통	3.3	16.7	44.9	35.1	100.0 (7,208)	
못 사는 편	3.0	16.4	41.4	39.3	100.0 (1,655)	
매우 못사는 편	6.3	15.6	39.4	38.8	100.0 (160)	
모르겠음	6.0	21.5	40.4	32.1	100.0 (43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4. 청소년의 성평등의식 측정

본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10가지 관련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 설문내용은 이미 다른 조사에서 성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들로서, 여기에서는 설문내용의 타당성 검증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설문내용 중 5가지는 가족영역에서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5가지는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되었다. <표 7-20>은 각 설문별로 초·중·고 청소년의 태도를 찬성 중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태도를 4점 척도로 변환하여 평균점수도 산정하였다. 즉, ‘매우 찬성’=4점, ‘찬성’=3점, ‘별로 찬성 안함’=2점, ‘전혀 찬성 안함’=1점 등이다(설문들 중 ②, ③, ⑤, ⑨에 해당). 한편, 조사표 상 일부 설문(①, ④, ⑥, ⑦, ⑧, ⑩)들은 부정문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전혀 찬성 안함’=4점, ‘별로 찬성 안함’=3점, ‘찬성’=2점, ‘매우 찬성’=1점 등의 역순으로 성평등 정도가 높다. 이하에서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 ‘성평등 척도’로 표현하기로 하며, ①, ④, ⑥, ⑦, ⑧, ⑩ 설문의 경우 반대(전혀 또는 별로 찬성 안함) 비율 또는 ②, ③, ⑤, ⑨ 설문의 경우 찬성(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 비율로 표시한다.

우선 가족영역을 살펴보면, ‘① 남자의 부업일 참여’ 설문항목으로 측정된 성평등척도는 85.5%, ‘② 재산의 부부간 공동명의’ 설문항목으로 측정된 성평등척도는 89.1%, ‘③ 가사의 부부간 공평분담’ 설문항목으로 측정된 성평등척도는 90.7%, ‘④ 가문계승을 위한 아들 필요’ 설문항목으로 측정된 성평등척도는 53.3%, ‘⑤ 집안일에 대한 부부 공동의 의사결정’ 설문항목으로 측정된 성평등척도는 91.3% 등이었다. 가족영역 설문 중 가사에 대한 부부의 공평분담이나 공동 의사결정으로 측정된 학생들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부부간 공동명의’으로 측정된 결과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남자의 부업일 참여에 대한 생각은 앞선 설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의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문계승을 위한 아들의 필요성으로 측정된 결과는 50%대 수준이며, 이는 학생들 사이에 가문계승이 아들

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전통적인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좀더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성평등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나, 가족집단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영역으로 측정된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⑥ 여성의 중대사업 결정 능력 미흡’ 78.8%, ‘⑦ 여성보다 남성의 높은 월급 책정’ 63.5%, ‘⑧ 잔일은 여성에 더 적합’ 71.9%, ‘⑨ 판·검사 등 남성지향적 일의 여성 수행’ 85.1%, ‘⑩ 여자 상사 밑에서 남성의 근로활동’ 78.9%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영역과 비교하여 보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직장영역에서 양성불평등적인 차별관행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러한 영향이 청소년층 까지도 이미 침투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7-20〉 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종합 비교

(단위: %, 명)

구분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계 (명)	평균 점수
가족영역	1)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3.9	10.7	37.3	48.2	100.0 (11,231)	0.70
	2)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	45.1	44.0	8.3	2.6	100.0 (11,231)	2.32
	3)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52.9	37.8	7.2	2.1	100.0 (11,219)	2.42
	4)집단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12.2	34.6	38.0	15.3	100.0 (11,224)	1.44
	5)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50.9	40.4	6.7	1.9	100.0 (11,216)	2.40
직업영역	6)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 한다	3.6	17.6	43.2	35.6	100.0 (11,216)	0.89
	7)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11.1	25.4	37.5	26.0	100.0 (11,210)	1.22
	8)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6.8	21.3	36.8	35.1	100.0 (11,216)	1.00
	9)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45.5	39.6	11.0	3.9	100.0 (11,216)	2.27
	10)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7	14.4	37.5	41.4	100.0 (11,209)	0.86

주: 설문 ②, ③, ⑤, ⑨는 ‘매우 찬성’=4점, ‘찬성’=3점, ‘별로 찬성 안함’=2점, ‘전혀 찬성 안함’=1점

①, ④, ⑥, ⑦, ⑧, ⑩은 ‘전혀 찬성안함’=4점, ‘별로 찬성 안함’=3점, ‘찬성’=2점, ‘매우 찬성’=1점 등

청소년의 특성별로 성평등 의식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가족영역과 직업영역별로 설문항목의 평균점수의 평균을 산정하여 성평등점수로 활용하였다. 평균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설문항목의 척도를 성평등 정도의 동일방향으로 조정하였다. 그 내용은 이미 앞서 제시한 바 있다. 평균점수가 2.5점인 경우 중간값으로서 성평등 의식수준이 중간정도로 간주할 수 있겠다.

〈표 7-21〉 성평등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비교(성평등점수): 학교급·성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가족 영역	직업 영역	전체	가족 영역	직업 영역	전체	가족 영역	직업 영역
전체	3.12	3.20	3.05	2.89	2.98	2.79	3.38	3.43	3.33
지역									
대도시	3.14	3.21	3.07	2.89	2.98	2.81	3.41	3.46	3.36
중소도시	3.13	3.20	3.06	2.90	2.98	2.81	3.39	3.44	3.34
농촌(군)	3.10	3.18	3.01	2.87	2.97	2.76	3.33	3.39	3.28
학교급									
초등학교	2.97	3.09	2.85	2.77	2.89	2.65	3.19	3.31	3.06
중학교	3.12	3.18	3.06	2.89	2.96	2.82	3.39	3.43	3.34
인문고등학교	3.24	3.30	3.19	2.96	3.05	2.87	3.53	3.54	3.52
실업고등학교	3.07	3.16	2.99	2.88	2.98	2.79	3.28	3.36	3.21
학년구분									
초 5학년	2.95	3.08	2.81	2.76	2.90	2.62	3.14	3.27	3.00
초 6학년	3.00	3.11	2.89	2.78	2.89	2.68	3.24	3.36	3.13
중 1학년	3.07	3.13	3.01	2.83	2.91	2.76	3.34	3.39	3.30
중 2학년	3.14	3.20	3.08	2.91	2.99	2.83	3.38	3.43	3.33
중 3학년	3.15	3.20	3.10	2.91	2.97	2.85	3.44	3.48	3.39
고 1학년	3.20	3.25	3.14	2.93	3.01	2.85	3.46	3.49	3.44
고 2학년	3.20	3.27	3.13	2.95	3.05	2.85	3.46	3.49	3.43
고 3학년	3.22	3.28	3.16	2.96	3.05	2.87	3.52	3.54	3.50

전체 학생의 경우, 평균점수가 3.1점으로 성평등 의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의 성평등점수는 3.38점으로 가족영역의 경우 3.43점, 직업영역의 경우 3.3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학생의 성평등점수는 2.89점(가족영역 2.98점, 직업영역 2.79점)으로 중간 수준이

상이나 여학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 청소년의 성평등점수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근소하나마 전체와 가족 및 직업영역 모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학생의 성평등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녀학생별로 마찬가지였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성평등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학생별로도 마찬가지였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나 이성적 판단력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제 5 절 부모의 가사분담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지금까지는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부모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분석 결과는 학생의 가치관이기보다는 학생의 가족환경으로서 실제 부모의 역할 내지 가족생활에서 양성불평등적 요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학생 중 58.4%(매우 공평 17.0% 포함)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머지 41.7%(매우 불공평 10.7% 포함)은 불공평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즉, 학생의 관점에서 부모간 가사분담은 다소 불평등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7-22〉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χ^2
전체	17.0	41.4	31.0	10.7	100.0 (10,449)	
지역						
대도시	17.1	42.1	30.5	10.2	100.0 (4,657)	13.8*
중소도시	16.7	41.3	31.6	10.4	100.0 (4,569)	
농촌(군)	17.3	38.6	30.7	13.4	100.0 (1,233)	
성별						
남학생	18.5	44.0	28.8	8.7	100.0 (5,432)	94.6***
여학생	15.3	38.5	33.4	12.8	100.0 (5,019)	
학교급						
초등학교	27.0	45.7	20.7	6.6	100.0 (1,794)	411.1***
중학교	16.9	43.9	30.6	8.5	100.0 (4,434)	
인문고등학교	12.8	35.4	37.3	14.5	100.0 (3,397)	
실업고등학교	12.6	42.9	29.4	15.1	100.0 (833)	
학년구분						
초 5학년	28.2	45.1	21.3	5.3	100.0 (957)	442.5***
초 6학년	25.7	46.2	20.1	8.0	100.0 (836)	
중 1학년	20.9	44.0	28.3	6.9	100.0 (1,453)	
중 2학년	15.9	45.3	31.2	7.5	100.0 (1,500)	
중 3학년	14.0	42.3	32.4	11.3	100.0 (1,483)	
고 1학년	13.5	37.9	34.7	13.9	100.0 (1,428)	
고 2학년	11.7	38.2	35.5	14.6	100.0 (1,485)	
고 3학년	13.1	34.2	37.2	15.4	100.0 (1,317)	

† p<0.1, * p<0.05, ** p<0.01, *** p<0.001

거주지별로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학생들이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사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통적인 문화와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남학생(36.5%)에 비해 여학생(46.2%)에게서 상대적으로 강했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가사분담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추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의 부모간의 역관계와 외부 세계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년이 높아진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 능력이 증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벌어지

는 부모의 가사분담 공평성에 대해 고 학년일수록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의 가족적 배경별로도 부모의 가사분담의 공평성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부모의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관계가 나쁜 편인 학생의 경우 66.6%, 매우 나쁜 편이라는 학생의 경우 75.6%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표시했다. 일반적으로 부모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전통적 성별분업에 순응하는 경우 부부관계가 좋은 반면 가사분담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공평한 가사분담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표출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겠지만 부부관계의 악화라는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횡단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사분담의 공평성 정도가 부모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증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과제는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취업상태에 따른 가사분담의 공평성 정도를 보면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삼식 외, 2005b; 장혜경 외, 2005).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별로는 맞벌이부모를 둔 학생의 39.9%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모만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생 중 50.5%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부만 일하고 있는 경우 학생의 45.1%가 부모간 가사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프랑스와 영국의 비교연구에서(Gregory and Windebank, 2000)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의 점증하는 생계부양 역할이 가족 내 성별분업을 해체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계부양 역할의 변화가 가족 내 가사분담의 공평성을 증대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23〉 학생의 가족적 특성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정 일 공평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χ^2
부모간의 관계						
매우 좋은 편	28.7	43.0	23.6	4.8	100.0 (3,671)	1304.5***
좋은 편	11.8	45.8	33.7	8.6	100.0 (3,878)	
보통	8.5	37.0	37.5	16.9	100.0 (1,942)	
나쁜 편	10.9	22.5	36.9	29.7	100.0 (404)	
매우 나쁜 편	7.6	16.9	25.6	50.0	100.0 (172)	
모르겠음	7.7	32.2	41.1	18.9	100.0 (338)	
부모 취업여부						
부모 취업	17.9	42.2	29.4	10.5	100.0 (6,869)	55.5***
부만 취업	14.9	40.1	34.8	10.3	100.0 (3,163)	
모만 취업	15.5	34.0	31.4	19.1	100.0 (194)	
부모 비취업	20.4	38.4	27.3	13.9	100.0 (216)	
가구 경제상태						
매우 잘 사는 편	48.1	25.5	20.3	6.1	100.0 (212)	518.4***
잘 사는 편	23.9	44.6	25.3	6.2	100.0 (1,485)	
보통	15.9	43.3	31.5	9.3	100.0 (6,883)	
못 사는 편	11.5	31.4	36.5	20.6	100.0 (1,382)	
매우 못사는 편	12.2	27.6	28.5	31.7	100.0 (123)	
모르겠음	14.6	42.5	30.1	12.7	100.0 (36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가구의 경제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가구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의 가사분담이 보다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경제상태가 “매우 잘 사는 편이다”인 경우 가사분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2%인데 반해 “매우 못사는 편이다”인 경우는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 가족 내 성별분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중산층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모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빅토리아시대로부터 2차대전 이전까지 가구 내 성별분업은 중산층 가족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산층 이데올로기가 (2차대)전 후 가족임금이란 이데올로기와 함께 노동계급의 가족 이데올로기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즉, 성별분업이라는 중산층 가족 이념이 하층 가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의

식을 통해 본 가족 내 성별분업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과는 달리 하층에서 상대적으로 강고하게 남아있고 상층으로 갈수록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평등 및 그에 따른 성평등적 역할에 대한 학생의 가치관은 실제 학생의 가족 내에서의 부모간 성평등 정도 내지 성평등적 역할과는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요컨대, 성평등 관련한 학교교육이 중요하나, 그 보다 우선적으로 가정환경이나 가정교육이 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제 6 절 청소년의 성역할관·성평등관의 시사점

본 분석은 남녀역할 및 성평등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여 몇 가지 주목 할 만 한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남녀역할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해 초·중·고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사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8.4%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남학생의 긍정적인 생각이 여학생보다 높지만)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 의견이 50%를 넘고 있다. 둘째, 부부간의 집안일 분담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인 78.9%가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주목 할 만 한 결과는 부·모 각각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사 일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한다는 생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아버지만 취업한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가사 일을 함께 나누어야한다는 생각이 73.8%인 반면 대체로 부인이해야 한다는 생각은 15.2%,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는 의견 2.4%에 불과했다. 셋째, 누가 자녀를 돌봐야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가사분담과 같이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84.9%에 이르렀다. 넷째, 집안의 중요한 일도 부부가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85.0%로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했을 때 현재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부모가 대체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학생들은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를 보면 성별에 따른 부부간의 전통적인 역할구분도 앞선 분석과 같이 미약한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생계부양자로서 남편과 가족 돌봄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체의 53.9%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46.1%의 학생들은 여전히 생계부양은 남편의 주 역할이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부인의 주 역할이라는 인식이 잔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맞벌이 부부를 상정하고 이때에도 가족의 생계부양의 책임이 여전히 남편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학생들의 응답은 예상한 것과 같이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62.0%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질문은 자녀를 돌보는데 남녀간의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인데 절대다수인 93.5%가 남편도 아내와 같이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만약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학생들은 부부간의 가족 내 역할분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학생들은 생계부양과 일반적인 성별역할 분담에서 보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 해체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의 부부 공동명의 소유에 대해 절대다수인 8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개인과 가족특성에 따른 차이가 목격되지만 찬성비율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다수가 자산의 부부공동명의 소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보였던 의견과는 조금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생들의 절반이 넘는 53.3%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앞

선 질문들에서 남녀간 성별분업의 해체에 대해 긍정적이던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찬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자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78.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 등 바깥일을 하는데 있어서 남녀간의 능력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서 분석한 전통적 성별분업 해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평등의식과 관련한 설문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생계부양과 가족돌보는 일등에서는 성평등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추상적이고 실체가 모호한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해 남녀역할 및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적으로 남녀역할의식이 미약하고 성평등의식이 높은 학생들의 의식을 학교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분석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남녀역할과 성평등에 관한 의식은 초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이 높아졌다는 추론과 다른 하나는 정규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외부환경과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남녀간의 불평등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식이 높아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했을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첫째, 기존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교육외의 매체(언론과 방송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평등 의식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설문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성역할해체와 성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가족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기성세대(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들의 가치관 또한 전통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가치관이 정규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와 같은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 교육 전에 이미 아동들의 의식에 전통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어린시절에 뿌리내린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적인 순간에) 젠더문제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한 (질 높은) 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04년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율이 28.1%에 그치고 있다는 점(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윤홍식, 2006, 재인용)을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질 높은 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가 단순히 성평등과 관련된 의식뿐만 아니라 해당사회 미래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점(Esping-Andersen, 2005)을 고려한다면 질 높은 보편적 보육시설의 전면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학생들의 성 평등과 관련된 가치관을 생활 속에서 실제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주체의 가치관과 실제 행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위주체의 합리적 행위와 선택이론에 근거한다면 가치관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의 가치관을 실제화 시키는 것은 행위주체에게 합리적 (유형 또는 무형) 보상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만약 행위주체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위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면 행위주체의 가치관이 실제행동과 일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직접적인 실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가사분담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의견이 51.2%로 나타났다(통계청, 1998). 그러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기혼여성 중 단지 27.7%가 부부가 함께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절대 다수인 66.2%는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삼식 외, 2006c5). 이처럼 가치관과 실제행위는 다르다. 그러므로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하는데 첫째는 여성에게는 전통적 성별역할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자신과 가족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주어야한다. 실제로 외국의 예를 보면 일인생계부양자 가구의 빈곤율이 이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에 비해 2~6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데(Liljestrom, 1978; Esping-Andersen, 2002) 이러한 사회적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당위성을 강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동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홍식과 조막래(2006)에 따르면 일인생계부양자가구의 빈곤율은 이인생계부양자가구에 비해 1.5배 높은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반대로) 이인생계부양자가구가 일인생계부양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성별역할의 해체를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단순히 참여의 문제이기보다는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참여가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현실세계에서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남학생들과 관련된 것으로 대다수 남학생들이 자녀 돌봄과 집안일을 부부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현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용비율은 지난 4년 동안 2.0%를 넘지 못했다(윤홍식, 2006). 이는 한국사회가 육아로 대표되는 가족 내 무급노동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했

고, 제도적 지원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실제 행위와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육아휴직제도 내 아버지할당제나 아버지출산휴가제 등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 등에서 시도했던 노동시간의 감축(Fagnani and Letablier, 2004) 등도 득과 실을 따져가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생각이 실제 사회에서 장애 없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대안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사회의 유력한 대안은 남성의 노동력을 가족화하기 위한 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양자에게 자녀양육·가사분담과 노동시장 참여의 장애를 해소·완화하는 것으로 집중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8 장 성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제 1 절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매춘, 미혼모, 낙태, 성폭력 등 사회적인 성의 문제들이 여전히 매스컴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한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학교교육의 미흡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성인잡지, TV, VTR 등 대중매체가 급속하게 발달되면서, 이들은 무분별하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과되지 않은 채 청소년 문화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적 정보 속에 무방비 노출되어 올바른 성지식이나 성태도가 형성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호기심만 높아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오덕자, 2003). 이와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몇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채 공전되고 있는 실상이다. 특히, 어른들의 무분별하고 이중적인 성 의식 등 뿐 아니라, 성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교육풍토로 인한 성교육이나 인성교육의 비체계성과 가정이나 지역사회와의 열악한 잠재적 교육환경 및 공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기능이 무력화되어 왔다(오덕자, 2003).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각종 성범죄의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가해자로서 성 일탈의 행위자가 되기도 하여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이경희, 2000). 청소년의 성문제는 저출산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논의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성문제를 경험한 여성은 생식기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후에 후천성불임증의 원인이 되어 출

산을 저하를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들은 성 지식과 성태도, 성행동 및 성가치관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남녀 학생 모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성태도, 성행동, 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와 학교 성교육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성교육의 효과성을 진단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받았던 성교육의 도움 정도와 성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하도록 한다. 성에 관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녀의 혼전순결을 비롯한 미혼모, 혼전 성관계 등에 관한 태도도 분석한다.

제 2 절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

초·중·고 학생 중 조사 당시 이성교제 중인 비율은 11.4%, 현재는 아니나 이성교제경험이 있는 비율은 35.7%, 이성교제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52.9%로 총 47.1%가 이성교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이성교제경험 실태는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었던 비율은 여학생의 경우 50.1%로 남학생의 4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특성별로 이성교제경험률(현 교제 중과 기 경험 포함)은 남학교의 경우 45.6%, 여학교 53.2%, 남녀공학 45.3%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이성교제경험률은 초등학생 27.8%, 중학생 45.1%, 고등학생 50% 이상(인문고 56.0%, 실업고 62.0%) 순으로 성장과정상 누적경험으로 인하여 점차 높게 나타났다.

〈표 8-1〉 청소년의 이성교제 실태

(단위: %, 명)

구분	현재 교제 중	교제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음	교제한 적이 없음	계 (명)	χ^2
전체	11.4	35.7	52.9	100.0 (11,149)	
지역					
대도시	11.3	35.6	53.1	100.0 (4,901)	8.6†
중소도시	11.4	36.7	51.9	100.0 (4,905)	
농촌(군)	11.9	32.5	55.6	100.0 (1,343)	
성별					
남학생	10.5	33.8	55.7	100.0 (5,792)	39.1***
여학생	12.4	37.7	49.8	100.0 (5,347)	
학교특성					
남학교	9.0	36.6	54.4	100.0 (1,869)	56.3***
여학교	12.1	41.2	46.7	100.0 (2,138)	
남녀공학	11.9	33.8	54.3	100.0 (7,141)	
학교급					
초등학교	7.6	20.2	72.2	100.0 (1,878)	569.1***
중학교	9.1	36.0	55.0	100.0 (4,709)	
인문고등학교	13.6	42.4	44.0	100.0 (3,608)	
실업고등학교	22.4	39.6	37.9	100.0 (954)	
학년구분					
초 5학년	7.0	19.2	73.9	100.0 (1,002)	566.6***
초 6학년	8.2	21.4	70.4	100.0 (875)	
중 1학년	8.0	32.9	59.1	100.0 (1,539)	
중 2학년	8.6	36.9	54.5	100.0 (1,594)	
중 3학년	10.6	38.0	51.4	100.0 (1,576)	
고 1학년	12.0	41.5	46.5	100.0 (1,548)	
고 2학년	17.7	41.6	40.7	100.0 (1,590)	
고 3학년	16.7	42.3	40.9	100.0 (1,424)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제 3 절 성관련 청소년의 가치관

1. 혼전순결에 관한 태도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26.5%, 가급적 지켜야 한다 41.1%로 총 67.6%가 남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 지키지 않을 수 있다 16.6%, 지킬 필요가 없다 4.3%로 20.9%는 남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

여기저 않았다. 나머지 11.5%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지역별로 남성의 혼전순결 유지를 주장하는 학생의 태도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남학생의 59.2%가 지켜야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76.8%로 더 강조하고 있었다. 남성의 혼전순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는 대체적으로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8-2〉 남성의 혼전 순결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함	가급적 지켜야 함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	지킬 필요가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26.5	41.1	16.6	4.3	11.5	100.0 (11,231)	
지역							
대도시	25.8	41.3	17.5	4.7	10.7	100.0 (4,929)	46.0***
중소도시	26.1	40.5	17.0	4.1	12.2	100.0 (4,945)	
농촌(군)	30.6	42.5	11.4	3.5	12.0	100.0 (1,357)	
성별							
남학생	19.4	39.8	19.4	7.1	14.3	100.0 (5,846)	605.3***
여학생	34.4	42.4	13.5	1.3	8.4	100.0 (5,374)	
학교급							
초등학교	36.9	30.1	6.4	1.1	25.4	100.0 (1,892)	1159.3***
중학교	28.5	43.6	12.3	3.8	11.8	100.0 (4,748)	
인문고등학교	20.8	43.3	25.4	6.0	4.5	100.0 (3,630)	
실업고등학교	18.1	42.2	24.4	6.4	8.8	100.0 (962)	
학년구분							
초 5학년	36.5	29.1	5.5	1.4	27.4	100.0 (1,013)	1334.6***
초 6학년	37.5	31.3	7.3	0.8	23.1	100.0 (879)	
중 1학년	34.1	41.1	7.8	2.6	14.4	100.0 (1,555)	
중 2학년	26.7	46.8	11.7	2.8	12.0	100.0 (1,605)	
중 3학년	24.9	42.7	17.1	6.0	9.2	100.0 (1,587)	
고 1학년	22.4	44.3	22.6	4.7	6.0	100.0 (1,561)	
고 2학년	21.3	44.2	23.4	6.2	4.9	100.0 (1,597)	
고 3학년	16.7	40.4	30.0	7.5	5.4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여성의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는 73.8%(반드시 지켜야 34.2%, 가급적 지켜야 39.6%)로 총 73.8%로 남성의 혼전순결 유지 67.6%에 비해 높았다. 반면, 여성의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12.8%, 지킬 필요가 없다 2.3%로 15.1%는 여성의 혼전순결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나머지 13.5%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지역별로 여성의 혼전순결 유지를 주장하는 학생의 태도는 남성혼전순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3〉 여성의 혼전 순결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지켜야 함	가급적 지켜야 함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	지킬 필요가 없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34.2	39.6	12.8	2.3	11.2	100.0 (11,217)	
지역							
대도시	33.4	39.7	13.9	2.5	10.6	100.0 (4,925)	37.2***
중소도시	34.3	38.7	13.0	2.2	11.8	100.0 (4,939)	
농촌(군)	36.4	42.4	8.4	2.0	10.8	100.0 (1,353)	
성별							
남학생	29.5	39.2	13.5	3.2	14.5	100.0 (5,836)	258.2***
여학생	39.3	39.9	12.1	1.3	7.4	100.0 (5,370)	
학교급							
초등학교	36.8	28.9	7.0	1.2	26.1	100.0 (1,882)	882.6***
중학교	36.1	40.3	9.7	2.3	11.6	100.0 (4,747)	
인문고등학교	31.7	43.0	18.9	2.7	3.7	100.0 (3,626)	
실업고등학교	28.8	44.3	16.6	2.7	7.6	100.0 (959)	
학년구분							
초 5학년	36.1	27.9	6.2	1.4	28.3	100.0 (1,010)	992.5***
초 6학년	37.6	30.0	7.8	0.9	23.6	100.0 (872)	
중 1학년	38.4	38.6	7.0	1.7	14.4	100.0 (1,553)	
중 2학년	35.5	41.6	9.4	1.9	11.6	100.0 (1,609)	
중 3학년	34.5	40.5	12.7	3.3	8.9	100.0 (1,586)	
고 1학년	33.4	43.8	15.6	2.2	4.9	100.0 (1,560)	
고 2학년	31.6	44.8	17.0	2.4	4.2	100.0 (1,597)	
고 3학년	27.9	40.9	23.1	3.6	4.4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2. 혼전임신에 관한 태도

혼전임신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낳아야 한다 28.2%,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 49.4%, 낳아서 안 된다 7.5%, 판단 유보 14.9%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혼전임신의 해결방안으로 낳아야 한다는 태도가 낳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에 비해 우세하였다.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다.

지역별로 낳아야 한다는 태도는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태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학생들은 무조건적인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도시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황에 입각한 선택의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은 남녀학생별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무조건적 수용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낳아서 안 된다는 태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장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8-4〉 혼전임신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낳아야 한다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낳아서 안 된다	모르겠다	계 (명)	χ^2
전체	28.2	49.4	7.5	14.9	100.0 (11,232)	
지역						
대도시	27.7	50.6	7.8	13.9	100.0 (4,930)	16.8*
중소도시	28.2	48.9	7.5	15.4	100.0 (4,946)	
농촌(군)	30.5	46.8	6.2	16.5	100.0 (1,356)	
성별						
남학생	28.6	45.4	8.6	17.4	100.0 (5,845)	111.8***
여학생	27.8	53.8	6.2	12.2	100.0 (5,378)	
학교급						
초등학교	25.3	38.2	11.6	24.9	100.0 (1,898)	473.1***
중학교	29.9	45.4	8.1	16.6	100.0 (4,746)	
인문고등학교	27.6	58.8	4.9	8.7	100.0 (3,627)	
실업고등학교	28.2	55.8	5.5	10.5	100.0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25.1	37.3	11.9	25.6	100.0 (1,015)	511.9***
초 6학년	25.6	39.1	11.2	24.0	100.0 (882)	
중 1학년	29.2	42.2	9.7	18.9	100.0 (1,552)	
중 2학년	31.1	44.1	7.8	17.0	100.0 (1,607)	
중 3학년	29.4	49.7	6.9	14.0	100.0 (1,587)	
고 1학년	26.1	57.9	5.5	10.5	100.0 (1,558)	
고 2학년	29.0	57.9	4.9	8.2	100.0 (1,598)	
고 3학년	28.1	58.8	4.7	8.4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제 4절 성교육 및 성상담 실태

1. 학교 성교육 실태

가. 학교에서의 성교육 경험

초(5~6학년)·중·고 학생 중 성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은 1.7%에 불과하였다. 성교육 내용별로 교육을 받았던 학생의 비율을 보면, 생식기구조·이차성징관련 교육의 경우 87.4%, 임신·출산관련 교육 74.5%,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68.2%, 피임방법 56.6%, 성병·에이즈 52.5%, 미혼모·인공유산 25.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패턴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학생별도 성교육 경험이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교 성교육의 체계가 지역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만, 생식기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교육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병·에이즈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생식기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등의 내용이 여성에게 보다 필요하여 관심이 집중되거나 학교교과목 편성체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급별로는 상급학교일수록 내용별 성교육 경험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생간에 성교육 경험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교육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폭이 특히 큰 성교육 내용으로는 피임방법, 성병·에이즈, 이성교제·성관계·혼전순결 등으로 나타났다. 생식기구조·이차

성징과 임신·출산에 대한 초등학생의 교육 경험정도는 72.0%와 48.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는 모든 학교급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학교급별 차이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8-5〉 학생이 경험한 성교육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이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결	피임 방법	임신· 출산	미혼모· 인공유산	성병· 에이즈	기타	무경험	(계)
전체	87.4	68.2	56.6	74.5	25.4	52.5	8.8	1.7	(11,245)
지역									
대도시	88.6	67.3	55.9	75.5	28.4	53.0	8.0	1.9	(4,936)
중소도시	86.7	69.2	57.1	73.3	22.9	50.5	9.4	1.4	(4,949)
농촌(군)	85.8	67.9	57.3	75.0	24.0	58.5	8.9	1.5	(1,360)
성별									
남학생	84.1	65.9	56.7	71.8	24.2	55.2	11.4	2.0	(5,854)
여학생	91.1	70.9	56.6	77.5	26.8	49.7	5.9	1.3	(5,380)
학교급									
초등학교	72.0	31.1	4.1	48.7	3.1	13.8	18.3	6.5	(1,900)
중학교	90.2	74.5	55.1	72.2	22.6	51.8	7.7	0.8	(4,753)
인문고등학교	93.4	78.7	84.3	90.4	40.9	70.5	5.8	0.4	(3,632)
실업고등학교	81.8	71.2	63.5	76.3	25.5	64.9	6.0	1.5	(959)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나. 학교 성교육의 도움 정도

학교 성교육을 경험한 학생들 중 성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7.9% (매우 도움 9.8% 포함)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23.6%(전혀 도움 안됨 8.5%)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가 보통이라는 학생은 38.4%이었다.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중 약 1/4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질적 수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표 8-6〉 학생의 성교육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도움이 되었음	약간 도움이 되었음	보통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	전혀 도 움이 되지 않았음	계 (명)	χ^2
전체	9.8	28.1	38.4	15.1	8.5	100.0 (10,985)	
지역							
대도시	9.0	28.0	38.4	16.0	8.6	100.0 (4,813)	27.8**
중소도시	10.1	27.5	38.4	15.1	8.8	100.0 (4,852)	
농촌(군)	12.0	30.5	38.4	12.2	6.9	100.0 (1,330)	
성별							
남학생	9.8	28.5	36.1	14.9	10.7	100.0 (5,690)	83.5***
여학생	9.9	27.7	40.9	15.4	6.2	100.0 (5,296)	
학교구분							
초등학교	12.6	26.4	41.8	11.3	7.9	100.0 (1,756)	158.4***
중학교	9.7	26.5	42.0	13.6	8.2	100.0 (4,691)	
인문고등학교	8.9	30.5	32.3	19.3	9.0	100.0 (3,608)	
실업고등학교	9.1	30.4	37.6	13.8	9.0	100.0 (940)	
학교특성							
남학교	9.5	30.3	33.4	15.7	11.1	100.0 (1,863)	75.2***
여학교	7.8	30.1	37.8	17.6	6.8	100.0 (2,126)	
남녀공학	10.6	27.0	39.9	14.2	8.3	100.0 (7,006)	
학년구분							
초 5학년	13.4	27.2	41.6	10.2	7.6	100.0 (891)	240.8***
초 6학년	11.9	25.6	42.0	12.5	8.1	100.0 (867)	
중 1학년	11.7	27.4	44.6	10.5	5.8	100.0 (1,542)	
중 2학년	9.1	26.6	41.4	13.9	9.0	100.0 (1,577)	
중 3학년	8.2	25.5	40.1	16.4	9.9	100.0 (1,573)	
고 1학년	9.4	32.7	35.4	14.5	7.9	100.0 (1,547)	
고 2학년	9.6	30.0	33.6	18.4	8.3	100.0 (1,582)	
고 3학년	7.7	28.5	30.9	21.9	11.0	100.0 (1,419)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

지역별로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비율은 대도시에서 24.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23.9%, 농촌 19.1% 순이었다. 오히려 도시지역에서 성교육 도움정도가 낮았다는 인식은 도시지역 학생들의 성지식이 학교교육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한편, 도시에서 진학 등 위주로의 교육 때문에 성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25.6%로 여학생의 2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성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교육 내용이 다소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학생들이 느끼는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미흡할 수 있으며, 고학년층의 성장 정도에 비해 성교육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2. 학교교육 이외 성관련 정보 경로

학생들이 접근하는 학교 이외 성정보 매체로는 인터넷 21.2%, 친구·선후배 20.1%, 부모·친인척 10.8%, TV 9.2%, 잡지·만화 1.8%, 비디오와 사회단체 각각 1.6%, 형제자매 1.1%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인터넷, TV, 잡지·만화, 민간단체, 비디오)는 35%로 인적 정보원(친구·선후배, 부모, 형제자매) 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교육 이외 다른 매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학생의 성관련 정보매체는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차이점은 농촌학생의 경우 부모·친인척, TV, 사회(종교)단체 등 접근매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학생의 성정보 접근매체로는 인터넷, 친구·선후배, 잡지·만화 등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도시 학생의 경우에는 비디오의 접근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접근매체들은 대도시와 농촌의 중간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학교교육 이외 다른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의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남녀 학생별로 성관련 접근정보매체의 유형이나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선후배 24.1%, 부모·친인척 16.6%, TV 10.9%, 인터넷 9.1% 순이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32.3%, 친구·선후배 16.5%, TV 7.7%, 부모·친인척 5.5%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인적 정보매체에 상대적으로 더 접근하는데 반해, 남학생은 물질 매체에 상대적으로 더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학교교육 이외 다른 성관련 정보매체에 접근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남학생 25.7%로 여학생의 27.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다소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표 8-7〉 학생의 성교육 이외 성에 대한 정보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형제 자매	친구 선후배	비디오 (CD, DVD)	인터넷 (동영상)	TV	잡지, 만화	사회 종교 단체	기타	없다	계 (명)	χ^2
전체	10.8	1.1	20.1	1.6	21.2	9.2	1.8	1.6	6.1	26.5	100.0 (11,223)	
지역												
대도시	11.1	0.9	20.4	1.5	22.1	9.3	1.8	1.3	5.9	25.7	100.0 (4,933)	37.5**
중소도시	10.3	1.4	20.4	1.9	20.8	9.0	1.8	1.6	6.1	26.8	100.0 (4,942)	
농촌(군)	11.6	1.2	18.0	1.1	19.2	9.6	1.3	2.4	7.1	28.5	100.0 (1,358)	
성별												
남학생	5.5	0.8	16.5	1.9	32.3	7.7	1.0	1.5	7.1	25.7	100.0 (5,849)	1218.5***
여학생	16.6	1.5	24.1	1.3	9.1	10.9	2.5	1.6	5.1	27.3	100.0 (5,375)	
학교급												
초등학교	24.6	1.1	4.7	1.1	2.7	6.2	2.7	1.2	9.2	46.7	100.0 (1,900)	1972.9***
중학교	10.2	1.3	19.5	1.5	19.4	8.5	1.5	1.7	6.8	29.7	100.0 (4,747)	
인문계고등학교	5.7	1.1	27.2	1.9	31.0	11.2	1.6	1.5	3.7	15.1	100.0 (3,627)	
실업계고등학교	5.6	0.9	26.8	2.2	29.5	11.7	1.6	1.8	6.1	13.9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27.2	1.0	3.3	1.5	1.9	6.1	3.7	1.6	9.5	44.2	100.0 (1,018)	2228.3***
초 6학년	21.6	1.0	6.4	0.6	3.7	6.2	1.5	0.7	8.7	49.6	100.0 (881)	
중 1학년	14.4	1.6	15.1	1.2	13.5	6.5	1.7	1.8	7.6	36.5	100.0 (1,553)	
중 2학년	9.8	1.1	19.1	1.7	19.4	9.0	1.4	2.1	6.4	30.0	100.0 (1,606)	
중 3학년	6.5	1.1	24.1	1.4	25.2	9.9	1.4	1.3	6.3	22.8	100.0 (1,588)	
고 1학년	6.3	1.0	27.0	1.7	28.2	11.7	1.5	1.3	4.5	16.6	100.0 (1,562)	
고 2학년	5.4	1.3	26.1	2.0	33.0	10.5	1.5	1.8	3.9	14.5	100.0 (1,595)	
고 3학년	5.3	1.0	28.3	2.2	30.8	11.7	1.9	1.4	4.1	13.3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접근하는 성관련 정보매체로 부모·친인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친구·선후배, 인터넷, TV 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정보매체의 접근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만화·잡지의 접근도가 초등학생 5학년의 경우 3.7%로 다른 학교급·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이는 성장하면서 친구·선후배와의 활동이 증가하고, 인터넷과 TV에 대한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육 이와 다른 정보매체에 전혀 접근한 경험이 없는 비율도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경험 비율은 초등학생(5·6학년) 46.7%, 중학생 29.7%, 인문계고등학생 15.1%, 실업계고등학생 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성 상담 실태

학생들이 본인의 성문제와 관련한 성상담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친구·선후배 32.8%, 부모 21.8%, 스스로 해결 18.1%, 인터넷(PC통신) 10.5%, 형제자매 3.0%, 상담전문가 2.3%, 교사 1.4%, 관련 책자 1.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상담전문가를 통한 상담 비율은 아주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지역별로 학생 성상담원 유형의 분포는 전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농촌, 중소도시일수록 부모, 형제자매, 교사, 관련 책자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 등 도시 학생일수록 상담원으로 친구·선후배와 인터넷(PC통신)의 비율이 높으며, 스스로 해결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학생별로 성상담원은 남학생의 경우 친구·선후배 28.6%, 스스로 해결 24.4%, 인터넷(pc통신) 14.5%, 부모 13.6%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선후배 37.3%, 부모 30.6%, 스스로 해결 11.5%, 인터넷(pc통신) 6.4%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친구·선후배가 중요한 성상담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성문제 상담자로 부모의 비중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친구·선후배나 인터넷(pc통신)의 비중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성관련 상담원으로서 부모, 교사, 책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친구·선후배, 인터넷(PC통신) 및 형제자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학년일수록 스스로의 해결 비율도 상대적으로 점차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성관련 상담원으로서 부모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스스로 해결, 친구·선후배 순이었다. 반면, 고등학교 상급생의 경우에는 친구·선후배, 스스로 해결, 인터넷(PC), 부모 순으로 성상담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8-8〉 학생의 성문제 상담 대상자

(단위: %, 명)

구분	부모	형제 자매	교사	상담 전문가	친구 선배	관련 책자	인터 넷(pc 통신)	스스 로	기타	미해 결	계 (명)	성문제 경험
전체	21.8	3.0	1.4	2.3	32.8	1.8	10.5	18.1	5.0	3.2	100.0 (5,907)	52.5
지역($\chi^2=34.2^*$)												
대도시	21.0	2.7	1.2	1.8	32.9	1.6	10.9	19.2	5.4	3.3	100.0 (2,518)	51.0
중소도시	21.5	3.0	1.5	2.7	34.0	1.8	10.3	17.5	4.5	3.2	100.0 (2,629)	53.1
농촌(군)	25.6	4.1	1.5	2.0	28.4	3.0	10.0	17.2	5.5	2.6	100.0 (757)	55.7
성별($\chi^2=548.8^{***}$)												
남학생	13.6	2.3	1.6	2.9	28.6	1.5	14.5	24.4	7.3	3.4	100.0 (3,044)	52.0
여학생	30.6	3.7	1.0	1.6	37.3	2.3	6.4	11.5	2.6	3.0	100.0 (2,859)	53.1
학교구분($\chi^2=1115.9^{***}$)												
초등학교	57.9	2.4	2.4	1.9	8.7	4.0	2.6	10.0	7.5	2.5	100.0 (877)	46.1
중학교	21.1	2.7	1.5	2.5	31.9	1.7	11.2	18.6	5.7	3.0	100.0 (2,293)	48.2
인문고등학교	11.2	3.4	0.6	1.4	40.6	1.3	12.8	21.6	3.1	4.0	100.0 (2,118)	58.3
실업고등학교	9.5	3.1	1.6	4.7	43.9	1.3	12.0	16.3	5.8	1.8	100.0 (619)	64.4
학년구분($\chi^2=1210.8^{***}$)												
초 5학년	63.0	1.5	2.3	2.1	7.5	4.4	1.3	8.8	7.7	1.5	100.0 (478)	46.9
초 6학년	52.1	3.5	2.5	1.8	10.1	3.5	4.0	11.6	7.3	3.5	100.0 (397)	45.0
중 1학년	28.2	3.3	1.5	2.4	28.6	2.1	6.8	16.5	6.8	3.9	100.0 (752)	48.3
중 2학년	20.2	2.5	1.8	1.6	32.3	1.8	11.0	20.3	5.9	2.6	100.0 (728)	45.2
중 3학년	15.3	2.5	1.5	3.4	34.6	1.3	15.3	18.9	4.5	2.6	100.0 (815)	51.3
고 1학년	12.9	3.1	0.9	3.7	36.6	1.4	11.9	20.8	4.5	4.2	100.0 (874)	56.0
고 2학년	11.5	2.8	0.6	1.6	42.2	1.2	12.4	20.7	3.1	3.8	100.0 (962)	60.2
고 3학년	8.1	4.2	0.9	1.2	45.1	1.3	13.5	19.7	3.5	2.4	100.0 (898)	62.7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제 5 절 청소년의 성관련 지식수준

1. 성교육 내용별 지식수준

가. 피임방법에 관한 지식

피임방법에 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매우 잘 안다 10.0%, 아는 편 48.7%, 모르는 편 24.0%, 전혀 모른다 17.2%로 나타났다. 즉, 피임방법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인지도는 58.7%로 절반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

〈표 8-9〉 피임방법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계 (명)	χ^2
전체	10.0	48.7	24.0	17.2	100.0 (11,180)	
지역						
대도시	10.6	49.7	22.6	17.1	100.0 (4,911)	16.3*
중소도시	9.8	48.5	24.6	17.1	100.0 (4,929)	
농촌(군)	8.9	46.0	26.8	18.2	100.0 (1,352)	
성별						
남학생	13.2	46.9	21.6	18.3	100.0 (5,820)	167.8***
여학생	6.6	50.8	26.6	16.1	100.0 (5,361)	
학교급						
초등학교	2.7	15.5	30.3	51.5	100.0 (1,880)	2706.4***
중학교	9.7	47.4	27.2	15.8	100.0 (4,724)	
인문고등학교	13.4	67.2	16.5	2.9	100.0 (3,629)	
실업고등학교	13.4	51.0	24.4	11.2	100.0 (958)	
학년구분						
초 5학년	2.9	13.5	31.9	51.7	100.0 (1,007)	2654.9***
초 6학년	2.5	17.8	28.5	51.2	100.0 (873)	
중 1학년	10.2	48.9	25.6	15.3	100.0 (1,544)	
중 2학년	8.7	43.3	29.4	18.6	100.0 (1,601)	
중 3학년	10.1	50.0	26.5	13.4	100.0 (1,580)	
고 1학년	13.3	63.1	18.3	5.2	100.0 (1,560)	
고 2학년	13.4	65.5	16.8	4.3	100.0 (1,599)	
고 3학년	13.5	62.5	19.4	4.5	100.0 (1,43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학생의 피임방법 인지도는 차이가 있다. 대도시 학생의 인지도는 60.3%로 중소도시 학생의 58.3%, 농촌 학생의 5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정도도 대도시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피임방법 인지도는 남학생의 경우 60.1%(매우 잘 앎 13.2%)로 여학생의 57.4%(매우 잘 앎 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정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동일 코호트의 경우 성지식 수준은 성장하면서 누적적으로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대상은 서로 다른 여러 코호트가 포함된 관계로 고학년이라고 해서 성지식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로는 학년간 차이 이외 학교마다 교과정 편성, 교과서 선택, 학교방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하 다른 성관련 지식 수준의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학교급별로 피임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성장과정 또는 생애경로 단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문고 학생의 인지도가 실업고 학생의 인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피임방법 관련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지식수준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매우 잘 안다 8.8%, 아는 편 33.8%, 모르는 편 32.0%, 전혀 모른다 25.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42.6%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인공유산 부작용 인지도는 남학생의 경우 41.1%(매우 잘앎 9.8%)로 여학생의 44.3%(매우 잘앎 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인공유산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는 성장과정 또는 생애경로 단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문고 학생의 인지도가 실업고 학생의 인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인공유산 부작용 관련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0〉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앎	아는 편임	모르는 편임	전혀 모름	계 (명)	χ^2
전체	8.8	33.8	32.0	25.4	100.0 (11,157)	
지역						
대도시	9.6	34.1	31.7	24.6	100.0 (4,902)	11.0†
중소도시	8.3	33.6	32.0	26.1	100.0 (4,914)	
농촌(군)	7.5	33.6	32.8	26.1	100.0 (1,350)	
성별						
남학생	9.8	31.3	32.1	26.8	100.0 (5,799)	46.7***
여학생	7.7	36.6	31.9	23.9	100.0 (5,357)	
학교급						
초등학교	5.8	19.3	26.2	48.8	100.0 (1,872)	974.5***
중학교	8.3	30.5	34.9	26.3	100.0 (4,722)	
인문고등학교	11.0	45.5	30.2	13.4	100.0 (3,617)	
실업고등학교	8.5	34.9	35.4	21.3	100.0 (955)	
학년구분						
초 5학년	6.1	19.0	25.4	49.5	100.0 (1,002)	988.8***
초 6학년	5.4	19.6	27.1	47.9	100.0 (871)	
중 1학년	7.8	26.7	36.6	28.8	100.0 (1,543)	
중 2학년	7.5	28.4	35.7	28.4	100.0 (1,601)	
중 3학년	9.7	36.2	32.6	21.6	100.0 (1,579)	
고 1학년	9.8	41.8	34.2	14.2	100.0 (1,555)	
고 2학년	11.3	45.4	28.5	14.9	100.0 (1,594)	
고 3학년	10.4	42.5	31.2	16.0	100.0 (1,425)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다. 성병·에이즈 예방방법에 관한 지식수준

성병·에이즈 예방방법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매우 잘 안다 9.0%, 아는 편 37.3%, 모르는 편 33.0%, 전혀 모른다 20.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46.3%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 성병·에이즈 예방방법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는 농촌 50.6%, 대도시 46.4%, 중소도시 4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관련 성교육이 농촌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성별로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지도는 남학생의 경

우 52.0%로 절반 수준을 다소 상회하였으며, 여학생의 40.1%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급별로 성병·에이즈 예방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성장과정 또는 생애경로 단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문고 학생의 인지도가 실업고 학생의 인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관련 학생의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1〉 성병, 에이즈 예방 방법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알	아는 편임	모르는 편임	전혀 모름	계 (명)	χ^2
전체	9.0	37.3	33.0	20.7	100.0 (11,120)	
지역						
대도시	9.5	36.9	33.0	20.5	100.0 (4,882)	18.9**
중소도시	8.3	36.5	34.0	21.2	100.0 (4,901)	
농촌(군)	9.1	41.5	29.7	19.7	100.0 (1,348)	
성별						
남학생	12.2	39.8	28.6	19.5	100.0 (5,780)	242.3***
여학생	5.5	34.6	37.9	22.0	100.0 (5,339)	
학교급						
초등학교	3.7	12.8	33.5	50.0	100.0 (1,859)	1710.5***
중학교	9.1	34.4	36.0	20.5	100.0 (4,710)	
인문고등학교	10.8	51.6	29.7	8.0	100.0 (3,608)	
실업고등학교	11.9	45.0	30.5	12.7	100.0 (952)	
학년구분						
초 5학년	3.2	12.0	31.4	53.4	100.0 (993)	1782.2***
초 6학년	4.2	13.7	35.9	46.2	100.0 (866)	
중 1학년	8.3	29.5	37.7	24.5	100.0 (1,540)	
중 2학년	9.4	33.6	35.5	21.5	100.0 (1,599)	
중 3학년	9.7	40.1	34.7	15.5	100.0 (1,572)	
고 1학년	9.3	48.5	31.5	10.8	100.0 (1,550)	
고 2학년	12.2	50.0	29.0	8.8	100.0 (1,591)	
고 3학년	11.5	52.2	29.0	7.3	100.0 (1,420)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라.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관한 지식수준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매우 잘 안다 17.5%, 아는 편 63.1%, 모르는 편 14.4%, 전혀 모른다 5.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80.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8-12〉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앎	아는 편임	모르는 편임	전혀 모름	계 (명)	χ^2
전체	17.5	63.1	14.4	5.0	100.0 (11,081)	
지역						
대도시	17.8	63.5	14.1	4.6	100.0 (4,869)	10.5
중소도시	17.7	62.7	14.4	5.2	100.0 (4,882)	
농촌(군)	15.4	62.8	15.7	6.0	100.0 (1,340)	
성별						
남학생	21.8	58.9	13.1	6.1	100.0 (5,758)	205.2***
여학생	12.7	67.6	15.8	3.9	100.0 (5,319)	
학교급						
초등학교	6.6	46.6	29.7	17.1	100.0 (1,845)	1351.9***
중학교	17.5	64.9	14.0	3.6	100.0 (4,695)	
인문고등학교	22.4	68.5	8.1	1.0	100.0 (3,601)	
실업고등학교	19.6	65.8	10.7	3.9	100.0 (950)	
학년구분						
초 5학년	7.4	42.3	31.5	18.8	100.0 (988)	1414.3***
초 6학년	5.7	51.5	27.7	15.2	100.0 (857)	
중 1학년	15.7	62.0	17.8	4.4	100.0 (1,533)	
중 2학년	17.1	64.7	14.3	4.0	100.0 (1,594)	
중 3학년	19.7	67.9	9.9	2.6	100.0 (1,568)	
고 1학년	20.3	69.0	9.2	1.5	100.0 (1,546)	
고 2학년	21.4	68.4	8.4	1.8	100.0 (1,587)	
고 3학년	23.9	66.1	8.4	1.6	100.0 (1,418)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의 인지도가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로 남녀의 신체적 구조 인지도는 남학생의 경우 80.7%로 여학생의 80.3%와 대동소이하나, 매우 잘 아는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21.8%로 여학생의 12.7%의 두 배에 이르고 있었다. 즉, 다른 성교육 내용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신체적 구조 역시 남학생의 지식수준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학교급별로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인지도는 성장과정 또는 생애경로 단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문고 학생의 인지도가 실업고

학생의 인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남녀의 신체적 구조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 임신·출산과정에 관한 지식수준

임신·출산과정에 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매우 잘 안다 17.9%, 아는 편 59.8%, 모르는 편 16.0%, 전혀 모른다 6.3%이었다. 전체적으로 인지도는 77.7%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3〉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청소년의 지식수준

(단위: %, 명)

구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임	모르는 편임	전혀 모름	계 (명)	χ^2
전체	17.9	59.8	16.0	6.3	100.0 (11,080)	
지역						
대도시	18.6	60.6	14.7	6.0	100.0 (4,868)	27.8***
중소도시	18.1	58.7	17.0	6.1	100.0 (4,874)	
농촌(군)	14.3	60.6	17.2	7.8	100.0 (1,338)	
성별						
남학생	19.0	54.7	18.2	8.2	100.0 (5,757)	164.7***
여학생	16.7	65.3	13.7	4.2	100.0 (5,314)	
학교급						
초등학교	10.2	41.2	28.7	19.9	100.0 (1,846)	1284.0***
중학교	17.2	60.2	17.2	5.4	100.0 (4,687)	
인문고등학교	22.4	67.9	8.8	0.9	100.0 (3,596)	
실업고등학교	19.2	63.1	13.2	4.4	100.0 (951)	
학년구분						
초 5학년	10.2	39.0	28.9	21.8	100.0 (986)	1383.4***
초 6학년	10.1	43.7	28.5	17.7	100.0 (860)	
중 1학년	15.4	57.1	20.7	6.8	100.0 (1,533)	
중 2학년	14.9	58.6	20.2	6.3	100.0 (1,587)	
중 3학년	21.1	64.9	10.7	3.2	100.0 (1,566)	
고 1학년	21.4	67.6	9.7	1.4	100.0 (1,545)	
고 2학년	20.6	68.1	9.5	1.8	100.0 (1,588)	
고 3학년	23.5	64.8	9.8	1.8	100.0 (1,413)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지역별로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는 대도시 79.2%, 중소도시 76.8%, 농촌 74.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임신·출산과정 인지도는 남학생의 경우 73.7%로 여학생의 88.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다른 성교육 내용과는 달리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매우 잘 아는 비율만 감안한다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임신·출산과정에 대한 인지도는 성장과정 또는 생애경로 단계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문고 학생의 인지도가 실업고 학생의 인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임신·출산과정 관련 학생의 인지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성관련 청소년의 지식수준 종합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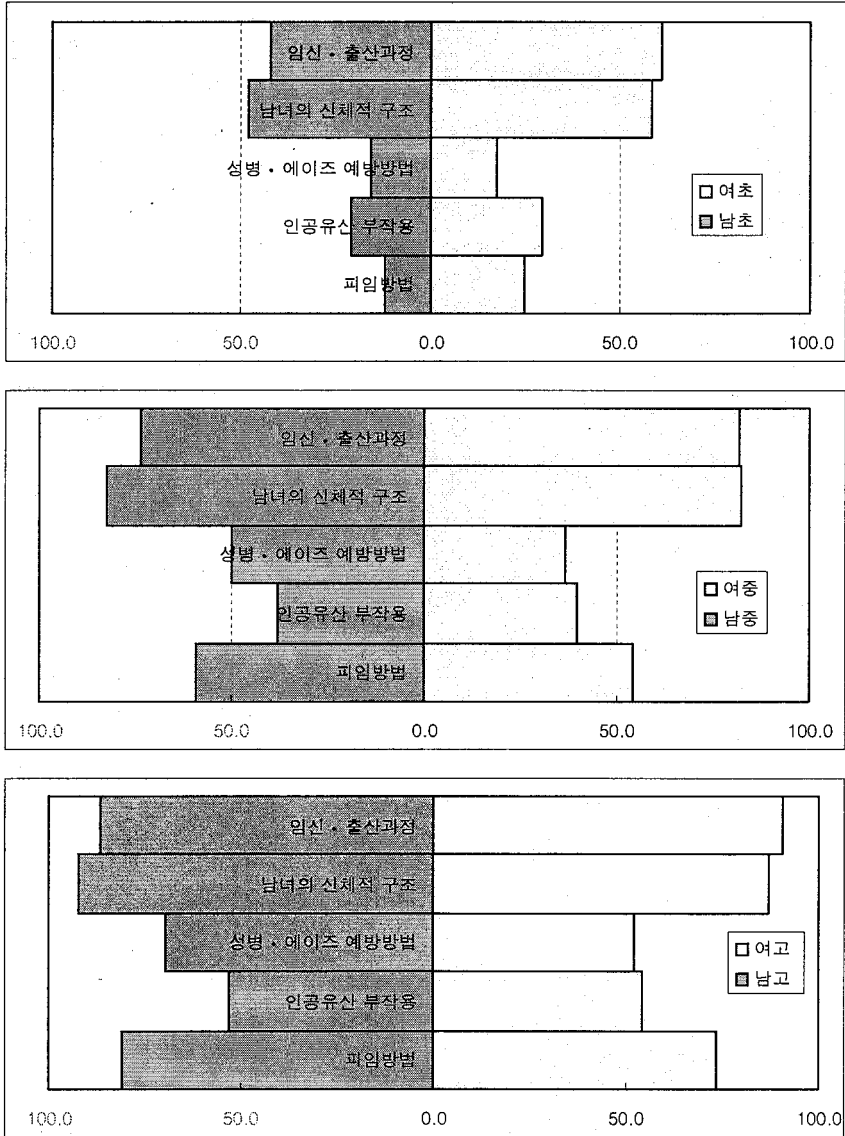
지금까지 일부 성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을 분석하였다. 학생의 인지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남녀의 신체구조의 경우 80.6%, 임신·출산과정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 4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문제와 관련된 성교육 내용(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는 성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미흡은 동 문제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남녀신체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등 아주 기초적인 성교육 내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도 80% 수준에 불과하며, 설사 가장 높은 학년층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90% 수준에 불과하였다. 피임방법에 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60% 미만이며, 초고령인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에도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성교육 내용관련 지식수준은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8-14〉 청소년의 성관련 지식수준 종합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긍정(관성비율)												
피임방법	58.7	12.2	24.6	18.2	59.2	54.6	57.1	80.8	73.4	77.2		
인공유산 부작용	42.6	20.8	29.5	25.0	37.8	39.9	38.8	52.9	54.5	53.7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46.3	15.8	17.3	16.5	49.5	37.0	43.6	69.4	52.4	61.1		
남녀의 신체적 구조	80.6	48.1	58.5	53.1	82.5	82.3	82.4	92.1	87.1	89.7		
임신·출산과정	77.7	42.1	61.1	51.4	73.5	81.7	77.4	86.6	90.9	88.7		
평균점수												
피임방법	2.5	1.6	1.8	1.7	2.6	2.5	2.5	2.9	2.8	2.9		
인공유산 부작용	2.3	1.7	1.9	1.8	2.2	2.2	2.2	2.5	2.5	2.5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2.4	1.7	1.7	1.7	2.4	2.2	2.3	2.8	2.5	2.6		
남녀의 신체적 구조	3.0	2.3	2.5	2.4	3.0	2.9	23.0	3.2	3.0	3.1		
임신·출산과정	2.9	2.2	2.6	2.4	2.9	2.9	2.9	3.1	3.1	3.1		

[그림 8-1] 학교급별 성관련 지식수준의 남녀 차이



제 6 절 출산관련 학교교육 실태

이 절에서는 특별히 출산관련 교육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된 분석 내용은 학교에서 출산에 관해 배웠던 과목과 수업 후 생각 변화에 대한 것이다.

1. 학교에서 출산내용 담당 과목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출산관련 내용을 배웠던 교과목으로는 기술·가정(초등학생의 경우 실과) 62.0%, 특별활동·재량활동(기타) 31.4%, 과학 24.2%, 도덕 5.8% 순으로 나타났다. 국어(1.1%), 사회(1.8%), 외국어(영어)(0.7%) 등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다. 한편, 이들 학생 중 7.0%는 출산에 관해 학교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출산에 관한 학습은 특정 교과목에 한정되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그 이유로 지역에 따른 교과목 편성에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녀학생별로도 그러한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도덕과목이나 과학과목에서 배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술·가정(실과)과목과 특별활동·재량활동(기타) 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학습대상을 여성에게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교급·학년별로는 학생들이 출산에 관한 수업을 받았던 교과목의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초등학교 5~6학년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은 특별활동·재량활동이나 기타 과목에 보다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실과와 도덕이 5% 전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초등학생의 비율도 5학년생의 경우 25.8%, 6학년생의 경우 15.9%로 비교적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1학년생의 경우 기술·가정에서 배운 비율이 87.4%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별활동·재량활동이 15.6%로 높았다. 중학교 2~3학년생의 경우에도 출산수업 과목으로 기술·가정의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나, 1학년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2~3학년생의 경우 1학년생에 비해 특별활동·재량활동에서의 출산관련 수업의 비율이 3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8-15〉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 담당 과목(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타 (실패)	외국어 (영어)	특별 재량	기타	무경험	(계)
전체	1.1	5.8	1.8	24.2	62.0	0.7	31.4	15.3	7.0	(11,229)
지역										
대도시	1.2	6.0	1.7	23.5	62.4	0.6	29.9	16.7	6.6	(4,932)
중소도시	1.0	5.1	1.8	25.7	63.1	0.9	32.6	13.1	7.4	(4,940)
농촌(군)	1.2	7.1	2.0	21.9	57.0	0.5	32.1	18.1	6.9	(1,357)
성별										
남학생	1.7	7.5	2.2	24.7	59.8	1.1	28.3	16.4	7.5	(5,845)
여학생	0.5	3.8	1.3	23.7	64.5	0.2	34.6	14.0	6.5	(5,374)
학교급										
초등학교	1.6	4.1	2.1	2.2	5.3	0.6	37.4	41.0	21.2	(1,890)
중학교	1.0	5.7	1.2	17.6	69.8	0.6	30.1	12.0	6.2	(4,748)
인문고등학교	1.2	5.8	2.5	43.3	83.8	0.8	28.5	7.2	0.9	(3,629)
실업고등학교	0.5	9.3	1.8	28.3	53.1	0.8	36.2	11.0	6.1	(961)
학년구분										
초 5학년	1.7	3.9	2.2	2.1	5.6	0.5	36.9	36.6	25.8	(1,017)
초 6학년	1.6	4.5	2.1	2.3	4.9	0.8	38.0	46.1	15.9	(874)
중 1학년	1.1	6.0	0.8	2.6	87.4	0.7	15.6	8.0	4.8	(1,556)
중 2학년	1.0	5.2	0.8	5.5	62.9	0.4	37.0	16.2	9.2	(1,604)
중 3학년	0.9	5.8	2.0	44.7	59.6	0.7	37.5	11.8	4.5	(1,588)
고 1학년	0.6	4.3	1.7	36.4	81.0	0.8	31.7	7.4	1.3	(1,561)
고 2학년	0.8	6.7	2.0	40.6	76.2	0.4	30.1	9.8	2.1	(1,599)
고 3학년	1.7	8.7	3.3	43.6	74.5	1.3	28.4	6.8	2.5	(1,433)

주: 무응답 및 비례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중학생3학년부터 고등학생의 경우 고학년일수록 과학과목에서의 출산관련 수업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별활동·재량활동에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생은 기술·가정(실패)과 특별활동·재량활동이 출산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과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의 과정에서는 이들 교과목 이외에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출산관련 수업 후 생각 변화

학교에서 출산관련 교육 후 학생들이 느꼈던 점을 살펴보면, 아는 내용으로 지루 12.9%, 생명의 탄생과정이 신기하고 재미 34.7%, 출산·육아에 대한 걱정 17.1%, 출산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중요함을 인식 5.4%,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 23.2%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출산관련 학교교육 후 학생의 부정적인 반응은 53.2%로 결코 적지 않았다. 이 중에는 교육 후 출산·육아에 대해 오히려 걱정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관련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방법, 교자재 등 개발과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접근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생 집단별 출산교육의 반응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별로 학생의 출산교육관련 반응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무의하였다. 성별로 남학생의 반응은 지루하다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41.5%로 여학생의 3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가나 사회적으로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비율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수준이나 차이는 미세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반응은 신기하고 재미있다거나 출산·육아를 걱정하는 계기가 된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출산관련 학교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다거나 출산·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기하고 재미있다거나 국가·사회적으로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교육 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비율도 대체적으로 고학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상급학교·고학년층일수록 출산관련 학교교육은 지루하거나 오히려 걱정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국가·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8-16〉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생각 변화

(단위: %, 명)

구분	출산에 관한 내용 학습 후 생각 변화 ¹⁾						계(명)
	아는 내용으로 지루	신기하고 재미	출산·육아 걱정	국가·사회적 중요성 인식	아무런 생각 없음	기타	
전체	12.9	34.7	17.1	5.4	23.2	6.6	100.0 (10,349)
지역($\chi^2=15.6$)							
대도시	12.6	34.4	18.2	5.2	23.3	6.3	100.0 (4,568)
중소도시	13.3	34.3	16.4	5.6	23.8	6.6	100.0 (4,529)
농촌(군)	13.1	37.3	15.9	5.3	21.0	7.4	100.0 (1,252)
성별($\chi^2=415.6^{***}$)							
남학생	16.1	33.4	10.9	6.9	25.4	7.2	100.0 (5,344)
여학생	9.6	36.2	23.7	3.8	21.0	5.8	100.0 (4,996)
학교급($\chi^2=548.3^{***}$)							
초등학교	4.4	38.5	10.4	9.4	26.9	10.2	100.0 (1,445)
중학교	11.2	35.9	13.6	6.1	26.5	6.7	100.0 (4,416)
인문고등학교	17.8	30.8	24.1	3.1	19.0	5.2	100.0 (3,590)
실업고등학교	15.6	38.2	17.3	4.9	18.6	5.4	100.0 (896)
학년구분($\chi^2=610.5^{***}$)							
초 5학년	4.2	40.9	11.7	10.1	24.1	8.9	100.0 (733)
초 6학년	4.8	36.1	9.1	8.8	29.7	11.6	100.0 (715)
중 1학년	8.8	38.8	12.3	7.5	25.9	6.8	100.0 (1,458)
중 2학년	10.5	35.0	13.1	6.8	27.6	7.1	100.0 (1,447)
중 3학년	14.3	34.1	15.5	4.1	26.0	6.1	100.0 (1,512)
고 1학년	14.8	33.4	24.7	4.2	18.0	4.9	100.0 (1,534)
고 2학년	18.2	31.5	23.8	3.4	17.6	5.6	100.0 (1,558)
고 3학년	19.4	32.0	19.3	2.6	21.4	5.3	100.0 (1,395)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 2) 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② 생명의 탄생과 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③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④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⑤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⑥ 기타.

제 7 절 시사점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 중 47.1%가 이성교제를 경험하였다. 물론 상급학교·

고학년일수록 그 정도는 높아진다. 성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발달 과정상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에는 자칫 반인간적으로나 반사회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오덕자, 2003).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남학생의 59.2%, 여학생의 76.8%가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 남학생의 68.7%, 여학생의 79.2%가 지켜야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남성의 혼전순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낮아지는 반면, 여성의 혼전순결이 지켜져야 한다는 태도는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높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기에 이미 순결에 대한 성별에 따라 따른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전순결이나 혼외정사에 더 관대하고, 남성 자신은 혼전 성관계가 괜찮지만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이중적 성관념 내지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이 보편적이다(권오주 1989: 박진숙 1984: 송재희 1988: 양명숙 1996: 장휘숙 1994: 홍준숙 1987).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 성관념이 학령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혼전임신에 대한 초·중·고 학생의 태도는 낳아야 한다 28.2%,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 49.4%, 낳아서는 안 된다 7.5% 등으로 나타났다.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에 한정된다. 남학생은 혼전임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성을 엿볼 수도 있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신중한 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혼전임신에 대한 청소년의 신중성은 인공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중론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혼전임신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책임 있는 이성교제와 성관련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며, 혼전임신의 경우 사후적인 국가프로그램의 마련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초(5~6학년)·중·고 학생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게다가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성교육 지식수준도 남녀신체구조 80.6%, 임신·출산과정 77.7%, 피임방법 58.7%,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46.3%, 인공유산의 부작용 42.6% 등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 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남녀신체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등 아주 기초적인 성교육 내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도 80% 수준에 불과하다. 피임방법에 대한 초(5~6학년)·중·고 학생의 지식수준은 60% 미만이며, 초고령인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에도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는 성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미흡은 동 문제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만혼현상, 스트레스 증가 등에 기인한 후천성불임 증가, 인공유산 증가 등의 생식보전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관련 올바르게 정확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실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학생들이 본인의 성문제와 관련한 상담자의 실태를 살펴보면, 친구·선후배 32.8%, 부모 21.8%, 스스로 해결 18.1%, 인터넷(PC통신) 10.5%, 형제자매 3.0%, 상담전문가 2.3%, 교사 1.4%, 관련 책자 1.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나 상담전문가를 통한 상담 비율은 아주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성장과정에서 성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문제는 점차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하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성상담 대상은 여전히 비공식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비공식체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원할 경우에 대응하여, 국가·사회적으로 그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일곱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출산관련 내용을 배웠던 교과목으로는 기술·가정(초등학생의 경우 실과) 62.0%, 특별활동·재량활동(기타) 31.4%, 과학 24.2%, 도덕 5.8%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교 저학년생은 기술·가정(실과)과 특별활동·재량활동이 출산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과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의 과정에서는 이들 과목 이외에 과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출산(또는 보다 포괄적으로 인구)관련 교과목체계의 집중형 또는 분산형의 선택은 교육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에서 출산관련 교육 후 학생들의 소감은 지루함 12.9%, 출산·육우려 17.1%, 아무런 생각 없음 23.2% 등 부정적인 반응이 절반이상이다. 출산관련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방법, 교자재 등 개발과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출산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부정적이므로, 성장과정에 따른 흥미 유발이 가능한 교과목체계 구축 및 시청각자료 등 학습도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 9 장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제 1 절 문제제기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일부 학자들은 결혼 및 자녀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식 설명방식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Lesthaeghe and Surkyn, 1988; Preston 1987; Pollak & Watkins, 1993). 신가정경제이론의 취약점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나, 집단간 차이와 역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출산을 변화는 경기변화와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즉, 가치관 변화는 언제나 물질적 여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 조건이나 기회구조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 이삼식 외(2005b)는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가치성향이 결혼·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쳐, 급격한 출산을 저하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못지않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바라다보는 태도도 결혼 및 출산관련 개인적인 행태와 국가·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은 여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도 하였다(이삼식 외, 2005a; 이삼식 외, 2005c).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조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태도와 인지도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학교교육 체계의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1. 저출산 원인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39.4%가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25.7%,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얹매이고 싶지 않아서’ 17.2% 순으로 높았다. 학생들은 나머지 이유들 즉, 늦은 결혼으로 출산의 시기를 놓쳐서(만혼),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부모 취업 필요) 등에 대해서는 저출산 원인으로 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견해는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결과로 나타난 기혼여성(20~44세)의 견해(출산중단 사유 중 자녀 보육·교육비 부담 29.8%)와 유사하였다. 한편, 자녀에 얹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현 학생들 사이에 보편적인 태도 내지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지역별 및 남녀학생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도시지역 학생일수록 자녀양육 부담과 자녀교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본인을 포함한 친구 등의 부모들이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자녀를 키우는데 얹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향후 자식에게 얹매이지 않으려는 즉, 자아추구에 보다 가치를 두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급·학년별로 살펴보면,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최근의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양육부담을 덜 중요시 여기며, 반대로 자녀교육비 부담과 자식을 키우는 일에만 얹매이지 않으려는 경향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즉, 성장하면서 자녀교육의 경제적 문제와 자아추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

향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래 가임세대가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표 9-1〉 청소년인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 원인

(단위: %, 명)

구분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¹⁾						계 (명)	x ²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5.7	3.8	39.4	5.9	17.2	8.1	100.0 (11,216)	
지역								
대도시	25.9	3.5	41.9	5.1	16.3	7.2	100.0 (4,925)	42.0***
중소도시	25.0	3.9	37.9	6.4	17.9	8.8	100.0 (4,939)	
농촌(군)	27.1	4.4	35.4	6.9	17.7	8.4	100.0 (1,352)	
성별								
남학생	26.9	4.4	39.2	5.7	13.9	9.9	100.0 (5,832)	146.4***
여학생	24.3	3.2	39.6	6.1	20.7	6.1	100.0 (5,373)	
학교급								
초등학교	35.5	5.2	25.5	5.5	12.0	16.3	100.0 (1,894)	
중학교	26.9	3.9	39.3	5.9	15.4	8.6	100.0 (4,737)	665.9***
인문고등학교	19.5	2.8	45.8	5.6	23.0	3.4	100.0 (3,624)	
실업고등학교	23.6	4.4	43.4	7.7	14.1	6.8	100.0 (960)	
학년구분								
초 5학년	35.7	5.3	24.0	6.0	11.6	17.3	100.0 (1,015)	669.9***
초 6학년	35.3	5.1	27.2	5.0	12.4	15.0	100.0 (879)	
중 1학년	29.2	4.0	35.4	6.2	14.4	10.9	100.0 (1,552)	
중 2학년	28.5	4.1	39.4	4.6	15.7	7.7	100.0 (1,602)	
중 3학년	23.0	3.7	43.0	6.9	16.0	7.4	100.0 (1,583)	
고 1학년	22.6	2.9	45.3	5.4	19.3	4.6	100.0 (1,560)	
고 2학년	19.0	3.4	45.2	6.3	22.0	4.1	100.0 (1,597)	
고 3학년	19.4	3.0	45.3	6.5	22.1	3.6	100.0 (1,428)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인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①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② 늦은 결혼으로 출산의 시기를 놓쳐서, ③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④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⑤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얽매고 싶지 않아서, ⑥ 기타.

† p<0.1, * p<0.05, ** p<0.01, *** p<0.001

2. 저출산 파급효과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초·중·고 학생들은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툼 일이 줄어들 것이다' 5.8%, '공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2.1%,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1.8% 등으로 긍정적인 인식은 총 9.7%에 불과하였다. 반면, '나라의 힘이 약해

질 것이다(국가경쟁력 약화)' 41.7%,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노동력 부족)' 32.0%,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사회보장부담)' 9.9% 등 부정적인 인식은 총 83.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역별 및 남녀학생별로 큰 차이가 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저출산의 파급효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반면,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가장 높았으며, 다만 고등학교 3학년생의 경우 국가경쟁력에 비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 심각한 파급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학년층일수록 저출산현상의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9-2〉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인구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유 ¹⁾							계 (명)	χ^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5.8	41.7	2.1	32.0	1.8	9.9	6.7	100.0 (11,225)	
지역									
대도시	5.5	42.2	2.3	31.5	1.9	10.7	5.9	100.0 (4,927)	23.0*
중소도시	6.0	40.7	1.9	33.1	1.7	9.5	7.1	100.0 (4,944)	
농촌(군)	6.4	43.1	2.1	30.1	1.8	8.8	7.8	100.0 (1,354)	
성별									
남학생	6.6	42.9	2.6	30.1	1.8	8.3	7.7	100.0 (5,843)	93.4***
여학생	5.0	40.4	1.6	34.0	1.8	11.6	5.5	100.0 (5,371)	
학년구분									
초 5학년	7.2	51.3	1.9	24.5	3.0	3.5	8.6	100.0 (1,017)	402.6***
초 6학년	6.7	48.2	2.4	24.9	2.8	5.9	9.1	100.0 (881)	
중 1학년	6.2	44.2	2.5	28.7	1.6	8.9	7.9	100.0 (1,552)	
중 2학년	6.2	48.3	1.5	28.4	1.1	8.0	6.5	100.0 (1,605)	
중 3학년	5.9	39.4	1.8	35.2	1.7	8.7	7.3	100.0 (1,582)	
고 1학년	5.3	40.1	2.2	34.3	1.7	10.8	5.6	100.0 (1,559)	
고 2학년	4.9	36.4	2.3	36.4	1.7	13.5	4.7	100.0 (1,597)	
고 3학년	5.3	30.7	2.2	38.6	1.5	16.4	5.3	100.0 (1,431)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인하여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2) ①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들 일이 줄어들 것이다, ②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③ 공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④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⑤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⑥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 ⑦ 기타

† p<0.1, * p<0.05, ** p<0.01, *** p<0.001

3.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에 관한 인지도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이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심각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 대책으로 2006년 11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운영과 아울러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전반의 종합대책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전체 청소년 중 55.0%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정책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술하였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7.9%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정책 인지도는 그리 차이가 없으나, 성장과정별로는 정책 인지도가 다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점차 고학년일수록 정책에 대한 내용이 교재나 수업에 포함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표 9-3〉 청소년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정책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χ^2
전체	45.0	55.0	100.0 (11,226)	
지역				
대도시	44.9	55.1	100.0 (4,928)	0.1
중소도시	45.2	54.8	100.0 (4,940)	
농촌(군)	44.8	55.2	100.0 (1,358)	
성별				
남학생	45.5	54.5	100.0 (5,842)	0.8
여학생	44.6	55.4	100.0 (5,373)	
학년구분				
초 5학년	36.5	63.5	100.0 (1,015)	155.0***
초 6학년	34.2	65.8	100.0 (877)	
중 1학년	42.7	57.3	100.0 (1,551)	
중 2학년	40.5	59.5	100.0 (1,607)	
중 3학년	46.6	53.4	100.0 (1,583)	
고 1학년	51.8	48.2	100.0 (1,563)	
고 2학년	49.5	50.5	100.0 (1,597)	
고 3학년	51.4	48.6	100.0 (1,432)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0.1, * p<0.05, ** p<0.01, *** p<0.001

제 3 절 저출산·고령화 현상관련 학교교육 실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학교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67.9%이며, 나머지 32.1%는 전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험률은 지역별 및 남녀학생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성장과정에서 점차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경험률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미래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줄 것이며, 이에 대해 국가나 사회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관련 교육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9-4〉 청소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관련 교육 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χ^2
전체	67.9	32.1	100.0 (11,236)	
지역				
대도시	68.8	31.2	100.0 (4,936)	6.3*
중소도시	67.7	32.3	100.0 (4,943)	
농촌(군)	65.3	34.7	100.0 (1,357)	
성별				
남학생	67.1	32.9	100.0 (5,849)	3.8†
여학생	68.8	31.2	100.0 (5,377)	
학년구분				
초 5학년	55.4	44.6	100.0 (1,019)	408.2***
초 6학년	51.4	48.6	100.0 (881)	
중 1학년	66.2	33.8	100.0 (1,555)	
중 2학년	59.2	40.8	100.0 (1,605)	
중 3학년	70.2	29.8	100.0 (1,587)	
고 1학년	78.2	21.8	100.0 (1,561)	
고 2학년	75.8	24.2	100.0 (1,596)	
고 3학년	76.0	24.0	100.0 (1,431)	

주: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제 4 절 노인 부양에 관한 청소년의 태도

1. 조부모와의 동거에 관한 태도

청소년들의 조부모 동거에 대한 의향을 살펴보면, 전체 62.5%(매우 좋을 것 같다 14.9%, 좋을 것 같다 47.6%)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조부모 동거의향은 대도시 학생의 경우 47.6%, 중소도시 학생의 경우 47.2%, 농촌 학생의 경우 49.2%로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학생의 경우 63.8%, 여학생의 경우 61.2%, 부정적인 태도는 남학생 17.5%, 여학생 22.3%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조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매우 좋다’라는 태도는 다소증가하나, ‘매우 좋다’라는 태도는 급격히 낮아져, 전체적으로 성정과정에서 긍정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

〈표 9-5〉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조부모 동거 의향

(단위: %, 명)

구분	매우 좋을 것 같음	좋을 것 같음	싫을 것 같음	매우 싫을 것 같음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14.9	47.6	16.4	3.4	17.7	100.0 (11,236)	
지역							
대도시	14.0	47.6	16.7	3.7	18.0	100.0 (4,932)	26.7**
중소도시	15.0	47.2	16.7	3.1	18.0	100.0 (4,947)	
농촌(군)	18.1	49.2	14.1	3.5	15.0	100.0 (1,357)	
성별							
남학생	15.8	48.0	14.1	3.4	18.8	100.0 (5,849)	56.3***
여학생	14.0	47.2	18.9	3.4	16.4	100.0 (5,378)	
학년구분							
초 5학년	22.7	46.6	8.9	1.9	20.0	100.0 (1,016)	251.6***
초 6학년	21.6	46.2	10.4	2.5	19.3	100.0 (881)	
중 1학년	16.3	47.3	13.9	3.9	18.6	100.0 (1,555)	
중 2학년	16.0	48.4	15.0	3.2	17.4	100.0 (1,607)	
중 3학년	13.1	48.4	16.8	3.5	18.1	100.0 (1,587)	
고 1학년	11.0	46.3	20.7	3.6	18.4	100.0 (1,563)	
고 2학년	12.6	47.8	20.3	3.1	16.2	100.0 (1,598)	
고 3학년	11.6	49.1	20.0	4.8	14.5	100.0 (1,431)	

† p<0.1, * p<0.05, ** p<0.01, *** p<0.001

2. 부모부양 책임에 관한 태도

청소년들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누가 돌봐야 하는지 부모부양 책임에 대해 전체 84.2%가 ‘가족이 돌봐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나 사회의 책임은 5.8%, 부모님 스스로 해결은 4.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및 남녀학생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정별로 보면,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가족부양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국가·사회책임 의식과 부모 스스로 해결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국가·사회 책임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9-6〉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부양 의식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함	가족이 돌봐야 함	사회나 국가가 돌봐야 함	모르겠음	계 (명)	χ^2
전체	4.1	84.2	5.8	6.0	100.0 (11,237)	
지역						
대도시	3.9	84.7	6.1	5.3	100.0 (4,931)	13.1*
중소도시	4.2	83.8	5.7	6.3	100.0 (4,948)	
농촌(군)	4.3	83.6	4.8	7.4	100.0 (1,358)	
성별						
남학생	4.3	83.0	5.2	7.4	100.0 (5,850)	51.3***
여학생	3.8	85.4	6.3	4.4	100.0 (5,376)	
학교급						
초등학교	2.7	87.3	1.7	8.3	100.0 (1,897)	250.4***
중학교	3.8	85.1	4.3	6.8	100.0 (4,748)	
인문고등학교	5.1	81.4	9.8	3.8	100.0 (3,632)	
실업고등학교	4.1	84.3	5.7	5.9	100.0 (959)	
학년구분						
초 5학년	2.9	86.9	1.5	8.8	100.0 (1,016)	265.3***
초 6학년	2.5	87.7	1.9	7.8	100.0 (881)	
중 1학년	4.0	85.1	3.0	7.9	100.0 (1,555)	
중 2학년	3.4	87.0	3.5	6.2	100.0 (1,607)	
중 3학년	4.0	83.2	6.4	6.3	100.0 (1,585)	
고 1학년	4.4	83.9	7.5	4.2	100.0 (1,561)	
고 2학년	5.4	81.9	8.7	4.0	100.0 (1,598)	
고 3학년	4.8	80.0	10.8	4.5	100.0 (1,432)	

† p<0.1, * p<0.05, ** p<0.01, *** p<0.001

제 5 절 청소년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태도의 시사점

한국사회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즉,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인데 반해, 이들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미래의 생산층 인구(현재 유소년인구를 의미)는 1970년대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인하여 노동공급 감소, 재정수지 악화, 국가경쟁력 감소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의 변화가 제시되고 있다. 향후 출산을 회복은 현재 학생들 즉, 미래 가임세대의 가치관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가치관은 결혼·자녀관련 가치관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시각과 노인부양책임 등에 대한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그 파급효과까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학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 그릇된 인식이나 지식체계는 청소년들이 성장하여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총합적인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을 회복이라는 국가과제와 향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령사회 준비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로 성장기에 일단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7.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아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교과목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체 청소년 중 55.0%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정책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층이 성장하여 대상이 되는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개인적인 준비

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한 학교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소년은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해 가족 84.2%, 국가·사회 5.8%, 부모 스스로 4.1%의 태도를 보였다. 청소년의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노부모 부양책임자로서 국가·사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사회·가족·개인간의 분담체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제 10장 학교교육의 효과성 분석

제 1절 개요

본 연구의 제4장부터 제9장에 이르기까지 초(5-6학년)·중·고 학생의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 성평등관, 성교육,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진단하기 위해, 학교교육 수준이 각 가치관 내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모형에서 독립변수로는 학교교육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가족의 소중함·중요성 교육 여부, 출산관련 교육 여부, 가족 내 남녀간 역할 교육 여부, 성교육 여부 등이다. 이중 성교육은 피임방법, 미혼모·인공유산, 성병·에이즈,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으로 세분화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들 모든 변수는 가변수화(dummye) 하였다. 순수하게 통제(control variables) 목적으로 학생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러한 변수들로는 성별, 지역, 학년(학교급), 형제자매수(학생 본인 포함), 부모 이혼·별거 여부, 부의 학력수준, 모의 학력수준, 맞벌이가정(부모) 여부, 가족관계 변수로서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학생간의 관계,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s)들로는 교육의 효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의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평등관 등 가치관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 효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들의 성관련 지식수준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성관련 지식수준의 변수들로는 독립변수와 매칭(matching)되는 것으로 피임방법, 미혼모·인공유산, 성병·에이즈,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 등에 관한 지식수준이 해당된다. 이들 변수의 특성과 척도는 <표 10-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1〉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특성과 척도: 학교교육이 학생의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		척도
통제 변수	성별	1=여자, 0=남자(dummy)
	지역(거주지)	1=대도시·중소도시, 0=농촌
	학년	8=고3, 7=고2, 6=고1, 5=중3, 4=중2, 3=중1, 2=초6, 1=초5
	형제자매수	명(본인 포함)
	부모 이혼·별거상태	1=이혼·별거, 0=이외(dummy)
	부의 학력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 6=대학원
	모의 학력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 6=대학원
	부모 취업 여부	1=맞벌이, 0=기타(dummy)
	주관적 경제상태	1=매우 못사는 편, 2=못사는 편, 3=보통, 4=잘사는 편, 5=매우 잘사는 편
	부모간의 관계	1=매우 나쁜편, 2=나쁜편, 3=보통(모르겠음), 4=좋은편, 5=매우 좋은편
독립 변수 (학교 교육)	학생-부모간의 관계	1=매우 나쁜편, 2=나쁜편, 3=보통(모르겠음), 4=좋은편, 5=매우 좋은편
	가족의 소중·중요성 교육	1=배운적 있음, 0=배운적 없음(dummy)
	출산관련 교육	1=생명 탄생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음, 출산·육아에 대한 걱정, 출산이 국가·사회를 위해 중요함 인식 0=아는 내용이라 지루, 아무 생각 없음, 배운적 없음(dummy)
	가족내 남녀간역할교육	1=배운적 있음, 0=배운적 없음(dummy)
	성교육 내용	
	피임방법	1=배운적 있음, 0=배운적 없음(dummy)
	미혼부·인공유산	1=배운적 있음, 0=배운적 없음(dummy)
	성병·에이즈	1=배운적 있음, 0=배운적 없음(dummy)
	생식기구조,이차성징	1=배운적 있음, 0=배운적 없음(dummy)
	임신·출산	1=배운적 있음, 0=배운적 없음(dummy)
종속 변수 (가치관 태도)	결혼관	결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 1=하지 않는 게 낫다, 2=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3=하는 편이 좋다, 4=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관(자녀 필요성)	1=없어도 무관, 2=모름, 3=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음, 4=꼭 필요
	성분업적 역할관	1=매우 찬성함, 2=대체로 찬성함, 3=별로 찬성안함, 4=전혀 찬성안함
	성평등의식	성평등 의식관련 10개 문항의 성평등점수 평균(제9장 참조)
	성관련 지식수준	
	피임방법	1=전혀 모른다, 2=모르는 편이다, 3=아는 편이다, 4=매우 잘 안다
	인공유산의 부작용	1=전혀 모른다, 2=모르는 편이다, 3=아는 편이다, 4=매우 잘 안다
	성병·에이즈예방방법	1=전혀 모른다, 2=모르는 편이다, 3=아는 편이다, 4=매우 잘 안다
	남녀의 신체적 구조	1=전혀 모른다, 2=모르는 편이다, 3=아는 편이다, 4=매우 잘 안다
	임신 및 출산과정	1=전혀 모른다, 2=모르는 편이다, 3=아는 편이다, 4=매우 잘 안다

제 2 절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학교교육이 학생의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표 10-2>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의 가치관별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들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 가치관관련 학교교육은 학생의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0-2> 회귀분석 결과: 학교교육이 학생의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β)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성평등관
지역(도시=1)	-.02	-.01	-.04 ***	.02 †
학년구분	.05 ***	-.01	.17 ***	.15 ***
성별(여학생=1)	-.24 ***	-.13 ***	.21 ***	.45 ***
형제자매수	.01	.02	-.00	.00
부의 학력	-.01	-.04 ***	.03 **	.05 ***
모의 학력	-.03 **	-.02	.05 ***	.03 **
부모취업(맞벌이부모=1)	.12	.01	.09 ***	.02 *
주관적 경제상태	.04 ***	.01	-.03 ***	-.03 **
학생-부모간의 관계	.05 ***	-.01 ***	-.03 ***	.06 ***
부부간의 관계	.06 ***	.02	-.02	-.04 ***
가치관관련 학교교육 여부				
가족의 소중·중요성 교육	.05 ***	-	-	-
출산관련 교육	-	.12 ***	-	-
가족내 남녀간역할교육	-	-	.07 ***	.11 ***
상수	2.50	2.63	1.82	2.43
Adj. R ² (%)	7.2***	4.7***	10.3***	28.4***
사례수	9,680	9,267	9,605	9,567

† $p<0.1$, * $p<0.05$, ** $p<0.01$, *** $p<0.001$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가족의 소중함 및 중요성을 교육 받았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교에서 출산 관련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가족 내 남녀간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성평등적 역할관이 강하였으며, 일반적인 성평등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학교교육의 강화는 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 및 성평등 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제 3 절 학교 성교육이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표 10-3>에 제시되어 있다. 성교육 영역별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들은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 학교 성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피임방법, 미혼모·인공유산, 성병·에이즈,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임신·출산 등에 관해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피임방법, 인공유산 부작용,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남녀의 신체적 구조, 임신 및 출산 과정 등 각 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관련 지식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생식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교육의 교과목 편성이나 수업시간 등이 학생의 성장과정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될 경우,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3〉 회귀분석 결과: 학교교육이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β)

변인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				
	피임 방법	인공유산 부작용	성병, 에이즈 예방 방법	남녀의 신체적 구조	임신 및 출산과정
지역(도시=1)	.20 *	.01	-.01	.02	.03 ***
학년구분	.21 ***	.19 ***	.23 ***	.26 ***	.22 ***
성별(여학생=1)	-.04 ***	.01	-.10 ***	-.08 ***	.05 ***
형제자매수	-.01	-.01	-.02 *	-.02 *	-.01
부의 학력	.04 ***	.05 ***	.02	.05 ***	.04 ***
모의 학력	-.01	-.01	.02 †	-.01	-.01
부모취업(맞벌이부모=1)	.00	-.01	.00	.00	-.01
주관적 경제상태	.01	.03 *	.03 *	.03 ***	.04
학생-부모간의 관계	-.03 **	-.00	-.00	.02	.02
부부간의 관계	.01	-.00	.01	-.02	.00
학교 성교육 여부					
생식기 구조·이차성징	-	-	-	.23 ***	-
피임방법	.42 ***	-	-	-	-
임신·출산	-	-	-	-	.25 ***
미혼모·인공유산	-	.24 ***	-	-	-
성병·에이즈	-	-	.34 ***	-	-
상수	1.59	1.45	1.42	1.91	1.89
Adj. R ² (%)	30.6***	11.5***	23.5***	14.1***	14.7***
사례수	9,995	9,974	9,942	9,902	9,893

† p<0.1, * p<0.05, ** p<0.01, *** p<0.001

제 11 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최근 우리나라는 만혼화가 보편화되고 비혼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소자녀관 혹은 무자녀관이 보편적인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가족 문화와 노동시장의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의 의식과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만혼화 경향과 더불어 후천성불임증, 유·사산 등이 증가하여 여성의 생식보건을 저해하고 있다.

결혼을 비롯한 가족제도 및 가족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옳고 그름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가 늘 변동하듯이 그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치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인지, 아니면 행위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의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가치 변화가 행위의 변화의 원인으로 보는가 하면, 행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의 변화가 뒤를 잇는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가치관과 사회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 연계되고 있다.

가치관이 사회경제 환경에 의해서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는 하나 일부는 가족생활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가치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가치관 형성에 있는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를 규명하고, 교육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일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 가치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전달되어야 할 가족 및 자녀 관련 가치관들을 어떻게 정립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고정불변할 것만 같았던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시각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계와 여성계 등에서의 청소년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공급자적인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2006년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원이 직접 표본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학생 및 교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미래의 가임세대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 학생들(약 13,000명)을 전국 132개 학교에서 확률계통추출법으로 표출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 또는 교사에 의한 조사표 배포·회수 방법을 적용하였다. 학생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교사 조사(초등학교 담임 2명, 중·고등학교 1~3학년 담임 3명, 도덕교사 1명, 기술·가정교사 1명)를 약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주요 분석결과 요약

첫째, 학생의 가족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입양, 국제결혼 및 재혼에 대한 학생의 수용도는 높은 편이나 여전히 완전한 수

용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일부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도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의 내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 중 거의 반절이 가족에 관한 학교교육에 대해 비현실적이거나 이상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가족관련 학교교육 내용이 성장발달에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의 결혼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는 반절 이상이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1/5도 채 안된다. 여학생의 반절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다. 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저학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장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이상적 결혼시기는 실제 평균 초혼연령에 근접하고 있다. 남학생이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 반대이다. 기대 결혼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일치 문제는 비자발적 비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결혼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학생의 60~70%만이 긍정적이다. 그러한 가치관으로 결혼시 개인보다 가족관계 중시, 마땅한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 안정된 직장, 중요성, 충분한 수입의 중요성, 자아실현을 위한 비혼 선택 가능, 독신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혼 선택 가능, 결혼제도로 인한 비혼 선택 가능 등이 포함된다. 결혼연령규범 준수, 교제이성과의 결혼, 부부간 갈등시 이혼, 유자녀시 이혼 등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이 내재된 결혼관련 가치관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반면, 현대생활 여건에 따라 만혼, 비혼, 이혼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태도는 여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높다. 남학생은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외모 등 신체적 조건, 건강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며, 여학생은 경제력, 직업·지위, 믿음·사랑, 성격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의 이러한 생각은 성인이 되면 더욱 굳어질지 모른다. 상급학교 및 고학년일수록 학생의 배우자 선택의 조건으로서 믿음·사랑, 성격, 경제력(소득·재산), 직업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나, 건강, 외모·신체조건, 종교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은 감소하고 있다.

셋째, 학생의 자녀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자녀 필요성에 대해 학생 중 3/4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태도도 20%에 육박한다. 학생들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는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다른 조사의 결과로서 성인미혼과 기혼여성과 비교해보아도 명백하다. 결국, 학생들이 성장 및 사회화 과정에서 여러 여건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자녀가치관은 인생의 가치, 자녀교육 완수의무감, 노후 정서적 의존, 부부관계 공고, 노후 경제적 의존, 자녀 양육보다 부모생활 중요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우세하다. 반면, 사회에 대한 의무감, 부부의 사회적 인정수단, 자녀를 통한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등 자녀가치관들에 대한 학생의 태도는 그 순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하였다. 생애경로 이행단계별로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구적(수단적) 가치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나, 무자녀 선호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며, 판단유보까지 감안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저학년층일수록 소자녀관이 더 뚜렷하다. 자녀관에 대한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본인의 자녀출산이유도 수단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이 강하다. 학생들이 향후 자녀출산을 희망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 일에 전념'과 '부부만의 시간·행복 감소' 등 개인주의적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자녀의 힘든 공부 우려, 자녀의 왕따·체벌 우려, 부모 부양문제 등 가족주의적 이유보다 높다. 남자도 육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학생의 태도는 80% 이상으로 높으나, 학교에서 육아방법을 배웠던 청소년은 40%도 채 안된다. 학생의 교육욕구와 교육당국의 공급간 불일치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학생의 남녀역할 및 성평등 가치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현재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실제 가족생활에서 부모가 대체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 학생들은 집안일, 자녀 돌보는 일,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는 의식

이 미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부역할에 관한 태도를 보면, 학생들은 부부간의 가족 내 역할분담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학생들은 생계부양과 일반적인 성별역할 분담에서 보다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 해체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 의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영역에 비해 직업영역에서의 성평등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상급학교·고학년일수록 학생의 성평등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높아지면서 교육의 효과나 이성적 판단력의 증가 등에 힘입어 학생의 성평등 의식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학생의 성관련 의식수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학생들 중 절반 수준이 이성교제를 경험하였으며, 경험률은 성장과정에서 높아진다. 남학생은 남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여성의 혼전순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기에 이미 순결에 대한 성별에 따라 다른 이중적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혼전임신에 대한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아야 한다는 상황론적 입장이 강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에 한정된다. 남학생은 혼전임신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성을 엿볼 수도 있다.

여섯째, 학교 성교육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학생은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성문제로서 성병·에이즈와 미혼모·인공유산에 대한 교육정도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인공유산 부작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다. 남녀신체구조와 임신·출산과정 등 아주 기초적인 성교육 내용에 관한 학생의 인지도도 80% 수준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본인의 성문제와 관련한 성상담자로서 교사나 상담전문가의 비율은 아주 낮다. 전문적인 서비스 부재 및 접근성 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출산관련 교육 후 학생들의 소감은 지루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절반이상이다. 교육내용이 미흡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학생들의 성문제는 점차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요하는 경향이 증대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성상담 대상은 여전히 비공식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곱째, 학생들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태도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원인과 그 파급효과까지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저학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이 미흡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 수준이며, 이는 관련 교육내용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인지도는 절반수준이다. 청소년은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해 가족 비중이 80% 이상으로 여전히 높으나, 생애경로 이행과정에서 노부모 부양책임자로서 국가·사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여덟째, 학생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 학교교육이 학생의 가치관 및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은 학생의 가족, 결혼, 자녀, 성평등 및 성역할 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교육도 학생의 성관련 지식수준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결혼 필요성 정도가 높으며,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하며, 성평등적 역할관이 강하며, 그리고 성평등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피임방법, 인공유산 부작용, 성병·에이즈 예방방법, 남녀의 신체적 구조, 임신 및 출산 과정 등 각 영역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

2.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건의

현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하면 향후 그들의 결혼·출산 행위나 성역할관 등은 현재 20~30대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층은 자녀를 희망하나 본인들을 희생시키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갖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현 청소년들이 혼인기와 가임기에 들어서면 10년 내지 15년 후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때, 현재 청소년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시기에 결혼하고 희망자녀수에 근접하는 수의 아이를 가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결혼 및 출산 행위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사고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가정교육, 취학전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한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가. 학교교육

첫째, 기본적으로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 자체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들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내용이 청소년에게 다가설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관련 교과목 체계의 집중형 또는 분산형의 선택은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업시간도 충분히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출산 등에 관한 가치관과 성에 관한 교육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인구교육 등 특정한 교과목의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내용의 불충분성과 진부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자료·기법 등의 개발과 교육내용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성·연령 등 개인적 변수와 가족 관계 등 가족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학교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 및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급학교·고학년 학생일수록 출산관련 교육의 효과성이 부정적이므로, 성

장과정에 따른 흥미 유발이 가능한 교과목체계 구축 및 시청각자료 등 학습도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사고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여학생들이 일을 위해서는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인구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교교육이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연구 결과 중 주목을 끄는 점은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자녀에 대해 교육을 시킬 때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넷째, 성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발달 과정상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로 심리적 위기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기에는 자칫 반인간적으로나 반사회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또한, 만혼현상, 스트레스 증가 등에 기인한 후천성불임 증가, 인공유산 증가 등의 생식보건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성관련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이성교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되어, 올바른 성 가치관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성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점점 더 심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특히, 성관련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질적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성상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혼전임신에 대한 청소년의 신중성은 인공유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리적인 신중론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혼전임신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책임 있는 이성교제와 성관련 가치관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며, 혼전임신의 경우 사후적인 국가프로그램의 마련도 중요하다.

여섯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지식체계는 청소년들이 성장하여서도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적인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그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회복이라는 국가과제와 향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령사회 준비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교육은 저학년 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정책에 대한 학교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성장기에 일단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국가·사회·가족·개인간의 분담체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에 관한 학교교육의 내실화는 올바른 전달체계를 통해 확립될 수 있다. 즉, 학생교육 이전에 교육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교사 교육체계 구축 내지 개선이 시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정교육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의 가치관과 성관련 지식수준에 미치는 가정(가족)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에 심각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에 앞서 가정교육을 강화시키는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하며,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과 연계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취학전 교육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식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더 나아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성역할해체와 성평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학생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 전통적인 이념에 대해서 지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가족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상대적으로 전통적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기성세대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들의 가치관 또한 전통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가치관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고는 있지만 ‘집안의 대를 잇는’문제와 같은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것은 정규학교 교육 전에 이미 아동들의 의식에 전통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이렇게 어린시절에 뿌리내린 가치관은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젠더문제를 불평등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대안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이 중요하다.

라. 사회교육

청소년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성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까지 유지·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규 학교교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교육 이외의 매체(언론과 방송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교육을 통해 내재된 학생·성인의 가족·결혼·자녀·성역할·성평등·성 관련 가치관이나 지식을 생활

속에서 실재화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행위주체의 가치관과 실제 행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과제는 학생들의 가치관이 학교 졸업 후 성인으로 생활할 때 실제행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역할의 해체를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단순한 참여보다는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이 현실세계에서 실재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남학생들이 자녀 돌봄과 집안일을 부부가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육아로 대표되는 가족 내 무급노동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조건을 창출하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실제 행위와의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교육은 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 및 성평등 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성관련 지식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에서의 가치관 교육과 성교육에의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이해나 지식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적 건의들을 토대로 결혼·출산관련 가치관들과 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교육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해 질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인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는 대략적인 경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깊이 있는 정보를 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부부 간에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갈등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청소년들마다 다를 수 있다. 자녀가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데 자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번의 횡단적인(cross-sectional)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조사로는 적절한 결론을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의견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연령 차이 때문인지(age effect) 아니면 시대 차이 때문인지(period effect)는 알 수가 없다. 이는 종단적인(longitudinal) 자료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tudy 같이 일정한 코호트를 따라가서 모은 자료가 절실하다. 마침 한국에는 현재 다양한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 자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가족이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미래세대의 생각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많을 수밖에 없다. 향후 이러한 주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 및 여러 연구에 많이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은숙,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공미혜, 「은폐된 성, 과장된 성 :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여대 여성연구』, 4, 1993, pp.27~47.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5.
- 권오주,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권용은·김의철,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004, pp.221~226.
- 김경신,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998, pp.145~160.
- 김경신·이선미,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1998, pp.27~43.
- 김동일, 『성의 사회학』, 문음사, 1991.
- 김두현, 『현대의 가족』, 을유문고, 1982.
- 김명자,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문집』, 8집, 1980.
- 김명자,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4, 1985, pp.139~166.
- 김성혜·김초강,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 8(1), 1991, pp.87~97.
- 김아영,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 분석과 중등교사의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양희·이형실, 『결혼과 가족』,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영옥, 「우리나라 여대생의 배우자선택 및 결혼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 생활과학회지』, 8(1), 1999, pp.29~43.
- _____,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대전보건전문대학 논문집』, 5, 1983, pp.393~412.
- 김정옥, 「한국도시가족의 부부관계」, 『부산여대 논문집』, 8집, 1980.
- 김진선,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여성건강간 호학회지』, 1(2), 1995, pp.173~190.
- 김초강, 『모자보건·가족계획』, 수문사, 1987.
- 김태길, 『한국윤리의 재정립』, 철학과 현실사, 1996.
- 김혜선·이정읍,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41(2), 2003, pp.211~224.
- 김혜선·김영희,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Ⅱ)」,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3집, 1984.
- 김혜선·박혜인·옥선화, 『가족관계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2002.
- 김혜선·신수아,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연구 -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0(3), 2002, pp.41~53.
- 나은영·민경화,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 1998, pp.75~93.
- 나은영·차재호,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및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999, pp.29~52.
- 문소정, 「가족이데올로기」,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4회 심포지움, 1994.
- 박수현, 「대학생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재홍,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접근」, 『한국 사회학』, 33, 1999, pp.257~296.
- 박진숙,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pp.129~148.
- 박혜인,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교문사, 1990.

- 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미혼남녀의 성행동시대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pp.11~23.
- 배성미,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변화순·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2002, pp.219~245.
- 서병숙·김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권 2호, 1983, pp.127~138.
- 송다영,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005, pp.225~251.
- 송재희,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신수진,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양명숙,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전광역시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996, pp.147~181.
- 여성가족부, 『한국가족의 현실과 변화』, 2004.
- 오덕자, 「사이버시대 청소년의 성지식·성태도·성가치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2003, pp.719~733.
- 옥선화, 『가족가치관: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Ⅱ』, 교문사, 1984.
- 옥선화·정민자, 『결혼과 가족』, 하우, 1993.
- 유계숙·유영주,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2.
- 유영주, 『신가족 관계학』, 교문사, 1988.
- 유영주·김경신·김순옥, 『가족관계학』, 교문사, 2000.
- 윤가현, 『성 심리학』, 성원사, 1997.
- 윤명선, 「초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0.
- 윤흥식·김수정·김은지, 「일-가족 양립정책과 젠더역할에 관한 가치관을 통해본

- OECD 14개국의 출산력 비교 연구», 비교사회복지정책연구회 발제문, 2005.
- 윤홍식·조막래,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가구특성과 빈곤실태: 남성생계부 가구와 이인생계부양가구의 비교」,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 은기수,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1995, pp.89~117.
- _____,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2001, pp.241~258.
- 이경희, 『십대 청소년의 성 산업 유입문제와 교사의 역할』,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성교육연수자료, 2000.
- 이구실, 「남녀 중학생의 성 지식 및 태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삼식·김태현·김희경,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저출산고령사회 연구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a.
- 이삼식·신인철·조남훈,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연구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b.
- 이삼식·정운선·김희경,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 연구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c.
- 이영자·김혜순·민경자·이정옥, 『성평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3.
- 이정우 외,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이정우 외, 『생활문화의 예절』,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이현옥·김양희·이경희, 「결혼비용 지출 실태 및 의식조사」, 『가족문화논집』, 1993.
- 이호숙, 「학생과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실태분석: 부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장혜경, 「가족정책차원에서 출산장려책 모색돼야」, 나라경제, 2003년 3월호.
- 장혜경·이미정·김경미·김영란,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장혜경 외,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2005.
- 장휘숙, 『가족심리학-가족관계의 발달』, 박영사, 1994.
- 정명숙·김혜리,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 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2005, pp.115~135.
-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69.
- 제일기획, 『우리 시대의 미드필더, 2635세대』, 2005.
- 조소연·오윤자,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 2001, pp.271~284.
- 중앙일보, 「한국 가정에는 아빠가 없다」, 2006년 8월 3일.
- 최새은·옥선화,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2003, pp.53~73.
- 최연실,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 _____, 『2005년 출생 통계』, 2005.
- _____, 『2005년 혼인·이혼 통계』, 2005.
- _____,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06.
- 한경혜, 「사회적 시간과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의 역사적 변화: 생애과정 관점과 구술생활사 방법의 연계」, 『한국사회학』, 27(겨울호), 1993, pp.295~317.
- 한남제, 『한국도시가족연구』, 일지사, 1984.
- 한유미·곽혜경,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3(1), 2004, pp.29~40.
- 홍준숙,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Axinn, W. G. & A. Thornton, "The influence of parental resources on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to marriage", *Social Science Research*, 21, 1992, pp.61~85,
- Avery, R., F. Goldscheider, & A. Jr. Speare, "Feathered nest/gilded cage: Parental income and leaving home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mography*, 29,

- 1992, pp.375~388.
- Booth, A. & Duvall, D., "Sex and roles and the link between fertility and employment", *Sex Roles*, 7, 1981, pp.847~856.
- Cherlin, A.,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Elder, G. H. Jr,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7, 1994, pp.4~15.
-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50.
- Esaterlin, R. A., "An economic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 1975, pp.54~63.
- Esping-Andersen, G., "A new gender contract",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edited by G. Esping-Andersen, G. Duncan, 2002, pp.68~95.
- Goldscheider, F. K. & Waite, L. J.,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1986, pp.91~109.
- Gregory, A. & J. Windebank, *Women's Work in Britain and France: Practice, Theory and Policy*, NY: Macmillan Press LTD, 2000.
- Hoffman, Louis Wladis & Hoffman, Marin L.,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Y: Basic Books, 1973, pp.19~76.
- Inglehart, R.,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Kaats, G. R. & Davis, K. E., "The dynamics of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1970, pp.390~399.
- Kirchner, E. P. & Seaver, B., *Developing Measures of Parenthood Motivat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Human Resources, 1977.
- Lesthaeghe, R. & Surkyn, J.,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 1988, pp.1~45.

- MaLaughlin, D. K. & D. T. Lichter, "Poverty and marital behavior of you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997, pp.582~594.
- MaLaughlin, D. K., D. T. Lichter, & G. M. Jonston, "Some women marry young: Transitions to first Marriage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993, pp.827~838.
- Miller, B. C., & Sneesby, K. R., "Educational correlates of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88, pp.521~530.
- Pollak, R. & S. Watkins, "Cultur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roper marriage or mesalli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1993, pp.177~183.
- Rabin, L., "The Generation Gap : Wearing It Well", *The Time*, Jul, 29, 1965.
- Reiss, I. L., *The Social Context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NY: Helt, Rinehart & Winston, 1967.
- Rossi, A. S. & Rossi, P. H., *Of Human Bonding*, NY: Aldin de Griyter, 1990.
- Simon, R. W. & K. Marcussen, "Marital transitions, marital belief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999, pp.111~125.
- Sleeboos, J.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OECD, 2003.
- Small, S. & Luter, T.,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994, pp.728~735.
- Kwon, T. H., *Population Change and Developments: 1925~1966*,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997.
- Teachman, J. D., Polonko, K. A., & Leigh, G. K., "Marital timing : race and sex comparisons", *Social Forces*, 66(1), 1987, pp.239~268.
- Peter Uhlenberg, "Review of dynamics of values in fertility change by Richard Lee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0, No.2, 2000.
- Axinn, W., Arland Thotnton, "The transformarion in the meaning of marriage", Linda Waite(ed.), *The Ries that Bind*, NY: Aldine de Gruyter, 2000.

부 록

- [부록 1] 교사의 결혼·출산·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 결과
- [부록 2]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 조사표 양식
- [부록 3]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부록 1〕 교사용 주요 조사결과 부표8)

1. 일반적 특성

〈부표 1-1〉 조사대상 교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지역							
대도시	48.9	48.7	37.2	52.6	58.2	48.5	42.3
중소도시	39.6	28.2	44.9	42.3	31.8	39.7	46.5
농촌	11.5	23.1	17.9	5.1	10.0	11.8	11.3
학교구분							
초등학교	17.2	100.0	100.0	-	-	-	-
중학교	40.1	-	-	100.0	100.0	-	-
고등학교(인문계)	36.2	-	-	-	-	88.6	79.8
고등학교(실업계)	6.5	-	-	-	-	11.4	20.2
학교특성							
남학교	19.5	-	-	34.0	15.1	32.0	16.9
여학교	20.1	-	-	10.9	18.7	26.8	38.5
남녀공학	60.4	100.0	100.0	55.1	66.2	41.2	44.6
담당 교과							
국어	4.5	2.6	-	6.4	6.4	3.3	5.6
도덕	13.7	-	-	17.9	17.1	19.1	11.3
사회	29.4	-	-	29.5	28.4	41.9	41.8
과학	3.0	-	-	5.8	2.7	3.7	3.3
기술·가정	17.7	2.6	-	23.1	27.8	11.8	23.0
외국어(영어)	4.3	-	1.3	3.8	4.3	5.5	6.1
기타	10.5	-	1.3	13.5	13.4	13.6	8.9
초등학교 교사	15.4	82.1	89.7	-	-	1.1	-
무응답	1.5	12.8	7.7	-	-	-	-
교직 경력							
0~5년	22.9	23.1	25.6	20.5	24.4	15.1	30.5
6~15년	31.0	38.5	41.7	19.9	28.5	32.0	32.4
16~20년	21.8	17.9	12.8	23.1	25.4	23.9	20.7
21년 이상	24.2	20.5	19.9	36.5	21.7	29.0	16.4

8) 주: 1) 무응답 및 비해당은 분석에서 제외함.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학생용)의 부가조사로 실시한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교사용)」의 결과임.

〈부표 1-1〉 계속

초·중·고 교사특성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출산 경험							
유 경험	70.2	69.2	62.8	80.1	68.6	81.3	56.8
무 경험	29.6	30.8	37.2	19.9	31.1	18.4	43.2
무응답	0.2	-	-	-	0.3	0.4	-
출산 경험 시 양육 형태							
본인 및 배우자	33.9	48.7	13.5	60.9	22.7	58.5	10.8
친인척	21.9	10.3	35.3	10.3	27.4	11.8	27.7
육아도우미	5.8	2.6	5.8	3.2	7.0	3.3	9.9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유치원)	7.3	7.7	7.1	4.5	9.4	5.9	8.5
기타	0.2	-	0.6	0.6	-	-	-
무응답	1.1	-	0.6	0.6	2.0	1.8	-
비해당	29.8	30.8	37.2	19.9	31.4	18.8	4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36)	(39)	(156)	(156)	(299)	(272)	(213)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용 인식

〈부표 2-1〉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문제 심각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심각	심각 한편	보통	심각하지 않은 편	전혀 심각않음	계 (명)
전체	46.3	47.0	5.6	1.0	0.1	100.0 (1,135)
성별						
남자	54.8	40.7	3.0	1.3	0.2	100.0 (467)
여자	40.3	51.5	7.5	0.7	-	100.0 (668)
담당교과						
국어	68.6	31.4	-	-	-	100.0 (51)
도덕	41.9	48.4	9.0	0.6	-	100.0 (155)
사회	47.0	47.0	5.1	0.9	-	100.0 (334)
과학	29.4	50.0	17.6	2.9	-	100.0 (34)
기술·가정	50.7	44.3	3.5	1.0	0.5	100.0 (201)
외국어(영어)	53.1	40.8	6.1	-	-	100.0 (49)
기타	38.7	54.6	5.9	0.8	-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40.6	52.6	5.1	1.7	-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43.1	50.3	5.1	1.5	-	100.0 (195)
중학교	46.4	47.9	5.1	0.7	-	100.0 (455)
고등학교(인문계)	47.0	45.0	6.8	1.0	0.2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49.3	45.3	4.0	1.3	-	100.0 (75)

〈부표 2-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용 개선 필요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필요	필요한편	보통	필요하지않은 편	전혀 필요없음	계 (명)
전체	32.7	60.3	5.3	1.6	0.2	100.0 (1,135)
성별						
남자	37.3	57.2	4.3	1.1	0.2	100.0 (467)
여자	29.5	62.4	6.0	1.9	0.1	100.0 (668)
담당교과						
국어	33.3	62.7	3.9	-	-	100.0 (51)
도덕	37.4	58.1	3.2	1.3	-	100.0 (155)
사회	33.5	60.2	4.5	1.5	0.3	100.0 (334)
과학	20.6	50.0	17.6	11.8	-	100.0 (34)
기술, 가정	34.3	58.7	5.0	1.5	0.5	100.0 (201)
외국어(영어)	34.7	63.3	2.0	-	-	100.0 (49)
기타	25.2	64.7	8.4	1.7	-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29.7	63.4	6.3	0.6	-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31.3	62.1	5.6	1.0	-	100.0 (195)
중학교	31.9	60.4	5.7	2.0	-	100.0 (455)
고등학교(인문계)	33.8	58.6	5.4	1.7	0.5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34.7	64.0	1.3	-	-	100.0 (75)

〈부표 2-3〉 출산 및 가족 가치관 교육 강화 필요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필요	필요한편	보통	필요하지않은 편	전혀 필요없음	계 (명)
전체	48.8	45.1	4.6	1.3	0.2	100.0 (1,134)
성별						
남자	52.5	42.2	3.9	1.3	0.2	100.0 (467)
여자	46.2	47.2	5.1	1.3	0.1	100.0 (667)
담당교과						
국어	52.9	47.1	-	-	-	100.0 (51)
도덕	50.6	42.2	5.8	1.3	-	100.0 (154)
사회	44.6	48.2	5.4	1.5	0.3	100.0 (334)
과학	32.4	52.9	5.9	8.8	-	100.0 (34)
기술, 가정	51.2	44.3	3.0	1.0	0.5	100.0 (201)
외국어(영어)	57.1	38.8	4.1	-	-	100.0 (49)
기타	51.3	46.2	1.7	0.8	-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49.1	42.9	7.4	0.6	-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49.7	43.1	6.2	1.0	-	100.0 (195)
중학교	48.9	44.9	4.6	1.3	0.2	100.0 (454)
고등학교(인문계)	48.7	45.3	4.1	1.7	0.2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46.7	50.7	2.7	-	-	100.0 (75)

〈부표 2-4〉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국가의 필요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적극적 출산지원 정책 실시	개인 문제로 국가개입 비바람직	기타	모르겠음	계 (명)
전체	93.8	4.3	1.7	0.3	100.0 (770)
성별					
남자	93.0	5.2	1.5	0.2	100.0 (459)
여자	93.0	3.6	2.4	0.9	100.0 (661)
담당교과					
국어	94.1	5.9	-	-	100.0 (51)
도덕	90.7	3.3	4.6	1.3	100.0 (151)
사회	93.9	3.6	1.8	0.6	100.0 (330)
과학	90.9	9.1	-	-	100.0 (33)
기술, 가정	91.9	6.6	1.5	-	100.0 (198)
외국어(영어)	93.6	-	6.4	-	100.0 (47)
기타	93.3	4.2	0.8	1.7	100.0 (119)
학교구분					
초등학교	94.8	3.1	1.5	0.5	100.0 (194)
중학교	92.7	4.5	2.4	0.4	100.0 (449)
고등학교(인문계)	92.1	5.2	1.7	1.0	100.0 (403)
고등학교(실업계)	95.9	1.4	2.7	-	100.0 (74)

3. 출산(인구포함)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

〈부표 3-1〉 출산(인구포함) 관련 내용 가르침 경험 여부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46.9	53.1	100.0 (1,127)
담당교과			
국어	9.8	90.2	100.0 (51)
도덕	56.6	43.4	100.0 (152)
사회	61.7	38.3	100.0 (332)
과학	29.4	70.6	100.0 (34)
기술, 가정	65.0	35.0	100.0 (200)
외국어(영어)	6.1	93.9	100.0 (49)
기타	10.1	89.9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40.5	59.5	100.0 (173)
학교구분			
초등학교	40.9	59.1	100.0 (193)
중학교	47.0	53.0	100.0 (453)
고등학교(인문계)	51.8	48.2	100.0 (407)
고등학교(실업계)	36.0	64.0	100.0 (75)

〈부표 3-2〉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절	적절 한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 않음	계 (명)
전체	3.8	19.7	45.2	28.8	2.5	100.0 (527)
담당교과						
국어	-	20.0	20.0	60.0	-	100.0 (5)
도덕	3.5	24.4	41.9	29.1	1.2	100.0 (86)
사회	2.9	13.2	50.7	29.3	3.9	100.0 (205)
과학	10.0	50.0	10.0	30.0	-	100.0 (10)
기술, 가정	3.8	28.5	40.8	26.2	0.8	100.0 (130)
외국어(영어)	-	-	66.7	-	-	100.0 (3)
기타	16.7	16.7	33.3	33.3	-	100.0 (12)
초등학교 교사	4.4	14.7	50.0	29.4	1.5	100.0 (68)
학교구분						
초등학교	3.9	13.0	50.6	28.6	3.9	100.0 (77)
중학교	4.2	23.0	42.3	26.8	3.8	100.0 (213)
고등학교(인문계)	3.8	19.4	45.0	30.8	0.9	100.0 (211)
고등학교(실업계)	-	51.9	33.3	-	-	100.0 (27)

〈부표 3-3〉 출산(인구포함)관련 내용의 학생 수준 및 흥미 유발의 적합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합	적합 한편	보통	적합하지 않은 편	전혀 적합 않음	계 (명)
전체	0.8	12.2	43.3	39.4	4.4	100.0 (526)
담당교과						
국어	-	20.0	40.0	20.0	20.0	100.0 (5)
도덕	-	12.9	38.8	41.2	7.1	100.0 (85)
사회	2.0	6.8	45.9	41.5	3.9	100.0 (205)
과학	-	30.0	40.0	30.0	-	100.0 (10)
기술, 가정	-	19.2	44.6	35.4	0.8	100.0 (130)
외국어(영어)	-	-	100.0	-	-	100.0 (3)
기타	-	16.7	33.3	33.3	16.7	100.0 (12)
초등학교 교사	-	44.1	39.7	4.4	-	100.0 (68)
학교구분						
초등학교	-	10.4	44.2	39.0	6.5	100.0 (77)
중학교	0.5	10.3	49.3	34.7	5.2	100.0 (213)
고등학교(인문계)	1.4	14.8	37.1	44.3	2.4	100.0 (210)
고등학교(실업계)	-	40.7	40.7	7.4	-	100.0 (27)

〈부표 3-4〉 출산(인구포함) 관련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 정도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충분히 반영	반영하고 있는 편	보통	반영하고 있지않은편	전혀 반영않음	계 (명)
전체	-	19.3	34.5	41.9	4.4	100.0 (528)
담당교과						
국어	-	-	40.0	60.0	-	100.0 (5)
도덕	-	23.3	32.6	40.7	3.5	100.0 (86)
사회	-	25.9	32.7	37.1	4.4	100.0 (205)
과학	-	20.0	30.0	50.0	-	100.0 (10)
기술, 가정	-	14.6	38.5	42.3	4.6	100.0 (130)
외국어(영어)	-	-	100.0	-	100.0	- (3)
기타	-	25.0	16.7	50.0	8.3	100.0 (12)
초등학교 교사	-	5.8	42.0	47.8	4.3	100.0 (69)
학교구분						
초등학교	-	6.4	38.5	50.0	5.1	100.0 (78)
중학교	-	16.9	36.6	41.3	5.2	100.0 (213)
고등학교(인문계)	-	25.6	32.7	37.9	3.8	100.0 (211)
고등학교(실업계)	-	25.9	18.5	55.6	-	100.0 (27)

〈부표 3-5〉 출산(인구포함) 관련 교과 내용 분량의 교육목표 달성에 적절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충분	충분 한편	보통	부족 한편	매우 부족	계 (명)
전체	-	5.9	33.3	55.5	5.3	100.0 (528)
담당교과						
국어	-	-	20.0	80.0	-	100.0 (5)
도덕	-	5.8	29.1	55.8	9.3	100.0 (86)
사회	-	8.3	33.3	53.9	4.4	100.0 (204)
과학	-	10.0	50.0	40.0	-	100.0 (10)
기술, 가정	-	5.4	35.4	53.8	5.4	100.0 (130)
외국어(영어)	-	-	-	100.0	-	100.0 (3)
기타	-	-	33.3	50.0	16.7	100.0 (12)
초등학교 교사	-	1.4	37.7	58.0	2.9	100.0 (69)
학교구분						
초등학교	-	1.3	33.3	62.8	2.6	100.0 (77)
중학교	-	5.7	33.5	55.2	5.7	100.0 (213)
고등학교(인문계)	-	8.1	33.6	53.1	5.2	100.0 (211)
고등학교(실업계)	-	3.7	29.6	55.6	11.1	100.0 (27)

〈부표 3-6〉 출산(인구포함)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사진·도표의 적절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절	적절 한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 않음	계 (명)
전체	0.8	10.1	41.3	43.3	4.6	100.0 (526)
담당교과						
국어	-	-	20.0	80.0	-	100.0 (5)
도덕	-	10.5	40.7	46.5	2.3	100.0 (86)
사회	1.5	11.2	42.0	41.0	4.4	100.0 (205)
과학	-	20.0	30.0	50.0	-	100.0 (10)
기술, 가정	-	10.9	38.0	45.7	5.4	100.0 (129)
외국어(영어)	-	-	33.3	66.7	-	100.0 (3)
기타	-	-	41.7	41.7	16.7	100.0 (12)
초등학교 교사	1.5	7.4	51.5	35.3	4.4	100.0 (68)
학교구분						
초등학교	1.3	6.5	49.4	37.7	5.2	100.0 (77)
중학교	-	9.0	42.5	43.9	4.7	100.0 (212)
고등학교(인문계)	1.4	13.7	35.5	45.5	3.8	100.0 (211)
고등학교(실업계)	-	-	51.9	40.7	7.4	100.0 (27)

〈부표 3-7〉 출산(인구포함)에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명)
전체	34.5	41.6	13.2	5.2	1.7	1.1	2.7	100.0 (524)
담당교과								
국어	20.0	60.0	-	20.0	-	-	-	100.0 (5)
도덕	37.2	43.0	10.5	3.5	1.2	2.3	2.3	100.0 (86)
사회	35.8	37.3	15.7	5.9	1.0	1.0	3.4	100.0 (204)
과학	20.0	50.0	20.0	-	-	10.0	-	100.0 (10)
기술, 가정	29.5	48.1	10.1	4.7	4.7	0.8	2.3	100.0 (129)
외국어(영어)	33.3	66.7	-	-	-	-	-	100.0 (3)
기타	50.0	25.0	16.7	8.3	-	-	-	100.0 (12)
초등학교 교사	38.8	37.3	16.4	4.5	-	-	3.0	100.0 (67)
학교구분								
초등학교	35.5	42.1	14.5	5.3	-	-	2.6	100.0 (76)
중학교	31.5	44.6	12.7	5.2	2.3	1.4	2.3	100.0 (213)
고등학교(인문계)	38.8	36.8	13.9	4.8	1.4	1.4	2.9	100.0 (209)
고등학교(실업계)	22.2	55.6	7.4	7.4	3.7	-	3.7	100.0 (27)

주: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④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⑤ 기타, ⑥ 모르겠다, ⑦ 애로사항이 없다.

4.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

〈부표 4-1〉 가족 관련 가르침 경험 여부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53.8	46.2	100.0 (1,094)
담당교과			
국어	40.8	59.2	100.0 (49)
도덕	87.1	12.9	100.0 (147)
사회	40.3	59.7	100.0 (320)
과학	6.1	93.9	100.0 (33)
기술, 가정	72.2	27.8	100.0 (194)
외국어(영어)	14.3	85.7	100.0 (49)
기타	10.3	89.7	100.0 (116)
초등학교 교사	82.2	17.8	100.0 (169)
학교구분			
초등학교	81.0	19.0	100.0 (189)
중학교	48.7	51.3	100.0 (435)
고등학교(인문계)	49.2	50.8	100.0 (396)
고등학교(실업계)	40.0	60.0	100.0 (75)

〈부표 4-2〉 가족 관련 교과서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절	적절 한 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 않음	계 (명)
전체	3.4	26.5	50.0	19.0	1.0	100.0 (88)
담당교과						
국어	5.0	40.0	35.0	20.0	-	100.0 (20)
도덕	4.7	30.7	49.6	12.6	2.4	100.0 (127)
사회	3.9	10.9	51.9	31.0	2.3	100.0 (129)
과학	-	50.0	-	50.0	-	100.0 (2)
기술, 가정	2.9	25.0	48.6	23.6	-	100.0 (140)
외국어(영어)	-	28.6	57.1	14.3	-	100.0 (7)
기타	-	25.0	50.0	25.0	-	100.0 (12)
초등학교 교사	2.2	37.4	51.8	8.6	-	100.0 (139)
학교구분						
초등학교	2.6	35.9	51.6	9.8	-	100.0 (153)
중학교	3.8	31.6	48.1	16.0	0.5	100.0 (212)
고등학교(인문계)	4.1	13.9	52.1	27.3	2.6	100.0 (194)
고등학교(실업계)	-	23.3	43.3	33.3	-	100.0 (30)

〈부표 4-3〉 가족 관련 교과서 내용의 학생 수준과 흥미유발의 적합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합	적합 한 편	보통	적합하지 않은 편	전혀 적합않음	계 (명)
전체	1.2	15.8	51.4	30.3	1.4	100.0 (588)
담당교과						
국어	-	30.0	40.0	30.0	-	100.0 (20)
도덕	2.3	14.1	47.7	33.6	2.3	100.0 (128)
사회	0.8	3.9	56.6	37.2	1.6	100.0 (129)
과학	-	-	50.0	50.0	-	100.0 (2)
기술, 가정	-	13.6	52.9	33.6	-	100.0 (140)
외국어(영어)	-	28.6	42.9	28.6	-	100.0 (7)
기타	-	-	58.3	33.3	8.3	100.0 (12)
초등학교 교사	1.4	30.4	50.7	16.7	0.7	100.0 (138)
학교구분						
초등학교	2.0	28.9	49.3	18.4	1.3	100.0 (152)
중학교	0.5	13.7	54.7	30.2	0.9	100.0 (212)
고등학교(인문계)	1.5	9.2	48.2	39.5	1.5	100.0 (195)
고등학교(실업계)	-	6.7	56.7	33.3	3.3	100.0 (30)

〈부표 4-4〉 가족 관련 소재의 시대성 및 현실성 반영 정도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충분히 반영	반영하고 있는 편	보통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	전혀 반영 않음	계 (명)
전체	0.5	21.3	39.7	36.6	1.9	100.0 (587)
담당교과						
국어	-	25.0	40.0	35.0	-	100.0 (20)
도덕	0.8	25.2	31.5	40.2	2.4	100.0 (127)
사회	1.6	15.5	43.4	38.0	1.6	100.0 (129)
과학	-	50.0	-	50.0	-	100.0 (2)
기술, 가정	-	18.6	45.0	35.7	0.7	100.0 (140)
외국어(영어)	-	28.6	14.3	57.1	-	100.0 (7)
기타	-	8.3	33.3	50.0	8.3	100.0 (12)
초등학교 교사	-	26.8	42.0	29.0	2.2	100.0 (138)
학교구분						
초등학교	-	25.0	40.8	31.6	2.6	100.0 (152)
중학교	0.5	21.3	41.2	35.5	1.4	100.0 (211)
고등학교(인문계)	1.0	19.5	36.9	41.0	1.5	100.0 (195)
고등학교(실업계)	-	13.3	40.0	43.3	3.3	100.0 (30)

〈부표 4-5〉 가족 관련 교과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 달성하기에 적절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절	적절 한 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 않음	계 (명)
전체	0.3	17.3	44.9	35.9	1.5	100.0 (588)
담당교과						
국어	-	15.0	60.0	20.0	5.0	100.0 (20)
도덕	0.8	22.7	38.3	38.3	-	100.0 (128)
사회	0.8	13.2	43.4	41.9	0.8	100.0 (129)
과학	-	-	50.0	50.0	-	100.0 (2)
기술, 가정	-	15.0	39.3	43.6	2.1	100.0 (140)
외국어(영어)	-	-	42.9	42.9	14.3	100.0 (7)
기타	-	-	58.3	33.3	8.3	100.0 (12)
초등학교 교사	-	22.5	54.3	22.5	0.7	100.0 (138)
학교구분						
초등학교	-	21.1	53.9	23.7	1.3	100.0 (152)
중학교	0.5	19.8	40.6	36.8	2.4	100.0 (212)
고등학교(인문계)	0.5	13.8	43.1	42.1	0.5	100.0 (195)
고등학교(실업계)	-	3.3	43.3	50.0	3.3	100.0 (30)

〈부표 4-6〉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사진·도표의 적절성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 않음	계 (명)
전체	0.3	11.9	43.4	42.3	2.0	100.0 (588)
담당교과						
국어	-	25.0	35.0	40.0	-	100.0 (20)
도덕	-	10.2	43.0	45.3	1.6	100.0 (128)
사회	0.8	9.3	45.0	41.1	3.9	100.0 (129)
과학	-	-	50.0	50.0	-	100.0 (2)
기술, 가정	-	7.1	39.3	52.9	0.7	100.0 (140)
외국어(영어)	-	-	57.1	42.9	-	100.0 (7)
기타	-	8.3	33.3	50.0	8.3	100.0 (12)
초등학교 교사	0.7	19.6	50.0	28.3	1.4	100.0 (138)
학교구분						
초등학교	0.7	19.1	47.4	30.9	2.0	100.0 (152)
중학교	-	10.8	45.8	41.5	1.9	100.0 (212)
고등학교(인문계)	0.5	8.7	37.9	50.8	2.1	100.0 (195)
고등학교(실업계)	-	3.3	40.0	53.3	3.3	100.0 (30)

〈부표 4-7〉 가족에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명)
전체	41.0	34.8	12.8	5.2	1.4	1.2	3.6	100.0 (580)
담당교과								
국어	36.8	26.3	10.5	5.3	5.3	5.3	10.5	100.0 (19)
도덕	46.4	28.8	13.6	4.0	1.6	1.6	4.0	100.0 (125)
사회	41.9	34.9	11.6	6.2	0.8	1.6	3.1	100.0 (129)
과학	-	-	50.0	50.0	-	-	-	100.0 (2)
기술, 가정	39.3	41.4	8.6	5.0	2.9	-	2.9	100.0 (140)
외국어(영어)	42.9	28.6	14.3	-	-	14.3	-	100.0 (7)
기타	36.4	36.4	18.2	9.1	-	-	-	100.0 (11)
초등학교 교사	37.8	35.6	17.0	4.4	-	0.7	4.4	100.0 (135)
학교구분								
초등학교	38.3	35.6	16.1	4.7	-	1.3	4.0	100.0 (149)
중학교	38.5	35.6	12.5	4.3	1.9	1.4	5.8	100.0 (208)
고등학교(인문계)	47.4	32.0	11.3	6.2	0.5	1.0	1.5	100.0 (194)
고등학교(실업계)	30.0	46.7	6.7	6.7	10.0	-	-	100.0 (30)

주: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④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⑤ 기타, ⑥ 모르겠다, ⑦ 애로 사항이 없다.

〈부표 4-8〉 가족 형태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많은 변화 생겼음	전형적 가족형태 바람직	주변사람들 사고전환 필요	기타	생각해본적 없음	(명)
전체	58.2	33.9	49.9	0.5	2.3	(1,132)
성별						
남자	55.6	46.6	38.6	0.6	2.8	(466)
여자	60.1	25.1	57.8	0.5	2.0	(666)
담당교과						
국어	76.5	35.3	45.1	0.0	3.9	(51)
도덕	54.2	41.9	47.7	1.3	0.6	(155)
사회	56.2	31.2	54.1	0.0	1.2	(333)
과학	47.1	41.2	38.2	0.0	2.9	(34)
기술·가정	56.8	34.2	52.8	0.5	3.0	(199)
외국어(영어)	59.2	34.7	49.0	2.0	2.0	(49)
기타	62.2	28.6	47.1	0.0	4.2	(119)
초등학교교사	61.7	33.7	46.3	1.1	2.9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61.5	31.8	46.7	1.0	3.1	(195)
중학교	59.6	32.0	48.3	0.7	1.8	(453)
인문계	56.3	37.8	51.2	0.0	2.4	(410)
실업계	51.4	29.7	60.8	1.4	2.7	(74)

5.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 시 고려할 내용

〈부표 5-1〉 출산(인구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이 적절한 교과목 (복수응답)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실과)	외국어 (영어)	특별활동 (재량활동)	기타	(명)
전체	10.5	54.2	60.6	9.1	60.1	2.9	33.2	4.4	(1,130)
담당교과									
국어	15.7	54.9	66.7	9.8	62.7	0.0	29.4	3.9	(51)
도덕	11.8	75.7	52.0	7.2	59.2	3.9	33.6	5.3	(152)
사회	11.1	55.9	77.5	11.1	63.1	3.9	27.3	4.5	(333)
과학	11.8	41.2	55.9	14.7	50.0	2.9	26.5	0.0	(34)
기술·가정	3.0	40.5	37.0	9.0	84.0	2.0	25.0	2.5	(200)
외국어(영어)	26.5	69.4	75.5	16.3	63.3	14.3	42.9	6.1	(49)
기타	5.0	43.7	49.6	8.4	60.5	0.8	58.0	5.9	(119)
초등학교교사	14.3	51.4	66.9	5.1	30.9	0.6	34.9	4.6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14.4	52.8	64.6	5.1	30.8	0.5	36.4	6.2	(195)
중학교	10.0	59.3	53.3	8.4	66.0	2.4	34.7	4.2	(450)
인문계	9.0	50.1	67.2	10.5	67.6	4.9	29.4	3.9	(411)
실업계	12.0	48.0	58.7	16.0	58.7	1.3	36.0	4.0	(75)

〈부표 5-2〉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 시기 적절성(복수응답)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실과)	외국어 (영어)	특별활동 (재량활동)	기타	(명)
전체	13.8	74.7	45.9	3.7	52.2	2.9	29.3	3.7	(1,130)
담당교과									
국어	40.0	92.0	46.0	4.0	42.0	2.0	32.0	2.0	(50)
도덕	13.1	90.8	41.8	4.6	50.3	3.9	27.5	4.6	(153)
사회	14.1	74.2	57.1	3.6	53.2	3.6	25.5	3.9	(333)
과학	8.8	76.5	47.1	5.9	35.3	0.0	17.6	0.0	(34)
기술·가정	4.5	56.0	26.0	3.0	80.5	2.5	20.5	1.5	(200)
외국어(영어)	28.6	93.9	67.3	8.2	57.1	12.2	38.8	2.0	(49)
기타	9.2	67.2	40.3	3.4	54.6	0.8	47.1	5.0	(119)
초등학교교사	17.1	77.7	48.6	2.9	25.1	1.1	33.1	5.7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16.9	76.9	48.7	2.6	26.2	1.0	34.4	6.2	(195)
중학교	13.6	80.7	35.3	3.6	54.4	3.1	29.1	2.9	(450)
인문계	11.9	69.1	56.0	3.9	61.1	3.9	27.7	3.2	(411)
실업계	17.3	62.7	48.0	6.7	57.3	1.3	25.3	5.3	(75)

〈부표 5-3〉 학교에서 출산 친화적 교육이 적절한 시기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명)
전체	45.1	38.6	13.0	3.3	100.0 (1,130)
담당교과					
국어	51.0	33.3	11.8	3.9	100.0 (51)
도덕	46.4	35.3	15.7	2.6	100.0 (153)
사회	44.9	35.5	14.8	4.8	100.0 (332)
과학	52.9	23.5	17.6	5.9	100.0 (34)
기술, 가정	37.8	42.8	14.9	4.5	100.0 (201)
외국어(영어)	49.0	38.8	10.2	2.0	100.0 (49)
기타	42.4	40.7	16.1	0.8	100.0 (118)
초등학교 교사	50.3	44.0	4.6	1.1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50.8	44.6	3.6	1.0	100.0 (195)
중학교	41.9	39.0	16.6	2.4	100.0 (451)
고등학교(인문계)	44.4	37.6	13.4	4.6	100.0 (410)
고등학교(실업계)	53.3	26.7	13.3	6.7	100.0 (75)

〈부표 5-4〉 학교에서 가족 친화적 교육이 적절한 시기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명)
전체	79.8	17.2	2.5	0.5	100.0 (1,131)
담당교과					
국어	86.3	11.8	2.0	-	100.0 (51)
도덕	83.0	14.4	2.0	0.7	100.0 (153)
사회	80.5	15.9	3.3	0.3	100.0 (333)
과학	70.6	23.5	2.9	2.9	100.0 (34)
기술, 가정	71.6	23.4	4.0	1.0	100.0 (201)
외국어(영어)	81.6	18.4	-	-	100.0 (49)
기타	72.0	25.4	2.5	-	100.0 (118)
초등학교 교사	89.7	9.1	0.6	0.6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89.2	10.3	-	0.5	100.0 (195)
중학교	76.1	20.8	2.7	0.4	100.0 (451)
고등학교(인문계)	78.8	17.3	3.4	0.5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81.3	14.7	2.7	1.3	100.0 (75)

〈부표 5-5〉 출산(인구포함) 관련 교육내용 개선방향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명)
전체	67.8	28.0	1.0	1.9	0.8	0.4	100.0 (1,132)
담당교과							
국어	80.4	19.6	-	-	-	-	100.0 (51)
도덕	59.5	32.7	2.0	3.9	0.7	1.3	100.0 (153)
사회	71.0	25.4	0.9	1.2	1.2	0.3	100.0 (334)
과학	61.8	26.5	2.9	8.8	-	-	100.0 (34)
기술, 가정	62.7	33.3	1.0	2.5	0.5	-	100.0 (201)
외국어(영어)	77.6	22.4	-	-	-	-	100.0 (49)
기타	70.3	28.0	-	0.8	0.8	-	100.0 (118)
초등학교 교사	69.7	26.3	1.1	1.7	-	1.1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10.9	52.3	20.2	9.3	7.3	-	100.0 (193)
중학교	12.2	53.1	20.8	6.2	7.1	0.7	100.0 (452)
고등학교(인문계)	8.4	45.5	27.8	10.8	6.1	1.5	100.0 (407)
고등학교(실업계)	14.9	43.2	25.7	13.5	2.7	-	100.0 (74)

주: ①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 한다.

②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 한다.

③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④ 출산은 개인적인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⑤ 기타, ⑥ 모르겠다.

〈부표 5-6〉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개선 시 고려 사항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명)
전체	5.2	11.1	29.1	53.9	0.4	0.3	100.0 (1,131)
담당교과							
국어	3.9	13.7	19.6	62.7	-	-	100.0 (51)
도덕	3.9	9.2	40.1	46.7	-	-	100.0 (152)
사회	3.9	10.5	29.9	55.1	0.6	-	100.0 (334)
과학	8.8	17.6	20.6	50.0	2.9	-	100.0 (34)
기술, 가정	9.0	9.0	31.3	50.2	-	0.5	100.0 (201)
외국어(영어)	10.2	2.0	28.6	59.2	-	-	100.0 (49)
기타	3.4	14.4	17.8	62.7	-	1.7	100.0 (118)
초등학교 교사	3.4	14.3	28.0	53.7	0.6	-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3.6	13.8	28.2	53.3	1.0	-	100.0 (195)
중학교	5.5	10.8	29.6	53.5	0.2	0.2	100.0 (452)
고등학교(인문계)	5.9	10.0	29.0	54.1	0.5	0.5	100.0 (410)
고등학교(실업계)	4.0	10.7	28.0	57.3	-	-	100.0 (75)

주: ① 교과 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②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③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⑤ 기타, ⑥ 모르겠다.

〈부표 5-7〉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명)
전체	19.8	44.7	25.2	7.3	2.1	1.0	100.0 (1,131)
담당교과							
국어	17.6	45.1	21.6	7.8	7.8	-	100.0 (51)
도덕	21.6	54.2	13.7	5.9	2.0	2.6	100.0 (153)
사회	18.3	45.9	24.0	8.4	3.3	-	100.0 (333)
과학	23.5	32.4	29.4	14.7	-	-	100.0 (34)
기술, 가정	21.9	52.7	19.4	5.0	0.5	0.5	100.0 (201)
외국어(영어)	30.6	32.7	24.5	6.1	2.0	4.1	100.0 (49)
기타	19.5	28.0	43.2	7.6	-	1.7	100.0 (118)
초등학교 교사	17.1	41.1	31.4	7.4	1.7	1.1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15.4	42.1	31.8	7.7	2.1	1.0	100.0 (195)
중학교	16.8	46.5	28.5	5.1	1.8	1.3	100.0 (452)
고등학교(인문계)	24.6	43.7	18.8	9.5	2.7	0.7	100.0 (410)
고등학교(실업계)	22.7	46.7	22.7	6.7	1.3	-	100.0 (75)

- 주: ① 교사가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 한다.
 ②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③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④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이 담긴 독서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⑤ 기타, ⑥ 모르겠다.

6.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

〈부표 6-1〉 성교육 관련 내용 가르침 유무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33.5	66.5	100.0 (1,100)
담당교과			
국어	10.0	90.0	100.0 (50)
도덕	44.1	55.9	100.0 (152)
사회	11.7	88.3	100.0 (317)
과학	38.2	61.8	100.0 (34)
기술, 가정	64.5	35.5	100.0 (197)
외국어(영어)	8.5	91.5	100.0 (47)
기타	18.4	81.6	100.0 (114)
초등학교 교사	50.9	49.1	100.0 (173)
학교구분			
초등학교	50.8	49.2	100.0 (191)
중학교	31.7	68.3	100.0 (439)
고등학교(인문계)	27.1	72.9	100.0 (398)
고등학교(실업계)	34.2	65.8	100.0 (73)

〈부표 6-2〉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이수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명)
전체	35.4	64.6	100.0 (367)
담당교과			
국어	20.0	80.0	100.0 (5)
도덕	29.9	70.1	100.0 (67)
사회	27.8	72.2	100.0 (36)
과학	23.1	76.9	100.0 (13)
기술, 가정	46.8	53.2	100.0 (126)
외국어(영어)	25.0	75.0	100.0 (4)
기타	76.2	23.8	100.0 (21)
초등학교 교사	22.7	77.3	100.0 (88)
학교구분			
초등학교	21.6	78.4	100.0 (97)
중학교	41.3	58.7	100.0 (138)
고등학교(인문계)	38.3	61.7	100.0 (107)
고등학교(실업계)	44.0	56.0	100.0 (25)

〈부표 6-3〉 성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길러주는데 적절성 여부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 않음	계 (명)
전체	1.1	20.2	46.3	30.5	1.9	100.0 (367)
담당교과						
국어	-	-	60.0	40.0	-	100.0 (5)
도덕	-	23.9	37.3	37.3	1.5	100.0 (67)
사회	-	11.1	36.1	38.9	13.9	100.0 (36)
과학	-	15.4	53.8	30.8	-	100.0 (13)
기술, 가정	1.6	23.6	46.5	28.3	-	100.0 (127)
외국어(영어)	-	-	50.0	50.0	-	100.0 (4)
기타	4.8	14.3	52.4	23.8	4.8	100.0 (21)
초등학교 교사	1.1	20.7	52.9	25.3	-	100.0 (87)
학교구분						
초등학교	-	19.8	54.2	26.0	-	100.0 (96)
중학교	0.7	28.8	38.8	29.5	2.2	100.0 (139)
고등학교(인문계)	2.8	10.3	46.7	37.4	2.8	100.0 (107)
고등학교(실업계)	-	16.0	56.0	24.0	4.0	100.0 (25)

〈부표 6-4〉 성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수준 적합성 여부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보통	적절하지 않은 편	전혀 적절 않음	계 (명)
전체	0.5	14.4	41.4	39.0	4.6	100.0 (367)
담당교과						
국어	-	-	20.0	60.0	20.0	100.0 (5)
도덕	-	11.9	38.8	44.8	4.5	100.0 (67)
사회	-	11.1	33.3	38.9	16.7	100.0 (36)
과학	-	23.1	69.2	7.7	-	100.0 (13)
기술, 가정	0.8	16.5	37.0	42.5	3.1	100.0 (127)
외국어(영어)	-	-	25.0	75.0	-	100.0 (4)
기타	4.8	9.5	38.1	38.1	9.5	100.0 (21)
초등학교 교사	-	16.1	52.9	29.9	1.1	100.0 (87)
학교구분						
초등학교	-	14.6	51.0	33.3	1.0	100.0 (96)
중학교	0.7	19.4	40.3	35.3	4.3	100.0 (139)
고등학교(인문계)	0.9	9.3	30.8	50.5	8.4	100.0 (107)
고등학교(실업계)	-	8.0	56.0	32.0	4.0	100.0 (25)

〈부표 6-5〉 학생의 성교육 필요성 정도에 대한 교사의 태도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필요	필요한 편	보통	전혀 필요없음	계 (명)
전체	73.4	23.6	2.7	0.3	100.0 (368)
담당교과					
국어	40.0	60.0	-	-	100.0 (5)
도덕	67.2	31.3	1.5	-	100.0 (67)
사회	69.4	22.2	5.6	2.8	100.0 (36)
과학	53.8	38.5	7.7	-	100.0 (13)
기술, 가정	75.6	22.0	2.4	-	100.0 (127)
외국어(영어)	75.0	25.0	-	-	100.0 (4)
기타	85.7	14.3	-	-	100.0 (21)
초등학교 교사	78.4	18.2	3.4	-	100.0 (88)
학교구분					
초등학교	77.3	19.6	3.1	-	100.0 (97)
중학교	71.2	25.2	2.9	0.7	100.0 (139)
고등학교(인문계)	71.0	26.2	2.8	-	100.0 (107)
고등학교(실업계)	80.0	20.0	-	-	100.0 (25)

〈부표 6-6〉 성교육 관한 수업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명)
전체	24.7	35.3	13.0	17.4	5.4	1.4	2.7	100.0 (368)
담당교과								
국어	20.0	40.0	20.0	20.0	-	-	-	100.0 (5)
도덕	35.8	29.9	16.4	14.9	3.0	-	-	100.0 (67)
사회	27.8	30.6	25.0	11.1	2.8	-	2.8	100.0 (36)
과학	-	38.5	30.8	-	7.7	7.7	15.4	100.0 (13)
기술, 가정	29.1	39.4	10.2	9.4	5.5	3.1	3.1	100.0 (127)
외국어(영어)	-	25.0	-	75.0	-	-	-	100.0 (4)
기타	28.6	28.6	4.8	19.0	19.0	-	-	100.0 (21)
초등학교 교사	14.8	37.5	6.8	31.8	5.7	-	3.4	100.0 (88)
학교구분								
초등학교	14.4	35.1	10.3	30.9	6.2	-	3.1	100.0 (97)
중학교	21.6	40.3	13.7	11.5	5.8	2.9	4.3	100.0 (139)
고등학교(인문계)	36.4	30.8	14.0	14.0	2.8	0.9	0.9	100.0 (107)
고등학교(실업계)	32.0	28.0	16.0	12.0	12.0	-	-	100.0 (25)

주: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④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⑤ 기타, ⑥ 모르겠다, ⑦ 애로사항이 없다.

7. 일반적 가치 측정

〈부표 7-1〉 일반적 가치에 대한 교사의 태도

단위: (평균점수)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초등학교													
남자	7.62	4.67	7.79	7.03	4.90	7.82	7.64	6.74	7.82	7.90	8.08	7.64	7.21
여자	8.02	4.81	7.71	7.48	4.86	7.82	7.59	6.80	7.84	7.99	8.22	7.57	7.06
중학교													
남자	7.53	4.63	7.65	6.94	5.04	8.10	7.30	6.89	7.61	8.02	8.06	7.52	7.04
여자	7.91	4.59	7.43	6.92	4.75	7.88	7.48	6.52	7.49	7.92	8.27	7.60	6.75
고등학교													
남자	7.74	4.76	7.68	7.06	5.06	8.07	7.21	6.59	7.48	7.82	8.00	7.56	6.79
여자	8.00	4.40	7.48	6.93	4.43	7.80	7.49	6.70	7.53	7.62	8.07	7.31	6.80
계(집)	7.84	4.63	7.58	7.04	4.82	7.93	7.41	6.67	7.57	7.87	8.13	7.52	6.87

주: 1) ① 평등(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② 사회적 권력(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③ 자유(행동과 사고의 자유)

④ 사회적 인정(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⑤ 권위(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⑥ 사회 정의(불의를 바로 잡음, 약자를 보살핌), ⑦ 독립성(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임), ⑧ 야망 있음(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⑨ 마음이 넓음(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⑩ 환경보고(자연을 보존하기), ⑪ 정직(거짓 없음, 진실함), ⑫ 도움이 됨(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⑬ 성공(목표를 달성함).

2) 각 항목에 대한 측정은 1 거부하는 가치임, 2 중요하지 않음..... 8 매우 중요함, 9 극히 중요함으로 구성되며, 본 표에서는 이들 값의 평균 점수임.

8. 성평등관

〈부표 8-1〉 교사의 성평등의식

(단위: 평균)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초등학교																			
남자	1.8	1.8	1.9	2.2	1.8	1.5	1.6	1.5	1.7	2.5	1.9	2.0	1.9	2.2	1.7	1.6	1.6	2.2	2.1
여자	1.4	1.2	1.3	1.8	1.2	1.2	1.5	1.3	1.3	2.3	1.6	1.4	1.4	1.6	1.3	1.3	1.4	1.6	1.9
전체	1.5	1.3	1.4	1.9	1.4	1.2	1.5	1.3	1.4	2.3	1.6	1.6	1.5	1.7	1.4	1.4	1.4	1.7	1.9
중학교																			
남자	2.1	1.8	1.9	2.3	1.8	1.6	1.8	1.7	1.9	2.5	1.9	2.1	1.8	2.0	1.7	1.7	1.7	2.1	2.3
여자	1.6	1.3	1.3	1.8	1.3	1.3	1.5	1.3	1.3	2.2	1.5	1.5	1.3	1.5	1.3	1.3	1.4	1.6	1.8
전체	1.8	1.4	1.5	2.0	1.5	1.4	1.6	1.4	1.5	2.3	1.7	1.7	1.5	1.7	1.5	1.4	1.5	1.8	2.0
고등학교																			
남자	2.0	1.8	1.9	2.3	1.9	1.2	1.5	1.2	1.3	2.1	1.5	1.4	1.2	1.4	1.2	1.2	1.3	1.5	1.8
여자	1.3	1.3	1.2	1.7	1.3	1.2	1.5	1.2	1.5	2.1	1.5	1.4	1.2	1.4	1.2	1.2	1.3	1.5	1.8
전체	1.7	1.6	1.6	2.0	1.6	1.4	1.6	1.5	1.6	2.3	1.7	1.8	1.5	1.7	1.5	1.5	1.5	1.8	2.1

- 주: 1) ①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②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 한다.
 ③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④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⑤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⑥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⑦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⑧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 할 수 있다.
 ⑨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⑩ 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⑪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⑫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이지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⑬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마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⑭ 여자가 관·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⑮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⑯ 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⑰ 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⑱ 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⑲ 여자가 육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⑳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 2) 평균점수는 ①, ④, ⑦, ⑧, ⑨, ⑪, ⑫, ⑬, ⑮, ⑯, ⑰, ⑲, ⑳의 경우 ‘매우 찬성함’=4점,
 ‘대체로 찬성함’=3점, ‘별로 찬성안함’=2점, ‘전혀 찬성 안함’=1점을 각각 부과하여 산출한 평균치임.

9. 결혼관

〈부표 9-1〉 결혼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태도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반드시 해야 함	하는 편 좋음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됨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음	계 (명)
전체	14.7	55.6	28.5	0.8	0.4	100.0 (1,134)
성별						
남자	27.6	60.0	11.8	0.4	0.2	100.0 (467)
여자	5.7	52.5	40.2	1.0	0.6	100.0 (667)
담당교과						
국어	19.6	47.1	29.4	3.9	-	100.0 (51)
도덕	23.9	52.3	22.6	-	1.3	100.0 (155)
사회	11.1	56.3	31.1	0.6	0.9	100.0 (334)
과학	5.9	64.7	23.5	5.9	-	100.0 (34)
기술·가정	12.4	53.7	33.8	-	-	100.0 (201)
외국어(영어)	10.2	63.3	26.5	-	-	100.0 (49)
기타	21.8	50.4	26.1	1.7	-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13.8	60.3	25.3	0.6	-	100.0 (174)
학교구분						
초등학교	14.4	59.3	25.8	0.5	-	100.0 (194)
중학교	14.3	52.5	31.4	1.5	0.2	100.0 (455)
고등학교(인문계)	16.5	56.9	25.5	0.2	0.7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8.0	56.0	34.7	-	1.3	100.0 (75)

〈부표 9-2〉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견해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명)
전체	44.2	36.4	1.5	3.1	0.6	10.9	0.3	1.9	1.1	100.0 (1,135)
성별										
남자	44.8	36.2	2.1	4.1	1.3	9.4	-	1.3	0.9	100.0 (467)
여자	43.9	36.5	1.0	2.4	0.1	12.0	0.4	2.4	1.2	100.0 (668)
담당교과										
국어	37.3	29.4	2.0	5.9	-	19.6	-	2.0	3.9	100.0 (51)
도덕	43.9	38.7	1.3	1.9	0.6	11.0	-	2.6	-	100.0 (155)
사회	43.1	38.9	1.2	2.1	0.6	11.4	0.6	0.9	1.2	100.0 (334)
과학	44.1	35.3	5.9	2.9	-	8.8	-	-	2.9	100.0 (34)
기술, 가정	42.3	42.3	0.5	1.5	1.5	9.0	-	2.0	1.0	100.0 (201)
외국어(영어)	44.9	24.5	2.0	8.2	-	12.2	-	8.2	-	100.0 (49)
기타	47.1	27.7	1.7	7.6	-	12.6	0.8	2.5	-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47.4	36.0	2.3	2.9	0.6	8.0	-	1.7	1.1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47.7	34.4	2.1	2.6	0.5	9.2	-	2.1	1.5	100.0 (195)
중학교	41.8	37.1	1.3	3.5	1.1	11.9	0.4	1.8	1.1	100.0 (455)
고등학교(인문계)	46.2	35.3	1.5	2.4	0.2	10.9	-	2.4	1.0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38.7	44.0	1.3	5.3	-	9.3	1.3	-	-	100.0 (75)

주: 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서

②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③ 자녀를 갖기 위해서

④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⑥ 사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⑦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⑧ 기타

⑨ 모르겠다

〈부표 9-3〉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결혼연령

(단위: %, 명, 세)

초·중·고 교사특성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3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연령
전체	1.0	5.9	20.9	50.4	19.8	2.1	100.0 (1,111)	30.5
성별								
남자	1.9	10.7	31.0	41.5	14.1	0.6	100.0 (467)	29.9
여자	0.3	2.3	13.5	56.8	23.9	3.1	100.0 (644)	30.9
담당교과								
국어	-	8.0	18.0	60.0	12.0	2.0	100.0 (50)	30.3
도덕	0.7	8.0	24.0	51.3	13.3	2.7	100.0 (150)	30.2
사회	1.2	6.1	21.1	47.1	22.0	2.4	100.0 (327)	30.5
과학	9.1	6.1	18.2	36.4	27.3	3.0	100.0 (33)	30.5
기술·가정	-	3.6	25.8	51.0	18.0	1.5	100.0 (194)	30.5
외국어(영어)	-	23.4	46.8	17.0	-	-	100.0 (47)	30.5
기타	1.7	4.2	21.8	47.1	22.7	2.5	100.0 (119)	30.6
초등학교 교사	0.6	4.6	12.6	59.8	20.7	1.7	100.0 (174)	30.6
학교구분								
초등학교	0.5	5.2	13.4	56.7	22.7	1.5	100.0 (194)	30.8
중학교	0.9	4.3	21.9	50.3	20.1	2.5	100.0 (443)	30.5
고등학교(인문계)	1.3	8.5	24.3	45.8	18.8	1.5	100.0 (400)	30.3
고등학교(실업계)	1.3	2.7	17.3	58.7	16.0	4.0	100.0 (75)	30.6

〈부표 9-4〉 교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연령

(단위: %, 명, 세)

초·중·고 교사특성	25세 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3세	35세 이상	계 (명)	평균연령
전체	10.5	29.1	35.3	22.0	2.4	0.6	100.0 (1,110)	28.3
성별								
남자	19.1	40.0	30.1	10.1	0.4	0.2	100.0 (465)	28.3
여자	4.3	21.2	39.1	30.5	3.9	0.9	100.0 (645)	28.8
담당교과								
국어	10.0	20.0	40.0	28.0	2.0	-	100.0 (50)	28.5
도덕	8.7	34.7	32.7	20.0	3.3	0.7	100.0 (150)	28.3
사회	12.5	27.2	33.9	22.6	2.4	1.2	100.0 (327)	28.4
과학	15.2	24.2	39.4	18.2	-	3.0	100.0 (33)	28.4
기술·가정	10.9	31.3	34.4	21.4	1.6	0.5	100.0 (192)	28.3
외국어(영어)	10.4	39.6	29.2	12.5	8.3	-	100.0 (48)	28.1
기타	12.6	26.9	39.5	19.3	1.7	-	100.0 (119)	28.2
초등학교 교사	6.3	28.2	37.4	25.9	2.3	-	100.0 (174)	28.6
학교구분								
초등학교	6.7	28.4	37.1	25.3	2.6	-	100.0 (194)	28.6
중학교	9.3	28.3	36.9	21.5	2.9	1.1	100.0 (442)	28.5
고등학교(인문계)	13.5	30.8	33.0	20.3	2.0	0.5	100.0 (400)	28.1
고등학교(실업계)	12.0	28.0	33.3	25.3	1.3	-	100.0 (75)	28.3

〈부표 9-5〉 남자가 35세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흥이 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1.8	11.2	28.2	27.7	30.5	0.6	100.0 (1,132)
성별							
남자	2.8	19.7	32.4	23.2	21.7	0.2	100.0 (466)
여자	1.1	5.3	25.2	30.9	36.6	0.9	100.0 (666)
담당교과							
국어	5.9	13.7	29.4	21.6	29.4	-	100.0 (51)
도덕	3.2	12.3	31.6	24.5	27.7	0.6	100.0 (155)
사회	-	12.3	26.7	29.4	30.6	0.9	100.0 (333)
과학	2.9	11.8	32.4	14.7	35.3	2.9	100.0 (34)
기술, 가정	3.0	9.5	25.9	28.4	33.3	-	100.0 (201)
외국어(영어)	2.0	10.2	36.7	24.5	26.5	-	100.0 (49)
기타	0.8	15.1	22.7	27.7	32.8	0.8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1.7	6.9	31.2	33.5	26.6	-	100.0 (173)
학교구분							
초등학교	2.1	6.7	30.6	31.1	29.0	0.5	100.0 (193)
중학교	1.8	11.4	26.6	26.2	33.0	1.1	100.0 (455)
고등학교(인문계)	1.9	13.4	30.2	27.7	26.8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	9.5	20.3	28.4	40.5	1.4	100.0 (74)

〈부표 9-6〉 여자가 35세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흥이 된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3.2	11.9	28.8	25.8	29.7	0.7	100.0 (1,133)
성별							
남자	6.4	21.6	31.7	20.3	19.7	0.2	100.0 (467)
여자	0.9	5.1	26.7	29.6	36.6	1.1	100.0 (666)
담당교과							
국어	5.9	15.7	29.4	21.6	27.5	-	100.0 (51)
도덕	3.9	12.9	31.0	23.2	27.7	1.3	100.0 (155)
사회	1.8	14.7	24.9	27.2	30.5	0.9	100.0 (334)
과학	-	9.1	48.5	9.1	30.3	3.0	100.0 (33)
기술, 가정	4.0	7.5	27.4	27.9	33.3	-	100.0 (201)
외국어(영어)	6.1	6.1	38.8	22.4	26.5	-	100.0 (49)
기타	5.9	16.0	21.0	22.7	33.6	0.8	100.0 (119)
초등학교 교사	1.1	9.8	34.5	31.0	23.6	-	100.0 (174)
학교구분							
초등학교	2.1	8.8	34.0	29.4	25.3	0.5	100.0 (194)
중학교	3.1	10.3	27.7	24.8	33.0	1.1	100.0 (455)
고등학교(인문계)	3.9	14.8	29.7	25.1	26.3	0.2	100.0 (411)
고등학교(실업계)	2.7	13.5	16.2	25.7	40.5	1.4	100.0 (74)

10. 결혼생활과 직장생활

〈부표 10-1〉 결혼 및 직장생활에서 겪은 애로사항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명)
전체	38.3	49.3	3.3	2.3	1.1	5.7	100.0 (1,118)
성별							
남자	41.2	33.0	6.9	3.5	2.2	13.2	100.0 (461)
여자	36.2	60.7	0.8	1.5	0.3	0.5	100.0 (657)
담당교과							
국어	45.1	45.1	2.0	5.9	-	2.0	100.0 (51)
도덕	39.1	45.7	4.0	2.6	2.0	6.6	100.0 (151)
사회	36.2	52.3	3.6	2.1	1.2	4.6	100.0 (329)
과학	32.4	50.0	5.9	2.9	2.9	5.9	100.0 (34)
기술, 가정	40.5	48.0	1.0	1.5	-	9.0	100.0 (200)
외국어(영어)	40.8	44.9	4.1	4.1	-	6.1	100.0 (49)
기타	37.6	41.0	5.1	3.4	2.6	10.3	100.0 (117)
초등학교 교사	38.8	55.3	2.9	1.2	0.6	1.2	100.0 (170)
학교구분							
초등학교	36.8	56.8	3.2	1.1	0.5	1.6	100.0 (190)
중학교	35.6	52.8	1.8	2.9	1.3	5.6	100.0 (447)
고등학교(인문계)	41.4	42.6	4.9	2.0	1.0	8.1	100.0 (408)
고등학교(실업계)	40.5	45.9	4.1	4.1	1.4	4.1	100.0 (74)

주: ①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② 직장 일과 가정 일의 이중 부담

③ 부부간의 대화 시간 부족

④ 직장 일에 전념하기 어려움

⑤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⑥ 문제 없다.

〈부표 10-2〉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과 자녀양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출산	직장	모르겠다	계 (명)
전체	30.2	39.1	30.8	100.0 (1,124)
성별				
남자	34.7	35.6	29.7	100.0 (461)
여자	27.0	41.5	31.5	100.0 (663)
담당교과				
국어	27.5	31.4	41.2	100.0 (51)
도덕	34.4	32.5	33.1	100.0 (151)
사회	34.2	33.6	32.1	100.0 (330)
과학	29.4	38.2	32.4	100.0 (34)
기술, 가정	27.4	47.3	25.4	100.0 (201)
외국어(영어)	32.7	49.0	18.4	100.0 (49)
기타	26.3	42.4	31.4	100.0 (118)
초등학교 교사	23.7	43.9	32.4	100.0 (173)
학교구분				
초등학교	24.9	44.0	31.1	100.0 (193)
중학교	29.0	42.3	28.8	100.0 (452)
고등학교(인문계)	33.0	34.7	32.3	100.0 (406)
고등학교(실업계)	35.1	31.1	33.8	100.0 (74)

〈부표 10-3〉 교직이 자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견해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10.8	49.5	23.6	8.9	6.5	0.8	100.0 (1,125)
성별							
남자	12.6	50.4	21.9	7.1	6.7	1.3	100.0 (462)
여자	9.5	48.9	24.7	10.1	6.3	0.5	100.0 (663)
담당교과							
국어	5.9	56.9	27.5	3.9	5.9	-	100.0 (51)
도덕	13.2	53.9	21.1	4.6	4.6	2.6	100.0 (152)
사회	10.0	44.1	28.1	11.2	6.0	0.6	100.0 (331)
과학	5.9	52.9	23.5	2.9	11.8	2.9	100.0 (34)
기술, 가정	11.4	49.8	21.9	11.4	5.0	0.5	100.0 (201)
외국어(영어)	12.2	46.9	22.4	6.1	12.2	-	100.0 (49)
기타	11.1	49.6	23.1	7.7	7.7	0.9	100.0 (117)
비해당(초등학교 교사)	9.8	54.3	19.1	9.8	6.9	-	100.0 (173)
학교구분							
초등학교	10.9	52.3	20.2	9.3	7.3	-	100.0 (193)
중학교	12.2	53.1	20.8	6.2	7.1	0.7	100.0 (452)
고등학교(인문계)	8.4	45.5	27.8	10.8	6.1	1.5	100.0 (407)
고등학교(실업계)	14.9	43.2	25.7	13.5	2.7	-	100.0 (74)

11. 자녀관

〈부표 11-1〉 사람들이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사의 견해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다	계 (명)
전체	30.6	60.0	7.3	1.1	1.0	100.0 (1,132)
성별						
남자	42.1	51.9	3.9	1.5	0.6	100.0 (466)
여자	22.5	65.6	9.8	0.9	1.2	100.0 (666)
담당교과						
국어	37.3	54.9	7.8	-	-	100.0 (51)
도덕	38.1	52.3	7.1	1.3	1.3	100.0 (155)
사회	24.2	64.7	8.2	1.8	1.2	100.0 (331)
과학	29.4	64.7	-	5.9	-	100.0 (34)
기술, 가정	26.4	64.2	8.5	0.5	0.5	100.0 (201)
외국어(영어)	40.8	49.0	8.2	-	2.0	100.0 (49)
기타	38.7	51.3	7.6	0.8	1.7	100.0 (119)
비해당(초등학교 교사)	30.9	62.3	6.3	-	0.6	100.0 (175)
학교구분						
초등학교	30.2	59.3	8.3	1.2	1.0	100.0 (410)
중학교	27.4	58.9	12.3	-	1.4	100.0 (73)
고등학교(인문계)	30.5	60.0	7.3	1.1	1.0	100.0 (1,133)
고등학교(실업계)	34.8	58.8	4.1	1.8	0.5	100.0 (221)

〈부표 11-2〉 사람들이 결혼 후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한 교사의 견해
(단위: %, 명)

구분	결혼 후 자녀 두는 이유 ¹⁾								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14.8	0.8	0.3	2.3	10.9	26.7	41.8	2.4	100.0 (1,021)
성별									
남자	17.8	0.5		5.0	9.6	30.7	33.2	3.2	100.0 (437)
여자	12.5	1.0	0.5	0.2	11.8	23.8	48.3	1.9	100.0 (584)
담당교과									
국어	10.6	-	2.1	4.3	12.8	31.9	34.0	4.3	100.0 (47)
도덕	16.5	1.4	-	4.3	8.6	28.1	38.1	2.9	100.0 (139)
사회	15.7	0.7	-	1.7	15.0	21.8	42.7	2.4	100.0 (293)
과학	25.8	3.2	-	3.2	6.5	29.0	29.0	3.2	100.0 (31)
기술, 가정	13.8	-	0.6	2.2	7.7	28.2	45.9	1.7	100.0 (181)
외국어(영어)	13.6	-	2.3	4.5	15.9	15.9	47.7	-	100.0 (44)
기타	15.9	0.9	-	2.8	6.5	32.7	37.4	3.7	100.0 (107)
초등학교 교사	11.0	0.6	-	-	11.0	28.8	46.6	1.8	100.0 (163)
학교구분									
초등학교	12.0	1.1	-	-	10.9	29.5	44.8	1.6	100.0 (183)
중학교	16.1	0.7	0.7	2.7	11.0	25.6	40.7	2.4	100.0 (410)
고등학교(인문계)	15.0	0.8	-	3.0	10.4	26.2	42.1	2.5	100.0 (366)
고등학교(실업계)	12.7	-	-	1.6	12.7	30.2	38.1	4.8	100.0 (63)

- 주: ①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② 노후에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③ 보살피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④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⑤ 생의 의욕을 주기 때문이다.
 ⑥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⑦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⑧ 기타.

〈부표 11-3〉 사람들이 자녀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한 교사의 견해

(단위: %, 명)

초·중·고 교사특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명)
전체	37.2	8.1	23.3	1.2	-	-	30.2	100.0 (86)
성별								
남자	47.8	13.0	8.7		-	-	30.4	100.0 (23)
여자	33.3	6.3	28.6	1.6	-	-	30.2	100.0 (63)
담당교과								
국어	50.0	-	-		-	-	50.0	100.0 (4)
도덕	18.2	-	27.3		-	-	54.5	100.0 (11)
사회	32.1	3.6	14.3	3.6	-	-	46.4	100.0 (28)
과학	50.0	50.0	-	-	-	-	-	100.0 (2)
기술, 가정	50.0	-	25.0	-	-	-	25.0	100.0 (16)
외국어(영어)	25.0	25.0	50.0	-	-	-	-	100.0 (4)
기타	50.0	20.0	30.0	-	-	-	-	100.0 (10)
초등학교 교사	30.0	20.0	40.0	-	-	-	10.0	100.0 (10)
학교구분								
초등학교	36.4	18.2	36.4	-	-	-	9.1	100.0 (11)
중학교	39.4	9.1	27.3	3.0	-	-	21.2	100.0 (33)
고등학교(인문계)	32.4	5.9	14.7	-	-	-	47.1	100.0 (34)
고등학교(실업계)	50.0	-	25.0	-	-	-	25.0	100.0 (8)

주: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니까,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⑦ 기타.

[부록 2]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 (학생용) 조사표 양식



승 인 번 호
제 0 6 0 2 1 호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예정시기)	2007년 1월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 (학생용)



고유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학교구분	학교특성	학년	반	응답자일련번호
1	2-3	4-6	7	8	9	10-11	12-14
1	※학생은 가입안함	※학생은 가입안함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인문계) ☐ ④ 고등학교(실업계)	☐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학생은 가입안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래세대의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학생이 응답한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응답해준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1

다음은 학생 본인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1. 학생은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 ① 남학생☐ ② 여학생

2. 학생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학생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구분	명
형/오빠	
누나/언니	
남동생	
여동생	

☞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모두 '0' 명으로 기입해 주세요.

3.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많은 편이다☐ ② 적은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모르겠다

4. 학생의 부모님은 살아 계세요?

☐ ① 모두 살아 계신다☐ ②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③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④ 모두 안계신다

5. 학생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 했거나 별거 중인가요?

☞ 별거란? 이혼하기 전에 따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요☐ ③ 부모님 중 한분만 살아계시거나 모두 안계신다

6. 학생은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주로 누가 학생을 키워주셨나요?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② 어머니☐ ③ 아버지☐ ④ 친할머니(외할머니)☐ ⑤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⑥ 형제자매☐ ⑦ 이웃☐ ⑧ 도우미 아주머니☐ ⑨ 기타

7. 학생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③ 중학교

☐ ⑤ 대학교

☐ ⑦ 모르겠다

☐ ② 초등학교

☐ ④ 고등학교

☐ ⑥ 대학원

☐ ⑧ 아버지가 안계신다

8.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 ① 학교를 안다녔다

☐ ③ 중학교

☐ ⑤ 대학교

☐ ⑦ 모르겠다

☐ ② 초등학교

☐ ④ 고등학교

☐ ⑥ 대학원

☐ ⑧ 어머니가 안계신다

9.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으세요?

☐ ① 중학교

☐ ③ 대학교

☐ ② 고등학교

☐ ④ 대학원

10. 현재 학생의 부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계세요?

☐ ① 두 분 모두 일을 하신다

☐ ③ 어머니만 일 하신다

☐ ② 아버지만 일 하신다

☐ ④ 두 분 모두 일을 안하신다

11. 학생은 현재 친할머니(외할머니) 또는 친할아버지(외할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12. 학생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집안형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⑤ 매우 못 사는 편이다

☐ ② 잘 사는 편이다

☐ ④ 못 사는 편이다

☐ ⑥ 모르겠다

13. 학생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 ① 불교

☐ ③ 천주교

☐ ⑤ 종교 없음

☐ ② 개신교(기독교)

☐ ④ 기타 종교



다음은 가족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14. 학생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님 중 한분만 계시는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 ② 좋은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나쁜 편이다 |
|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 ☐ ⑦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안계신다 | |

15.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세요?

- | | |
|---|---|
|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 ② 좋은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나쁜 편이다 |
| ☐ ⑤ 매우 나쁜 편이다 | ☐ 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 |
| ☐ ⑦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다 | |

16. 학생은 가족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아버지나 어머니가 혼자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양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입양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4) 사별(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이나 이혼 후에도 재혼을 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남녀가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흔히 친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일반적인 가족형태라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님 중 한 분하고만 사는 가정, 재혼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 형제자매들끼리만 사는 가정, 할아버지(할머니) 하고만 사는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17번과 18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7. 학생은 위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 |
|--|---|
| ☐ ① 다양한 가족형태도 일반적인 가족처럼 행복할 것이다 | ☐ ② 일반적인 가족이 아닌 경우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
| ☐ ③ 행복과 불행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다 | ☐ ④ 모르겠다 |

18. 학생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부모님의 별거·이혼·재혼이 많아져서 | ☐ ② 자녀의 교육을 위해 따로 살아야 해서 |
| ☐ ③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양직 돌아가셔서 | ☐ ④ 부모님의 맞벌이로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
| ☐ ⑤ 모르겠다 | |

다음은 학교에서 배운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19.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국어 | ☐ ② 도덕 |
| ☐ ③ 사회 | ☐ ④ 과학 |
| ☐ ⑤ 기술·가정(실과) | ☐ ⑤ 외국어(영어) |
|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 ⑧ 기타 과목 |
| ☐ ⑨ 배운적 없다 | |

20. 가족에 관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 | |
|---|--|
| ☐ ①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 | ☐ ② 가족의 형태와 구성원의 역할 |
| ☐ ③ 가족 의식주에 관한 내용 | ☐ ④ 가족 내 남녀 간 역할평등 |
| ☐ ⑤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화해 | ☐ ⑤ 가족과 이웃의 관계 |
| ☐ ⑦ 가족과 사회, 국가의 관계 | ☐ ⑧ 기타 |
| ☐ ⑨ 배운적 없다 | |

21. 수업시간에 가족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 | |
|---|--|
| ☐ ① 상상한 이야기라서 지루했다 | ☐ ②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 ☐ ③ 가족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 ☐ ④ 갈등 없는 이상적 가정 분위기만 다루고 있어 현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
|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 ⑥ 기타 |
| ☐ ⑨ 배운적 없다 | |

2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 ⑤ 모르겠다

2.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연령만 기입해 주세요)

- 1) 남자: 세
 2) 여자: 세

3. 학생은 결혼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안함	전혀 찬성안함
1)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결혼을 늦추거나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독신(혼자 사는 것)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결혼은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그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1)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2)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학생 본인은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 ☐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 ③ 모르겠다

5.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할 사람'의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3가지까지만 응답해주세요.

■ 첫 번째 중요한 것 () ■ 두 번째 중요한 것 () ■ 세 번째 중요한 것 ()

〈 보 기 〉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건강	③ 직업(직종 및 직업)
④ 경제력(소득, 재산 등)	⑤ 연령	⑥ 학력
⑦ 학벌(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	⑧ 성격	⑨ 믿음과 사랑
⑩ 종교	⑪ 금향	⑫ 형제순위(장남, 장녀 등)
⑬ 가정환경(부모님, 형제 및 친척 관계, 성장 배경)		
⑭ 출신지역(배우자 장인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⑮ 기타 조건
⑯ 조건 없다		⑰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하지 모르겠다



다음은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④ 모르겠다

7. 학생은 앞으로 자녀를 둘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 ☐ ② 가능하면 가지고 싶다
☐ ③ 별로 가지고 싶지 않다 ☐ ④ 전혀 가지고 싶지 않다
☐ ⑤ 모르겠다

8. 학생은 앞으로 몇 명의 자녀를 둘 생각하세요?

- ☐ ⑥ 0명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 ⑤ 5명 이상 ☐ ⑥ 모르겠다

9. 학생이 자녀를 둔다면 꼭 아들을 갖고 싶으세요?

☐ ① 예

☐ ② 아니요

☐ ③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

10.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대를 이어야 하니까

☐ ② 늙어서(노후에) 외롭지 않기 위해서

☐ ③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으므로

☐ ④ 부부관계가 더욱 좋아지니까

☐ 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보람이니까

☐ ⑥ 결혼하면 아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니까

☐ ⑦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

☐ ⑧ 기타

☐ ⑨ 모르겠다

☐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1. 학생은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1가지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 ② 부부간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까

☐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기타

☐ ⑧ 모르겠다

☐ ⑩ 자녀를 둘 생각이 없다(또는 결정하지 못했다)

12. 학생은 자녀에 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자녀가 있으면 늙어서(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9)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자녀의 교육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13. 학생은 학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란? 출산, 아이 돌보기, 교육 등을 말합니다.

☐ ① 예

☐ ② 아니요

14. 학생은 남자가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예

☐ ② 아니요



다음은 남녀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 일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안계신다

16.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집안일(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7. 일반적으로 부부 중 누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8.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① 전적으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② 대체로 부인이 해야 한다

☐ ③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 ④ 대체로 남편이 해야 한다

☐ ⑤ 전적으로 남편이 해야 한다

19. 학생은 부부의 역할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를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2) 몇몇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①	☐ ②	☐ ③	☐ ④

3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모두 응답해주세요.

- ☐ ① 생식기 구조, 이차성징 (월경, 몽정) ☐ ② 야성교제, 성관계, 혼전순경 ☐ ③ 피임방법
☐ ④ 임신, 출산 ☐ ⑤ 미혼모, 인공유산 ☐ ⑥ 성병, 에이즈
☐ ⑦ 기타 ☐ ⑧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 학생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 내용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⑥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 이외에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 ① 부모나 친인척 ☐ ② 형제자매 ☐ ③ 친구나 선후배
☐ ④ 비디오(CD, DVD) ☐ ⑤ 인터넷(동영상) ☐ ⑥ TV
☐ ⑦ 잡지, 만화 ☐ ⑧ 사회·종교단체(청소년단체, 교회 등)
☐ ⑨ 기타 ☐ ⑩ 없다

4. 학생은 성문제와 관련된 고민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고민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 ① 부모와 상담 ☐ ② 형제자매와 상담 ☐ ③ 학교선생님과 상담
☐ ④ 상담전문가와 상담 ☐ ⑤ 친구나 선후배와 상담 ☐ ⑥ 성교육 관련 책
☐ ⑦ 인터넷 또는 PC 통신 ☐ ⑧ 혼자 해결 ☐ ⑨ 기타 방법
☐ ⑩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⑪ 고민할 적 없다

5.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구 분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피임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2) 인공유산의 부작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 (인공유산이란? 임신한 경우 아이를 낳지 않고 일부를 없애는 것)	☐ ①	☐ ②	☐ ③	☐ ④
3) 생리, 아이즈 예방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4) 남녀의 신체적 구조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5) 임신 및 출산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6. 학교에서 출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에 배웠는지 모두 응답해 주세요.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교과 외 시간) ☐ ⑧ 기타 과목
☐ ⑨ 배운적 없다

7. 출산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난 후, 학생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1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 ① 아는 내용이라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 ② 생명의 탄생 과정을 알게 되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③ 출산과 육아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 ☐ ④ 출산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⑤ 아무 생각이 안들었다 ☐ ⑥ 기타
☐ ⑦ 배운적 없다

8. 학생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급적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킬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9.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① 반드시 지켜야 한다 ☐ ② 가급적 지켜야 한다 ☐ ③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지킬 필요가 없다 ☐ ⑤ 모르겠다

10. 학생은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 ① 낳아야 한다 ☐ ②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우에만 낳는다
☐ ③ 낳아서선 안 된다 ☐ ④ 모르겠다

11. 학생은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나요?

- ☐ ① 현재 교제 중이다 ☐ ② 교제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없다 ☐ ③ 교제 한 적이 없다

 다음은 현재 자녀를 적게 낳는 사회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 글을 잘 읽고 학생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란에 ☒를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 12번, 13번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12.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 ①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어서 ☐ ② 늦은 결혼으로 출산의 시기를 놓쳐서
☐ ③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 ④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 ⑤ 자녀를 키우는 일에만 열매이고 싶지 않아서 ☐ ⑥ 기타

13.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 주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 ①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다툼
일이 줄어들 것이다 ☐ ② 나라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 ③ 공해가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 ④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 ⑤ 식량과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 ⑥ 우리가 세금을 지금보다 많이 내야 할 것이다
☐ ⑦ 기타

14.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① 예 ☐ ② 아니요



15. 학생은 아이를 적게 낳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요

16. 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학생도 응답해 주세요

☐ ① 매우 좋을 것 같다

☐ ② 좋을 것 같다

☐ ③ 싫을 것 같다

☐ ④ 매우 싫을 것 같다

☐ 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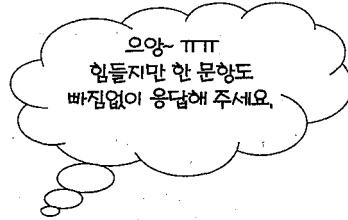
17. 학생의 부모님이 노인이 되면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② 가족이 돌봐야 한다

☐ ③ 사회나 국가가 돌봐야 한다

☐ ④ 모르겠다



4

다음은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함	전혀 찬성함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8)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①	☐ ②	☐ ③	☐ ④
9) 여자가 판사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학생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중요함	대체로 중요함	별로 중요 않음	전혀 중요 않음
1) 편안한 생활	☐ ①	☐ ②	☐ ③	☐ ④
2) 풍요로운 물질생활	☐ ①	☐ ②	☐ ③	☐ ④
3) 더불어 사는 삶	☐ ①	☐ ②	☐ ③	☐ ④
4)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	☐ ①	☐ ②	☐ ③	☐ ④
5) 자유로운 생활	☐ ①	☐ ②	☐ ③	☐ ④
6) 인간에 대한 사랑	☐ ①	☐ ②	☐ ③	☐ ④
7) 화목한 가정	☐ ①	☐ ②	☐ ③	☐ ④
8) 여가생활	☐ ①	☐ ②	☐ ③	☐ ④
9)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	☐ ①	☐ ②	☐ ③	☐ ④
10)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	☐ ①	☐ ②	☐ ③	☐ ④
11)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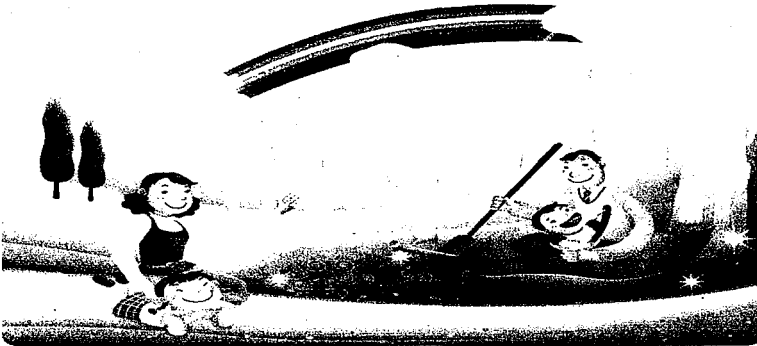
조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락처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l@khasa.re.kr

[부록 3]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 (교사용) 조사표 양식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공표(예정시기)	2007년 1월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 (교사용)



고유번호	시도명	시군구명	학교구분	학교특성	학년	응답자일련번호
1	2-3	4-6	7	8	9	10-11
2	※기입 안함	※기입 안함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인문계) ☐ ④ 고등학교(실업계)	☐ ① 남학교 ☐ ② 여학교 ☐ ③ 남녀공학		※기입안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사말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결혼·자녀·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약 130개 초·중·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선생님께서 제직 중인 학교가 표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 이 곳에는 가입 안함

CARD

01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 내용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를 해 주세요.

1.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심각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 내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학교교육에서 출산이나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필요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다음은 현재 출산(인구포함)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4. 현재 선생님께서는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 ① 예(☞ 41번으로 가시오) ☐ ② 아니오(☞ 5번으로 가시오)

☐

※ 4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4-1에서 4-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 교과서 내용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

4-2.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합하다 ☐ ② 적합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합하지 않다

☐

4-3.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②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

4-4. 교과서에 제시된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한 편이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4-5. 교과서의 출산(인구 포함)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

4-6.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④ 내용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 ⑦ 애로 사항이 없다

☐

다음은 가족에 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5. 현재 선생님께서 가족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 ① 예(☞ 5-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6번으로 가세요)

※ 5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5-1에서 5-6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2.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합하다 ☐ ② 적합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합하지 않다

5-3.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소재가 시대성이나 현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 ② 반영하고 있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반영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5-4.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 관련 내용의 분량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5.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다룬 삽화, 사진, 도표 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적절하지 않다

5-6. 가족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④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 ⑦ 애로 사항이 없다

다음은 향후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6. 학교교육에서 출산(인구 포함)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 ⑧ 기타

7. 학교교육에서 가족 관련 가치관 교육은 어느 시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실과) ☐ ⑥ 외국어(영어)
☐ ⑦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 ⑧ 기타

8. 학교교육에서 출산 친화적 가치관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초등학교 저학년부 (1학년~3학년) ☐ ② 초등학교 고학년부 (4학년~6학년)
☐ ③ 중학교부터 ☐ ④ 고등학교부터

9. 학교교육에서 가족 친화적 교육은 언제부터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초등학교 저학년부 (1학년~3학년) ☐ ② 초등학교 고학년부 (4학년~6학년)
☐ ③ 중학교부터 ☐ ④ 고등학교부터

10. 출산(인구 포함)에 관한 교육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출산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 ☐ ② 저출산의 원인,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개선 한다
- ☐ ③ 현재의 교육내용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
- ☐ ④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출산 장려나 산아 제한과 같은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11.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교과 간 내용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 ☐ ② 특정 가치가 주입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 ☐ ③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④ 시대성과 사회성을 반영해야 한다
-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12. 앞으로 출산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교사가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실시 한다
- ☐ ② 교과 교육과정 운영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 ☐ ③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교과 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를 개발하여 보급 한다
- ☐ ④ 출산 및 가족 친화적 내용이 담긴 독서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 ⑤ 기타 ☐ ⑥ 모르겠다

다음은 성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3. 현재 선생님께서는 성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 ① 예(☞ 13-1번으로 가세요) ☐ ② 아니오(☞ CARD 02의 1번 문항으로 가시오)

※ 13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신 분만 13-1에서 13-5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선생님께서는 타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13-2.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적절하다 | ☐ ② 적절한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 ☐ ⑤ 전혀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 |

☐

13-3. 교과서에 제시된 성교육 관련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적합하다 | ☐ ② 적합한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 ☐ ⑤ 전혀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 |

☐

13-4.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필요하다 | ☐ ② 필요한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필요하지 않다 |
|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13-5. 성교육에 관한 수업을 하실 때 애로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 | | |
|--|---------------------------------|
| ☐ ① 내용이 진부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 |
| ☐ ② 수업에서 활용할 보조 지도 자료가 부족하다 | |
| ☐ ③ 현실이나 교사의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있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스럽다 | |
| ☐ ④ 성에 관한 태도나 가치관을 재미있게 지도할 수 있는 수업방법을 잘 모른다 | |
| ☐ ⑤ 기타 | ☐ ⑥ 모르겠다 |
| ☐ ⑦ 애로사항이 없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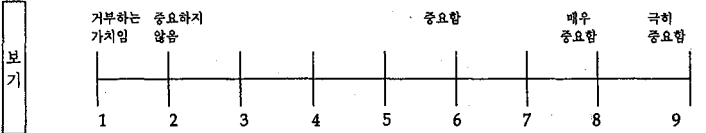
☐

다음은 일반적 가치 측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CARD

02

선생님은 아래에 제시한 가치들을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를 거부한다면 1점을 골라주시고,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면 2점 극히 중요다면 9점으로
할 때 선생님은 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 치	점 수
1) 평등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함)	
2) 사회적 권력 (타인에 대한 통제, 지배)	
3) 자유 (행동과 사고의 자유)	
4)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5) 권위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권리)	
6) 사회 정의 (불의를 바로 잡음, 약자를 보살핌)	
7) 독립성 (자기 자신을 믿음, 자족적임)	
8) 야망 있음 (무엇을 이루고자 갈망하고 열심히 일함)	
9) 마음이 넓음 (나와는 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대해 관대함)	
10) 환경보호 (자연을 보존하기)	
11) 정직 (거짓 없음, 진실함)	
12) 도움이 됨 (타인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	
13) 성공 (목표를 달성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다음은 양성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 분	매우 찬성함	대체로 찬성함	별로 찬성 안함	전혀 찬성 안함
1) 남자들이 부업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3)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4)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5)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6)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7)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8)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9)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0) 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1)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12)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3)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 ①	☐ ②	☐ ③	☐ ④
14) 여자가 판·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 ①	☐ ②	☐ ③	☐ ④
15)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6) 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17) 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18) 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19) 여자가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20)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 ①	☐ ②	☐ ③	☐ ④

다음은 결혼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선생님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 ① 반드시 해야 한다 ☐ ② 하는 편이 좋다
☐ ③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하지 않는 게 낫다
☐ ⑤ 모르겠다

☐

4.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 ☐ ②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 ③ 자녀를 갖기 위해서 ☐ ④ 부모의 가정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 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 ⑥ 사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 ⑦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 ⑧ 기타
☐ ⑨ 모르겠다

☐

5. 선생님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 1) 남자: 세
 2) 여자: 세

6. 선생님은 남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7. 선생님은 여자가 35살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

다음은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8.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자녀 양육 시간의 부족 ☐ ② 직장 일과 가정 일의 이중 부담
☐ ③ 부부간의 대화 시간 부족 ☐ ④ 직장 일에 전념하기 어려움
☐ ⑤ 직장에서의 눈치와 불이익 ☐ ⑥ 문제 없음

☐

9.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 두어야 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 ☐ ① 출산 ☐ ② 직장 ☐ ③ 모르겠다

10. 일반적으로 교직이라는 특성이 다른 직업보다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아니다 ☐ ⑤ 전혀 아니다 ☐ ⑥ 모르겠다

다음은 자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 11-1번으로 가세요) ☐ ② 대체로 그렇다 (☞ 11-1번으로 가세요)
☐ ③ 아니다 (☞ 11-2번으로 가세요) ☐ ④ 전혀 아니다 (☞ 11-2번으로 가세요)
☐ ⑤ 모르겠다

⑤번을 선택하신 경우 'CAPD 03'의 1번으로 가세요.

※ 11번 문항에서 ①, ②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 자녀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부부의 유대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 ② 노후에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 ③ 보살피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 ④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이다
☐ ⑤ 생의 의욕을 주기 때문이다 ☐ ⑥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 ⑦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 ⑧ 기타

※ 11번 문항에서 ③, ④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자녀를 두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 ② 부부만의 시간과 행복이 줄어들까
☐ ③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 ④ 자녀가 힘든 공부를 하게 되므로
☐ ⑤ 자녀가 학교나 사회에서 왕따(체벌)를 당할까 염려 되어서
☐ ⑥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 ⑦ 기타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CARD
03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① 남자 ☐ ② 여자

☐

2. 선생님의 담당 교과는 무엇입니까?(중·고등학교 교사만 응답해 주세요)

- ☐ ① 국어 ☐ ② 도덕 ☐ ③ 사회
☐ ④ 과학 ☐ ⑤ 기술·가정 ☐ ⑥ 외국어(영어)
☐ ⑦ 기타 ☐ ⑧ 비해당(초등학교 교사)

☐

3. 선생님의 교직 경력은 몇 년 되셨습니까?

() 년

4. 선생님께서는 출산 경험이 있으십니까?(남자 선생님의 경우 배우자)

- ☐ ① 있다 (☞ 4-1번으로 가세요) ☐ ② 없다 (☞ 5번으로 가세요)

☐

※ 4번 문항에서 ①번을 선택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선생님 자녀의 주 양육 형태는 무엇입니까?

- ☐ ① 본인 및 배우자 ☐ ② 친인척 ☐ ③ 육아도우미
☐ ④ 육아지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등) ☐ ⑤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출산자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기타 ☐ ④ 모르겠다

☐

6. 가족 형태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매체를 통해 가족형태(한 부모 가정, 재혼 가정 등)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② 다양한 가족형태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형적인 가족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③ 변화된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편이다
☐ ④ 기타 ☐ ⑤ 특별히 생각해 본 적 없다

☐
☐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에 관한 궁금한 모든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연락처 : 02 - 380 - 8182 02 - 380 - 8264	1004phil@kihasa.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7-02 통계승인번호 제06021호
협동연구 2006-01-2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재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

2006 National Survey on Values of Marriage, Children,
and Gender Equality for the Youth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10,000 원

저 자 이 삼 식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385-1 93330

ISBN 978-89-8187-383-7 93330(전6권)